

# 五放 최흥종 평전

최협 저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4

# 五放 최흥종 평전

최 협 저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 출판 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 책머리에

〈오방 최흥종 평전〉의 집필은 나에게서는 할아버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낯선 길이였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과는 거의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할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내 기억 속에 단지 몇 조각의 영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할아버님께서 증심사 계곡의 초막과 음성나환자와 결핵 환자들의 자활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시다 임종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인고의 세월을 닳은 데서 견디어 낸 당신의 일생을 함축한 이 짧은 한마디는 내가 두고두고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이 평전은 나에게 하나의 숙제처럼 남아있던 그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듬어본 기록이다.

오방 선생 평전의 집필은 선생이 그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대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선생은 자신의 일기나 설교집을 남기지 않았다. 그가 여러 인사와 나눈 편지도 남기지 않았고, 그가 받은 그림마저도 남에게 주어버렸다. 따라서 최흥종과 관련된 몇 편의 연구는 주로 교회나 교단의 회의록, 선교사의 편지와 회보, 신문 기사, 재판기록, 그리고 지인들의 회고담 등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행적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이나 철학을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답(未踏)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예외가 있다

면 오방 선생이 남긴 몇 편의 글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소수의 논문이 존재할 뿐이다.<sup>1</sup> 이런 점에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가 육필로 남긴 원자료들을 발굴하여 분석의 지평을 넓혀가는 후속 연구를 모색해 나가는 일이다. 여기 펴내는 평전은 그러한 후속 작업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이다.

평전의 집필에는 많은 분의 논문이나 글들이 큰 참고가 되었지만, 특히 차종순, 한규무 교수와 임락경 목사의 글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4년 9월

최 협

---

1 안수강, 「최흥중(崔興琮) 목사의 기도관 분석-그의 “心の宗教”(1922)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019, pp. 245~268.

## 차례

머리말 • 3

### 제1부 | 운명 • 9

최흥종의 출생 • 10

시작은 미약하였다 • 11

방향과 모색 • 14

포사이드 선교사와의 만남 • 17

최흥종과 송일학교 및 YMCA의 인연 • 25

이승만의 광주송일학교 강연과 학생 Y의 시작 • 27

1910년대 북간도, 시베리아 지역 선교의 필요성 • 31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다 • 36

어린이와 청년 전도 • 37

### 제2부 | 참여 • 39

3·1운동에 참여하다 • 40

출옥 후의 활동 1920 ~ 1921 • 49

북문밖교회 목사 임직 • 53

1922년,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되다 • 62

광주 YMCA 회장, 금정교회 목사에 임하다 • 71

광주나병원에서 여수 애양원으로 • 75

다시 시베리아로 - 좌절의 시간 • 81  
신간회 활동 • 85  
1929년, 제주도 모슬포교회 목사로 • 89

### 제3부 | 동행 • 97

나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오다 • 98  
나환자를 위한 전국적 조직의 가동 • 101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나환자 정책 • 111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朝鮮癩患者救濟研究會)의 유산 • 117  
다시 광주로, 그리고 궁민(窮民)구제연구회의 결성 • 122  
계유구락부(癸酉俱樂部)의 탄생 • 127  
계유구락부의 주요 활동 • 129  
광주 YMCA의 농업실습학교와 체육 교실 • 135

### 제4부 | 성찰 • 143

과도기적 현상·혼돈 속에서 홀로 서다 • 144  
기억되는 두 가지 행적: 걸인 급식과 경양방죽 보전 • 154  
증심사 계곡 五放亭의 자유인 • 158  
광주 의학전문학교(醫專) 설립을 도움 • 166  
해방과 건국준비위원회와 미군정 전남도지사 고문회 • 168  
광주 YMCA의 재건 • 172

### 제5부 | 비움 • 175

오방정(五放亭)에서 바라보는 세상 • 176

白凡 金九와의 만남 • 179  
빨치산과의 조우 • 182  
변함없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삶 • 184  
음성 한센인 자활촌 <나주 호혜원> • 185  
결핵 환자의 요양소 <송등원과 무등원> • 196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 • 208  
오방 선생의 삶이 주는 교훈 • 214

연보 • 222

부록 • 225



제 1 부

운 명

## 최흥종의 출생

최흥종(崔興琮)은 1880년 5월 2일 전라도(全羅道) 광주목(光州牧)<sup>2</sup> 부동방면(不動坊面) 서문외(西門外) 지역(현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에서 태어났다. 최흥종의 부(父)는 최용진(崔溶鎭)으로 字는 學信이고 號는 敬宇로 국(鞠裕獻) 씨 부인과의 사이에 2남 2녀를 두었는데 흥종은 차남이다. 흥종은 만 5세 때 모친을 잃고 형 영선(泳善) 씨도 일찍 사망하여 계모인 공(孔末慈) 씨 슬하에서 두 누이와 함께 자랐다. 공(孔) 씨 부인은 1891년 흥종의 이복동생 영욱(泳旭)을 낳았다. 그리고 흥종은 스무 살이 되던 1900년 강재섭(姜在涉)의 장녀 강명환(姜明煥)과 결혼해 5녀 2남을 두었다.

최흥종의 가계(家系)는 耽津崔氏 遜庵公派에 속하는데 집안에 대대로 전해오는 派始祖의 이야기는 信義와 忠節에 관한 것으로 후손 교육의 핵심이었다. <耽津崔氏遜菴公派世譜>에는 손암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고려 말 도첨의(都僉議)의 벼슬에 있던 손암공께서는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자 杜門不出하시며 방문객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던 중에 牧隱과 陶隱 선생이 찾아오니 눈물을 흘리며 다음의 五言詩를 남기셨다. 春雨過西山, 蕨芽向人翠, 夜深不能寢, 空隨哀安淚. “봄비는 西山을 지내고, 고사리 싹은 나를 향해 푸르구나, 밤은 깊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노라.” 이 시에 나오는 서산은 중국의 首陽山을 가리키는데, 수양산은 중국 은나라의 충신 伯夷와 叔齊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은거하며 고사리를 먹고 지내다가 굶어 죽었다는 유명한 산이다. 따라서 이 오언시는 은거하며 고사리를 먹을지언정 충절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

2 광주 의 행정구역상 명칭은 조선의 8道제하에서 光州牧으로 불리다가 1896년 13道제로 바뀌면서 光州郡으로, 1910년 光州面, 1931년 光州邑, 1935년 光州府로 변경되었다가 1949년 光州市로 승격했다.

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sup>3</sup>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집안의 자라나는 자녀들이 삶의 자세를 다듬어가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을 터이다.

최흥중은 손암공의 17대 孫으로 유교적 가르침과 신의(信義)를 중시하는 가풍 안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어릴 적 서당교육을 받은 흥중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그가 16세 되던 해인 1895년에 돌아가신 탓에 방황하는 사춘기를 거쳤다고 한다. 그래서 젊은 시절 흥중은 광주(光州郡)의 이름난 ‘주먹’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sup>4</sup> 청소년기의 거칠고 반항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유복한 집<sup>5</sup>에서 자란 젊은 시절의 흥중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가 24세 되던 해에 개명(改名)할 만한 일이 발생한다.

흥중의 초명(初名)은 영종(泳琮)이었는데 그가 이름을 흥중(興琮)으로 개명한 데는 기독교와의 만남이 작용하였다. 그래서 흥중의 의미 있는 삶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가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1904년부터 시작된다. 1904년은 흥중이 이미 결혼한 지 4년이 지난해로서 이제 인생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시기였다.

## 시작은 미약하였다

최흥중이 태어난 1880년은 조선의 낡은 봉건왕조가 몰락하고 거센 개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변혁의 출발점이었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500년을 이어온 조선 사회가 1884년 갑신정변을 시작으로, 동학농

---

3 『耽津崔氏遜菴公派世譜』 1989년, pp. 33~34.

4 최흥중의 젊은 시절에 대하여는 1976년 당시 전남매일신문의 문순태 기자가 8월 2일부터 25회에 걸쳐 〈人物開化〉라는 題下에 연재한 〈五放 崔興琮 목사〉 이야기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5 최흥중이 1912년 나환자를 위한 병원을 짓기 위해 자신 소유의 봉선동 땅 1,000평을 기증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가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다.

민운동, 갑오개혁을 거치며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와 문명개화파(文明開化派)의 대립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교조적인 성리학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려는 청년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언저리에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찾아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민주, 인권, 자유, 과학적 사고 같은 새로운 가치를 소개하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있었다. 조선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선교사는 1885년에 들어와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신(新)교육을 시작한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일깨워 준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였다. 전라도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될 미국 남(南)장로교 선교사들은 1893년 조선에 온 드루(Alessandro Damer Drew, 유대모)를 시작으로 유진 벨(Eugene Bell, 배유지, 1895년 입국), 클레멘트 오웬(Clement C. Owen, 오기원 또는 오원, 1898년 입국), 윌리 포사이드(Wiley H. Forsythe, 보위렴, 1904년 입국)의 순서로 인천에 속속 도착했다.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은 각각 목포, 나주, 전주 등지를 다니며 선교지 선정을 위한 탐색 활동에 나섰다. 광주를 본격적 선교지로 선택해 활동을 개시한 사람은 배유지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유진 벨이었다. 남장로교 선교회는 1904년 2월 목포에서 개최된 모임에서 광주에 선교부를 개설할 것을 합의하고 배유지와 오기원(Owen) 선교사에게 사전 답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답사 후 목포 선교부의 김윤수(金允洙, 1860-1919) 집사에게 양림동 부근의 땅 56,000평을 매입하여 배유지 목사와 오기원 의사(醫師) 선교사의 사택 건축에 착수하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광주에서의 선교 활동이 본격화된 해가 1904년이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집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광주의 터

죽대감 최흥종이 현장을 찾아가 김윤수와 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서울 출신 김윤수는 1884년 갑오경장으로 탄생한 근대식 경찰인 대한제국 경무청(警務廳) 총순(總巡)의 신분으로 1897년 목포로 발령을 받고 내려와 목포에서 양조장까지 경영하며 지역의 유지로 행세하던 사람이었다.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기독교에 귀의한 계기는 그의 노모가 손에 악성 종기가 생겨 고통을 겪을 때 의료선교사 오기원(Owen) 목사가 보여준 정성 어린 치료와 헌신적 삶의 태도에 감화를 받은 경험이었다. 기독교적 사랑의 가르침에 눈을 뜬 김윤수는 그가 41세가 되던 1900년, 사업은 물론 공무직도 버리고, 선교사 조사가 되어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함으로써 주위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sup>6</sup> 그러한 김윤수는 체격도 장대하고 언변을 갖춘 데다 인물도 흰칠하여 사람을 압도하는 기품이 있었다. 김윤수를 만난 흥종은 곧 그의 신실한 인품에 이끌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김윤수를 수시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는 가운데 영종은 김윤수가 들려주는 그의 인생 경험과 종교의 메시지에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변화가 서서히 찾아왔다. 김윤수 집사의 깊은 신앙심이 영종의 마음에 울림을 준 것이다. 훗날 이 두 사람은 1912년, 광주 최초의 교회인 북문안교회의 초대 장로로 함께 임직 되는 역사를 만든다.

1904년 12월 15일 배유지(Eugene Bell) 목사와 오기원(Clement C. Owen) 의사의 집이 완공되었다. 배유지 목사, 오기원 의사, 그리고 김윤수 집사의 가족은 12월 19일 목포에서 출발하여 12월 21일 광주에 도착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마침 일요일이었기에 그날 광주에서

---

6 『예수교회보』 1912. 10. 22. 또한 한국에서 12년간 선교 활동을 한 Anabel Major Nisbet이 1920년 미국 Virginia의 Richmond에서 출간한 *Day in and Day out in Korea* (Published by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p. 65 참조.

의 첫 예배를 배유지 목사 집에서 가졌다. 예배 전날 목사 부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여러 집을 개별 방문하여 초청 의사를 밝혔다. 배유지 목사의 부인은 이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크리스마스 날, 11시가 되도록 조사들과 가족밖에는 없었다. 그러다가 밖을 보니 하얀 옷을 입은 긴 줄이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부인들은 한쪽 방으로 그리고 남자들은 다른 쪽 방으로 안내하였고, 배유지 목사는 문에서 서서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선한 의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물론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왔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은 아니었다.”<sup>7</sup>

바로 이 역사적인 광주에서의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최흥종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고 흥종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아직 일생을 바칠 직업에 대한 구상도 없었다. 그러나 20대 중반에 접어든 최흥종은 그의 생활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했다.

## 방향과 모색

최흥종이 첫 예배에 참석한 1904년, 그는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1900년에 결혼식을 올린 후 일 년 뒤, 첫딸 숙이를 얻었고 다음 해 8월에는 둘째 딸 민희가 태어나 가장의 책임이 더해졌다. 무언가 가족을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였다. 1905년 최흥종은 그의 첫 일자리로 광주군(光州郡) 경무청의 순검(巡檢)을 택했다. 이러한 선택에는 지난 1년 동안 양림동 선교사 촌(村)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김윤수의 영향이 컸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귀의한 김윤수는 과거 총순(總巡)을 지

---

7 Mrs. Margaret W. Bell, ‘Opening work at Kwangju’. *The Missionary*, June 1905. pp. 301~302.

낸 목포의 부유한 유지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20년이나 연상인 김윤수의 삶은 최흥종에게는 훌륭한 역할 모범이 되었다. 1976년 최흥종에 대한 취재를 위해 그 당시 생존해 있던 많은 수의 최흥종의 지인들을 인터뷰한 문순태 전남매일신문 기자에 따르면 1905년 순검에 응시할 즈음부터, 그리고 순검 시절에도 최흥종은 배우지 목사와의 김윤수 집사를 불쑥불쑥 밤늦은 시간에도 자주 찾아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상의했다고 한다. 이즈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결심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름을 흥종으로 바꾼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2년을 넘기지 못한 대한제국(大韓帝國) 순검으로서의 최흥종의 구체적인 행적은 구두로 전해오는 일화(逸話)들만 남아있어 검증이 어렵다. 이 문제는 역사학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일 것이기에 근대사를 전공한 한규무 교수의 분석을 소개한다.

“그가 붙잡힌 의병들을 몰래 풀어줬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순검인 그가 안규홍의 부하 12명을 화순에서 압송하던 중 몰래 풀어줬으며, 순창에서 총살 직전의 의병 6명을 감옥에서 풀어줬고, 의병 백낙구·이백래·임창모 등이 수감되었을 때 따뜻하게 돌봐줬다는 것이다. 또 의병장 채기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리 그에게 알려줘 도망치게 했으며, 보성의 의병장 임창모의 부하 10여 명도 계책을 세워 살려줬고, 의병장 백낙구와는 감방에서 부둥켜안고 통곡했다고 한다. 체포된 의병 12명 또는 10여 명을 압송 도중에 달아나도록 도와주고, 투옥된 의병 6명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했는데도 그가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는다. 또 호남 의병 관련 자료나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이들 의병들이 활동한 시기와 지역은 최흥종이 순검으로 있던 시기 및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다소의 과장·미화·윤색을 감안한다 해도, 최흥종이 의병들에게 호의적 태도를 갖고 후원한 것은 인정해도 좋을 듯하다. 이처럼 민족의식을 갖고 있던 그가 계속 순검을 하기는 힘들었고, 결국 1907년 사직했는데 그 계기가 국채보상운동이었다고 한다.”<sup>8</sup>

최흥종이 2년을 못 채우고 1907년 순검을 사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순검 생활은 만족스러운 경험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최흥종의 순검 사직의 이유로는 1907년 2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sup>9</sup>을 단속하라는 그의 상사의 명령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907년 3월에 순검 신분인 최흥종이 당시 광주지역의 국채보상운동 관련 단체의 하나인 「全南光州大同義償會」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사임은 국채보상운동과 관련 있음이 확실하다. 즉 『황성신문』 1907년 3월 29일 자의 기사 「報償發起人及趣旨一束(續)」을 보면 “光州郡에서 徐丙翼·崔興琮氏等 八人이 大同義償會를 發起호얏더라”는 부분이 있어 그의 이름이 확인된다. 최흥종은 국채보상운동 단체의 발기인이었고, 그다음 후속 기사에서는 40전을 기부한 것으로도 나온다. 이러한 사건 얼마 뒤 그의 사임이 이루어졌기에 그의 사임과 국채보상운동을 둘러싼 모종의 갈등이 원인이었으리라는 추정이 합리성을 갖는다. 참고로 덧붙일 사항은 대동의상회(大同義償會)의 발기인으로 최흥종과 함께 이름이 나온 서병익이란 인물에 관한 것이다. 서병익은 1905년 ‘을사오적’을 성토하는 격문을 만든 경력이 있고 1924년 4월 창립된 ‘조선노동총동맹’의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한 인물이다.<sup>10</sup> 이처럼 항일활동 경력이 확실한 서병기와 함께 순검 신분의 최흥종이 1907년 대동의상회를 조직했다는 점은, 그 역시 이 무렵 항일적 성향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순검을 사직한 최흥종은 그해 7월 농공은행에 입사했으나 농공은행

8 한규부, 「오방 최흥종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2011, pp. 208~209.

9 일본에 진 나랏빚을 국민이 갚자는 범국민적인 모금 운동.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10)』,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8, p. 107.

의 일이 일본인의 대금업체임을 알고 2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고 찾아간 곳은 북문 안 예배소였다. 그는 배우지 목사와 밤늦도록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는 배우지 목사의 권면으로 세례를 받았다. 최흥종이 세례교인(洗禮敎人)이 된 것이다. 그 후 세례교인 최흥종이 택한 일은 광주 선교진료소(제중병원) 의사로 1908년 부임한 윌슨(Robert M. Wilson, 우월순)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 겸 의료조수였다. 최흥종이 이후에는 생활인으로서의 다른 직업을 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즈음 그는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한 일종의 결심이 확고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최흥종의 일상은 교회와 병원에서 일하며 배우고, 예배와 기도에 익숙해지는 나날이 되었다.

## 포사이드 선교사와의 만남

최흥종은 그가 24세였던 1904년 12월 25일 유진 벨 선교사의 집에서 열린 광주 최초의 예배에 참석한 후 형식상 기독교에 귀의하였으나, 그가 참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는 1909년 포사이드(Wiley. H. Forsythe)<sup>11</sup>라는 의료선교사가 길가에 쓰러져있는 나환자(癩患者)<sup>12</sup> 여인에게 베푸는 진심 어린 행동을 목격한 뒤였다.

---

11 포사이드(Wiley Hamilton Forsythe)는 1873년 미국 켄터키주 헤로스버그에서 태어나 프린스턴 대학(1894)과 루이빌 의과대학(1898)을 졸업하고, 1904년 8월 10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의료선교사로 파송되어 입국했다. 호남지방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친 포사이드는 1905년 전북지방에서 강도의 피습으로 중상을 입고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 후 1907년 한국에 다시 돌아와 활동하였으나 건강이 끝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 1911년 치료차 다시 미국으로 갔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45세가 되던 해인 1918년 소천하였다.

12 '나환자'라는 용어는 1980년대 말부터 나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출신 학자 한센의 이름을 따 '한센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당 시대에 통용되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최흥종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 일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1909년 4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지방에서 간호사인 부인과 함께 선교 및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하던 오웬(오기원) 선교사가 급성 폐렴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위급상황을 맞았다. 그런데 광주의 의료선교사 월슨은 외과 의사였기에 목포 선교부의 내과 의사인 포사이드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도움 요청을 받고 목포에서 광주선교회의 진료소(나중의 제중병원)로 가던 포사이드 의료선교사는 남평을 지나 금당산 부근에 이르러서 한센병(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 함)에 걸려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피고름이 엉겨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자 바로 자신이 타고 오던 조랑말에서 내려와 그 여인을 끌어안아 자신의 말에 태우고 병원까지 왔다.<sup>13</sup> 최흥종은 그 당시 광주선교회의 진료소에서 월슨(Robert M. Wilson) 병원장의 통역 겸 조수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포사이드를 마중 나갔고, 이때 문둥병 여인이 지팡이를 땅에 떨어트렸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최흥종에게 그 지팡이를 집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름 묻은 지팡이를 보며 선입견 때문에 최흥종은 선뜻 응하지 못하고 크게 망설인다. 주저하던 속인(俗人) 최흥종은 포사이드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았다. 그때의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최흥종은 40년과 50년쯤 뒤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13 포사이드는 안타깝게도 오웬 선교사가 4월 3일 사망한 하루 뒤인 4월 4일 광주에 도착했다. 1909년 당시 영산포는 목포와 해상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목포에서 영산포까지의 교통 수단으로는 주로 水路(배)가 선호되었기에 이미 선운회사라는 선박회사가 영업 중이었다. 영산포처럼 해상 교통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해안을 따라 배를 이용하는 것이 육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짐도 쉽게 나를 방법으로 여겨졌기에, 배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포사이드 역시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여정이 영산포까지 배로 온 뒤 광주에서 보낸 말을 타고 남평을 거쳐 금당산 부근을 경유하는 방식을 취했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참조: 최흥종, 『救癩 사업 50년 사 개요』, 『호남신문』 1960. 3월 17~20일.)

“聖포사잇의 사랑의 빛은 너무도 강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더워지고 손은 진땀에 젖었습니다. 나는 감격 그대로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의 聖포사잇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룩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부흥을 받아 일생을 결정짓도록 된 것입니다.”<sup>14</sup>

“교회 집사로 있으면서 제법 믿는다고 하던 나였는데 사랑이라는 眞美를 깨닫지 못하고 포사이트선교사의 그와 같은 愛的 행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 동포 중에서 생겨난 환자를 같은 동포인 내가 꺼려야 하고 멀리 千萬里 異域에서 온 외국인이 오히려 따뜻한 손길을 펴주시고 있으니 예수님의 박애정신은 고사하고 동포애조차 결여한 인간으로서 무슨 신앙이나 하는 자책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sup>15</sup>

최흥종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 극적인 장면을 광주 YMCA의 총무를 지내며 최흥종을 옆에서 오랜 기간 지켜보았던 김천배는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했다. “피고름이 범벅이 되어있는 나환자의 지팡이를 내려다보며 민족적 수치감과 나환자에 대한 증오와 운명적 해우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주저의 한순간이 흘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뜨거운 감동의 파도가 최집사의 전신을 엄습하였다. 그는 땅에 떨어진 지팡이를 덱석 주어 환자의 손에 쥐여 주었다. 의사와 환자가 기와막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최흥종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일그러져있었다, 초여름의 대낮의 태양은 무서운 열기를 뿜고 있었다. 그러나 최집사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내리는 냉기에 떨고 있었다. 한 變身이 이룩되는 순간이었다. 변화된 최흥종의 존재는 광주 사회에 큰 충격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문둥이와 기거

---

14 광주 YMCA 회보 『빛의 아들』 1950년 1월호.

15 최흥종, 「救癩 사업 50년 史 概要」, 『호남신문』 1960. 3. 17.

를 같이하고 행려병자를 업어 나르는 그의 거동에서 사람들은 한 성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병원의 복도에서, 저자의 거리에서, 친지의 사랑방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과 의미를 이야기하였다.”<sup>16</sup>

포사이드의 행동에서 예수의 모습을 본 최홍종은 충격과 수치와 참회와 감흥의 격렬한 내적 경험을 통해 한센인을 형제로 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날 이후 포사이드의 주도로 광주제중병원에서 시작된 나환자 치료에 뛰어난 최홍종은 환자 치료에 성심성의를 다해 봉사하는 한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나환자들을 위해 1911년에는 제중병원장과 함께 양림동에 세 칸짜리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해 남자 환자 7명을 수용하도록 조치했다. 이것이 한국 최초 한센병 전문병원인 ‘광주 나(癩)병원’의 전신이었다. 1912년에 최홍종은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현재의 봉선동)에 있는 자신의 땅 1,000평을 기증하여 민간이 설립한 최초의 나환자 진료소를 건설했다. 그가 일생을 통해 한결같이 실천한 섬김과 나눔의 시작이었다. 그의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행동은 후일 최홍종이 도모하는 모든 일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그가 몸담고 사는 사회가 신민(臣民)사회의 구각(舊殼)을 벗고 시민(市民)사회로 성장해 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진료소가 시설을 갖추자 1917년 조선총독부는 ‘광주 봉선리 나병원’을 정식병원으로 인가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포사이드와의 만남을 계기로 새사람으로 거듭난 기독교인 최홍종이 죽는 날까지 동행하며 관심을 보인 섬김의 대상은 지난 세기 초 가장 심각한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던 나(癩)환자들이 되었다.

---

16 김천배. 「물이 포도주되어」,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년 12월. pp. 161~162.

나환자를 돌보는 일에 열중하는 최흥종의 모습은 우월순(Wilson)의  
료선교사의 1913년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11월 15일은 (=1912년) 광주 인근의 불쌍한 나환자들에게는 기쁜 날이었다.  
26명의 불쌍한 나환자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주하였다.... 우리는 나환자촌 감독  
관으로서 최 선생(Mr. Choe)을 맞이하여 참으로 기쁘다. 그는 지역교회의 장  
로로서 지난 4년 동안 병원에서 나의 첫 번째 조수로 일해왔었으므로 이 일에  
참으로 적합한 인물이다. 그는 특히 나환자들에 관하여 특별한 공부를 하기를  
원했다. 그는 다양한 약을 투여하여 치료에 대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병이 진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알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있다. 그는 오늘 26명에게 피하주사를 주었다. 우리는 새로운 약을 실험하고  
있으며, 어떤 환자는 완전히 좋아졌다고 한다.”<sup>17</sup>



(제중병원에서 월슨원장 바로 옆에서 그의 수술을 돕고 있는 최흥종)

광주 나(癩)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몰두하면서 1912년 광주  
북문안교회의 장로가 된 최흥종은 월슨(Wilson) 원장의 협력을 받아

---

17 R.M. Wilson, “Dedication of Kwangju Leper Home”, (Brief Notes of Annual Meeting in Korea). *The Missionary Survey*. January, 1913.

나병원 안에 환자들의 예배를 위한 교회를 세웠다. 이 특수교회에서 행한 최홍종의 개종에 관한 간증은 나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최홍종은 나환자를 위한 이 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1919년까지 세례교인 90명에 한 명의 장로를 세울 정도로 활성화시켰는데, 『조선 예수교장로회 사기(下)』에 이 특수교회의 설립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1912년 광주군 봉선리 교회가 설립되다. 先時에 선교회 의사 우월순이 나병자 이십여 인을 산곡에 집합하고 의약으로 치료할 새 선교사와 제중원 사무원 최홍종과 이만준이 삼 년간 전도하여 신자를 얻어 교회가 설립게 되니라.”<sup>18</sup>

한센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극심했던 시절 광주나병원은 이처럼 치료에 더하여 기독교적 사랑을 나누는 기관이었기에 환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진심 어린 관심과 돌봄은 환우들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었다. ‘광주나병원’이 진료를 개시한 1년 뒤인 1913년 11월 ‘영국 나환자 선교협회’<sup>19</sup>의 베일리 부부(Mr.& Mrs. Bailey)가 광주의 병원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구절이 나온다.

---

18 『조선예수교 장로회 史記(下)』한국교회사학회, 1968, p. 171.

19 1874년 아일랜드 선교사인 베일리(Wellesley Bailey)가 인도에서 설립하여 인도의 나환자 구제사업을 시작했는데, 1905년에 사업지역을 아시아로 확장했다. 그 후 다시 The Leprosy Mission(TLM)으로 명칭을 바꾸고 아메리카대륙과 아프리카대륙 등 전 세계에서 한센병 구제사업을 전개했다. 한국에서는 이 단체를 그 본부가 런던에 있어 ‘大英救癩直教會’로 불렀다.

“배유지 목사는 한 사람의 나환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33명을 교리문답 교인으로 받아들였다. …문답 도중에 한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는 나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배웠으므로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베일리씨는 가련한 장님 나환자를 찾아 위로하였더니 그 나환자가 ‘나는 19년 동안 마음과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동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sup>20</sup>

20세기 초 한센병 환자들이 조선 사회에서 박해받으며 절망 속에서 헤매던 시기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올 수 있겠는가! 베일리 부부가 남긴 이상과 같은 기록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한센병 환자들에게, ‘광주 나(癩)병원’에서의 예배를 통한 사랑의 치유가, 기적(奇蹟)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달해 준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흥종이 기증한 땅에 세워진 봉선동 나병원)

20 *The Missionary Survey*. March. 1914. pp. 224~225.



(봉선동 나병원. 선교사 존 크레인(John C. Crane, 구레인) 목사 부인의 그림)

이즈음 최흥종이 몸담고 있던 ‘북문안교회’의 신도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1908년의 125명에서 1909년엔 250~300명 그리고 1910년엔 400명으로 2배,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참고로 최흥종은 1912년 신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김윤수와 함께 장로에 임직되었다. <경건신학연구소>의 한인수 소장은 “1909년 최흥종의 ‘거룩한 변신’이 광주 사회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그것은 곧장 그가 속한 북문안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한·일 합방 이후 전국의 교회가 대체로 침체 현상을 보이던 시기에 북문안교회가 한국인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활기 있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최흥종과 김윤수 같은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건재했기 때문이었다”<sup>21</sup> 고 분석했다.

21 한인수, 「호남교회 형성 인물: 최흥종 목사」, 『호남교회춘추』 제11호 1999년. p. 19.

## 최흥종과 송일학교 및 YMCA의 인연

광주에서 근대교육의 시작이 되었던 광주송일학교는 1908년 배유지 목사의 구(舊)사택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학교의 운영에 있어 송일학교 고등부의 운영은 선교부에서, 그리고 초등부(심상부)의 운영은 북문안 교회가 담당했다. 즉 초등부 교사들의 월급을 북문안교회가 감당했던 것이다. 바로 이를 책임지는 북문안교회의 재정담당이 김운수, 최흥종 두 장로였다. 김운수와 최흥종 장로는 북문안교회의 청장년회(靑長年會)를 이끌며 송일학교 심상부(=초등부)의 운영과 재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예수교회보』 1913년 (1월 28일-2월 4일)의 기록이다.

“광주는...남녀학교가 설립되어 학도가 백 십여 명 이온데 고등부는 미션회에서 주관하고, 심상부는 본 교회에서 주관하여 교사 월봉을 자발하오나 심상부를 완전히 확장할 자본금이 없어...마침 감사절...북문안 예배당에서 연보한 물건을 대금으로 계산하니 50여 원이 되었더라...소학교 기본금에 대한 특별연보를 더 하자고 회집한 형제 9인 중에서 연보한 금액이 600원이라...이튿날 저녁에 본 교회 집사 최재익씨 집에서...김운수 장로가 회장으로 승좌하고 최흥종장로가 취지를 설명한 후 연보한 것을 공포하니 200원에 달한지라 전후 연보를 합계하니 850원이외다.”<sup>22</sup>

여기에 언급된 850원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한다. 차중순의 분석에 따르면 1913년 한국인 순검의 월봉이 9원 50전이었으므로 850원은 순검 한 사람의 90개월 월급에 해당한다. 이 급여로 당시 7~8명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으므로, 요즈음의 가치로 환산하면 월 300만 원 x 90개월 = 2억 7천만 원가량 된다.<sup>23</sup> 이러한 재정부담

---

22 『예수교회보』 1913년 1월 28일 & 2월 4일.

의 비중이 말해주는 것은 물론 송일학교 운영에 있어 북문안교회의 한국인 신도들의 참여와 관심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흥종 장로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북문안교회의 교인이었던 배재학당 출신 교사 남궁혁<sup>24</sup>과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는 사이였기에 송일학교 운영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광주송일 학교에 학생 YMC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그의 관심이 작용하였다.



1911년 송일학교 심상과와 고등과 학생들, 교사(셋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최흥종. 학생 Y 창립회원이자 최흥종의 동생인 최영욱도 확인된다.)(건물 사진은 최초의 학교 건물)

23 차중순, 「오방 최흥종과 무등산」,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 광주문화재단. 2019년. p. 77.

24 후일 평양신학교의 한국인 최초의 교수가 된 남궁혁은 최흥종의 弟嫂 김필례의 조카 김함라의 남편이 된다.



(초기 송일학교 교사 및 관련 인사 사진: 앞줄 맨 오른쪽이 최흥종; 출처:송일학교 홈페이지)

### 이승만의 광주송일학교 강연과 학생 Y의 시작

북문안교회의 집사(執事)와 장로(長老)로서 미션스쿨(mission school)인 송일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가운데 최흥종은 한국 사회에 얼마 전 소개된 YMCA의 사회복음운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1911년 당시 황성(서울) 기독교 청년회(YMCA)의 총무 겸 학생부 담당 간사는 1910년 10월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갓 귀국한 이승만 박사였다. 마침 송일학교는 교과목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상(思想)이나 이상(理想)을 일깨워주는 연사들의 초청 강연프로그램을 운영했기에 이승만을 초청하여 YMCA의 기독교 사회복음운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다행히 송일학교에는 이승만의 지인들이 있었다. 최흥종과 송일학교 운영에 힘을 합쳤던 남궁혁이 이승만과 같이 배재학당을 다닌 동기생이었고, 그에 더하여 송일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남대리(Rev. LeRoy T. Newland) 선교사는 이승만이 공부한 프린스턴대학의 동창생이었다.

송일학교는 그들을 통해 이승만을 초청했고 초청은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그 당시 인구 1만여 명(1912년 1만 431명)의 지방 도읍 광주에는 철도<sup>25</sup>가 놓여 있지 않아 서울에서 오려면 상당한 거리를 말 또는 나귀를 타고 와야 했다. 며칠이 걸리는 여정이라 쉬운 길이 아니었는데도 5월 11일 이승만은 약속을 지키느라 조랑말을 타고 광주에 도착해 남대리(L.T. Newland) 송일학교 교사의 집에 여장을 풀고 학생들 앞에 섰다.<sup>26</sup>

이승만 박사의 강연은 상당한 충격을 남겼다. 청년 이승만은 1896년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그가 23세의 청년이었던 1898년, 독립협회 주최로 종로에서 월남(月南) 이상재<sup>27</sup>선생의 사회로 열린 한국 최초의 시

---

25 1911년에는 이리(익산)까지의 철도도 아직 공사 중이었다. 광주 최초 철도는 1913년 가을, 송정동에 놓였다. 경성-목포 간 철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1913년에야 노령터널 난공사 뒤 정읍과 나주가 11월에 연결되었다. 송정과 광주의 철도 연결은 1922년이다.

26 『광주 YMCA 90년사(1920~2010)』, 2010. p. 90.

27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1850~1927) 선생은 한국 YMCA의 핵심 인물이다. 1902년 이른바 개혁당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을 때,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석방된 뒤 함께 감옥에 있었던 김정식(金貞植)·유성준(兪星濬) 등과 함께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 가입하여, 초대 교육부장이 되어 민중계몽에 투신하였다. 1910년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무단정치를 강행하며, 1913년에는 어용단체인 유신회(維新會)를 동원하여 청년회를 파괴하였고, 이 때문에 간부들은 축출·구금·국외추방 당하거나 국외 망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상재는 1913년 총무에 취임, 사멸 직전의 청년회를 사수하였으며, 1914년에는 재일본 조선 YMCA를 비롯한 세브란스·배재·경신과 개성의 한영서원, **광주의 송일**, 군산의 연맹, 전주의 신흥, 공주의 연맹 등 학생 YMCA를 망라한 조선기독교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모든 민간단체는 해산되는 동시에 집회·출판·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였으나, 오직 YMCA만은 해산당하지 않고 튼튼히 서 있음으로써 국내의 유일한 민간단체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였다. 또한, 3·1운동에 연루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특히 3·1운동의 무저항·비폭력의 혁명운동 정신을 이루어 놓았다. 1920년부터는 YMCA의 명예 총무 또는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1920년 미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내한하였을 때, 이른바 제2 독립운동·물산장려운동·소년 척후대(보이스카우트) 운동·학생청년회 운동 등 YMCA 운동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각종 강연회·토론회·일요강좌·농촌운동·지방 순회 강연 등 폭넓은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1922년에는 신흥우(申興雨)·이대위(李大偉)·김활란(金活蘭)·김필례(金弼禮) 등 YMCA 대표단을 인솔하여, 북경에서 열린 세계 학생 기독교 청년연맹대회(WSCF)에 참석하여 한국 YMCA가 단독으로 세계 YMCA 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상재(李商在))]

민사회포럼이라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에서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조선의 독립과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소리 높여 외쳤던 개혁과 개혁의 선두 주자였다. 군주제의 조선에서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주창한, 매우 개혁적이며 급진적인 열혈 청년이었던 이승만은 1899년 황제폐위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 후 종신형으로 감형받았다가 1904년 러일전쟁으로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자 특사로 석방되었다. 출옥 후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대학에서 공부한 뒤 1910년 10월에 귀국하였기에 당시로써는 드물게 세계사적 흐름을 꿰뚫는 안목을 갖춘 연사였다. 따라서 그의 강연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보편적 가치에 청년 학생들이 눈을 뜨도록 자극했으며, 조선의 젊은이들이 장차 독립된 국가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부연하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단지 복음을 믿는 데에만 머물지 말고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는 일에 관심을 두도록 강조한 것이다. 이승만 박사의 강연은 바로 기독교 정신과 사회운동이 만나는 청년 YMCA 활동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다. 같은 '북문안교회'의 교인이었던 최흥종과 남궁혁도 공감을 나누는 사람 중 하나였기에 모두의 의견을 모아 몇 달 뒤 광주숭일학교에 학생 YMCA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숭일학교 운영에 깊이 관여해 온 최흥종도 이를 계기로 YMCA 운동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

이상재 선생의 주요 경력 중 최흥종 선생의 그것과 만나는 지점은 YMCA 활동, 3·1운동 참여 그리고 신간회 초대 회장을 지낸 부분이다. 최흥종 선생 역시 광주숭일학교 학생 YMCA와 광주 YMCA 창설에 관여하고, 3·1운동 참여, 신간회 광주 지회장을 지냈다. 또한, 이상재 선생이 1922년 오방 선생의 제수(弟嫂)인 김필례 여사와 북경에서 열린 세계 학생 기독교 청년연맹대회에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1911년 12월 초순 최흥종의 동생으로 송일학교 제1회 입학생이었던 학생 최영욱을 필두로 정호룡, 장맹섭, 조정환, 최기현 등이 모여 광주송일학교 학생 YMCA가 창설 되었다(송일학교 1911년 입학생 최윤상 씨 회고). 참고로 이때 광주송일학교 학생 YMCA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 최영욱은 나중에 의사가 되어 광주 YMCA의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1935년 광주 YMCA의 제6대 회장으로 봉직했고,<sup>28</sup> 정호룡은 의열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나섰으며, 장맹섭은 후일 모교의 교사로 남아 후배를 가르쳤다. 또 조정환은 미국유학 등으로 견문을 넓힌 후 그가 송일학교 교정에서 강의를 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內閣)에서 제4대 외무부 장관이 되었다. 참으로 많은 인재가 여러 갈래로 성장하고 있었다. 여하튼 송일학교 학생 YMCA가 활동을 시작하자 서울에서 이상재, 김필수, 신희우 등이 학생 Y 지원에 나섰고, 때때로 그러한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해 강연회 등을 갖거나 전국 학생 춘령회(1914년) 같은 모임을 통해 연대 활동의 역량을 키워나갔다.<sup>29</sup> 이러한 활동이 나중에는 3·1운동까지 이어져 송일학생들의 독립운동 참여에 밑거름이 되었다. 더 나아가 북문안교회 출신인 최흥종 장로가 3·1운동으로 인한 옥고를 치르고 나오자 만세운동에 참여한 송일학교 Y 출신 인사들과 북문안교회 교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1920년 광주 기독교 청년회(YMCA)를 창립하고 최병준 장로(송일학교 교사, 북문안교회 장로)를 초대 회장으로 세웠다. 의향(義鄉) 광주의 근대 기독교 시민사회운동 및 청소년운동의 기반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

28 최영욱의 부인 김필례는 1922년 조선 YWCA와 광주 YWCA를 연이어 설립한다.

29 참고: M. L. Swinehart, "First impressions in Korea". *The Missionary Survey*, March 1912, pp. 376 -377에 광주송일학교에서 Stanford 대학 총장 Dr. Jordan과 이승만 박사의 강연이 언급되고 있음. 또한, 1914년에는 경성 YMCA의 이상재 총무가 일제의 청년회 파괴 공작에 맞서기 위하여 재일본 조선 YMCA를 비롯한 세브란스·배재·경신과 개성의 한영서원, **광주의 송일**, 군산의 연맹, 진주의 신희, 공주의 연맹 등 학생 YMCA를 망라한 조선기독교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였다.



(광주 학생 Y를 주도한 최영욱과 조선 YWCA를 설립한 김필레 부부의 미국 유학 시절 1925년경 사진. 최영욱은 Emory 대학 의과대학, 김필레는 Columbia 대학 교육학부에서 수학.)

## 1910년대 북간도, 시베리아 지역 선교의 필요성

광주 ‘복문안교회’가 지원하는 ‘송일학교’에서의 학생 YMCA의 출범은 기독교 정신의 사회현실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개입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도들이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지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파악 과정에서 조선 청년들의 상상과 체험의 영역을 비집고 들어온 지역이 바로 북간도와 연해주 같은 자유와 방랑과 혁명의 제3지대였다. 이 시기 북간도와 연해주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다툼 가운데 국경마저 유동적이어서 19세기 말 이래 조선인의 이주가 자유로운, 그래서 어찌 보면 국제정세와 우리 국력의 신장 여하에 따라 독립운동의 기지, 더 나아가 미래의 우리 강토가 될 수도 있는 희망의 땅, 가능성의 땅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농업이 어려운 변방 지역으로 간주하여 관심 밖의 지역이었던 연해주는 원래 청나라 땅이었으나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로 바뀌었는데, 조선조 말 흉작 등으로 기근이 발생하면 함경도 부근의 조선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러시아 땅이 되기 전 1850년대에도 연해주에는 상당수의 조선 인구가 존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30</sup> 인구 유입은 그 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20세기 들어 한일합방(韓日合邦)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주나 북간도 지역으로의 대량 이주는 더욱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시베리아 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된 1905년 직전엔 조선인 수가 러시아인보다 많았다고 전한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본격화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연해주 지역의 한인사회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가 일부 뜻있는 인사들에 의하여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예를 들면, 1910년대 최초의 거국적인 독립운동단체였던 신민회(新民會)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단체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민족정신이 투철한 한인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조직화함으로써 일제의 세력권 밖에서 한민족의 거점을 만들어 독립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했다. 이러한 국외 독립운동 기지로서 유력한 후보 지역이 흔히 북간도, 연해주, 또는 러시아에 인접한 만주 지역을 포함한 통칭 시베리아의 일부분이었다. 실제로 1910년대에는 서간도(남만주)에 신흥무관학교, 북간도의 용정과 명동에 서전서숙(瑞甸書塾),

---

30 Roman Tsirolev. "Settler colonialism and nation building in the Russian Far East: early stage of colonization, 1860-1890s". Draft paper for the workshop *Pacific Russia*, Bielefeld, 26-27. 2018. ; Habecker, David Eugene, *Ruling the East: Russian urban administration and the Chinese, Koreans, and Japanese in Vladivostok, 1884-1922*.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2003.

명동학교(明東學校), 국민회군(國民會軍)이 있었고,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신한촌, 新韓村)에도 독립운동 기지가 세워졌다. 연해주에서는 1910년 8월 일제의 한국병합을 저지하기 위한 항쟁 기관으로 이상설, 유인석 등이 성명회(聲鳴會)를 조직하여 반대 운동에 나섰고, 1911년에는 연해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진 비밀결사체인 권업회(勸業會)가 조직되어 민족교육을 위한 한민학교(韓民學校)와 독립운동 사상 최초의 사관학교인 대전학교(大甸學校)를 설립하였다. 권업회는 이어 1914년에는 정통령을 이상설로, 부통령을 이동휘로 하여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를 수립하였다가 일본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의 정부에 의해 해산되고 지도자들은 추방당했다. 그러나 한인 자치공동체의 강한 전통을 이어받아 설립된 '전로한족중앙총회'(全露韓族會中央總會)가 1919년 2월 25일에 '대한 국민의회'를 조직함으로써 임시정부의 꿈을 되살렸으며, 이는 후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통합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북간도와 연해주 지역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 연대를 통해 지탱시켜야 하는, 지금은 해외이지만, 그 당시 전망으로는 미래에 우리나라 일부가 될 수도 있는 희망의 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흐름과 미래의 가능성을 그 당시의 여느 청년들과 함께 최후종은 꿰뚫고 있었다. 초기 한국 YMCA가 지향한 사회복음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가 시베리아 선교에 뜻을 품고 도전을 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던 만큼, 1910년대에는 종교계에서도 만주와 시베리아의 한인(韓人)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10년대의 러시아는 1905년 '피의 일요일'로 상징되는 러시아 제1차 혁명 이래 정정이 불안하여 외국인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1912년 9월 평양에서 소집된 제1회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 기록을 보면 러시아의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해삼위(海參崴) 전도는 사세 부득이하와 정지하옵고 최관호 목사의 시무도 그 만두었으며...해삼위 매서로 보낸 이자순, 신윤희 양 씨는 그곳에서 전도 하옵다가 아라사(俄羅斯: 러시아의 한자 표기 중 하나)관리에게 핍박을 당하여 간히기를 한 달 동안이나 하고 이수 되기를 세 번이나 하였는데 고상을 다 말할 수 없습네다.”<sup>31</sup>

사정이 이러할진대 1913년 8월 10일 목포 양동교회에서 열린 제3차 전라 노회에서 최흥종 장로는 시베리아 선교사 파송을 헌의(獻議)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sup>32</sup> 그런데도 그는 한 달 뒤인 9월 경성 소안동 예배당에서 개최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회 총회에 전라 노회 대표로 참석하여 또다시 시베리아 선교사를 청원하였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33</sup> 그는 왜 이렇게 러시아로의 선교를 열망했을까?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독교에 입문한 뒤 광주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인물을 만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가운데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크게 넓혀갔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최흥종은 결국 1922년과 1927년 두 차례에 걸쳐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되는 꿈을 기어이 실현하는데, 그때 러시아 성경을 가지고 떠날 정도로 오래전부터 독학으로 러시아어 공부를 하며 준비한 것으로 보아 시베리아로의 여정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여하튼 시베리아 선교 활동에 대한 시도를 제외하면 1919년 3·1운동 참여 이전까지 1910년대 최흥종은 우월순(Wilson) 원장의 조수로 제중병원에서 근무하고, 나환자의 치료와 목회, 북문안교회의 장로직 수행, 송일학교지원사업, 확장주일학교의 관리, 그리고 1915년에 입학

---

31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록』, 1912. p. 18. (참고: 海參崴: 중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만주어 만주어(Haišēnwai)에서 유래된 해삼위라 부른다)

32 『전라노회록』, 1913. p. 25.

33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록』, 1913. p. 15.

한 평양신학교에서의 수업을 위해 평양을 오가는 일 등으로 나름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흥종은 1915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17년 새로 시작된 북문 밖 예배처를 주관하는 전도자가 된 후에도 교회 일 외에는 ‘광주나병원’ 일을 가장 중요한 주업으로 여기며 나병원에 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 1924년까지 ‘광주나병원’ 교회의 세례교인은 386명으로 늘어났으며 1925년에는 성서 학교까지 운영되는 등 꾸준히 내실을 더해나갔다.



(1910년대 제중병원에서 월슨원장의 조수로 근무할 때의 사진)



(북문안교회의 확장주일학교 학생)(출처: 광주 제일교회 홈페이지)

###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다

시베리아 선교사 파송 시도가 무위로 끝나자 최홍중은 신학교 진학을 결심한다. 이제 나이 30 중반에 들어선 그로서는 인생의 진로를 전문 분야에서 확고히 다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물론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했다. 그동안 병원에서 우윈순(Wilson) 의료선교사의 조수로 일하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온 그에게 의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었기 때문이었다. 최홍중은 1916년 당시 『기독신보』라는 신문에 ‘광주나병원에서 치료에 임하는 사람은 최홍중 장로다’<sup>34</sup>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널리 인정을 받는 의료인이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되라는 권유를 곧잘 받았다. 그 시절 의사가 되는 길은 의학전문학교 졸업 외에도 병원에서 일정 기간 조수로서 실무 경력을 쌓으면 의사면허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또는 병원에서의 경

34 광주나병원 근무 활동에 관한 기사. “병원(주: 광주나병원)을 주관하는 의사는 알 엠 윌슨 씨요 조선 형제로 이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식히이는 이는 최장로 홍중씨라.” 『기독신보』 1916. 1.26.

력을 가지고 의학전문학교로의 진학도 가능했다. 그러나 그에게 포사이드가 보여준 ‘예수의 길’은 하나의 숙명이었다.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그는 노회(老會)에 평양신학교 입학을 청원하였으며, 노회는 최흥종의 집사, 장로와 전도사의 경력을 인정해 허락을 내렸다. 최흥종은 1914년 8월 15일 제4회 전라 노회에서 평양신학교 입학 허락받아 1915년 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의 길에 들어섰다.

## 어린이와 청년 전도

당시 평양신학교는 매년 3개월씩 신학교에서 수업하고, 나머지 달에는 자신의 교회나 교구에서 활동하는 5년제 교과과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최흥종은 평양신학교의 수업이 없는 9개월 동안 광주와 지방에서 과거부터 해오던 의료와 교회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즈음 그가 특히 열정을 쏟은 일 중의 하나가 나환자 돌봄 이외는 어린이 전도와 ‘확장주일학교’ 봉사의 일이었다.

북문안교회에서의 어린이 전도 사업은 스트레퍼(Miss Frederica Straeffer)라는 여선교사가 담당하다가 1906년 건강 악화로 귀국함에 따라 동료선교사 부인들의 손을 거쳐 김윤수 집사가 책임을 맡았다. 1908년부터는 우월순(Robert M. Wilson), 서로득(M.L. Swinehart) 두 사람이 참여하여 양림동 거주 어린아이들을 위해 주일날 오후에 송일학교 강당에서 또 한차례의 예배를 드렸더니, 매우 많은 숫자가 모였다. 그래서 고안해 낸 방식이 <확장주일학교>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즉 주일날 오후에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팀을 구성하여 순회 방문하는 예배형식이었다. 현재 자료에 남아있는 명칭을 열거하면 소태실, 지양, 남사, 진다리, 누문동 지역이 있다. 최흥종 장로는 누문동 지역 확장주일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누문동 지역의 확장주일학교는 북문밖

에 초가집을 마련하여 열심히 전도하였고, 이 모임이 어린이와 부모들이 합해진 예배처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송일학교 출신의 젊은이들이 마음과 뜻이 통하는 최흥종 장로를 따라 북문 밖 예배처에 모여들었다.<sup>35</sup> 그의 헌신과 열정이 사회 곳곳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 바로 이 확장주일학교로 시작된 북문 밖 예배처가 1921년에 최흥종이 광주에서 최초로 한국인 목사가 되어 부임하는 <북문밖교회>가 된다.

---

35 출처: 차중순. (미발간 원고), 「손수레에 몸을 싣고 : 오방 최흥종 목사의 생애」

제 2 부

참 여

### 3·1운동에 참여하다

#### 김마리아와 2.8 독립선언문

1919년은 최홍종의 투철한 민족정신이 드러나는 해가 되었다. 3·1 운동이 그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은 최홍종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동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인물은 김마리아(金瑪利亞, 1891~1944)이다. 3·1운동 발발 이전인 2월 8일 동경에서 일본 유학 중인 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1918년 말경, 동경 유학생 독립단에 가담한 후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여학생 김마리아는 일본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뒤 독립선언문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 기모노 복장을 하고 대한해협을 건너 2월 18일 광주로 왔다. 광주로 오는 길에 들린 부산에서는 마침 중국 상해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던 그녀의 큰 고모부 서병호(徐丙浩, 1918년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창당)와 셋째 고모인 김순애(김규식의 부인)를 만날 수 있었다. 이때 김순애의 남편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해에서 파리로 출발한 상태였다. 그리고 서병호와 김순애는 신한청년당<sup>36</sup>의 방침에 따라 국내의 독립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입국한 것이었다. 김마리아<sup>37</sup>가 광주로 온

---

36 우드로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발표 이후 서병호는 1918년 11월 상하이에서 김규식(金奎植), 선우혁(鮮于燦), 신재호, 신성모, 신규식, 신석우, 여운형, 이광수, 장덕수(張德秀)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하였고 그 당수에 서병호가 추대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신한청년단(新韓靑年團))]

37 2월 18일 광주에 들른 김마리아는 수피아학교의 교사로 있던 김합라와 김필례의 주선으로 교직원과 간호사들을 초대하여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그런 다음 2월 21일에는 서울로 가서 황애덕(黃愛德)·박인덕(朴仁德)·신준려(申俊勵) 등을 만나 동경 2·8독립선언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성 독립운동의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계, 기독교계, 천도교계의 지도자들도 만나 재일 동경 남녀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보고하면서 국내에서의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촉구했다. 3·1운동이 발발한 날에도 황해도 봉산(鳳山)과 신천(信川) 등지를 돌며 지방 여성들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최홍종이 대한문 앞에서 체포된 3월 5일에 김마리아는 모교인 정신여

이유는 광주에 그의 언니 김함라와 고모 김필례 여사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김함라와 김필례에 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다. 김함라는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 그의 남편은 남궁혁으로 남궁혁은 광주 숭일학교 교사 겸 복문 안 교회 장로로 일하면서 최흥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실제로 3월 5일 저녁 광주에서의 독립 만세운동을 모의할 때 남궁혁은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고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옥고를 치르게 된다. 김마리아의 고모 김필례는 최흥종의 동생 최영옥의 부인이며, 그 한 해 전인 1918년에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의 치치하얼(齊齊哈爾)에 살다가 출산(出産)과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 광주로 온 터였다. 최영옥과 김필례가 치치하얼로 간 이유는 최영옥의 세브란스의전(醫專) 선배이자 김필례의 큰 오라버님인 김필순(金弼淳)<sup>38</sup>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을 그곳에서 개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에 도착한 김마리아는 김함라가 교사로 있는 수피아

---

학교 학생들과 함께 남대문 역 앞에서 격렬한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가 학생들의 배후 지도자로 지목되어 붙잡혔다.

김마리아는 경무총감부에서 혹독한 고문과 조사를 받은 뒤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 감옥으로 이감된다. 6개월의 시간 동안 선생은 갖은 고문을 받았지만 이를 이겨내고 8월 4일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 활동 폭을 넓혀갔다. [출처: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 38 김필례의 큰오빠인 김필순(金弼淳)은 세브란스의전 1회 졸업생으로 안창호(安昌浩, 1878~1938)와 의형제를 맺고 전 국민은 무장세력의 양성과 군비를 갖추며 독립운동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을 함께하고는 1907년에 신민회를 조직하여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1911년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이동녕(李東寧, 1869~1940)·전병현(全秉鉉) 등과 함께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기지의 개척에 힘썼다. 그 뒤 내몽골 치치하얼(齊齊哈爾)에 병원을 열어 부상당한 독립군을 치료하고, 병원을 독립운동가의 연락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수입을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기부하였다. 또한, 수십만 평의 토지를 구입하고서 100여 호의 한인들을 이주시킨 뒤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후방 기지로 개척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日帝 특무 요원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조수가 준 우유를 마신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1919년 9월 1일에 순국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필순(金弼淳))]

여학교에서 등사기를 고모인 김필례의 집으로 가져와 2.8 독립선언문을 다량 복사하여 다음의 거사를 준비했다. 그는 선언문의 일부를 광주에서의 배포를 위하여 남기고 나머지를 2월 21일 서울로 가져가 서울과 황해도 봉산과 선천 등지를 돌며 독립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활용했다. 김마리아는 최홍종이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한 3월 5일 자신도 서울로 돌아와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다음날 체포되었다.<sup>39</sup>

### 김필수 목사와 김철

3·1운동 직전인 2월 하순 최홍종은 서울에서 내려온 김필수 목사를 만난다. 이 자리에는 최홍종이 가장 신뢰했던 북문안교회 교인 김철이 동석했다. 당시 『기독신보』의 주필이었던 김필수 목사<sup>40</sup>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3·1운동을 계획할 때 참여한 인물로 금강 이남 지역 3·1운

39 이송숙, 정혜순, 이정숙 외 2인 역음. 『김필례: 그를 읽고 기억하다』. 열화당. 2019년. pp. 75~76.

40 추강(秋岡) 김필수(金弼秀)는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금강 이남 지역 3·1운동을 배후에서 주도한 비밀 지도자였다. 그는 1919년 2월 하순에 광주로 내려가 광주의 성자로 유명한 오방 최홍종과 김철 등을 만나 거사를 협의했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궁내부 합판을 지낸 인물이자, 1909년에 북촌 안동교회를 세운 박승봉(1871-1933)의 계동 135번지 집에서 3·1운동을 계획할 때, 그 자리에 김필수도 있었다고 한다.

『현순 자사(自史)』 2월 19일 자 기록을 보면, 남문 밖 제계원 약방 주임 이갑성의 집에서 이승훈, 함태영, 이갑성, 안세환, 오기선, 박희도, 현순, 김필수가 모여 독립운동을 논의했다고 기록한다. 1919년 2월 19일 현순 목사는 당시 <기독신보> 사장인 김필수 목사의 권유로 3·1운동 모의에 참여 하였다. 다음날 함태영 목사 등 운동 지도부는 영어를 잘하는 현순 목사를 상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3·1운동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마침내 2월 24일 현순은 가족들을 남겨둔 채 용산역을 떠나 3월 1일 상해에 도착,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서방 세계에 타전하였다.

김필수는 전라도 광주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대전 3·1운동과 이후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1919년 당시 북감리회 구역이었던 대전제일교회에서 홍성구역을 담당하는 유급 권사로 일하던 이명제는 김필수의 비밀연락을 받고 당진, 예산, 서산 등지에서 만세 시위를 한 뒤 중국으로 망명해 임시 정부에서 활동했다.

3·1운동 참여를 반대한 것으로 유명한 윤치호도 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4일 일기에서 이상재, 김필수, 오기선(1877-1946, 감리교목사)이 그날 아침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출처: <https://4history.tistory.com/23>]

동을 배후에서 주도한 비밀 지도자였다. 김필수 목사는 황성(서울) YMCA의 12인 창립 이사(1903), 조선장로회 전라 노회 초대 노회장(1911), 1912년에 창립된 장로회 총회의 4대 총회장이자 첫 한국인 총회장(1915) 등을 역임하면서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최흥종 장로와 교분이 깊었기에 3·1운동 참여와 전국적 연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광주에 왔다. 김필수와 최흥종의 논의는 3·1일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이 단발로 끝나는 운동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확산하는 봉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맞추어졌다. 따라서 3·1일 이후 광주에서의 만세운동을 조직화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김필수 목사와의 회동 후 최흥종과 김철은 광주의 위장결사체 <삼합양조장> 조직의 최한영과 북문안교회의 남궁혁 장로에게 은밀히 만세운동 계획을 알렸다. 그들은 서울에서 시작될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속하도록 광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서울 만세운동의 상황 파악과 선언서 등의 자료 확보 등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광주에서의 만세 시위 날짜를 3월 8일로 잡았다. 그리고 최흥종과 김철은 김필수와 상의 끝에 상경하여 서울의 상황을 살피고 전국적인 연대움직임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 3월 2일 담양 출신 동경 유학생 국기열의 소개로 청량리에서 당시 경성의전(京城醫專) 학생이었던 광주 출신 김범수 등과 만났는데, 김범수는 최흥종에게 경성에서의 전반적 상황과 3월 5일 경성 학생들 중심의 2차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sup>41</sup> 서울에 계속 남아 여러 사람을 접선하고 각종 선언문 등 광주 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지내는 가운데 3월 5일 최흥종은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 중심가로 나갔다. 그런데 남대문과 대한문 앞으로 모여드는 군중이 지도자가 없어 응집

---

41 박해현 지음. 『의사 김범수 연구』, 도서출판 선인. 2020. p. 104.

력이 약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자, 이를 독려하기 위해 인력거 위에 올라가 민족자결에 대해 연설을 하며 만세의 대열에 앞장서게 된다. 이에 최흥종이 체포되었고, 이를 목격한 김철은 필요한 자료를 챙겨 곧바로 광주로 내려와 남궁혁, 최한영, 서정희 등을 만나 광주의 거사를 차질 없이 준비했다. 이때 김철이 가져온 자료는 <독립선언서>, <敬告我二千萬同胞>, <宣言書(최팔용(崔八鏞) 외 10인 서명)>, <국민대소집청원서>, <독립가> 등의 인쇄물이었다.<sup>42</sup>

### 체포와 심문

체포된 최흥종은 종로경찰서에서 폭력이 동원된 가혹한 심문을 받았다. 문초 형사의 심문 초점은 왜 광주사람이 서울에까지 와서 만세대열에 합류했느냐였다. 무슨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내려는 의도가 자명했다. 최흥종은 광주에서의 거사가 들통나지 않도록 초지일관 거짓 진술을 했다: “고종 장례식에 왔다가 우발적으로 가두행렬에 참여했다”라고. 사흘에 걸쳐 잠을 안 재우고 계속된 혹독한 문초에도 변화가 없자 일본 형사는 드디어 일본도(日本刀)를 꺼내 들고 실토하지 않으면 너의 목을 벨 테니 열을 셀 때까지 사실을 자백하라며 최흥종의 눈을 가리고 무릎을 꿇어앉혔다. 최흥종의 증언에 따르면 그 짧은 시간 언제 내려칠지 모르는 날카로운 일본도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공포감이 몰려왔다고 한다. 열 번이 세어지고 기합 소리와 함께 형사의 일본도가 최흥종의 목에 닿았다. 움찔 놀랐으나 형사는 일본도의 날 선 부분이 아닌 윗부분으로 목에 충격을 가했던 것이다.<sup>43</sup> 상처는 크지 않았지

---

42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최흥종과 김철이 짧은 기간에 확보한 것은 그들이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광주에서의 만세운동에 활용할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했다는 증거이다. 참조: 이성규. 『항일농민운동의 선구자 서정희』 상권. p.116. 지식산업사. 2006년.

43 필자가 중3 때 오방 선생한테서 직접 들은 체험담이다.

만, 그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연습했던 공포감은 오래 남았다. 그러한 문초 과정을 거쳐 최홍중은 개별 가담자로 분류되어 재판에 넘겨져 1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 당시 「최홍중 신문조서」를 보면, 그가 ‘한일합방’에 대해 반감을 갖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한 이유로 다음의 내용으로 진술했다: “日鮮人の 대우가 틀리다는 것, 교육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 참정권이 없는 것, 총독의 정치는 무단정치로써 일선인이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8년 7월경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자극을 받아 전국을 돌며 조선의 독립에 대해 강연하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고종이 승하하자 ‘국장 구경을 겸해 독립사상의 고취를 위한 연설을 하려고’ 3월 1일의 시위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3월 2일 상경했다. 이후 대중에게 연설할 기회를 찾다가 3월 5일 남대문 역 근처에서 인력거 위에 올라가 「신조선신문」을 뿌리고 ‘대한독립’이라 쓰인 기를 흔들며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연설하다 만세 함성 때문에 중단되자 가두시위에 참여했다. 그가 연설하려 한 내용은 ‘윌슨 대통령이 주창하는 민족자결주의의 설명, 당국에 대한 불평, 조선의 독립은 배일 사상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일본과 조선은 어디까지나 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sup>44</sup>

결과적으로 최홍중의 일관된 거짓 진술 덕분에 광주에서의 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김철은 앞서 말한 대로, 곧바로 서울에서 확보한 〈독립선언서〉, 〈敬告我二千萬同胞〉, 〈宣言書(최팔용(崔八鏞) 외 10인 서명)〉, 〈국민대소집청원서〉, 〈독립가〉 등의 인쇄물을 가지고 하광(下光)하여 남궁혁 장로의 집에서 북문 안 교회 교우들과 삼합양조

---

44 「최홍중 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 1919.6.25.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1운동 VII)』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규무, 「오방 최홍중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9집, pp. 205~234.

장 조직이 함께 모임을 갖고 거사 날짜를 원래 계획했던 3월 8일에서 바꿔 3월 10일 오후 3시로 결정하였고, 독립선언서 준비는 최한영, 기독교인 동원은 김강, 승일학생 동원은 최병준, 일반시민 동원은 서정희, 수피아여학생 동원은 홍승애, 기타 학교 동원은 김봉열, 최영균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10일 계획대로 실행되었다. 광주에서 거사 후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철, 최병준, 김강, 최한영, 정광호, 범운두, 김용규, 최정두, 최영균, 한길상, 김범수, 강석봉 등은 3년, 김정수, 송기호, 김철주, 조보근, 서정희 등은 2년, 남궁혁, 홍승애, 박애순, 진신애, 송광춘 등은 1년 형.<sup>45</sup> 이들은 1년 뒤 일제의 문화정책으로 감형이 이루어져 대부분이 풀려났다.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어 최흥종의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문〉(1919.8.30.)

“3월 5일. 피고 최흥종은 남대문 역전에서 인력거 상에서 『新朝鮮新聞』이라고題하고 조선독립사상을 고취함과 같은 불온인쇄물 수십 매를 산포하고 자기 신변에 집합한 다수의 군중에게 대하여 민족자결주의를 述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연설을 하려고 하여 그 冒頭를 述키 시작하자 군중은 독립만세를 고창한고로 이에 창화하여 함께 대한문전에 이르러 同處에서 인력거 상에서 “조선독립”이라고 大書한 기를 흔들며 군중에 唆선하여 시위운동의 勢를 부조함으로써 각 피고는 정치의 변혁을 목적하고 불온한 망동을 해서 치안을 방해한 사실이 더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3)』,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107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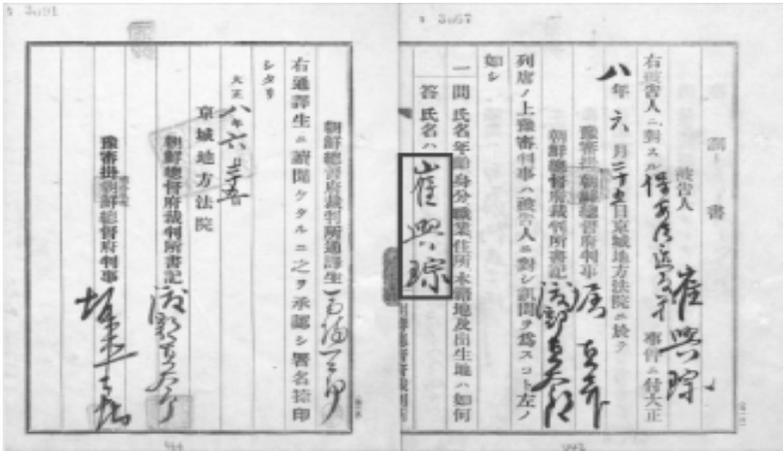
45 참고: 『광주지사』 2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 편, 광주직할시, 1993); 김진호, 박이준, 박철규, 『국내 3·1운동 II - 남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 p.186.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11.6.)

“피고 최흥종은 장로파에 속하는 야소교 전도사인 바, 대정 8년 3월 2일경 마침 광주지방으로부터 경성에 와서 이태황 전하(고종 황제)의 국장을 당하여 많은 군중이 경성에 모인 것을 기회로 위의 군중에게 대하여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을 고취함으로써 그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던 차 대정 8년 3월 5일 학생단에서 위의 시위운동이 있음을 듣고서 알게 되자 크게 그 취지에 찬동하였으며 … 피고 최흥종은 인력거 위에서 『新朝鮮新報』라 제한 조선독립을 고취하는 불온한 인쇄물 수십 매(증 제114호와 동일한 것)를 선포하고 대한문 앞에 이르자 인력거 위에서 『조선독립』이라 크게 쓴(증 제115호) [깃]을 휘저으며 군중을 지휘하여 시위운동의 기세를 도움으로써 각 피고는 치안을 방해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102~103쪽)



(3.1운동 수감자 카드)



(3·1운동 심문조서)

3·1운동과 관련하여 최흥종의 집안에 말 못 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3·1운동 직전 광주로 2.8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온 김마리아의 고모 김필례 여사는 만삭으로 출산을 앞둔 상태였다. 그녀는 그 전해인 1918년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여름 큰 오라버님(김필순)이 있는 중국의 치치하얼(齊齊哈爾)로 갔는데 임신으로 인한 입덧과 구토가 심해져 도착 4개월 만에 의사인 남편을 따라 다시 광주 시댁으로 왔다. 긴 여행과 오랜만에 돌아온 광주에서의 남편 병원 개원 준비 등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조카(김마리아)와 조카사위(남궁혁), 시아주버님(최흥종)의 3·1운동 조력에 나선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만삭의 몸으로 3·1운동 직후에는 경찰에 끌려가 수일 동안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3월 25일에 아들 제화가 태어났다. 난산(難産)이었다. 허약한 제화는 1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리고 김필례 여사는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크게 상심한 남편 최영욱은 그해 말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미국으로 외로운 유학길에 올랐고, 불임의 상처는 가족들에게 3·1운동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되었다.

## 출옥 후의 활동 1920 ~ 1921

최홍중은 서울의 재판에서 1년 형을 받고 1년 4개월 가까이 복역 후 1920년 6월 13일 출옥했다. 4개월가량이 더해진 이유는 미결 구류기간 때문이었다. 수감 기간 중 서서핑(Elis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 등이 많은 서적을 차입해 주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1년의 세월이 단순히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차라리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되었을 터이다. 출옥 후 최홍중은 복역 때문에 늦어진 평양신학교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그가 독서와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구상했던 여러 갈래의 새로운 사회활동을 전개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출옥 후 기차 편으로 송정에 도착한 최홍중은 광주까지 도보로 이동했는데 유덕동 공원 부근에 많은 군중이 모여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고 한다.<sup>46</sup>

출옥 후 그가 제일 먼저 착수한 사업은 1911년 송일학교 학생 YMCA 창설 이래 관심을 놓지 않았던 광주 YMCA의 설립이었다. 최홍중은 3·1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7월 29일 광주기독교청년회를 결성했다. 결성 당시의 광주 YMCA의 회원은 송일학교 교사와 학생들, 북문안교회와 북문 밖 예배처 교인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광주기독교청년회라는 동지를 마련한 이 청년들은 전도대(傳道隊)를 통한 복음전도활동과 각종 민족문화활동을 전개하여 785명의 결신자를 얻기도 하였다. 그만큼 젊은이들의 호응이 컸다. 다만 최홍중은 자신이 출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주의(要注意) 인물로 감시받고 있는 현실<sup>47</sup>을 염두에 두고 새로 출범하는 단체에서 직책을 맡지 않았다. 그래서 광

---

46 “삼일운동과 오방 최홍중 목사(2)”, 『리폼드 투데이』, 2022. 2. 26.; 최윤상, “거지와 고아들의 아버지”,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 243.

47 최홍중은 1921년 1월 당국으로부터 ‘갑종 요시찰인물’로 지목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요시찰인의 동정에 관한 건: 不逞團關係雜件 - 在西比利亞(13)」, 『全南警高』 제2966호, 1922. 3.18.

주 YMCA의 초대 회장은 북문안교회 교인이자 송일학교 교사였던 최병준으로 결정되었다. 대신 최흥종은 1920년 8월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 광주 지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의미 있는 사회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그가 광주 최초의 노동운동 단체 제1대 회장에 취임했다는 점이다. 노동공제회 광주지회 창립에 참여한 인사 중에는 사회주의 활동가 서정희(徐廷禧)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출옥 후 최흥종이 사회활동에서 폭넓은 사회적 연대를 지향했다는 의미가 있다.

1920년대 초기의 최흥종 관련 기록에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서정희와의 접촉이 자주 등장한다. 광주노동공제회 설립에 최흥종과 함께했던 서정희는 본적이 경기도 포천으로, 1900년 광주 우체사(郵遞司)의 사장(司長)으로 오게 됨을 계기로 1920년대 말 신간회 일에 관계하기까지 광주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노동운동가이다. 그런데 최흥종과 서정희 사이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존재한다. 1976년 당시 전남매일신문 기자로 최흥종에 대한 연재물을 쓰기 위해 광범위한 취재 활동을 벌였던 문순태에 의하면, 서정희가 1900년 8월 광주 우체사의 책임자로 광주로 왔을 때, 젊은 시절 광주의 '주먹'이었던 최흥종이 서울에서 내려와 거들먹거리는 서정희를 우체사로 찾아가 싸움을 벌인 사실을 밝힌 바 있다.<sup>48</sup> 1900년은 최흥종이 기독교에 입문하기 전의 일인바 그때 서정희는 나이가 24세, 최흥종은 20세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거친 만남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친구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서정희<sup>49</sup>라는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1904년 5월에 국사범

48 『전남매일신문』 1976. 8. 4.

49 서정희의 주요약력은,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의 중앙상임집행위원, 1925년 조선공산당 입당, 1928년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위원, 1930년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조직부장,

(國事犯) 박영효 등 연락사건으로 면직된 후, 1906년 1월 나철, 정인식 등 33명과 대한신민회(大韓新民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암살을 계획한 바가 있었고, 1907년에는 친일파 권중현(權重顯) 암살 미수사건으로 체포되어 5년간 진도에 유배되어 잠시 광주를 떠났다가 돌아왔으며, 1915~1918년 3년 동안 중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는 광주로 다시 돌아와 북문안교회의 교인이 되어 최흥종 장로와 관계를 꾸준히 유지했다.<sup>50</sup> 3·1운동 때에는 북문 안 교인들과 함께 참가하여 일반시민 동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20대에 처음 만난 서정희와 최흥종은 30대 이후 나이 들어 많은 분야에서 뜻을 같이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은 비록 싸움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여러 면에서 의기투합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 만남 후 두 사람이 1930년대 초 조선 나환자 구제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 나간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서정희는 기독교에 귀의한 최흥종을 북문안교회에서 다시 만나 관계를 이어갔으며, 3·1운동 후 최흥종이 출옥하자 노동운동에 함께 힘을 모았다.

1920년 8월 노동공제회 광주지회장으로 선임되었던 최흥종은 북문밖교회를 출범시킨 1921년의 6월 서정희 등과 함께 노동공제회 광주지회 ‘개선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서정희가 제2대 지회장에 선임되었다. 1920년 9월에 열린 전국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

1948년 고향인 경기도 포천에서 제헌국회의원 당선, 1950년 7월 한국전쟁 중 납북됨.

50 이성규교수가 집필한 서정희 평전을 보면, 서정희를 기독교 신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서정희의 광주에서의 교회 출입은 그가 사회운동에서 조직의 힘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참조: 이성규, 『항일 노동운동의 선구자 서정희(上)』, 지식산업사, 2006, p.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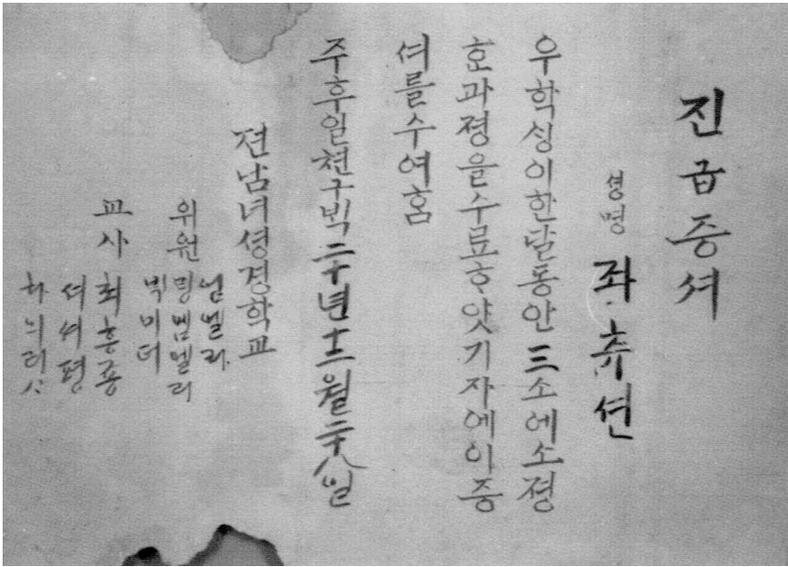
1921년의 동아일보에 최홍종의 노동공제회에서의 강연 등이 몇 차례 보도된 것<sup>51</sup>으로 보아 최홍종은 1922년 그가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매우 열성적으로 노동공제회의 일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최홍종은 1921년 9월에는 광주 최초의 청년단체인 광주청년회에서 의사원으로도 선임되었다.<sup>52</sup>

1920년 6월 출옥 후 최홍종은 YMCA 창설, 노동공제회 회장 취임, 평양신학교 졸업 등 큰일을 매듭짓기 위하여 촌음을 아껴 쓰는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분주히 보내는 가운데 그는 교회와 기도처의 일도 손을 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여성을 위한 성경학교의 일에도 관여했다. 최근 목포기독교연구소장 김양호 목사가 발굴한 사진 자료 <전남 여성 성경학교 진급 증서>를 보면 발급날짜가 1920년 12월 28일 자로 되어있고, 성경학교의 교사가 최홍종과 서서평으로 나온다. 출옥 후 그 바쁜 나날이었음에도 여성을 위한 성경학교 강의를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진행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당시 이미 그는 청년운동만이 아니라 여성운동, 그리고 그다음 해에 어린이 주일학교와 유치원을 출범시키는 아동교육 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었다. 출옥하자마자 즉시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나아간 것을 보면 최홍종 선생이 투옥되어 있었던 시간이 그에게는 사상적으로 성장하고 실천적 구상을 통해 사회운동을 준비하는 값진 기회였던 셈이다.

---

51 『동아일보』 1921. 6. 16. 「光州勞働共濟總會」.

52 『동아일보』 1921. 9. 9. 「光州靑年組織更新」.



(전남 여성 성경학교 진급 증서: 교사가 최흥종과 서서평)

### 북문밖교회 목사 임직

1921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최흥종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북문밖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다는 사실이다. 1920년 11월 평양신학교의 마지막 학기를 수료한 최흥종의 앞에는 그가 1917년부터 실질적인 목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북문 밖 예배처를 공식적인 교회로 만드는 일이 놓여 있었다. 다만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최흥종은 출옥 후 나라를 되찾을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청년교육 및 사회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병행하고자 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그는 우선 YMCA와 노동공제회 창설에 관여하고 청년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개서한<sup>53</sup>을 미국교회에 보내는 등 매우 폭넓은 사회적 행보를 보임으로써 그의 목회

53 *The Missionary Survey*, March 1922, pp. 193-194. 참조.

자로서의 여정이 전통적인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선교를 넘어 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그 무엇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목사로 임직을 받은 이후 최흥종의 목사로서의 행보를 보면 그는 제도적 교회의 테두리 안에 갇혀 안주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회가, 또는 세상이 그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 낮은 곳에서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도(使徒)의 모습이였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베리아 선교사의 지원, 나환자촌 애양원, 호혜원에서의 목회 활동, 결핵 환자들과 함께한 송등원, 무등원의 초막 예배처 등 최흥종 목사의 교회는 한 공간에 머무는 통상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다.

공식적 기록을 보면 1921년 1월 28일 제7회 전남노회는 ‘강도사 최흥종을 목사로 장립하고 안수례를 행하고 겸하여 위임식을 행하였다.’<sup>54</sup> 최흥종 목사가 부임한 북문밖교회는 그가 1912년 이래 장로로 시무한 광주 최초의 교회인 북문안교회가 1917년부터 운영해 온 ‘확장주일학교’의 연장이었기에 출발부터 많은 교인으로 북적였으며, 따라서 해결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간 문제였는데, 교인들과 지역 유지 그리고 최흥종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빠른 시간인 1921년 7월 기존의 초가 건물을 개조하여 새로운 교회당의 헌당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때의 헌당식에 이르는 경과를 제중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우월순(Wilson) 의사는 그가 작성한 선교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54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 하권』(백낙준편, 한국교회사학회, 1968) . p. 302.

“지난 안식일(7월 3일)은 광주의 큰 날이었다. 남문밖교회<sup>55</sup>에서는 남궁 씨의 목사안수식이 있었으며 북문밖교회에서는 새로운 교회당 건물을 헌당하였다.....남문밖교회는 400명의 정식 교인과 600여 명이 출석하므로, 교회를 나누어서 북문밖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초가집 주일학교 예배처소를 깨끗이 청소해서 교회 예배당 형식으로 개조하였다. 최 목사에게 대한 청빙이 있었으며, 그는 이 청빙을 받아들여서 회중을 늘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였다. 2,000엔(\$1,000)이 모금되었으며, 건축은 조금 전에 끝났으며, 빛은 \$500이다.<sup>56</sup>

북문밖교회의 건축헌금과 관련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증언이 존재한다. 송일학교 졸업생으로 최흥종 목사와 많은 일을 함께 도모했던 최운상의 증언에 따르면 1921년 북문밖교회가 분립될 때 건축기금을 가장 많이 낸 분은 강순명의 백씨인 강태성 씨였고, 강순명은 최흥종 목사의 큰사위로 그는 자신의 집을 헌납했다고 한다. 강순명은 그의 장인인 최흥종이 제주 모슬포교회로 파송될 때 동행하기도 했고, 광주 Y의 농업실습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등 많은 일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최흥종은 그의 일을 돕는 많은 조력자를 주위에 항상 두고 있었다. 그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희생적인 봉사사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의사동생 최영욱이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최운상 외 여러 사람의 증언. 최운상은 1911년 송일학교 입학생으로 최흥종의 소년 시절부터의 절친 최재익(崔載翊)의 아들이며 광주 Y에서 활동했다.)

---

55 북문안교회는 3·1운동 때 교인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일제의 탄압으로 건물터를 빼앗겨 남문 밖의 금정으로 옮겨 남문밖교회로 이름을 바꿔 지속하였다. 남문밖교회는 공식적으로는 금정교회라 불렸는데, 나중에 광주제일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라서 북문안교회, 남문밖교회(금정교회), 북문밖교회는 모두 한부리에서 나온 교회들이다.

56 Dr. R.M. Wilson, “Dedication of new church”. *The Missionary Survey*. January 1922, pp. 27-28



(새로 지은 북문밖교회. 1921)

북문밖교회의 목사로 부임한 최홍종은 북문밖교회를 단순한 예배처로 놓아두지 않았다. 그는 어린이 선교 활동 경험을 통해 어린 시절의 교육이 인성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었고, 여성이 겪는 교육 분야에서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최홍종 목사는 북문밖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어린이 주일학교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1921년 4월 유치원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에 최초로 아동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sup>57</sup> 이어서 여자야학을 10월 1일 개설했다. 당시 『동아일보』 1921년 10월 10일 자에는 “북문밖 예배당에서 광주여자야학이 개학하여 10월 1일부터 100여 명이 공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때 보모 및 여성야학반의 선생으로는 목포의 여류 소설가 박화성 씨와 박경순 선생이 초빙되었다. 소설가 박화성은 1981년 『동아일보』에 ‘나의 交遊錄’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담을

---

57 최홍종 목사의 어린이 교육에 관한 관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가 결핵 환자들과 치료공동체를 만들어 무등산계곡에서 활동하던 1960년대 초, 그러니까 그가 80대에 들어선 시절에도, 여전히 어린이 교육을 잊지 않고 당시의 신생유치원 원장에게 보낸 自作 童詩가 남아있다. 이 책의 <부록 7> 참조.

연재했는데, 그중 광주 북문밖교회에서의 보모 및 부녀야학반 선생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어 그 당시의 사정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때는 1921년. 己未年 독립투쟁 이후로 서울에서나 지방에서나 尙學熱이 高調에 이르러 있을 때 이어서 光州 북문밖교회에서도 우선 강습소 형식의 부녀야 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최흥종씨가 설립자가 되고 교장은 정신학교 출신이며 모 은행장의 부인인 홍은희씨가 선출되었는데 야학 선생으로는 김필레선생이 추천한 나 외에 3인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부녀야학교는 대반창이었다. ...8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들의 기본실력에 따라 정하여진 학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4학년까지로 정해진 학생들의 분포는 정규학교와는 人選에서 너무나 차이가 컸다. 학년마다 조무래기들과 짝진 어른들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지만 3, 4학년에는 젊은 새댁들과 큰 처녀들이 많았고 연령으로는 10세부터 40여 세까지의 부녀들이 모집되었던 것인데 그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노판사 부인이었다. ....가장 독실하게 공부하는 패들은 역시 유학생의 새댁들과 혼기를 앞둔 처녀들인데 그중에는 참으로 우수한 두뇌와 재질을 가진 여인들이 섞여 있었다. 완고한 부모와 완고한 時代의 탓으로 학교에도 못 가서 아까운 재주를 써하고 있던 그들이 좋은 기회를 만나니 고기가 물을 얻은 듯 활발하게 기를 펴고 학과에 몰두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고 나는 야학교를 설립한 보람을 크게 느꼈으나 다만 한가지 눈에 거슬리고 신경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부인들의 머리쪽에서는 금비녀가 빛을 내고 그들의 손가락에서는 금가락지나 보석반지가 번쩍거렸다. 그리고 옷들은 위아래가 비단으로 휘감겨 지르르 몸에서 윤이 흘렀다. 나는 이런 현상이 눈에 거슬러 초라한 매무새의 많은 부녀들을 대하기가 민망스러웠다.....나는 어느 날 마감시간에 모두들의 앞에서 강경하게 말하였다. ‘여기는 작으나마 한 단체가 생활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의 학생이 되신 이상 학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비단옷과 금붙이의 장식품을 엄금합니다. 80여 명 중의 50명이 가난한 부인이나 처녀나 소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깊이 반성해 보시고 내일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의

어린 선생이지만 말의 내용이 정당하고 호소의 힘이 간절하다고 생각하였는지 그들은 일제히 머리를 끄덕이고 서로를 바라보며 긍정의 미소를 띤 채 '네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참 좋은 명령이시구만요. 꼭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각기 한마디씩 수군덕대고 돌아가더니 과연 다음날부터는 은비녀나 흑각비녀로 바꾸어 쪽지고 옥양목이나 비단 아닌 의복들을 골라서 입고 등교하였다.....부녀 야학교가 성공하게 되니까 최홍종목사는 유치원까지를 설립하고 원아들을 모집하여서 북문밖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원장이 되고 나는 그 유치원의 보모로 선출되었다. 天安에서 돌아와 고향에 있는 동안에 새로 창설된 희성유치원의 보모가 되었던 일 년간의 경험이 있었던 까닭이었다. 낮에는 (최목사의 제수인) 김필레선생께 영어와 풍금을 배우고 밤에는 야학교에 가야하니까 출퇴근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김선생님은 나를 자택에 있게하였다.....내가 북문밖교회의 사택인 최목사님댁의 끝방 하나에 행장을 풀게되자 야학의 처녀학생들과 새댁들이 제일 기뻐하고 자취도구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척척 다 준비하여서 최목사님은 그 호인다운 안면에 온화한 웃음을 가득 담고 “집주인이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하나도 없게 되었소. 어쨌거나 박선생은 가나오나 무척 사랑을 받는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소?” 하고 대견하다는 듯 내게 농을 걸기도 하였다. 최목사님은 진정으로 나를 자녀처럼 누이처럼 알뜰히도 보살펴 주셨고 제수가 되시는 김필레선생과도 남매처럼 의지상봉하여 제수로서보다는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畏友사이로 보였다. 그만큼 인자하고 소탈하고 탈속한 聖職者인 최홍종목사는 天刑病人 나병환자들에게도 은혜로운 벗이 되어서 救癩사업에 헌신하시다시피 전력을 다하셨다.....그분이 설립한 야학교와 유치원의 책임자로서 언제나 그를 가까이 모시게 되었던 까닭에 나는 그분의 맑고 깨끗한 人格을 존경하고 그는 나의 비교적 성실한 기질과 약간의 재주를 깊이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그 날들이 이렇게도 그리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sup>58</sup>

박화성 회고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문안교회에 개설된 광주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야학(女性夜學)은 지식보급이라는 단순한 목표보다는 여

---

58 『동아일보』, 1981. 1. 15일, 16일.

성들에게 더욱더 폭넓은 전인적(全人的)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회고담에서 눈에 띄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그렇다. 하나는 ‘時代의 탓으로 학교에도 못 가서 아까운 재주를 써히고 있던 그들이 좋은 기회를 만나니 고기가 물을 얻은 듯 활발하게 기를 펴고 학과에 몰두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고 나는 야학교를 설립한 보람을 크게 느꼈다’라는 대목에 더하여, 다른 하나는 ‘80명의 학생 중 50명이 가난한 부인이나 소녀들이니 부유층의 여성들은 특히 검소한 복장 차림을 하면 좋겠다는 훈시를 학생들이 잘 따라주었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교육의 지속은 재원확보가 뒤따라야 하였기에 최흥종은 유치원과 여성야학의 운영을 학부모들의 발의로 유지회를 조직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유지회의 초기 구성은 회장 서정희, 부회장 최흥종, 총무 설병호, 평의장 최종섭, 평의원 이득주, 김기석 외 7인으로 이루어져 모금 활동 등을 펼쳤는데 특히 최흥종 목사의 뜻에 크게 공감한 지역 유지 현준호는 상당 기간 연 5, 6백 원을 협찬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sup>59</sup> 이야기가 약간 빛나가지만, 현준호는 훗날 최흥종의 추천으로 가난한 학생 손창식의 동경 유학 학자금을 제공했는데, 1944년 전남대 의과대학의 전신인 광주 의전(醫專) 설립을 위한 기금이 필요하게 되자 최흥종이 당시 상해에서 큰 사업가로 성공한 손창식을 찾아가 거금(巨金)을 받아와 일을 성사시킨다. 교육에 관한 관심을 공유했던 선한 사람들의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져 뜻밖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1920년대 광주의 사정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기획 기사에 따르면, 3·1운동 뒤 1920년대 초반의 광주는 경제적으로는 ‘쇠퇴한 모습’이지만 사회운동의 측면에서는 ‘조선의 사회운동 중심지’라고 표현하였다.<sup>60</sup>

---

59 광주 YMCA 역사편찬위원회, 『광주 YMCA 90년사 (1920~2010)』, 2010. p. 117.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해 주는 활동들이 다양한 학교운영, 계몽운동과 사회조직들의 등장인데, 그 중심에는 광주 YMCA와 노동공제회를 창설하고 북문밖교회를 세워 활동을 전개해 나간 최흥종이 있었다. 광주에서의 근대 여성 교육은 제도적으로는 1908년 수피아여학교의 출범이 그 씨앗이었지만, 특히 1920년 이후에 들불처럼 일어난 일반 여성들을 위한 야학이나 흥학관(興學館)에서의 다양한 여성 교육 활동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었다. 일반 야학으로는 역시 최흥종이 관여하고 그의 제수인 김필레와 임자혜가 교사로 참여하여 광주청년회 지육부(智育部)가 준비한 여자야학(夜學)도 있었는데, 입학지원자가 많이 몰려 호응이 컸다. 광주청년회는 최흥종이 의사원의 직분을 맡고 있었으며, 김필레 학장을 중심으로 여자야학을 열어 “400여 인의 여자가 모여 조선 문한문(朝鮮文漢文), 산술(算術), 가정학(家庭學)”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sup>61</sup> 또 1921년 4월 북문밖교회에서 최흥종 목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출발한 유아교육은 유치원이라는 제도로 정착되어 북문밖교회, 나중에는 명칭이 바뀐 중앙교회의 부설 유치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주 사회의 주요 교육기관으로 뿌리내렸다.

1922년에는 최흥종의 제수(弟嫂) 김필레의 주도로 광주 YWCA가 창설되었다는 사실 역시 특기할 만하다. 김필레는 1922년 아펜젤러의 자문을 받아 북경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대회에 참가해 조선 YWCA 창립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하령회(夏令會)를 김활란 등과 함께 개최하여 조선 YWCA 창립을 결의했다. 그 후 광주로 돌아와 그해 11월 광주 YWCA도 그의 주도하에 탄생했다. 최흥종과 김필레는 1920~40년대를 통하여 남녀

60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광주 YWCA 100년 1922-2022』, 2022. pp. 17~18.

61 「김필레여사강연」, 『동아일보』 1922. 11. 18.; 「여자회 광주강연(女子會 光州講演)」, 『매일신보』 1921. 8. 18.; 「여자광주강연회(女子光州講演會)」, 『매일신보』 1921. 8. 30. 등 참조.

기독교청년회, 수피아여학교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협업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1920년대 초반 광주지역사회는 최흥종과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민사회운동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다.



(북문밖교회 유년부. 1921년. 아이들 뒤쪽에 최흥종, 서서평, 최영균 등의 모습도 보인다. 초창기 교회에 100명이 넘는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여 사진을 찍었는데 절반가량이 여자아이들이다.)



(유치원 졸업식. 1924. 아이들이 주빈이고 어른들이 배경이다.)

## 1922년,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되다

최홍종은 1921년 광주 북문밖교회의 목사로 부임한 지 1년 뒤 그가 오래전부터 갈망했으나 좌절되었던 시베리아로의 선교 활동에 나선다. 1921년 9월 10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제10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광주 목사 최홍종을 시베리아 전도목사로 파송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총회 회의록을 보면, 총회의 전도부장 이자의 목사가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 보고를 한다.

“금년 시베리아에 한재로 인하여 큰 흉년이 들었으며...항마적 곤란으로 신불자가 수백 명 살해를 당하고 의복과 가정 집물을 낙탈당하여 무비결인이 되어 과연 비참한 형편이오며...”<sup>62</sup>

그리고 전도부는 시베리아 지역에 다음과 같이 선교사 파송을 헌의 하였다.

“아령(러시아)에 계속 전도하게 하옵고 전도목사 2인을 보내기로 하며...광주 목사 최홍종씨를 아령 전도목사로 선택하여 본노회에게 교섭하게 하였습니다나이다.”<sup>63</sup>

이에 전남노회는 같은 해 10월 14일 광주승일학교에서 가진 노회에서 총회의 청빙 요청을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sup>64</sup>

시베리아를 언급하면 혹자는 우선 떠나면 동토(凍土)의 땅을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많은 조선인들이 극심한 가난과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한 피난처 시베리아는, 다른 한편으로 20세기 초 많은 조선의 청년들에게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罪와 罰)와

---

62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록』, 제10회, 1921년, p. 35.

63 위의 책, pp. 40 - 44.

64 한국교회사학회(편),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朝鮮예수教長老會史記)-하-』, 1968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톨스토이(復活)의 작품을 통해 속죄와 자유와 구원의 땅으로 각인되어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러한 분위기를 방증해 주듯 이미 그 시절 1921년에도 광주와 시베리아 사이에는 심리적 유대감이 존재하였고, 의미 있는 교류가 없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난 100년 동안 광주의 일상에서 일어난 사사로운 사건들을 꼼꼼히 기록하여 남긴 박선홍 선생은 옛 광주의 풍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으로 1921년 5월 30일 오웬기념각에서 가졌던 블라디보스토크 학생음악단 공연을 꼽았다. 그런데 이 음악단은 러시아인(人)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후예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에도 연해주의 동포사회가 모국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박선홍 선생은 블라디보스토크 학생음악단이 광주 송정리역에 도착했을 때 마중을 나간 광주의 인사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들을 초청한 광주청년회의 최홍종이 선두에 나온다.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 동포음악단을 광주로 초청한 단체가 바로 최홍종이 이끌었던 광주청년회였기 때문이었다.

“이 음악단은 남자 7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됐는데 모두 러시아령 연해주에 사는 교포 2세였다. 그들은 이강李剛과 나경석羅景錫의 인솔로 4월 24일 배편으로 원산항에 도착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순회공연에 올랐다. 1921년 4월 30일 광주 청년회는 회의를 열어 이 음악단을 광주에 초청하기로 결의했다. 광주에 머무는 동안 생기는 숙식비도 광주청년회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계의 유지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았는데 당시 현준호, 광주보통학교 동창회, 성청년회, 송정노동수양회, 김종섭, 윤승하, 차남술, 김정현, 최복식 등이 많게는 수 십원, 적게는 1원씩을 냈다.

블라디보스토크 음악단은 5월 30일 열차편으로 송정역에 도착했다. 광주에서는 최홍종·최종섭崔鍾涉·박이규朴珥圭·설병호薛炳浩·양동익·강태성姜泰成, 송정리에서는 변상구·정승채가 그들을 맞았다.”<sup>65</sup>

그다음 해인 1922년 최홍중 목사는 바로 이 연해주(沿海州)로 선교 사역을 떠난다. 연해주는 러시아 시베리아 동해에 접한 지방으로서 러시아 한인들의 독립운동 근거지로 알려진 곳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중심도시로서 당시에는 우리말로 해삼위(海蔘威)라 칭하기도 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기에 먼 길을 와 광주에서 공연한 블라디보스토크 동포음악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해삼위 지역에는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하고 돌보아야 하는 많은 동포가 살고 있어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지역임을 웅변해 준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참작했을 때 최홍중 목사가 선교 활동을 위해 파송된 연해주 지역은 한국교회의 선교 활동 대상 지역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었다.

여기서 이를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1920년대 그 시절에 연해주는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독립 운동을 위해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었음을 재차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앞서도 이미 한차례 지적했듯이 1910년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통치가 시작되자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애국지사가 해외에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를 만들 생각을 품었고,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동포가 많이 이주해 간 북간도, 해삼위 등 특히 만주와 러시아의 접경지대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는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최관홀 목사를 전도사로 파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 선교에 나섰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변창욱에 의하면 “러시아와 연해주 선교는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고국을 떠나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한인 동포를 위한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 출범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한인 디아스포라 동포들은 가는 곳

---

65 박선홍 『광주 100년 (2)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2014년 pp. 57~58. “블라디보스토크 학생들은 이듬해인 1922년에도 모국방문공연을 했다. 광주에서도 7월 11일 홍학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때도 많은 관객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p. 58.

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자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선교는 (1917년까지 이어진 러시아혁명의 진행으로 인한) 정정 불안과 기독교 탄압 등의 이유로 1912년 9월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장로교 총회에서 1918년에는 김현찬 목사, 1922년에는 최홍종 목사를 파송함으로써 재개되었다고 전한다.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1922년 교회 32개, 총(總)교인 1,935명, 목사 5명, 장로 9명, 소학교 5개, 야학 35개의 교세로 성장하여 시베리아 노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탄압이 점차 심해지면서 선교상황이 다시 악화되어 1925년 장로교 총회는 시베리아 노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1929년 선교 보고를 마지막으로 20여 년의 블라디보스토크 장로교 선교는 끝나고 말았다.”<sup>66</sup> 변창욱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밝힌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연해주에서의 활동 시기는 최홍종이 1915년 시베리아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일, 1922-1923의 1차 파견 때의 비교적 성공적인 선교 활동, 그리고 1927년 2차 파견 때 도착 후 수개월 만에 강제로 추방당한 실패 경험과 시기적으로 딱 들어맞는다.

최홍종 목사가 시베리아 선교사역을 그토록 감당코자 했던 이유는, 앞서 이미 지적했듯이,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동토(凍土)에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동포들을 직접 만나 함께하며 믿음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최홍종은 우리 동포가 겪는 환난과 핍박의 극복에는 신앙의 힘, 그리고 기도의 위로가 큰 도움이 되리라 믿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광주의 나병원에서 나환자들이 기도와 믿음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던 기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었

---

66 변창욱, 「한국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 제19집, 2007년 6월, pp. 13~65.

다. 그가 시베리아로 떠나기 직전 청년들에게 행한 강연의 녹취록으로 보이는 글에서 그의 그러한 신념이 엿보인다. 즉 이 녹취록은 1922년에 발간된 ‘종교계 諸名士 강연集’<sup>67</sup>에 실린 글인데, 최홍종 목사를 ‘조선예수교장로회 시베리아 선교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 어느 종교 모임에서 했던 강연이었음이 분명함으로 그가 당시 그의 머릿속에 간직했던 생각이 드러난 강연이라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강연의 제목은 ‘心の 종교’ 즉 ‘마음의 종교’인바, ‘종교의 핵심은 기도’이며, ‘진심을 담은 간절한 기도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는 강연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성에는 본질적인 변함이 없으며, 역사를 통해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환난을 극복하는데 작용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아마 최홍종 목사는 자신의 선교사역을 통하여 우리 동포가 그러한 기도의 힘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들이 희망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했을 것이다.<sup>68</sup> 지금 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최홍종 목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옆에서 함께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일관한 생을 살았다. 나환자를 옆에서 돌보던 그는 생의 만년에 결핵 환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았다. 되돌아보면, 그의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은 나환자의 섬김에서 시작해 시베리아 동포의 위로, 그리고 빈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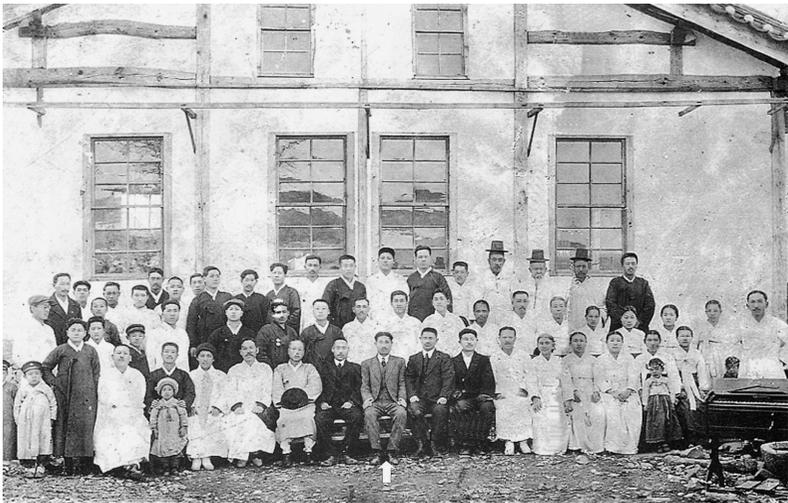
67 최홍종. 「心の 종교」,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p. 264~271.

68 최홍종 선교사는 1922년 9월 잠시 귀국하여 승동교회에서 열린 (11회 총회)에서 시베리아 선교 활동을 중간보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먼저 다음의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보고를 시작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로마서 1장 11~12절). 그의 시베리아 선교의 목적이 동포에게 희망과 믿음,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잘 드러내 주는 성경 구절이다.

과 결핵 환자와의 동행으로 이어졌다. 이들 모두가 우리가 껴안아야 할 낮은 자들이었다.



(평양신학교 졸업앨범 사진 및 시베리아 선교사 파송 때 1920년대의 최홍중 목사)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견 시 북문밖교회 교인들과의 사진, 1922)

최홍중 목사는 장로회 총회와 전남노회에서 시베리아 선교사로 결정이 난 지 5개월이 훨씬 지난 1922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

했는데 이는 일경이 그를 ‘요시찰 인물’로 주시하여 출발이 늦어진 것이다.<sup>69</sup> 출발에 앞서 지인들과의 환송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사회를 ‘노동 공제회’의 일을 함께 도모한 서정희가 맡았으며,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험난한 러시아에서의 선교 여정을 걱정해 주었다고 전한다.<sup>70</sup>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의 변방 시베리아의 상황은 공산혁명 후 계속된 적군(赤軍)과 백군(白軍)의 싸움이 종결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1회 회의록』을 보면 주요 사항으로 ‘시베리아 전도목사에 김현찬, 최홍종 씨로 택하다’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보고사항에는 ‘이훈 조사 로령에서 피살당하다’가 있어 그 당시 러시아에서의 선교 활동이 매우 위험하고 험난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sup>71</sup> 그에 더하여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러시아 정교회나 사회주의 러시아당국 모두에게 배척받는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다. 최홍종의 시베리아 선교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1923년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즉 제12회 총회록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최홍종 목사는 안반, 다반, 요하명 지방에서 무수한 핍박을 받았으나 많은 재미를 보고 나오던 도중에 소학령 정거장에서 구속을 당하여 러시아 관청에 가서 10일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하고 겨우 해방을 받은 것은 우리 시베리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일이오며...”<sup>72</sup>

69 「요시찰인의 동정에 관한 건: 不逞團關係雜件-在西比利亞(13)『全南警高』 제2966호, 1922년 3월 18일.

70 『동아일보』 1922. 3. 23. 「兩牧師送別會 盛況」.

7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록 3 (제9회 ~ 제13회)』, p. 117. 인터넷 사이트: [https://pcknet-my.sharepoint.com/:b/g/personal/pckpad\\_pcknet\\_org/EWwK... \(1345\)](https://pcknet-my.sharepoint.com/:b/g/personal/pckpad_pcknet_org/EWwK...)

72 『장로교 제12회 총회록』, p.109.

최흥종이 1922년 택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여정은 우리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의 선양, 창춘, 하얼빈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갈아타는 머나먼 길이었다. 그리고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최흥종은 그의 선교 활동 기간 중 기독교 선교에만 그치지 않고 국권을 탈취당한 동포들이 이국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러시아 당국지들과 만나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1년여에 걸친 최흥종 목사의 선교실적을 종합해 보면 신설교회 6처, 신설학교 1처, 세례인 105인, 학습인 78인이었으며, 전도를 위해 누빈 거리가 6,500리나 되었다. 시베리아에서 북만주로 오가며 수행된 최흥종의 선교 활동 내용은 제12회 총회(1923)에 제출된 다음의 보고서가 그 세부 사항을 말해준다.

1. 아령 야심시개에서 10일간 공부시키며 20인에게 세례 주고 5인을 학습 세우며 성찬도 베풀고 직분도 개선하였사오며
2. 다반 교회에서는 10일간 성경공부 시키고 27인에게 세례 주고 유아세례 받은 이가 6인이오. 학습선이가 18인데 성찬예식도 거행하였사오며
3. 안반교회에서는 7일간 사경공부 시키고 어른 23인과 유아 7인에게 세례 주고 8인은 학습 세우고 성찬예식도 거행하였사오며
4. 북만주 요원현 사평산교회에서 10일간 성경 공부시키며 어른 4인과 유아 3인에게 세례를 주고 학습 15인을 세우고 성찬례도 거행하였사오며
5. 동상동에 일주일 유하며 13인에게 세례 주고 9인은 학습 세우고 직분도 개선하였사오며
6. 대흥평에서 세례 2인 학습 4인이 생기므로 교회가 새로 조직되었사오며
7. 대평동에서는 3인에게 세례 주고 직분을 개선하였사오며
8. 대가하에서는 1인에게 세례 주고 직분을 개선하였사오며
9. 아령 남부 우수리 박석동에서는 12인에게 세례 주고 직분도 개선하였사오며
10. 소황령 부근 방천리교회와 승정리교회에서도 직분을 개선하였사오며

## 11. 중령 평산에 학교 하나를 신설하였사옵나이다<sup>73</sup>

이상과 같이 많은 성과를 거둔 최흥종의 시베리아 선교는 1923년 5월 무렵 일단 막을 내리게 된다. 1923년 러시아 전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면서 종교에 비(非)우호적인 당국이 그의 선교행위를 감시하고 방해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출국 명령이 내려져 선교지역을 벗어난 그는 얼마 동안 만주에 머물며 북간도 지방에 사는 동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뒤 6월 초 귀국했다. 귀국한 그는 곧바로 광주·전주·영광·담양·군산·목포·여수·마산·부산 등지를 순회하며 시베리아 선교보고회(宣敎報告會)를 열어<sup>74</sup> 동포사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그의 시베리아에서의 선교 활동을 정리했다. 참고로 그 전해인 1922년 9월 말 최흥종 목사가 시베리아 선교 활동 중간에 일시 귀국했을 때 『동아일보』에서 그를 ‘전남청년계의 추앙 인물’이라 소개한 기사가 그 당시 그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sup>75</sup> 최흥종은 그동안 자기희생적인 다양한 사회활동에 헌신하면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나눔의 봉사에 바친 세월로 인해 이제 나이 40대의 중년에 이른 최흥종을 사람들이 크게 신뢰한다는 증거였다.

광주로 돌아온 최흥종은 다시 사회활동을 전개했는데 그 첫 번째가 1923년 9월 서정희와 함께 ‘광주소작인회연합회’ 대표로서 소작권 이동방지 등 7개 항에 대해 동양척식주식회사 당국과 교섭한 일이었다.<sup>76</sup> 그다음 해인 1924년 3월에는 전라노동연맹 발기회에 ‘광주 지한면 소작

---

73 『장로교 제12회(1923) 총회록』, pp. 93-95.

74 『동아일보』 1923. 7. 6. 「崔氏露領常況講演」; 『동아일보』 1923. 7. 12. 「露領事情講演日割」.

75 『동아일보』 1922. 10. 1. 「崔牧師歸國」.

76 광주소작인연합회에 대해서는 『광주시사(2)』, pp. 598~599 참조.

인회' 대표로 참석<sup>77</sup>했으며, 1925년 1월에는 '면화공동판매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sup>78</sup>을 가진 것을 보면 최흥종은 그가 3·1운동으로 1년 여의 수감생활을 마친 직후인 1920년 8월 노동공제회 광주지부 회장을 맡은 이래 노동과 농민운동에 관한 관심을 계속하여 이어 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 광주 YMCA 회장, 금정교회 목사에 임하다

시베리아 선교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개시하던 최흥종은 1924년 광주 YMCA 제3대 회장에 취임하여 광주 YMCA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착수한다. 1925년도의 한 통계를 보면 광주에서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청년단체는 광주청년회 210여 명, 광주 YMCA 190여 명, 광주점원청년회 13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sup>79</sup> 그런데 1920년에 출범한 광주 YMCA는 조선기독교청년회 전국연합회(줄여서 '연합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회장에 취임한 최흥종은 먼저 이상재, 신흥우, 김필수 등 YMCA 연합회(聯合會)의 최고 간부들이 임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정식으로 인증을 마쳤으며 총무에 송일학교 출신 3·1운동 참여자 최영균을 임명했다.(김천배, 송건호. 『한국 YMCA 운동사 (1895~1945)』 참조) 이때 비로소 광주 YMCA 간판을 북문밖교회의 유치원에 내걸었다 한다.<sup>80</sup> 1932년 총장로 5가에 최초로 회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Y의 모임을 주로 최흥종이 초대 목사로 시무했던 북문밖교회(중앙교회)와 오웬기념관, 흥학관, 송일학교 체육관 등에서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

77 한규무. 「오방 최흥종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2011.8, p. 217.

78 「면작조합 개혁: 광주 최흥종 씨談」. 『동아일보』. 1925. 1. 1.

79 『시대일보』 1925. 6. 30. 「光州에 團體狀況」.

80 『광주 YMCA 운동 100년 史 1920-2020』, 2020. p. 76.

까지 광주 YMCA가 주최하여 4개 교회에서 열린 ‘무산 아동을 위한 단기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장으로 선임됨을<sup>81</sup> 출발로 광주 YMCA의 사회복음주의적인 노선을 확고히 예고했다. 즉 최흥종 회장은 Y 활동에 농민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 소비조합과 협동조합 운동 등을 접합시켜 복음(福音)과 사회(社會)를 하나로 엮고자 했다. 1925년에 시작된 농촌 8개 지역 농민강습소<sup>82</sup> 설립 준비, 그리고 서서핑(Elis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의 협력을 받아 빈민구제에 나선 것 등이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후일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광주 YMCA가 견지해 온 사회 참여적인 성향은 이때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

1924년 9월 최흥종은 YMCA 회장의 일에 더하여 금정교회(舊 북문안교회)의 목사직을 위임받는다. 북문밖교회의 초대 목사인 최흥종이 이렇게 교회를 옮긴 사실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광주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유진 벨이 1904년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과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 작은 교회에서 성장한 것이 북문안교회이며, 북문안교회의 교세가 불어나자 선교, 전도 활동을 위해 확장주일학교의 개념으로 북문밖에 예배처 등을 운영하여 교회 분립의 기초를 다졌다. 최흥종은 북문안교회의 집사, 장로로서 이 북문 밖 예배의 운영을 담당했다. 그런데 3·1운동에 북문안교회 교인들이 다수 참여한 후과(後果)로 일제(日帝)가 교회 땅이 국유지임을 내세워 몰수하자 북문안교회는 1919년 10월 부득이 남문 밖 금정 101번지로 옮겨 교회 이름을 금정교회로 했는데, 교회의 위치가 남문 밖이어서 속칭 남

---

81 「無産兒童을 教育」 『동아일보』 1924. 6. 16.

82 농민강습소 수강생들은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아학에서 봉사하도록 권장했다.

문밖교회로도 불렸다. 북문 안에 있던 교회가 남문 밖으로 옮겨가게 되자 북문밖에 거주하는 신도들이 성문의 정 반대편인 남문의 밖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져 불편을 호소해 왔다. 그래서 교회 출석 인원이 600명이 넘었던 북문안교회는 금정교회(남문밖교회)로 명칭과 위치가 바뀌는 시점을 1921년 새로운 북문밖교회(後에 중앙교회로 개칭) 분립(分立)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므로 북문안교회, 금정교회(남문밖교회), 북문밖교회는 모두 한 몸체의 교회들인 셈이다. 최홍중도 처음 유진 벨 선교사 사택의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을 출발로 북문안교회의 집사와 장로를 거쳐 북문밖교회의 목사가 되었으니 이들 교회는 모두 그에게는 같은 섬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1923년 시베리아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최홍중은 마침 최영택 목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북문밖교회로 돌아와 있었다. 최홍중 목사가 봉직하던 북문밖교회를 사면하고 광주의 어머니 교회인 금정교회(북문안교회)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금정교회의 내부 상황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당시 금정교회의 김창국 목사가 양림 구역에 거주하던 다수의 교우를 위하여 양림동에 새 교회(양림교회)를 만들어나감으로써 금정교회는 교세가 갑작스레 약화되는 변화를 맞았다. 금정교회(舊 북문안교회)에서 북문밖교회의 최홍중 목사를 긴급 청빙(請聘)한 것은 신도가 갑자기 줄어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이었다. 마침 최홍중 목사는 1924년 7월 북문밖교회에서 개최된 제14회 전남노회에서 전남노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상태였기에 그의 주제 아래에 전남노회는 그해 9월 금정교회로부터 양림교회의 분립을 허락했다. 다만 양림교회는 그 당시 독자적인 예배당을 갖지 못해 2년여 뒤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 양림동의 오웬 기념각에서 예배를 드렸다.

1924년 9월 30일 금정교회에 부임한 최홍중은 교우들과 더불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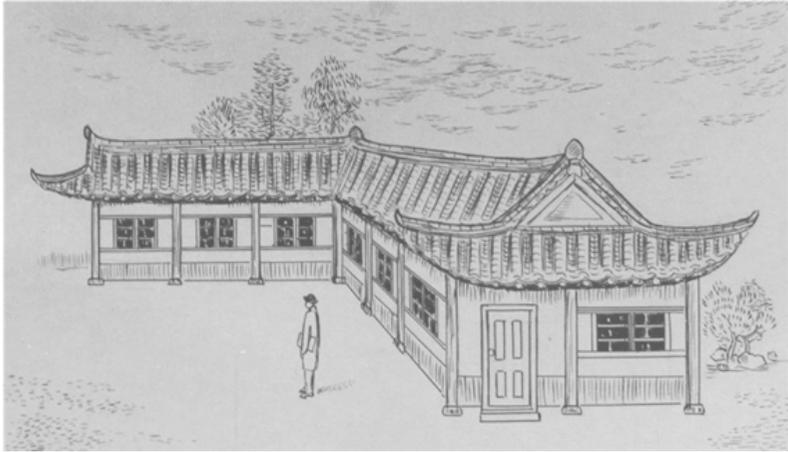
를 안정시키고 재조직하는 일에 착수하여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냈다. 그 당시의 교회 통계에 그러한 변화가 잘 기록되어 있는바, 양림교회로 300명 가까운 교인들이 나가고 금정교회에는 200여 명만 남았으나, 최 목사 취임 후 또다시 4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sup>83</sup> 최홍종牧사는 그동안 그의 일관되고 신실한 사회봉사와 참여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정신적 지도자로 우뚝 서 있었기에 많은 청년이 그를 따랐다. 금정교회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예배처가 되어 최홍종 목사가 1925년 11월 목회를 사임할 즈음엔 교세가 다시 크게 성장하여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참고로, 최홍종 목사 재직시의 금정교회 당회록(1925년 1월 11일)에 남아있는 작은 에피소드 하나는 최홍종이 어떠한 목사였는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해주기에 여기 소개한다.

“홍종은 재임 중 두 차례에 걸쳐 세례 및 학습 문답을 시행하여 22명에게 성인 세례를, 5명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고 27명을 학습 교인으로 세웠다. 문답 시 그는 몇 사람을 불합격으로 판정했는데 그 이유를 ‘신앙부족’(信仰不足)이라 명기(明記)해 놓아 주의를 끈다. 홍종의 목회기간 중 결혼을 약속한 한 쌍의 남녀가 혼전(婚前)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한 사람은 금정교회의 교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양림교회의 교인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였다. 홍종은 양림교회와 합동당회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했다. 이때 그는 두 사람의 범죄를 자백받은 후 죄과는 책벌하되 혼례식은 가정행사로 거행해주자는 결정을 내렸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사랑해야 한다는 그의 고매한 목회자적 인격이 돋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sup>84</sup>

83 『광주제일교회 100년사』, 2006. p. 278.

84 한인수, 「호남교회 형성 인물, 최홍종 목사」, 오방기념사업회 엮음 『오방 최홍종 연구』, 2022. pp. 47~48.

1925년 12월 6일 최홍중은 금정교회의 목회를 사임한다. 사임의 주된 이유는 광주나병원이 여수군(麗水郡) 율촌면 신평리로 이전하는 일을 직접 나서 돕기 위해서였다.



(1919년 금정 101번지로 옮겨 지은 금정교회) 출처: 제일교회 홈페이지

### 광주나병원에서 여수 애양원으로

최홍중 목사는 1908년 광주제중원에서 나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처음 임한 이래 교회사역 외에는 ‘광주나(癩)병원’ 일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며 나병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1912년 윌슨 선교사와 함께 광주나병원에 교회를 세워 예배를 지도하였고, 1924년까지 광주나병원 교회에서 38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1925년에는 성서 학교까지 운영했다.

그런데 광주나병원이 나환자를 따뜻이 맞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가 매년 늘어나 입원환자의 수가 500명을 상회하게 되자 광주 지역주민의 항의가 빗발치게 되면서 광주나병원의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1920년의 광주의 인구가 12,667명<sup>85</sup>에 불과했으니 500명이 넘

는 나환자의 숫자는 지역주민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당시의 사회적 현실은 나병을 하늘이 내린 형벌(天刑)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고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병으로 알았다. 그래서 이들을 ‘문둥이’라고 비하하고 가족과 친지마저도 그들을 배척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리고 치료 약이 없어 ‘문둥이는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는 끔찍한 유언비어가 전국적으로 퍼져있어 흑여 마을로 ‘문둥이’가 들어올라치면 돌을 던져 쫓아내기도 하였다.

1925년 당시 광주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 주는 신문의 사설이 홍명희(洪命熹)가 사장으로 있던 『시대일보』의 1925년 7월 26일 자 「나병원을 이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등장한다. 이 사설은 광주의 나병원을 소개하면서, 이 나병원이 불러 모으는 “나병환자로 인하여 광주의 시가에는 일종의 불안과 공포의 공기가 흐른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또 사설의 내용에는 “잠깐만 길에 나서도 육칠 인씩 만나기는 무난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지고 소름이 쪽쪽 끼친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광주의 분위기를 전달했다.<sup>85</sup> 사회적 현실이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나병원에 대한 주민의 불만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최홍종 목사는 이를 신속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로 받아들였다. 광주 나병원이 1920년대에 들어서며 당면하게 된 문제에 대해 차중순은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909년 광주에서 시작한 나환자 보호시설은 최홍종 목사가 제공한 1,000여 평의 땅에 45인 수용시설로 출발하였으나, 1924년에는 56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환자가 많아지자, 광주기독병원 원장인 윌슨(Robert M. Wilson) 의사는 입원환자를 제한하고 매월 치료비 7원씩 7개월분을 선납하

85 1920년 자료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86 「나병원을 이전하라」, 『시대일보』, 1925. 7. 26.

는 자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광주의 나환자 진료소는 정착촌과 더불어 기독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선교의 장이었으나 너무나도 많은 나환자가 호남지역에서 광주로 모여들었으므로 광주시민들로부터 정착촌 자체가 거부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윌슨 의사는 1924년에 이렇게 호소한다. 무료로 입원하기를 원하는 문둥병자를 이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치 마심을 바라는 것은 이러한 병자들이 조선 전국에서 이곳으로 모여들어 광주 안에는 큰 폐해가 되므로 우리는 도리어 심한 평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광주지역에 많은 나환자가 운집함으로써 기독교병원과 나환자 진료소는 광주시민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과 함께 거부를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순천지방 등지에서도 문둥병자가 많아 나환자 진료소 개설을 염원한다는 소식이 들렸다.”<sup>87</sup>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였다. 나환자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일이 미국의 경제공황 여파로 선교자금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나병원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이런저런 이유가 겹쳐 이제 광주나병원의 운영은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한 차중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광주에서는 <나병구제회>를 설립하였다. 이회는 김정기(金正基)에게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모금케 하였으나, 그 구제 액수는 극히 미약하였다. 그리하여 광주 나환자 진료소의 원장인 엉거(James Kelly Unger, 원가리) 목사는 미국에서 성행하였던 돼지저금통 운동을 전개하였다. ‘금도야지’라고 명명한 이 운동은 금 돼지를 쇠로 된 밥(돈)을 먹여 살이 찢 다음에 잡으면 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나환자들을 위하여 미국에서 도움을 준 액수가 1923년 동안에 50,000원인 반면에 한국 사람이 도와준 액수는 겨우 40원에 불과하

---

87 차중순, 「호남교회사에서 복음적 사회운동에 대한 한 연구: 五放 崔興琮 목사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1, 1999년, p. 65.; 그 외의 참고자료: 『기독신보』, 「광주문둥병 상황」, 1924. 12. 5.; 윌슨, 「조선의 문둥병」, 『기독교공보』, 1925. 2. 18.

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영거 목사가 지적한 미국교회 후원금 50,000원과 조선총독부의 후원금 17,200원, 그리고 한국인 현금 40원을 합하면 67,240원인데, 환자 1명이 한 달간 7원의 입원치료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800여 명 환자의 1년간 치료비에 해당되는 액수였다.

이렇게 나환자의 무료진료가 힘들어지게 되자 광주에서 조직된 나병구제회는 이름을 나병공제회로 개칭하고서 전국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다시 벌렸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광주군 조선나환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전조선 각 단체와 개인에게 많은 동정이 있기를 바랐던바 3월 26일 까지에 20처 교회와 기타 3인에게서 드려온 동정금이 합 84원 80전이라더라. 이 액수의 현금액은 나환자 한 사람의 1년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적은 액수였다.”<sup>88</sup>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자 최흥종 목사가 아니 나설 수 없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받은 그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 포사이드와의 만남에서 운명적으로 섬기게 된 나환우들의 고통은 일생을 통해 언제나 자신이 함께 나누어야 할 고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한계에 도달한 외국선교회의 도움이 이외에, 조선인들에 의한 모금 운동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사실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득과 모금은 외국 선교사가 아닌 최흥종의 몫임이 분명했다. 그는 목사 사임 후 바로 설득작업에 나서 광주의 나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게 하는 조건을 내걸고 광주 유지들의 현금을 기탁받는 일을 전개했다. 이렇게 하여 모여진 금액이 15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었다.<sup>89</sup> 우월순 의사와 최흥종 목사는 순천 선교부와 논의를 진행한 끝에 순천과 여수 중간에 있는 율촌면 신평리 바닷가의 땅을 당시 돈

---

88 차중순, 1999년. 위의 논문. pp. 67~68.

89 차중순, 「五放 최흥종과 무등산」,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 광주문화재단. 2019. p. 80.

77,000원으로 논과 밭 40,000평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작했고, 나중에 100,000평을 추가로 확보하였다.<sup>90</sup> 1925년 말부터는 토지 정리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교회, 병원, 숙소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1926년 9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나환자 600여 명이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사회적 편견이 극심했던 터라 수백 명의 나환자를 실어 나를 교통편을 마련할 수 없어 주민들의 눈길을 피해 주로 어두운 밤에 걸어서 여수까지 갔다고 한다. 수백 명의 환우가 밤길을 터벅터벅 행진해 가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 떠오른다. 이렇게 건설된 것이 오늘의 여수 애양원(愛養院)이다. 최흥종 목사는 광주나병원이 여수군 울촌면 신흥리 애양원으로 이전하는 일을 직접 나서 돕기 위해, 1926년 초 울촌에서의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1925년 12월 6일 금정교회 목회를 사임하고 현지에 내려와 임시주거지에 천막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는 한편, 집단시설 건설을 독려하며 수개월을 나환자들과 함께 보냈다. 왜냐하면, 광주나병원은 자립형 자활촌 형식의 공동체를 지향했기에 교회를 짓는 작업에 광주나병원에서 목공일, 석공일 등을 익힌 나환자들이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역사가 오늘의 애양원에서 기억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행한 큰일과 큰 봉사를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의 헌신도 함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

90 (인터넷 검색): 여수시, <디지털문화대전>. 「애양원 역사 - 여수로의 집단 이주」.



△ 당시 한센 병 환자들의 주거 움막

(출처: 애양원 전시자료)



(애양원의 초기 모습)

이상과 같이 큰 노력이 있었음에도 나환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었다. 한 예로, 애양원 설립 후 2년이 지난 1928년 1월 28일 자 『기독신보』에 “광주읍 조선 나환자공제회에서 많은 환자를 한곳에 모아서 자작자급으로 생활할 만한 지역을 하나 엿기 위하여 일전에 해도 지사에게와 총독에게 진정서를 드렸다더라.”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여수 애양원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보호나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계속되어 1930년대에 다시 최홍종 목사가 나서 감당하여야 할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 다시 시베리아로 - 좌절의 시간

1926년 9월 광주나병원을 여수 애양원으로 옮기는 대역사(大役事)가 마무리되자 최홍종은 또다시 시베리아 선교에 나설 준비를 한다. 최홍종이 1923년 6월, 1년 3개월여에 걸친 시베리아 선교사역에서 돌아온 이후 러시아 연해주 지역 동포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걱정스러운 일뿐이었다. 이는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일찍부터 많은 한인(韓人)이 거주해 항일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던 중국의 동북 3성(東北三省), 곧 만주도 마찬가지였다. 즉 러시아에서는 최홍종이 떠난 해인 1923년 즈음에는 이제 러시아의 전 지역을 장악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한인교회 건물이 국유화로 몰수되고 자유로운 예배 모임이 금지되는 등 종교탄압이 점점 심해져 결국 1925년 장로교총회는 러시아 시베리아 노회(老會)를 폐지하게 되었다.<sup>91</sup> 한편 중국의 만주에서는 1925년 6월 일제와 중국 동북 군벌(軍閥) 사이에 만주 지역 조선인의 활동을 압박하는 '삼시 협정'(三矢協定, 미쓰야 협정)이 심양(瀋陽)에서 체결됨으로써 만주 동포사회는 큰 억압을 받게 되었다. 현지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다시 시베리아 선교의 길에 나서겠다는 그의 결심은 깊은 신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최홍종에게 시베리아 선교 활동은 단순한 종교 활동 그 이상의 무엇이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역량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복음 운동과 사회봉사 운동, 그리고 애국애

---

91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견 100년(1907~1950)」 『선교와 신학』 19집, 2007년, p. 49.

족 운동이 결합한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사명(使命)이었다. 그런 점에서 최홍중에게 1925년 시베리아 노회 폐지의 소식은 실망과 충격으로 다가왔을 터이다. 그런데 당시 조선 반도에서는 그 혼탁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의 흐름과 공산주의 정권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는 일이 수월치 않았다. 다시 말해 앞으로 다가올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의 무자비한 스탈린 체제나 중국에서 전개될 얽히고설킨 이념과 체제의 세계사적 갈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다만 목사 최홍중 앞에 놓인 분명한 선택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직접 부딪혀보고 확인하는 일이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야고보서 4장 17절)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그는 이론을 주장하는 대신 실천의 길을 택했다.

최홍중은 제2차 시베리아 전도목사의 임무를 띠고 1927년 1월 25일 니코리스크로 출발했다.<sup>92</sup>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선교 활동은 아무런 성과도 일구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1927년 5월 10일 자 『기독신보』에는 “4월 30일 선교사역을 중단하고 귀국”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장로회 총회 내지 전도부의 파송으로 금년 1월에 西 시베리아 전도목사로 부임하였던 최홍중 목사는 해삼위에서 얼마 동안 구금까지 당하였다가 마침내 적로당국의 퇴거명령으로 할 일 없이 귀국게 되어 4월 30일에 입성하였다는데, 로국에서 종교선포를 금지함은 물론이요, 더욱이 로국에 입적하지 않은 이로는 교회순행을 절대 금지함으로 부득이 귀국게 된 것이더라.”

1927년 제2차 시베리아 선교여행에 관하여 최홍중 자신은 다음과 같이 더 자세히 술회했다.

---

92 『기독신보』 1927. 2. 2.

“나는 長老敎總會 파송을 받아 러시아 서시베리아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宣敎師로 傳道파견되었으나 其時에 소련혁명 終반기에 際하여 日本軍隊가 撤退中이요 빨치산이 내려오는 途中에 있어 소란할 때라 危險한 고비를 몇 차례나 겪고 海參威까지 빨치산이 占領함을 목격하였으며 그 후 共產黨이 들어와서 빨치산을 집어치웠다. 宗教탄압을 始作中 宗教迫害에 걸려 蘇皇領 <케.페.우>에 수禁되어 40여일 後에 追放되어 歸國하였으며...”<sup>9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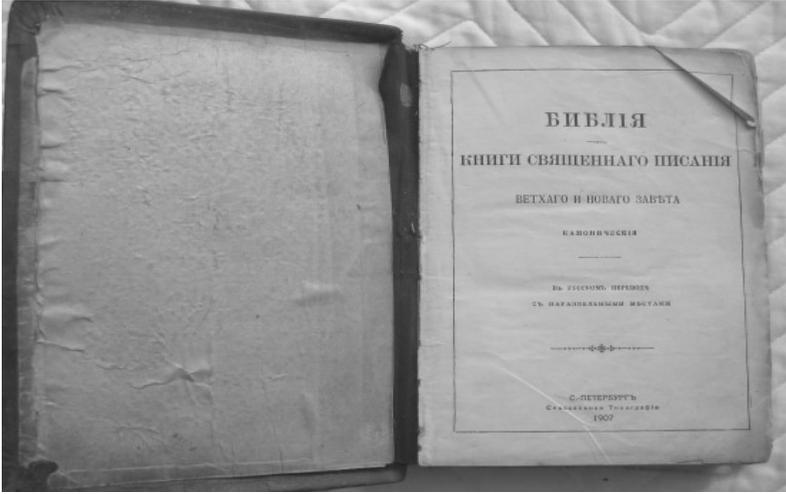
최흥종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 도착 후의 상황은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소련의 비밀경찰이라 할 수 있는 게페우(Г П У, KGB의 전신)에 체포되어 40여 일간 구금되었다가 추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의 2번째 시베리아 선교 활동은 3개월 만에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그 후 러시아(소련)의 사정은 더욱 나빠져 1929년 선교 보고를 마지막으로 20여 년에 걸친 블라디보스토크 장로교 선교는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스탈린의 반인륜적인 정책으로 약 19만 명이나 되는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비극이 발생했다. 강제 이주와 함께 연해주 조선인의 삶과 해외 독립기지의 꿈도 함께 사라졌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개인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었다.

최흥종의 2차 시베리아 선교에 대하여는 특기할 만한 사건이 없다. 그러나 그가 1913년 처음으로 시베리아 선교사 파견을 희망하여 그 9년 뒤 현지 선교를 기필코 이루어낸 사실에 비추어 3번째 시도의 실패는 엄청난 좌절의 시간이었으리라. 그런데도 최흥종은 시베리아 선교의 시간을 그의 삶의 진정성과 실천적 신앙관을 반추해 주는 경험으로 소중히 여겼다. 그는 그가 시베리아 선교 활동 중 품고 다녔던 러시아어 성경을 죽는 날까지 소중히 간직하며 한글 성경과 함께 항상 머리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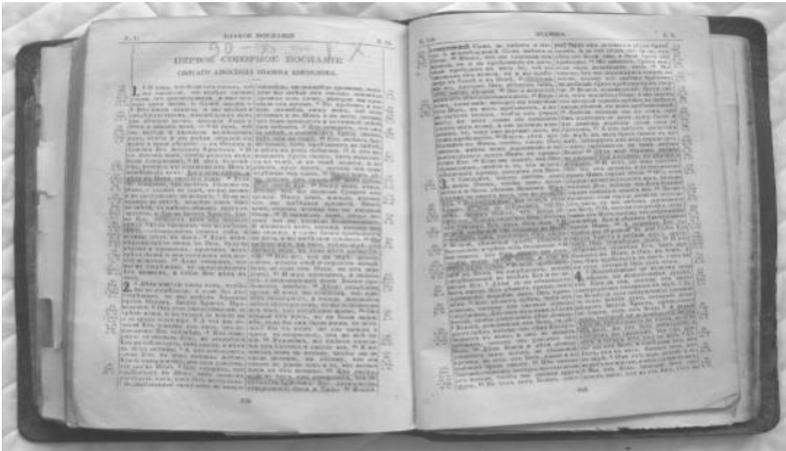
---

93 「구라사업 50년사 개요」 『호남신문』 1960년 3월 18, 19일.

두었다. 1907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출간돼 낡고 헤진 러시아 성경에는 그가 남긴 메모와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가 시베리아 선교 활동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정성의 기운을 느끼게 만든다.



(시베리아 선교 활동에 사용한 러시아어 성경)



(밑줄을 그어가며 읽은 흔적과 메모도 군데군데 남아있다.)

## 신간회 활동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된 민족운동은 중반에 이르러 노선과 방식을 놓고 운동 세력 간의 분열을 맞았다. 이는 민족운동 세력의 양대 산맥이었던 민족주의 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 모두에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27년 2월 15일 홍명희, 안재홍, 백관수, 신채호 등 33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정치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단체를 표방하며 신간회(新幹會)라는 전국조직을 만들었다. 광주에서는 1927년 10월 29일 좌우를 망라한 다양한 정파의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간회 설립을 위한 모임을 갖고 최흥종을 광주 지회장으로 추대했다. 설립 당시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았다. 회장 최흥종(崔興琮), 부회장 정수태(丁秀泰), 간사 최종섭(崔鍾涉)·한용수(韓龍洙)·전용기(全龍基)·김봉오(金奉午)·최장전(崔張填)·김흥선(金興善)·김철(金哲)·최한영(崔漢泳)·최당식(崔當植)·문태곤(文泰坤)·김경규(金慶奎)·정해영(鄭海榮).<sup>94</sup> 간사 명단을 보면 김철, 최한영 등 최흥종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한 이름이 나오는데, 김철, 최한영은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이다.

신간회가 갖는 합법적 좌우 연합단체의 성격을 생각하면 최흥종의 회장 추대는 당연한 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20년대 광주 사회에서 좌우를 망라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사가 바로 최흥종이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1920년 3·1운동으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광주에 돌아와 최흥종은 기독교 청년단체(YMCA)와 일반 청년단체(광주청년회), 그리고 노동 운동단체(노동공제회)를 동시에 만들고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좌우를 아우르는 지도력을 입증했다. 그러한 그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1926년 1월 광주청년회

---

94 「신간광주지회」, 『조선일보』 1928. 12. 22.

회원들이 노동공제회관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 광주지역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을 때 최흥종이 양측 책임자들을 불러 화해를 주선했던 일이다. 김천배의 표현을 빌자면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담임했던 ‘북문밖교회’의 사목관(司牧官)은 당시 광주의 3대 사회운동 단체인 ‘광주청년회’와 ‘노동공제회’와 ‘기독교청년회’의 합참본부였다. 광주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 민족계몽과 사회봉사와 민중투쟁 - 이 모두 ‘북문밖교회’ 사목관의 사랑방에서 모의되었다. ‘광주청년회’의 ‘노동공제회’ 습격 사건으로 표현되는 좌우의 충돌이 있었을 때도 그 화해의 방도가 이곳에서 모색되었다.”<sup>95</sup>

광주신간회의 활동은 일경의 간섭과 방해로 출발부터 순탄치 못했다. 광주신간회는 12월 임원 회의에서 첫 사업으로 10개의 단체를 묶어서 1925년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된 삼시 협정(三矢協定, 미쓰야 협정) 때문에 곤경에 빠진 만주 동포사회를 돕기 위한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는데, 토의장에서 회원 강석봉<sup>96</sup>이 일경에 의해 검속되는 혼란이 발생했고, 계획했던 시민대회는 일제(日帝)에 의해 원천 봉쇄당했다.<sup>97</sup> 1928년 8월에는 남녀 유학생 20여 명을 초청하여 환영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후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배후 지도자로 등장하는 성진회(醒進會) 출신 장재성이 유학생 대표로 답사를 했다는 기사<sup>98</sup>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간회는 활동을 지속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드러낼 만한 체계적인 활동은 언론 등에 보도된 것이 없어 눈에 띄

95 김천배. 「물이 ‘포도주’ 되어」,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 162.

96 강석봉은 1925년 4월 서울파 공산주의 그룹이 주도한 전조선노동대회의 준비위원, 1926년 12월에는 조선공산당 제2차 당대회에 참석해 전남도당을 재건할 임무를 부여 받았던 인물이다.

97 「광주각단체협의」, 『조선일보』 1927. 12. 16.: 「강석봉 씨 석방」, 『동아일보』, 1927. 12. 21.

98 『중외일보』, 1928. 8. 12.

지 않는다. 다만 1928년 12월에 최흥중 목사의 사회로 열린 제2회 정기총회 때에도 광주경찰서 고등계와 전라남도 경찰부 고등과의 정사복경관 10여 명이 나와 경계와 감시활동을 펼쳤다 하니,<sup>99</sup> 이러한 일경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하여 광주신간회 지회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2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1929년 6월 전남노회가 최흥중 목사의 제주도 모슬포교회 파송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최흥중은 신간회 지회장직을 사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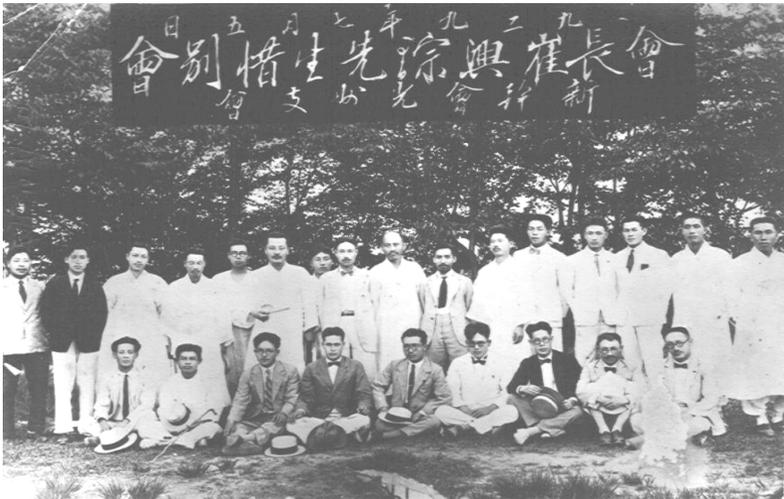
최흥중의 사임 이후 1929년 7월 광주지회는 중앙본부와 갈등 관계에 들어갔다. 갈등의 원인은 서울 중앙본부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정식 절차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열고 사회주의 계열의 허헌(許憲) 위원장을 선출하여 복대표제(複代表制)의 선거 방법을 결정한 후, 8월 15일까지 각 지회는 임시대회를 열어 개정된 규약에 따라 간부와 복대표(複代表)를 새로 뽑도록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새로 바뀐 제도에 의해서 사회주의 계열이 대거 중앙위원회에 선출되었는데, 광주지회는 함평, 목포 지회와 함께 새로운 선출 방법을 거부하며 항의했으나 본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중앙본부에서 일어난 좌우 세력의 물밑 주도권 다툼이 지회(支會)와의 마찰을 초래함에 따라 신간회 조직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하자 신간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단 갈등을 봉합하고 광주학생운동의 진상과 경과를 신간회 전국조직을 통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학생 독립운동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냈다.<sup>100</sup> 안타깝게도

99 「광주신간대회」, 『동아일보』, 1928. 12. 19.

100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배후로 1926년에 결성된 비밀결사 독서회인 성진회(醒進會)를 꼽는데, 1929년 당시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 중에는 성진회 출신이 많다: 강해석(姜海錫), 지용수(池龍洙), 한길상(韓吉祥), 장석천(張錫天), 강영석(姜永錫), 강석봉(姜錫奉), 김재명(金在明). 이들은 모두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되므로, 광주신간회 지부의 임원이 민족주의 또는 우파 성향의 인사가 많다고 지적되는 데 반해 회원 중에는 조선공산당 핵심

약 1년 6개월 뒤 신간회는 조직 내부의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1931년 5월 16일 창립대회 이후 처음으로 연 전체 대회에서 찬성 43, 반대 3, 기권 30으로 해소안을 가결함으로써 창립 4년여 만에 해체되었다.

참고로 1928년에 최흥종은 신간회의 일과 함께 광주교육보급회 이사(1928), 광주보통학교유지회 위원(1928), 광주철도기성회 상임위원(1928)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에 관한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또한, 같은 시기에(1928) 광주 YMCA는 농업선교사 어비슨(Gordon W. Avison)을 초빙하여 '농촌사업연구회'를 만들어 1930년대 초 광주 YMCA가 야심 차게 설립하는 농업실습학교의 기초를 다졌다.



(신간회 최흥종 회장 석별회 1929)

인물을 포함하여 좌파 성향의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11월 3일 이후 신간회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이 연계하여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큰 도움을 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 1929년, 제주도 모슬포교회 목사로

최흥종은 1929년부터 2년간 제주도 모슬포교회로 가게 되는데 이는 노회(老會)의 요청 때문이었다. 즉 최흥종이 신간회 광주 지회장의 일을 맡고 있을 때인 1929년 6월 전남노회는 최흥종의 제주 모슬포교회 파송의 결정을 내린다. 노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최흥종 목사는 1929년 7월 2일 모슬포교회 부임 차 광주를 출발했다.<sup>101</sup> 역사적으로 소외와 가난의 섬이었던 제주로 떠나는 최흥종 목사의 앞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라는 짐이 놓여 있었다.

조선예수회장로회 총회 제19회 총회록을 보면 전남노회가 “제주 모슬포 지경에서는 반종교운동의 핍박으로 교역자와 직원의 곤란이 있사 오며”(p. 91)라고 보고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반종교운동은 제주의 토착적인 선도교, 태음교가 보여온 서양종교(西洋宗敎) 배격운동과, 사회주의 계열 청년들의 반기독교적 행태를 지칭한다. 제주도에는 1901년 그 당시 치외법권적인 보호를 받던 프랑스 천주교 신부들의 횡포로 촉발된 신축민란(辛丑民亂), 또는 ‘이재수의 난(亂)’의 경험 때문에 서양종교인 기독교 전반에 대한 민중의 반감 정서가 존재했다. 그러한 기층(基層) 정서에 더해 1920년대에 이르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빠르게 퍼져 1927년 제주에 조선공산당 세포조직인 제주 야체이카(ЯЧейка)가 결성되기에 이른다.<sup>102</sup>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사상은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 당시의 반(反)기독교적 사정을 엿볼 수 있게 만드는 사건으로는, 예컨대 모슬포교회에 1914년에 파견되어 1921년까지 시무했던 윤식명 목사는 1918년 9월 2일 그의 일행이 전

---

101 『중외일보』 1929.7.2.

102 1928년 8월 20일에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제주도 각지의 청년단체가 총망라하여 중앙집권제로의 조직개편을 위해 제주청년동맹 결성대회가 모슬포에서 개최되었다.

(출처: <http://www.jejusori.net>)

도 활동을 마치고 서귀포에서 모슬포로 오는 도중 하원리에서 선도교(仙道敎) 교도들의 습격을 받아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한쪽 눈을 실명하는 불행을 겪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섯 곳에 불과했던 제주의 교회에서는 무신론으로 무장된 사회주의 계열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와 협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잦았다. 전남노회에서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해나갈 능력을 갖춘 목회자의 파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최홍중 목사를 택했다.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가 펴낸 <제주기독교 100년사>에서는 이때의 결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진 사회운동가들을 기독교의 ‘인도주의적 사회봉사 활동’으로써 감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해야 했다. 따라서 최홍중 목사의 삶을 이끌었던 나환자들을 위한 버림(放)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인 사회운동가들과 만날 수 있는 접착점이었다”(p.192). 이외에도 최홍중 목사는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이고 광주노동공제회장, 그리고 두 번씩이나 시베리아 동포를 위한 선교사로 활동했다는 이력 역시 참작이 되었을 터이다.

최홍중 목사가 제주 모슬포교회의 첫 위임목사로 취임할 당시 모슬포교회는 당회의 강화가 시급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당시 모슬포교회의 시무장로는 원용혁 장로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취임 직후 최 목사는 전남노회로부터 장로 2인을 선정할 것을 허락받아 9월 1일 공동의회 선거 절차를 거쳐 10월 27일 전남노회 제주지방 시찰회장 김영식 목사의 주재 아래에 강홍주와 허성재를 모슬포교회 제3대 장로로 임직 시켰다.<sup>103</sup>

그러나 최 목사의 모슬포교회에서의 목회 활동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최홍중 목사도 좌익들이 일으킨 설교 방해와 협박으로 많은 곤

---

103 『모슬포교회 100년사』, 모슬포교회, 2009년. pp. 152 - 153.

란을 겪었다. 1930년에 발생한 ‘설교 방해 폭행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1930년 4월 좌익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와 목회자에게 아우성 질문을 하고, 밖에서는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괴하는 등 예배 방해를 하자 교회의 청년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강홍주 장로가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가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였다. 그때의 상황을 그 당시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이운방<sup>104</sup>의 증언을 통해 파악해 본다. 증언을 들어보면 예배 방해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때 모든 종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어. 설득이나 연설을 해도 잘 안되니까 젊은 군들이 한번 직접 부딪혀보자고 행동을 하였지. 내가 일본서 돌아왔을 때니까 1930년 4~5월쯤 되지 않을까. 마침 모슬포교회에 선교사가 전도하러 올 때였는데 ‘우리 한번 가서 그놈들한테 질문도 해보자’고 의견이 모여어. 말하자면 방해지. 그러는 것이 소동이 되었지. 먼저 주먹질은 그쪽에서 했지만, 주먹 시위가 벌어지고 결국은 예배당 장로가 우리를 고소해서 6~7명이 제주경찰서로 불러가 25일 구류를 살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소년단 사람들이 그 예배당 장로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발길질도 더러 하고 그랬던 모양이라. 우리하고 대항하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 생각했던 게지. 그래서 그 장로는 다시 두 번째 고소를 하게 되니 우리를 다시 소환하게 되었어.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궤석판결로 벌금형이 다른 사람은 20원씩 나오고 나는 50원이 나왔어. 전부 벌금을 물고 나왔는데 나는 하루에 1원씩 해서 50일 동안 목포형무소에서 징역을 살아버렸지. 그때 갔던 사람들이 나, 오대진, 이도일, 이신호, 지내생, 이기효, 변신흠으로 기억되는구먼.”<sup>105</sup>

104 이운방은 해방 후 1946년 남로당 제주 대정면책(大靜面責)을 맡은 남로당 핵심 간부를 지낸 인물이다. 대정면(大靜面)은 모슬포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4.3의 주동자인 김달삼은 대정중학교 사회 담당 교사로 1947년 당시 이운방 면책하(下)에서 남로당 대정면 조직 부장이었다.

105 『4·3 장정 6』, 제주 4·3 연구소, 1993, p. 17.

이운방이 장로에 가한 무자비한 폭행을 빼고 언급한 이 사건은 제주의 사회주의 계열 청년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로 몰려가 예배 중 목사에게 야유성 질문을 던지고 밖에서는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동으로 예배를 방해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의도적 예배 방해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자행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광주에서 최홍종의 측근으로 많은 사회활동을 함께 했던 최윤상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그는 최홍종 목사의 가르침이 항상 비폭력이었음을 주지시켜 준다.

“예배를 볼 때마다 좌익 청년들은 돌맹이를 던져 유리창을 부숴버리고 야유를 하며 함성을 쳐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다. 투석 소동을 일으킨 자들과 시비를 하던 강 장로란 분은 갈비뼈가 두 개나 부러지도록 중상을 당했다. 교회 청년들이 보복하러 들자 최 목사는 이를 제지하여 말하기를, 제군이 보복하지 않을지라도 보복해줄 분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날 밤 주모자는 급자기 사망하고 말았다.”<sup>106</sup>

최윤상에 따르면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예배 방해가 그쳤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의연하게 극복해 나아가면서 최홍종 목사는 1931년 사임할 때까지 2년 동안 흔들림 없이 사역에 임하여 모슬포교회에 안정을 가져왔다. 그는 네 차례에 걸쳐 문답하여 2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27명을 학습 교인으로 세웠으며, 4명의 어린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등 적극적인 목회 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교회공동체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했다.<sup>107</sup>

최홍종 목사가 제주도 목회에서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제주노회의 창립이었다. 1930년 전남노회 소속으로 있던 제주도의 교회들이 독자적으로 분립하여 노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제주

---

106 최윤상, 「거지와 고아들의 아버지」,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 245.

107 『모슬포교회 100년사』 2009년 p. 161.

지역에는 조직교회 6개 처, 미조직교회 11개 처로 독립된 노회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제주노회가 전남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회의 참석을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제주지역의 반(反)종교감정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성을 부여하고자 했다.<sup>108</sup>

그런데 제1회 제주노회에서 제주기독교 선교의 개척자이자 연장자이기도 한 이기풍(李基豐) 목사를 제치고 최흥종 목사가 제주 첫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의 상황을 회고하며 2014년 8월 8일 자 『제주기독교신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주교회사 중 단기사역자였지만 기억해야 할 인물 - ①최흥종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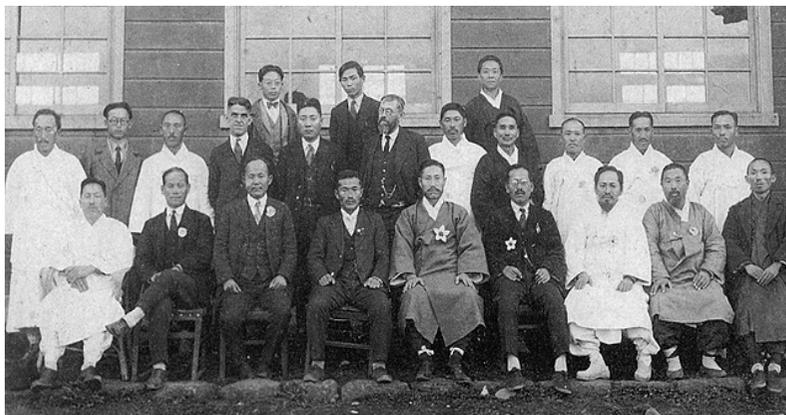
1930년 11월 14일 성내교회에서 제1회 제주노회가 모였다. 목사회원은 이기풍 최흥종 김재선 이도중 김영식 조상학, 장로회원은 이덕련 김계공 부상규 이재순 허성재 김재원 김일석이었다. 또한 선교사 타마자, 구레인, 서국태가 방조회원으로 참여하였고, 전남노회에서 이영희 목사가 언권회원으로 지켜보았다. 당시 노회는 저녁에 모여 예배하고 회무처리를 하는 것이 상례였다. 첫 노회는 17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이전에는 제주가 전남노회 소속 제주시찰회였다. 1930년에 전남노회 그리고 총회에서 제주노회 분립에 관한 의안을 채택하여, 독립적인 노회로 조직하게 된 것이다. 노회 혹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던 시절이어서, 보다 효율적인 선교와 사역을 위하여 분립하였을 것이다.

이 노회에서 최흥종 목사(1880-1966)가 첫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미 총회에서, 분립노회의 조직회장으로 정해졌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초창기 제주선교의 주역인 이기풍 목사를 제치고 최흥종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임된 일은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노회 장소는 이기풍 목사가 시무하던 성내교회였다. 당시 최흥종 목사는 50세, 이기풍 목사는 2년 전에 회갑잔치를 치른 나이였다. 총회장을 역임한지도 벌써 10년 이상 경과한 때였다.”<sup>10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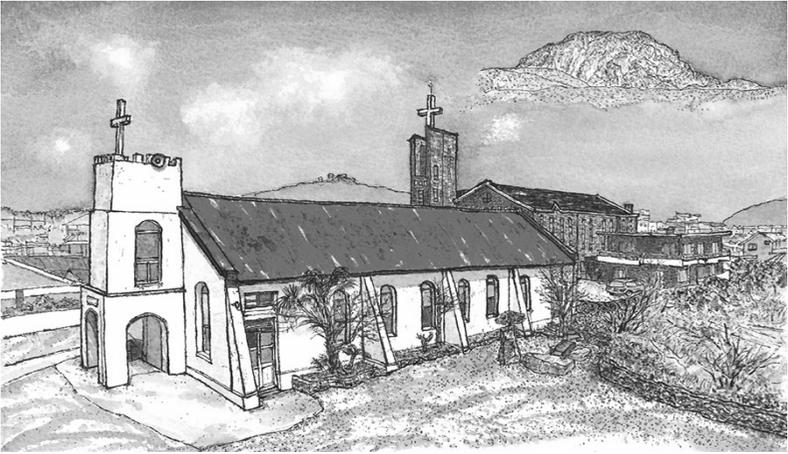
---

108 『기독교신보』 1930. 12. 17.



(제주노회 1930년 11월 14일. 최흥종 목사를 초대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기념 촬영)

모슬포교회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주노회의 전남노회로부터의 분리라는 큰 매듭을 지은 최흥종 목사는 1931년 여름 2년여의 제주 생활을 마감한다. 『제주신보』는 1931년 7월 22일 자에 최흥종 목사가 모슬포교회 공동처리회와 제2회 제주노회의 허락을 받아 모슬포교회 시무를 사면하고 1년간 휴양하기로 하고 1931년 7월 19일 광주로 돌아갔음을 전했다.



(1929년 지은 모슬포교회의 옛 예배당, 뒤편의 교회 건물은 1994년에 건립한 건물.  
이근복 그림)



(비교적 잘 보존된 옛 건물)



제 3 부

동 행

## 나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오다

최홍중 목사가 모슬포교회를 떠나려고 결심을 굳힌 데는 제주 생활에서 얻은 풍토병(風土病)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보다는 여수군 율촌면 신흥리의 조선 나환자공제회 회장 이종수의 간곡한 탄원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미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에서의 한센인들에 대한 구원 활동은 미국의 경제적 공황으로 선교사들의 선교비 축소를 가져와 더욱더 각박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수 애양원의 사정도 늘어나는 나환자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제 기약 없이 방치된 환자들은 노숙하는 가운데 1930년 스스로 공제회를 만들었다.<sup>110</sup> 그리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던 나환자공제회는, 1931년에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홍중 목사에게 구원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여수 애양원의 나환자들에게 최홍중 목사는 1926년 그들과 함께 애양원 건설에 참여했던 잊지 못할 은인이기 때문이었다. 여수 나환자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최홍중 목사가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자 한센인들은 그들의 기쁨을 아래의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처럼 서술하였다. 1931년 9월 2일 자 『기독신보』에 나오는 '나환자들의 슬픈 원정(冤情)'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sup>111</sup>

전남 여수 나 병원 문밖에는 전국 각처에서 입원을 희망하고 모여든 환자가 날로 늘어감은 심히 유감된 바라. 정원 외에는 더 수용할 수 없는 사정에서……저 가련한 자들을 서로서로 구조하자는 생각이 불일듯하여 병원 문밖엔 토지를 건설케 하고 조선 나환자공제회라는 실로 애처로운 회가 병원 수용환자 중에서 현금 조직하여 나온 지가 4~5년이 되었도다.……참담한 그들의 사정을 제주도

---

110 여수나병원 근처에서 생활하던 한센병 환자들도 1930년 조선나병환자공제회라는 이름으로 환자단체를 조직했다. 『매일신보』 「가련한 천형병자 여수나병원에 집중, 입원 거절을 당하고 공제회 조직, 경찰부에 주사약 청구」, 1930. 5. 10.

111 「나환자들의 슬픈 원정」, 『기독신보』 1931. 9. 2.

모슬포교회에 시무하시는 전 서시베리아 선교사 최흥종 목사에게 고백하였다니……그들을 위하여 출마하시게 된 목사님의 허락은 나환자 2만여 명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도다. 최 목사님의 초연하신 허락은 사회 내 정치사업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다음과 같은 총회의 허락을 바라더라.

총회 진정의 건

1. 전조선 나환자를 위하여 구제부를 조직하여 주실 일
2. 최흥종 목사를 전조선 지 교회에 동정 금품 및 물품 요구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실 일
3. 공제회 보고를 위한 언권 허락할 일
4. 위급환자 50여 명을 위하여 1개월 식량을 담석 연보로 부조하여 주실 일

여수군 율촌면 신흥리 조선 나환자 공제회 회장 이종수

최흥종 목사는 그의 뇌리에 나환자에 관한 관심을 항상 담고 살았다. 그가 1927~29년 민족운동진영의 통합을 위해 ‘신간회 광주지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도 한센인들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발견된다. 즉 1928년 8월 17일 자 『중외일보』에는 “1928년 1월에 광주의 조선 나환자공제회에서 나환자들의 집단거주를 위해 도지사 와 총독에게 진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최흥종이 그것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112</sup>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외 일보의 이 기사는 이미 7개월 전 기독교신보에 보도된 내용을 재차 반복해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13</sup> 아마도 이는 기독교계의 그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종교신문이 아닌 일반독자를 겨냥한 신문에 다시 기사가 나가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

112 『중외일보』 1928. 8. 17.

113 “광주읍 조선 나환자공제회에서는 많은 환자를 한곳에 모아서 자작자급으로 생활할 만한 지역을 하나 엮기 위하여 일전에 해도 지사에게와 총독에게 진정서를 드렸더라.” 『기독교신보』 1928. 1. 28.

즉 여수 애양원으로의 이주(移住)가 이루어진 후에도 곳곳에 여전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보호나 치료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환기하려 했다는 말이다. 이는 누군가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른 매체에서 다른 시기에 반복하도록 했다는 의미인데, 많은 사람은 광주의 나환자공제회의 일이 처음에는 기독교 매체에 보도가 나갔다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아 최흥종 또는 그의 측근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광주의 나환자공제회(또는 나병구제회)는 1924년 최흥종이 우월순 선교사와 만든 조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환자 문제에 관심을 놓지 않았던 최흥종 목사가 1931년 여름쯤 여수 조선 나환자공제회로부터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받았으니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기독교신보에 보도된 글의 내용을 보면 “총회의 허락을 바라더라”라 하여, 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진정(陳情)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있음이 눈길을 끈다.

최 목사는 제주에서 광주로 돌아온 뒤, 얼마 후 여수 애양원으로 달려가 노숙상태의 나환자들을 만나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섰다. 그 첫 번째 작업이 여수 나환자공제회 대표가 말했던 바처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실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해보는 일이었다. 그는 주저함이 없이 1931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 수양관에서 열린 제20회 총회로 직접 가서 여수 애양원 나환자공제회의 사정을 탄원하고 기독교계의 도움을 구했다.<sup>114</sup> 그 결과 전국의 목사 66명, 장로 66명, 선교사 32명이 참가한 제20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나병 예방과 소멸책을 철저히 선전하도록 지시하다’라는 결

---

114 최흥종은 총회에 발언권 자격이 없이 참석했기 때문에 여수나병원 원목인 김응규 목사에게 부탁하여 발언하도록 했다. (참고) 한인수, 「호남교회 형성인물, 최흥종 목사」, 『오방 최흥종 연구』, 오방기념사업회, 2022. p. 53.

의문이 채택되었고 여수 나환자공제회에 50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총회의 결정은 나환자의 실상을 널리 알리자는 데에 방점을 두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크게 미흡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었다. 무언가 강력한 다른 대책의 마련이 절실했다. 최홍종은 바로 서울로 발길을 돌려 그가 그동안 구상해 온 전국적인 조직화 작업에 착수한다.

## 나환자를 위한 전국적 조직의 가동

1931년 9월 24일 자 동아일보에는 ‘조선나병환자구제회’의 발기인 대회가 열려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sup>115</sup>

“9월 24일 오후 8시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나병환자구제회>의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동회는 김병로를 좌장으로 의사를 진행한 결과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실행위원으로 즉석에서 20명을 선출하여 동사업 진행에 대한 일체를 동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실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윤치호, 신희우, 이종린, 오금선, 한용운, 최홍종, 안재홍, 김필수, 명제세, 현준호, 조만식, 김탁원, 김병로, 유각경, 김성수, 최규동, 박승직, 송진우, 이인, 김응규의 20인.”<sup>116</sup>

115 『동아일보』 1931. 9. 24.

116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된 실행위원 중 상당수는 최홍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한용운, 안재홍, 조만식은 신간회 창립발기인으로 신간회 광주지회 회장을 지낸 최홍종과 연결되고, 김필수는 3·1운동 때 광주로 내려와 최홍종을 접촉한 인물이며, 세브란스의 전 피부과 주임교수인 오금선은 목포 선교부 의료원 의사로 1908년부터 12년까지 근무하며 최홍종을 알게 된 사람이다. 그리고 김병로, 송진우 등은 광주에서 가까운 담양과 순창 출신으로 중등과정을 지역에서 보냈다.

그런데 최흥종은 그 바로 전인 9월 17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참석했으므로 불과 1주일 동안에 그가 수일이 걸리는 서울까지 먼 길을 가서 2~3일 만에 전국적인 대규모 조직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성사시켰다는 사실이 놀랍다. 특히 발기인 대회에 참가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의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통보받고 자신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나환자 관련 모임을 만드는 데 참여했는지 궁금해진다.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는 그다음 이어지는 회의에서 최흥종을 상무위원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모든 일을 총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주도하여 만든 것이 확실한바,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그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온 작업이 이 시점에 표면화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단시일에 사회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대거 참여한 이러한 전국규모 조직구성 작업을 현실화하려면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축적되어 온 여러 갈래의 노력과 움직임이 이어져 왔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지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1928년에 잠깐 등장하는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이다. 참고로 1928년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사실, 즉 최흥종과 우월순(Wilson, 윌슨)이 광주의 나환자 문제를 도지사과 총독에게 직접 진정(陳情)한 바로 그 시점으로써, 최흥종이 나환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끊임없이 유지해 왔음이 확인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 한센인 단체인 대한한센인복지협회(舊 社團法人 大韓 懶協會)에서는 1928년 4월 6일 설립된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 발족을 협회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대한나관리협회 발행 『한국나병사』(1988년)의 81쪽에는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설립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나라의 선각자들은 일제의 침략에 끈질긴 항쟁을 계속하면서도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구라(救癩)사업에 민족자존의 눈길을 돌려 1928년 4월 6일, 한국 최초의 민간 구라단체인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를 탄생시켰다. 당시 여수에서 월슨과 더불어 구라사업에 몸담고 있던 최흥중(崔興琮)은 우리나라 나환자는 우리 손으로 보살피고 구제해야 한다는 각성(覺醒)하에 전국적인 구라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를 발기(發起)한 최흥중은 월슨과 더불어 경성(서울)에 올라와 지도급 인사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힘의 규합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최흥중의 노력으로 규합된 동지 38명은 취지문을 채택, 공포하고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를 발족시켰는데, 조선일보 주필 안재홍(安在鴻)이 기초(起草)한 이때의 취지문은 민족의 자존과 독립정신을 담고 있다.”

그런데 1928년에 만들어졌다는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는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는다.<sup>117</sup> 그 이유는 추측건대 1931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만들어진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와는 달리 1928년의 나병근절책연구회는 명목적(또는 학술적 목적)으로 구성되어 드러난 실천적 활동 없이 여러 구상을 논의한 ‘연구모임’ 수준에 머물러 일종의 수면 상태에 놓여 있던 조직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기초가 존재했기에 몇 년 뒤 불과 일주일 만에 거대 조직의 출범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31년에 출범한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는 갑작스레 급조된 것이 아니라 최흥중이 여러 해에 걸쳐 구상하고 기초작업을 다지는 과정을 거쳐 등장하게 된 실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

117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의 ‘한센병’ 항목의 설명에도 1928년 4월 발족한 <조선나병근절연구회>가 명기되어 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민간운동으로 1928년 4월에는 조선나병근절연구회(朝鮮癩病根絶研究會)가 발족되고, 1932년 10월에는 뜻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선나병예방협회가 생겨나, 1948년 9월에는 대한나병협회가 창립되었다.”

그렇다면 1928년 4월에 만들어진 모임으로 추정되는 ‘조선나병근절  
 책연구회’의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 1928년에 확인되는 최흥종의 구  
 라 활동은 그해 1월 그가 ‘광주 나환자구제회’를 위해 조선총독에게 탄  
 원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한국나병사』에 바로  
 이 시기에 최흥종의 탄원서 제출 후 서울 왕래의 언급이 나온다. 참고로  
 1928년은 최흥종이 신간회 광주지회 회장으로 재직할 때라 중앙의 신  
 간회 간부들을 만나러 서울 왕래도 있었을 것이다. 취지문을 작성했다  
 는 안재홍과 최흥종은 1928년 모두 신간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음은  
 1928년 『朝鮮思想通信』 제690호 기사이다.

“광주 양촌<sup>118</sup>리 나병원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주관하고 있었으나, 이번 봄 동  
 (同) 병원을 여수로 이전함에 있어, 지금까지 수용되어 있던 수백 명 중 현재 광  
 주에 잔존하는 자들은 수용인원 관계상 수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미수용  
 자들만의 조선나환자공제회를 조직하여 유리걸식(遊離乞食)하는 환자들의 활  
 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작자급할 수 있을 만큼의 농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사회 측에 대해 동정을 구함과 동시에 전남지사 및 **조선총독**에게 진  
 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진정 내용은 실로 눈물겨운 것으로 전 조선에 있  
 는 2만여 환자들이 독점거주할 수 있는 특수지역을 하부(下附)하여 농업에 종  
 사토록 해줄 것을 탄원한 것이라고(중외)<sup>119</sup>”

그렇다면 최흥종은 왜 1928년 1월 광주나환자공제회를 대신하여 총  
 독에게 직접 진정서를 내는 행동으로 나서게 되었는가? 이는 그가 시베

118 1611년 정업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정려비문에 양촌(楊村) 정선생이란 표기로 보아 당  
 시 마을 이름을 양촌(楊村) 혹은 양림촌(楊林村)이라고 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19 『조선사상통신』, 제690호 1928년 6월 27일. 기사 말미의 (중외)는 『중외일보』의 기사에  
 근거했다는 표시이다. 일종의 註釋이다. 『조선사상통신』은 1926년 5월 7일 경성일보  
 편집부장이었던 이토 간도(伊藤韓堂)가 창간한 언론이다. 조선사상통신사는 『朝鮮思想  
 通信』의 창간목적은 조선어로 발행되는 신문, 잡지, 저술 등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  
 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연구자료로 제공함을 밝히고 있다.

리아에서 귀국한 뒤 얼마 후 충격적인 주검을 봤기 때문이었다. 즉 1927년 8월 26일 자 『동아일보』에는 광주에서 나병이 완치된 30세의 남성이 가족의 여전한 냉대 때문에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즉 최흥종이 오래 관여해 온 광주나병원에 ‘發病 初期’로 입원했던 환자가 7년에 걸친 치료로 완치(完治)되어 고향인 고흥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가족이 그를 여전히 기피하고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광주의 나병원으로 돌아와 다시 입원하기를 원했으나 여의치 않자 병원 근처를 배회하다가 갈 곳이 없어 목을 매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sup>120</sup> 최흥종에게 이 사건의 충격은 컸다. 나환자가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가족 구성원이 그를 회피한 것은 그만큼 나환자들의 구제는 치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사회적·물리적 공간의 마련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각인시켜 주었다.

돌이켜 보면 1911년 이래 광주나병원은 나환자의 강제적 격리정책을 택하지 않았다. 병원의 입원이나 퇴원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광주나병원은 나환자의 자작자급(自作自給) 방침에 의해 농경·건축·토목·봉재 등의 작업을 장려하였으며, 기독교 전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영육의 구원에 노력하였다.<sup>121</sup> 일제가 관리하는 소록도자혜의원과는 달리 서양선교사들이 세운 나병원은 ‘강제수용소’보다는 ‘요양소’에 더욱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colony, leper resettlement, leper village 같은 모델을 선호했다. “colony는 고립된 지역에 병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생활공간이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leper resettlement는 보통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대규모의 병원과 생활공간의 복합체를 말한다. 보통 resettlement라고 불

120 『동아일보』, 「가족까지 냉대, 나병환자 자살」, 1927. 8. 26.

121 김기주, 「소록도 자혜의원 나환자정책의 성격」, 『역사학연구』제44집, 2011. p. 226.

리는 곳에서는 환자들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의 농업을 하면서 자립 생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leper village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의료 전문가가 있는 클리닉(clinic)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sup>122</sup> 최홍종 목사가 일제 당국에 요구하고자 했던 나병구제는 바로 격리와 생활의 구제가 함께하는 모델이었다.<sup>123</sup> 왜냐하면, 그가 관여한 광주나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치료에 더하여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병행해 긍정적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1925년 우월순 원장은 광주나병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근래에 나환자들의 병을 낮게 합니다. 3월에 우리는 75명의 완쾌자를 퇴원시켰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서 자조하는 시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555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들은 장사하는 법과 병원 운영의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sup>124</sup>

나환자에 대한 격리와 구제의 동시적 필요성을 체험해 온 최홍종이 이즈음에서 주목한 현상은 1920년대 중반부터 한센병 환자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일이었다. 1920년대는 부랑 한센병 환자가 점차 도시에 있는 나병원으로 집중되면서, 나병원에 수용되지 못한 한센병 환자들이 도시를 배회하는 일이 잦아지는 시기였다. 부랑(浮浪) 한센병 환

122 김재형 『한센인의 격리제도와 낙인·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년 pp. 62-63에서 인용.

123 최홍종은 그의 나이 70이 넘어 전남 나주에 ‘호혜원’이라 하는 음성나환자를 위한 자활촌(village)을 결국 만들었다.

124 R.M.Wilson, “Somethings our medical work is doing in Korea”. *The Presbytery Survey*. May, 1925. p. 29. 광주에서는 1925년 광주양림교회 건축공사에 나환자촌의 기능공들을 고용하였다. 양림교회는 최홍종목사가 몸담은 복문안교회와 금정교회에서 분리돼 나간 교회였기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다.

자 증가 속도가 나병원의 수용 능력을 훨씬 넘어서자 부랑하던 한센병 환자들은 입원을 기다리고 생존을 위해 구걸하면서 도시에 거주했다. 점차 이들의 수가 많아지자 도시민들의 이들에 대한 불만은 점차 커졌고 당국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적대적인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한센병 환자들은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sup>125</sup> 1923년 대구에서의 나환자공제회<sup>126</sup>의 출범을 시작으로 1924년에는 광주<sup>127</sup>에, 그리고 1926년에는 부산 근교 동래<sup>128</sup>에 나환자 상호회가 만들어졌다. 1931년 최흥종 목사에게 직접 도움을 청한 여수나환자공제회는 1930년에 창립되었다. 이렇게 전국적이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나환자의 조직은 이제 그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상부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강력한 압력단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보면 최흥종 목사가 전국적 규모의 나환자구제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해 가는 작업은 시간을 두고 그 윤곽이 서서히 틀을 잡아갔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의 폭넓은 사회적 활동을 통해 만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연구회 같은 공부 모임이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건과 과정이 기반이 되어 1931년 드디어 서울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여 나환자구제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는 생각이다. 만일 이렇게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지도층의 모임이 결성되어, 지방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나환자공제회조직

---

125 김재형. 「식민지기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죽음과 생존」, 『의사학(醫史學)』 제28권. 2019년 8월, p. 474.

126 『동아일보』, 「경북달성에 나병환자상조회」, 1923. 12. 31.

127 『기독신보』, 「나병구제회의 결과」. 1924. 5. 21. 그런데 광주의 <나병구제회>는 명칭을 1928년에 다른 지역처럼 <나병공제회>로 변경한다. 『기독공보』, 「나환자의 동정금」, 1928. 4. 4.

128 『시대일보』, 「나병자상조회 인가 신청 중」, 1926. 7. 4.

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이러한 단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되돌아보면, 1929년 신간회라는 전국적 조직이, 그것이 보여준 조직 내(內) 여러 분파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발하자 각 지역의 조직들이 연계하여 움직임으로써 학생 독립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 또한 식민통치에 대한 압력 또는 도전 세력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다 하겠다.

이제 다시 1931년의 조선나환자구제회에 대한 논의로 돌아오면, 출범 즉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조선나환자연구회’의 활동은 계속하여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즉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는 바, 9월 30일 자에 “조선나환자연구회<sup>129</sup>는 28일 오후 8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김병로 씨 사회로 아래와 같이 집행위원과 실행위원 임명 등을 결의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집행기관 위원장 윤치호, 상무위원 최흥종, 규약 기초위원 안재홍, 최흥종, 이인, 김병로, 실행위원 백관수, 현 동안, 이기태. 임시사무소는 중앙기독교청년회관 내에 둔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흥종이 실무를 총괄하는 상무위원으로 결정된 점이다.

나환자구제연구회의 활동은 계속하여 『동아일보』 10월 21일 자의 기사에 아래와 같이 소개되었다.

“나환자구제연구회 상무원 최흥종은 전조선 나환자 수가 1만 8천 명이고 그 가운데 유랑걸식하는 나환자를 4천 명에 이르는데, 각지의 환자들이 나환자구제연구회의 창립 소식을 듣고 동 구제회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나환자구제회에서는 10월 19일 오후 5시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

---

129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의 명칭은 여러 신문에서 보도할 때에는 기자들이 조선나환자연구회, 나환자연구회, 나환자구제회, 나병구제연구회 등으로 약간 혼란스럽게 자의적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칭은 1932년 1월 말경 다시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로 바뀌게 된다.

여 동 회의 취지서를 통과하는 동시에 동 환자의 분포상황과 민중보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후에는 각계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구제사업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과 상무를 증원하고 그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증원된 위원은 7인, 상무는 5인이었다.”

조직을 정비한 연구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은 연구회 활동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의 첫 번째 실행사업 중의 하나는 경성부 내외에 있는 나환자를 여수나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경비 약 천 원을 모금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1932년 1월 19일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백관수, 김병로, 최흥종을 실행위원으로 하여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고, 윤치오는 이 자리에서 2백 원을 의연(義捐)하였다고 언론은 전한다.<sup>130</sup>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는 대구나병원장 플레처 박사의 경북 나환자 20년 근절안(根絶案)을 토대로 만든 ‘전조선 환자 20년 근절안’을 회의에 상정 및 토의해서 더욱 연구 발전시키기로 했다.<sup>131</sup> 또한,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는 단체의 취지서를 수만 매 인쇄해서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참고로 1932년 1월 장정(章程)을 만들고 취지서 수만 장을 인쇄하여 일반에 배포할 때 연구회의 명칭을 아무런 설명 없이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로 변경했는데 이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면밀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1932년 1월 취지서를 발표할 때 위원의 숫자가 38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부록 참조)이 한 요소가 아니었나 한다. 사회 저명인사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조직 구성원의 변화는 그동안 최흥종이 한결같이 강조해 온 ‘나환자’의 ‘구제’보다는

---

130 『매일신보』, 「윤치호씨가 출선 이백원을 의연, 일반위원은 감격불이하며 사회동정을 대망」, 1932. 1. 21.

131 『동아일보』, 「근절안 토의, 19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각 부서도 결정」, 1932. 1. 21.

일반 식자(識者)들이 더 중요시한 ‘질병’의 ‘근절’로 연구회의 관심이 바뀌도록 작용한 것은 아닐는지? 그렇다면 조직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나환자의 문제를 최흥종처럼 심도 있게 천착해 온 인사들이 아니었기에 최흥종도 연구회 임원들 절대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자들의 경우, 명칭 변경 문제에 민감하지 못해 기사를 작성할 때 계속하여 나환자구제연구회와 나병근절책연구회를 혼용해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sup>132</sup> 여하튼 연구회는 활동을 연이어 활발하게 전개하여, 조직의 확산을 목표로 지방에 분회나 지회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최흥종 상무위원이 지방 출장<sup>133</sup>에도 나서는 한편, 본회의 조직도 서무부, 구제부, 조사연구부로 나눠 효율성을 더했다. 1932년 3월에는 최흥종이 앞장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나환자 30명을 순천병원에 보내는 비용 2,400원을 모금하기 위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sup>134</sup> 그리고 연구회는 부정확한 조선의 나환자 통계 작성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sup>135</sup>함과 동시에,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궁극적 목표인 조선인이 경영하는 나(懶)시설의 설립을 위해 각지에서의 기부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연구회 발족 후 수개월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조선총독부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예산상의 문제로 나병구제 사업을 활발히 펼치지 못했던 관계로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의 이러한 활동을 초기에는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조선나환자구제회의 활동이 명칭까지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로 바꾸어가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자 점

---

132 『동아일보』, 「나병근절회 장정과 취지」, 1932. 1. 26.

133 『동아일보』, 1931. 11. 1.

134 『동아일보』, 1932. 3. 25.

135 『동아일보』, 1932. 1. 21.

차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하여 1932년 중반에 들어가면서 여러 갈래의 방해 공작이 본격화되었다. 만일 조선총독부 당국이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을 조선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여 그들의 역량을 과시한다면 그 자체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리라 판단한 것이다. 식민 통치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는 급기야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모금 활동을 불허(不許)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고, 초기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부터 참여해 온 핵심 인사들을 은밀하게 설득·회유하기에 이른다. 결국, 핵심 인사 몇이 뚜렷한 이유 없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모금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급격히 활동 동력(動力)을 잃게 된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는 1932년 6월 3일에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해산 절차에 들어가고, 일부 인사들은 조선총독부 주도로 설립된 관변단체로 흡수된다.

###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나환자 정책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나환자 정책은 1916년 소록도 자혜위원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소록도위원에 수용된 나환자의 숫자는 8년이 지난 1925년에도 250명에 머물러있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나병원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총독부는 1920년대 중반 이후 도시 근교에서 배회하는 나환자 문제로 인한 사회적 압력 때문에 1929년에 이르러서야 확장공사를 하고 수용인원을 750명 수준으로 늘렸다.<sup>136</sup> 이러한 수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나환자 구제정책은 그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었기에 식민권력은 조선 사회의 나환자 구제에 대한 요구에 1930년대 초반까지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136 1929년 소록도 자혜병원에 735명, 여수나병원에 970명, 대구나병원에 475명, 부산나병원에 649명으로 총 2,829명의 나환자가 수용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낭류나병환자와 부족한 시료기관」, 1929. 7. 4.

일제가 오랫동안 조선의 나환자 문제를 거의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감지된다. 예를 들면, 1924년 3월, 조선 남부의 각지를 시찰 중이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아리요시(有吉忠一)의 담화가 한 보기이다. 아리요시는 3월 29일 부산에 와서 기자회견 중 “나환자 구제는 경비(經費)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오오사카 아사히신문·조선판’(1924년 4월 3일)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조선의 나병환자 구제책은 일찍부터 골치를 앓고 있던 문제로, 물론 전남의 관립 나병원을 비롯하여 전 조선에 있는 선교사가 경영하는 3개소의 수용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원조는 하고 있으나, 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지금과 같은 설비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경비의 문제로 지금 바로 해결할 수는 없다. 부산의 맥켄지씨와 같은 경우도 다대(多大)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 금후 가능한 한 원조할 예정이나, 어쨌든 이미 내지(內地)에서조차 나병환자의 보호 방법은 실로 불완전한 것으로, 이를 일석 일조에 희망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운운(부산).”<sup>137</sup>

일제의 이와 같은 소극적인 구라 정책은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나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치료와 수용시설로 야기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불만스러운 상황을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sup>138</sup>의 출범과 캠페인에 보조를 맞추어 1932년 1월 26일 자의 『동아일보』는 나병구제연구회 장정의 취지라는 제하의 기사로 알리고 있다.

---

137 『오오사카 아사히신문·조선판』, 1924. 4. 3.

138 1932년 1월 26일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가 취지서를 수만 장 인쇄하여 일반에 배포할 때 그 명칭을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로 바꿔 인쇄하였는데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그 명칭을 나환자구제연구회와 나병근절책연구회를 구분하지 않고 기사를 쓰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 인용 시에는 보도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인류애의 지극한 충동에서와 그리고 민족보건의 간절한 요구에서 우리들은 조선나병환자의 구제와 그 예방사업을 확립하기를 열렬히 주장한다. ……나병의 절대근절이 필요한 만큼, 나병을 절대격리 하는 것은 일일(一日)이라도 지완(遲緩)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그런데 격리하는데는 그 안전과 위안 및 의료가 없을 수 없으니 차(此)는 예방과 구제가 둘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유이다. 조선의 나병환자는 지금 1만 6천을 계(計)한다. 30년 전 지소수(至小數)에 비하여 30년 후 금일(今日)에 여사(如斯)히 증가된 것이 이에 놀라운 사(事)이었던 삼남(三南) 각지로부터 북선(北鮮)에까지 퍼져가는 병마의 발호(跋扈)는 실로 전 민족의 생명을 녹여 내려하고 구제되지 아니한 나병자들의 그지없는 방랑은 사회풍토와 민중보건상 더 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것이다.

…… 조선의 나병환자는 지금 1만 6천을 계(計)한다. 조선에서는 외국선교회 및 위정 당국의 시설까지의 수용과 구제가 2,500명에 불만(不滿)하니 그 의료와 예방의 부족함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sup>139</sup>

이처럼 점증하는 나환자 문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총독부 당국은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활동을 방관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해결책은 조선 엘리트가 주도하는 연구회의 활동을 차단하고 총독부가 대신 나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총독부의 계획은 총독부가 주도하여, 조선 민간인의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를 대체할, 〈나병예방협회〉를 만드는 방안이었다. 1932년 2월 27일, 『오오사카 아사히신문·조선판』은 ‘나병예방협회 설치를 결정/본부를 총독부에, 각 도(各道)에 지부’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경성(京城): 나병예방협회의 설립에 관해서는 이미 총독부 위생과에서 구체안을 고구(考究) 중에 있었으나, 이번에 성안(成案)을 얻어 드디어 설치하게 되었

---

139 『동아일보』, 1932. 1. 26.

으며 곧 취지서를 일반에게 배포하여 회원모집에 착수하게 되었다. 안(案)의 내용은 협회본부를 총독부 내에 두고 각 도에 지부를 마련하여 회장에게는 정무총감, 부회장에게는 경무국장 또는 지부장에는 각 도지사를 추천하고, 전 조선으로부터 대대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이 회비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여 나병 예방시설을 구축할 방침으로 각 도(道)와의 타협이 끝나는 대로 발회식(發會式)을 거행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의 나병환자는 현재 1만 4천 명의 다수에 이르나, 그 가운데 요양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불과 2,500명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만 1천5백 명의 환자는 완전히 방임된 상태로, 그 중에는 각지를 전전 방랑하고 있는 환자가 2천 명 정도 있어 위생상뿐만 아니라 인도상(人道上)의 중대문제로서 지금까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방협회에서는 우선 제1기 사업으로서 방랑 환자 수용의 요양소를 신설하여 그들을 가두(街頭)로부터 일소(一掃)한 뒤, 순차 예방설비를 하여 나병의 철저한 박멸을 꾀할 방침이다.”<sup>140</sup>

이렇게 일제의 총독부는 조선의 민간 지도자들이 설립한 ‘조선나병 근절책연구회’의 역할을 흡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구회의 모금 활동을 금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제(官制) ‘조선나예방협회’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1932년 12월 27일 재단법인으로 조선나예방협회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27일 총독부가 주도하는 조선나예방협회 설립계획이 알려진 지 얼마 후인 4월 11일 초기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위원장인 윤치호가 돌연 사임한다. 그래서 윤치호를 대신해서 최흥종이 회장으로 선임된다.<sup>141</sup> 집행부의 갑작스러운 이탈과 총독부의 모금 방해로 혼란에 빠진 연구회는 동력을 잃게 돼 별다른 활동을 펼치지 못

---

140 『오오사카 아사히신문·조선판』, 「나병예방협회 설치를 결정/본부를 총독부에, 각도(各道)에 지부」 1932. 2. 27.

141 『동아일보』, 1932. 4. 11.

하게 되자 6월 3일 의결을 거쳐 1932년 6월 24일 해체를 맞았다. 윤치호와 일부 임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의 내막은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당시의 조선총독부는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구조활동을 방치하게 되면 조선 통치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는 초기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의 활동이 시작될 때부터 일제의 정보기관이 연구회의 활동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sup>142</sup> 즉 감시와 정탐을 통하여 상황을 관찰하면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조선의 민간 지도자들이 설립한 연구회의 모금 운동을 방해하여 활동을 못 하게 함으로써 나병 정책에 관한 주도권 확보를 노렸다. 이러한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아쉽게 해체를 선언한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는 비록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조선인 스스로가 나환자 문제처럼 까다로운 사회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일제 당국에 각인시켰다.

1932년 12월 27일에 일제(日帝)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조선나예방협회’는 민간단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주요 직책은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가 차지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지배 아래 있었다. 협회의 중앙조직은 총독부의 관료조직을, 지방조직은 도청의 관료조직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었으며, 주요 임원은 전부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료에 의해 채워졌다.<sup>143</sup> 그리고는 전 조선에 걸쳐 대대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관의 조직을 통해 회비를 걷고, 동시에 기업이나 일반 단체에도 기부금을 강요하여 기금 조성에 나섰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권력은 민간인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여 많은 기부금액을 확보하게 되었다.

142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 집회취체상황보고」, 1931.10.20., 『사상에 관한 정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143 출범 초기의 회장은 정무총감 이마이다(今井田清徳), 부회장 겸 이사장에는 동(同) 경무국장 이케다(池田清), 상무이사에는 동(同) 경무국 위생과장 니시키(西龜三圭)가 취임했다.

조선총독부의 나병 정책을 연구한 김미정에 따르면, 관권 동원에 의한 모금으로 자금을 확보하게 된 조선총독부는 조선나예방협회를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 “첫째는 과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소록도 갱생원 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권력을 이용해 확보하였다는 것, 둘째는 소록도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충하여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나환자에 대한 식민당국의 정책 시혜성을 부각하였다는 것이다.”<sup>144</sup>

예산 확보의 길을 마련한 총독부는 소록도 나환자시설의 명칭을 <소록도 갱생원>으로 고치고, 1934-5년에는 관련 법령<sup>145</sup>을 고쳐, 종전까지는 ‘부랑 배회하는 나환자 중심의 격리정책’이었던 것을 ‘모든 환자의 종신격리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강제격리’와 ‘엄격한 통제’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대로 관(官)을 동원한 모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투입하여 소록도의 시설을 과시하듯 시차를 두고 점차 크게 확장해 나갔다. 그 결과 소록도 갱생원의 1935년 수용환자 수는 3,733명이었던데 반해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는 강제격리정책의 실행을 통해 5,025명으로 불어나 1,200명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sup>146</sup>

---

144 김미정.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 1930~40년대 소록도 갱생원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권 1호. p. 445.

145 1934년 9월 14일 칙령 제260호로 조선총독부 나요양소 관제칙령을 제정. 1935년 4월 제령 제4호로 조선나예방령 공포. 부령 제62호로 제정된 조선나예방령 시행규칙이 6월 부터 시행. 이는 일제하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선인 나환자에 관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지나친 국가관리와 통제, 그리고 강제격리정책의 강화를 가져온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146 김미정. 앞의 논문. p. 447.

##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朝鮮癩患者救濟研究會)의 유산

일제에 의해 진행된 소록도 나환자시설의 대대적인 확장계획은 하나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가 조선총독부를 자극하여 불러들인 변화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홍중 목사가 주도해서 만든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의 활동은, 비록 그 활동 기간은 짧았으나,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사회가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 현상에 위협을 느끼고 나환자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 결과가 소록도 시설의 대대적인 확장계획이었다. 그러나 나환자 수용시설의 확장에는 성공했으나, 최홍중 목사가 바랐던 환자들에 대한 구제책의 목표는 희석되었고, 이제 오로지 한센병 그 자체의 박멸에만 집착한 군국주의 일제의 직할 통제는 나환자에 대한 강제격리의 획일적인 강화와 지나친 억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강제적 통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은 1935년 <소록도 갱생원>에 지어진 형무소(刑務所)로써,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나환자 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예고해 주는 상징물인 셈이다.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의 활동이 멈추고, 얼마 뒤 최홍중은 서울을 떠나 광주로 내려온다. 그가 떠나올 때 『신동아』는 최홍중 목사의 경력을 소개한 다음, 최홍중 목사의 서울에서의 활동을 나환자구제연구회<sup>147</sup>의 조직 및 계획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정리해 기록으로 남겼다.

---

147 인터뷰에서는 단체의 명칭이 <나환자근절협회>로 되어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후시 자가 일제가 만든 <나예방협회>와 혼동한 것은 아닌지? 앞서도 지적했지만, 그동안 언론의 보도에서는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를 지칭하면서 줄여서 구제연구회, 나병환자구제회 또는 나환자구제회 등으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에서도 1932년도 1월에 연구회의 章程과 취지를 수만 장 인쇄하여 홍보하면서 동 연구회의 명칭을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라고 명기하였다. (『동아일보』 1932년 1월 26일 자 기사 참조.)

“나환자의 근절책은 크게 4가지인데, 격리·치료·구제·예방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을 갑·을·병·정으로 구별하여 갑은 대구와 여수 치료소, 을은 소록도와 부산 치료소, 정은 각 지역에 위치한 위탁치료소, 병은 경환자 및 유사 환자의 자가 및 집단 거주지를 말한다. 이 사업을 향후 10년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5백만 원이며 매년 50만 원씩 소요된다. 이 4곳에 수용 건물과 부속설비를 각각 세우고, 선교회와 조선인 기부금으로 그 총액을 충당하려고 계획하였다.

최홍중 목사의 계획에 동의하여 조선나환자 근절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김병로·이인·김성수·송진우·안재홍·유억겸·조만식·윤치호·신희우·현동완·김을한·서정희<sup>148</sup>·명제세·원익상·신공숙·유광열·유각경·국기열·홍병선·이선근·오금선·김철·장영규·노종갑·김삼현·최상채·김홍열·민병기·고재욱·현덕신·김양수·김정기·김용환·최영균·김희성·박영만·신태윤·이은상 등 70여 명이었다. 발기 당시의 꿈은 원대하였다.

이렇게 발기한 협회는 광주지역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선근·김을한·국기열이 특히 협력적이었다. 초대회장은 윤치호, 그리고 총무는 최홍중 목사가 맡았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조선나환자 근절협회는 당시의 경제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최홍중 목사는 1932년 6월 23일 서울지역의 나환자 30여 인을 데리고 신평리 애양원으로 떠나고 말았다... 최홍중 목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환자들과 일생을 같이하면서 지낼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씨는 아주 낙망한 것은 아니다. 여수로 가서는 소규모로나마 나병환자 구제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설명뿐이 아니라 그는 일생을 그들을 위하여 노력한 분이다. 최홍중 목사는 약속한 대로 실행하였다.”<sup>149</sup>

148 1920년대 광주에서 최홍중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서정희도 명단에서 발견된다. 서정희는 1924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창립되자 중앙상무집행위원이 되어 서울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92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했고, 1930년 11월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조직부장이 되어 최홍중과 다시 조우했다.

149 『신동아』, 「나병환자의 은인 최홍중 목사」, 1932. 8, p. 41.

신동아의 인터뷰 중 눈길을 끄는 사실 하나는 6월 23일 서울지역의 나환자 30여 명을 데리고 신평리 애양원으로 떠났다는 대목이다. 나환자구제연구회의 실질적 해체가 6월 3일 이루어졌는데도 최흥종 목사는 서울의 나환자들을 여수 애양원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고 있었다. 최흥종 목사가 해방 후 언론에 남긴 유일한 매우 짧은 회고담에 의하면 그는 서울에서 유랑 배회하는 나환자 30여 명을 여수 애양원에 입원시키려고 우월순(Wilson) 원장에게 연락한 다음, 경비 마련을 위해 당시 총독부 출입 기자이던 서범석을 앞세워 경무국장 이케다(池田)와 보안과장 니시키(西龜三圭)를 만나 경비 문제를 해결한 다음, 기차 한 칸을 특별히 내주도록 요구하여 광주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광주에 도착하니 경찰부장이 사전 허가도 없이 타지방의 나환자들을 다수 데려왔다고 처벌을 운운하기에 크게 다뿔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함께 내려온 나환자들을 광주에서 여러 사람의 협조를 얻어 여수 애양원까지 무사히 도착시켰다.<sup>150</sup> 1926년 광주나병원의 환자들이 여수 애양원으로 옮겨갈 때 그들을 태워다 줄 운송 수단 마련이 불가능해 수백 명의 나환자가 주민의 눈을 피해 며칠에 걸쳐 주로 밤을 이용해 걸어서 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서울에서 열차 한 칸을 특별히 전용하여 광주까지 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진다.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려면 언론 보도를 넘어서 보다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새삼 절감한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확인되는 점은 그 당시 최흥종 목사의 행동은 거침없이 과감한 측면이 있고, 동시에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남달랐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932년 6월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최흥종 목사의 나환자들을 위한 활동은 여전히 멈춤 없이 진

---

150 최흥종, 「구라(救癩) 사업 50년사 개요」, 『호남신문』, 1960. 3. 20.

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즉 1933년 4월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나환자들의 연합대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연합대회라는 집단 행동 끝에 최흥종 목사가 총독부를 방문하여 경무국장과 위생국장을 만나 나환자를 위한 여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진정했다는 기사가 4월 11일 자 『조선중앙일보』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보한 바와 가티 지전(池田) 경무국장의 발기로 퇴병방회(癩病豫防協會)를 조직하여 각도에 산재한 문둥병환자를 구제코 하는 이병 구호를 압두고 전남(全南)에 잇는 퇴병환자공제회(癩病患者共濟會)에 수용된 △백八십여명과 대구(大邱)에 잇는 퇴병상조회에 수용된 환자 七백 명, 부산에 잇는 상조회에 수용된 七백여명들이 최근에 런합대회를 열고 다음과 가튼 결의를 하여 총독부 당국에 진정 되었는데 전남의 최흥종(崔興琮) 목사가 十일 총독부로 지전 경무국장 서귀(西龜) 위생과장을 방문하고 장시간 진정하였다. 一. 無依託한 患者 先着收容의 件. 二. 患者收容募集을 △△△에 依託募集 할 것. 三. 未收容△△ 患者 臨時 救濟及治療△ 할 것. 四. 患者看護에는 患者를 使用 할 것. 五. 健康한 小兒는 特別教育△ 할 것. 六. 家庭生活患者와 獨身生活患者를 區別收容할 것.”<sup>151</sup>

1933년 4월이면 일제의 총독부가 만든 <조선나예방협회>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여 불과 3~4개월 정도가 지난 시기으로써 소록도 자혜원의 확장공사가 논의 단계에 머물러 가시화되기 전이다. 제1차 소록도 시설확장공사는 계획수립과 자금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착수되지 못했고, 1933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만여 명 이상의 나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방치된 채 곳곳에서 구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 대규모로 진행된 나환자들의 집단행동은 소록도의 치료시설 확장이 약속대로 진행되게 하려는 조선

---

151 “癩病者聯合大會 當局에 六條項陳情”, 『조선중앙일보』, 1933. 4. 11.

총독부에 대한 압박이었고, 전국규모의 이러한 움직임은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같은 목적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행동이 동시적(同時的)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 대구, 부산에서의 연합 대회의 결과로 도출된 6개의 요구사항을 광주의 최홍종 목사가 총독부로 직접 올라가 전달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 일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된다. 특히 그 당시 조선에서 다양한 나환자들의 조직과 지속해서 소통해 온 유일한 인사가 최 목사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더 그렇다. 같은 해 8월에도 최홍종 목사가 귀향한 광주에서 나환자 100여 명이 전남도청으로 몰려와 소록도에 수용하여 달라고 시위를 벌였다는 신문 보도<sup>152</sup>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최홍종 목사의 영향력이 곳곳에 잠재해 있어 여러 지역에서 나환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힘의 과시는 총독부의 소록도 시설확장 사업을 확실하게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최홍종 목사가 직간접으로 관여했음이 분명하다. 여하튼 최홍종 목사는 그가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 활동을 타의에 의해 접고 서울을 떠날 때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약속 - 즉 '나병 환자구제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로 한 결심' - 을 잊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되돌아보면 최홍종 목사는 그의 약속을 일생을 통해 깨뜨리지 않고 실천하여, 해방 후 혼란기에는 '조선나환자근절위원회'를 서둘러 조직하여

---

152 나환자들의 시위는 더 있었다. 예를 들면 1933년 8월 18일자 『조선중앙일보』에는 「광주는 나환자 천지, 나환자 백수십 명, 대거 전남도청에 殺到, 소록도에 수용하여 달라고」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온다. 또한 1934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에는 「이십여명 나병환자 전남도청에 쇄도, 속히 소록도에 보내달라고 탄원, 색다른 진정에 도청도 두통」이라는 기사도 확인된다. 이 시기는 최목사가 광주로 내려와 있던 때이다.

대한나협회의 탄생에 힘을 보탤고, 진공상태에 있던 여수 애양원에 임시 단장을 세워 유지 운영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정하에서는 소록도 갱생 원이나 여수 애양원에 물자 및 경비를 주선하여 주었으며, 우리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다시 전남 나예방협회를 조직하여 당국이 구라문제(救癩問題)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게 시키는 등 다양한 일을 꾸준히 해냈다. 그가 70대에 접어든 1950년대에도 전남 나주에 음성나환자촌의 건설에 나섰으니, 참으로 긴 세월을 한결같이 나환자의 곁을 지킨다는 그의 약속은 진심이었다.

### 다시 광주로, 그리고 궁민(窮民)구제연구회의 결성

1932년 6월 광주로 돌아온 최흥종은, 나환자 구제 문제에 더하여,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1932년 7월 말, 광주읍 행정 당국이 천정(泉町: 현재의 양동) 하천부지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빈민들의 집단거주 지역을, 철거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강제로 철거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sup>153</sup> 이때,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그들의 거처에서 쫓겨난 궁민(窮民)<sup>154</sup>이 800여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곳으로 떠났으나, 대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최흥종은, 최윤상의 표현을 빌리면 '얼굴이 초조해지더니 침식을 잇고 동분서주하며'<sup>155</sup> 대책 마련

153 「이백여 호의 빈민굴 광주읍에서 강제 철거」, 『동아일보』, 1932. 8. 8.

154 窮民이란 표현은 조선총독부의 貧民의 분류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총독부는 빈민을 緡民, 窮民, 乞食의 3가지로 분류했는데, 세민은 가난하지만 타인의 구호를 받지 않아도 생계는 유지되는 자, 궁민은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 절식은 부랑 배회하며 구걸하는 자이다.

155 최윤상, 「거지와 고아들의 아버지」,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협회, 2000, p. 240. "이때 광주 양동 일대(광주 큰장)에 살고 있던 영세민들의 가옥들을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철거하기 시작했다. 업동설한은 닥쳐오고 가려야 갈 곳 없는 이들의 아우성은 대단했지만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서 버린 때였다. 이때 뛰어나선 분이 바로 최흥종 목사

에 나서게 된다. 동아일보 8월 8일 자에 보도된 철거민에 관한 기사를 접한 후, 최흥종은 당시 동아일보의 광주지국장 김용환 등 여러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다음 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는 바로 8월 13일 그의 동생 최영욱 박사가 운영하는 서석의원(瑞石醫院)에 광주의 여러 인사를 소집하여 대책 회의를 했는데, 그 모임을 『동아일보』는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sup>156</sup>

이 소식을 들은 광주 시내의 각 방면 유지 30여 명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황금정 서석의원에 회합하여 최흥종 씨 사회로 개회하고 김재천 씨로부터 취지 설명, 고재섭 씨로부터 사실 보고가 있는 후, 그 대책 강구로 장시간 분분한 논의를 하였다. 광주읍 가옥 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를 조직하기로 만장 일치되어 즉석에서 좌기 부서에 위원을 정하고 동 11시 반에 산회하였다고 한다. 이날 회의 즉석에서 조직된 구제연구회의 집행부는 14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장: 최흥종/서무부: 오현창, 최영균, 김창호/조사부: 김응모, 김유성, 진재순, 고재섭, 정인세/교섭부: 유연상, 최영욱, 김재천, 최원순, 김용환.

동아일보의 보도대로 8월 13일 최흥종의 주도하에 진행된 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광주읍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 조직을 결의하고, 현장 조사 시행과 더불어 광주읍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아무도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일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참여적 시민(市民)의 전형적인 모습이였다.

‘광주읍가옥철거구 천정궁민구제연구회’(이하 구제연구회)는 1932년 8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4개월에 걸친 활동을 펼쳐 일정한 성과를 일구

---

였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최 목사는 얼굴이 초조해지더니 침식을 잊고 동분서주하며 헤매고 다녔다.”

156 「광주읍 가옥 철거구 궁민구제회 조직」. 『동아일보』, 1932. 8. 16.

어냈다. 이 문제를 연구한 정경운은 구제연구회 활동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기록했다.<sup>157</sup>

“철거민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집이 뜯긴 그 자리에서 흩어진 세간만 겨우 모아 놓은 채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때까지 이들에 대한 광주읍의 대책이 전무했음은 물론이다. 이때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제연구회가) 조직된 것이며, 연구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가 오방 최홍중이다. 이 구제연구회가 단순히 지역 문제에 대한 유지들의 형식적 조직체가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위한 조직체였다는 것은 그들의 발 빠른 활동 상황과 더불어 각 부의 담당 역할이 분명했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회합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 17일까지 구제연구회 조사부가 천정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갖고 교섭부가 18일에 읍장 면담까지 한 것이다. 조사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결과, 천정 일대에서 헐린 토막이 198호이며, 해당 공민은 86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결과를 갖고 교섭부는 당시 광주 읍장이던 오촌 신길(奧村信吉)을 찾아간다. 그러나 신병을 이유로 출근이 늦던 읍장을 기다린 끝에 오촌 읍장과 부읍장(박계일)을 면담하게 되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읍 당국의 대책은커녕 올해(1932년) 안에 호남정(湖南町), 누문정(樓門町)을 포함해 가옥 500여 호를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만 통보받았을 뿐이었다. 결국, 구제연구회는 읍 당국과 교섭이 간단치 않음을 판단하고, 주변을 공략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다. 먼저 당시 여름휴가를 떠난 전남도지사가 8월 21일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튿날인 22일 시도삼조(矢鳥杉造) 도지사를 방문한다. 구제연구회 위원들은 도지사에게 광주읍 당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공민 가옥을 철거했다는 것과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이에 도지사는 “잘 고려하여 좋은 방침으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주게 된다.”

정경운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제연구회는 읍 당국과의

---

157 정경운, 『오방 최홍중 선생과 ‘광주읍 가옥철거수 공민구제연구회』, 『오방 최홍중 연구』, 오방기념사업회, 2022. pp. 259~260.

교섭을 시작으로 광주읍장, 도지사, 의회 의원 등 책임 있는 관련 당사자들을 두루 만나 교섭을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석 달 이상을 끈 당국과의 교섭이 읍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구제연구회 지도부는 마침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이 광주를 시찰차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 담판을 벌이기로 계획한다. 구제연구회는 조선총독부의 지침에 철거당하는 <궁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구제할 것>이라는 명목상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광주읍 당국이 철거 시행 과정에서 행정상 미흡했던 사항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총독과의 면담에 대비했다. 그리고 우가키 총독이 광주를 방문한 9월 8일 오전, 구제연구회 위원들(최흥중, 김재천, 최원순 등 3명)은 전남도청 지사실에서 총독을 만났다. 이들은 총독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광주읍 당국의 행정상 잘못을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 임정(林町)에 있는 국유지 1만 평가량이 철거민 이주의 적임지라고 대안까지 제시하며 설득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는 아래와 같다.

우원 총독의 내광을 기하여 광주읍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에서는 최흥중, 김재천, 최원순 3명이 전라남도 지사실에서 우원 총독을 면회하고 화기가 넘치는 간담적으로 진정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여좌하다고 한다. 광주읍에서는 그 기재 상환의 필요상 그 소유 토지를 처분하려고 궁민 등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여 버렸으나 2,000여 명의 인구가 도로에 방황하고 있는 것은 인도상으로 광주시가 미관상으로 보아 도저히 방미할 수 없는 바이오니 임정(林町)에 있는 국유지(1만 평가량)가 그들이 이주하기에 가장 적당한 후보지인즉 그것을 광주읍에 대부하여 궁민 등의 안주 지대로 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진정을 들은 우원 총독은 명쾌한 어조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므로, 2,000 궁민의 안주지는 임정으로 결정될 듯하다고 한다.<sup>158</sup>

---

158 「임정(林町)의 국유지를 궁민의 안주지(安住地)로」, 『동아일보』 1932. 9. 10.

구제연구회 대표와 대화를 나눈 총독이 매우 긍정적인 답을 내놓음으로써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 총독과의 면담 이후 구제연구회는 읍당국과 다시 교섭에 나서 구제연구회의 제안대로 철거 궁민들을 임정에 이주시키기로 합의하였고, 9월 10일부터는 임정의 지평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산과 행정절차 등의 여러 사정 때문인지 그해 12월 초 임정으로 이주한 궁민은 30여 호에 그쳐 문제의 완벽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신 주민이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당당히 표현함으로써 행정당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비록 최흥종이 이끈 궁민구제연구회의 활동이 철거민 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광주 사회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긍정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즉 궁민구제연구회가 활동을 떠나가는 동안 이를 지켜보던 일반 주민들도 직간접으로 철거민을 돕는 일에 동참하면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다. 최흥종은 궁민들의 천막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고락을 같이 나눴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천에서 생활하는 철거궁민들을 구제연구회 회원들만의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계에 달하자 이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돕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구제회 회원이자 의사였던 최흥종의 동생 최영옥은 힘든 노숙으로 병을 얻은 철거민의 치료를 위한 의료봉사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일반주민들도 쌀, 천막, 현금 등을 가져와 철거민을 위로하였다. 이에 광주협동조합에서는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주고, 현준호는 많은 기부금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궁민구제연구회의 활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市民社會)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의 수확은 1932년의 이 궁민구제회의 활동이 교훈이 되어

1936년에 논의되고 1937년에 착공된 학강정(鶴崗町) 갱생지구에 양림정(楊林町)과 금정(錦町)의 500여 호에 달하는 철거 궁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철거민에게 새 보금자리를 제공한 학강정 갱생지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32년 천정(泉町)궁민을 위한 구제연구회의 활동이 보여준 주민의 잠재력 때문이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압력을 행사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1932년의 경험이 1936년에는 광주읍 당국이 더 철저한 논의와 준비를 하도록 만든 압박이 되어 도시 빈민 정책에 진전이 있도록 작용했던 것이다.

구민구제연구회의 활동이 의미 있게 마무리되자 이러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발적인 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런 구상에 특히 적극적인 사람은 동아일보 편집 부국장을 지낸 최원순과 동아일보 광주 지국장이었던 김용환이었다. 결국, 이들의 주도로 다음 해에 계유구락부가 만들어진다.

### 계유구락부(癸酉俱樂部)의 탄생

1933년 3월 12일 오후 7시 중앙의원(醫院)에서 광주지역 각 방면의 유지 37명<sup>159</sup>이 모여 계유구락부(癸酉俱樂部) 창립을 위한 총회를 열고 회장과 간사 6인을 선임했다. 명칭이 ‘계유’가 된 것은 1933년이 계유년(癸酉年)이기 때문이다. 명칭에서 보듯 계유구락부는 표면상 친목 단체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나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항일정신과 신간회의 체취가 묻어난다. 우선 회장으로 추대된 최흥종은 신간

---

159 최흥종, 구형서, 김명신, 심덕선, 김용환, 김희술, 최준기, 송화식, 정상호, 손우채, 김응모, 김우영, 손이채, 고재섭, 백남섭, 최영균, 김홍선, 김희성, 지정선, 최영옥, 최경식, 고광인, 김홍열, 최선진, 김광진, 최상채, 지창선, 김관홍, 최원순, 최석휴, 정난모, 양태승(무등양말, 고창고보 설립자), 박기주, 김신석, 이종묵, 유연상, 정문모 등 37인

회 광주지부 회장이었고, 간사로 선임된 최원순, 김응모, 최영식, 김홍열, 최영균, 김용환을 보더라도 최원순, 최영균, 김용환 역시 신간회 간부 출신들이다. 그리고 최흥종과 최영균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고 최원순은 2.8 동경 독립선언의 주모자이자 동아일보 편집 부국장 출신으로 항일 기사(記事)를 써 투옥된바 있는 인물이다. 그런 연유로 『동아일보』는 광주의 계유구락부 창립을 알리는 기사에서 “광주지역의 민중을 대변할 기관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긴 인사들이 조직한 광주 유일의 조선 민간단체”라고 소개했다.<sup>160</sup> 또한 계유구락부는 지역의 한 작은 모임에 불과한데도 당시 3개의 중앙 일간지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sup>161</sup> 모두에 그 출범이 기사화되었다는 점에서 계유구락부를 단순한 하나의 지방단체로만 간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범 후 계유구락부는 오늘날의 포럼(Forum)처럼 주로 민중계몽을 위한 강연이나 토론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그 외에 빈민구제 활동과 서서평(徐舒平, E. J. Shepping)처럼 광주 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를 한 인물의 사회장(社會葬: 1934년 6월 26일)을 주관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행사에 집중함으로써 특별히 드러나는 투쟁적 항일운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즉 계유구락부가 표면적으로 민중계몽과 빈민구제를 설립 이념으로 표방했기에 힘을 과시하는 투쟁적 항일운동의 행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에 수록된 『조선사상운동개관』에는 계유구락부를 정치운동단체로 규정해 1936년부터 1940년까지 계유구락부의 주요활동과 회원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조선사상운동개관』은 일본군(日本軍)의 정보기관인 ‘조선참모부’가 발행한 문서이므로 이 부분의 분석이 앞으로 필요한 대목이다.<sup>162</sup>

160 「癸酉俱樂部 光州에서 創立」. 『동아일보』 1933. 3. 16.; 「癸酉俱樂部總會」. 『동아일보』 1935. 3. 17.

161 「癸酉俱樂部創總」. 『조선중앙일보』. 1933. 3. 18.



계유구락부 창립회원들(37명). 1935년 창립 2주년을 기념해서 찍었다.

(맨 아래 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최흥종 회장)

### 계유구락부의 주요 활동

최흥종이 1934년에 계유구락부에서 ‘종교와 일상생활’이란 제목으로 강의<sup>163</sup>를 한 것으로 보아 계유구락부는 회원들 간의 자체 토론이나 세미나 모임도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지역민의 관심을 끈 계유구락부의 대표적 활동은 주민을 향한 대강연회였다. 대강연회는 1933년 5월에 첫 회를 개최한 뒤 1936년경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지속하였다. 5월 13일에 가진 첫 번째 대강연회는 동아, 조선, 조선중앙 3대 민간지국이 후원하여 광주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그에 대해 5월 17일 자 『동아일보』의 기사는 이렇다.

162 [근대사 발굴] 「계유구락부’ 광주·전남 저항정신의 뿌리. 『월간중앙』. 2012년 2월.

163 「秋季特別講演. 『동아일보』. 1934. 10. 20.

“3개 신문사에서 쟁쟁한 명사들이 한자리에서 강연한다는 것이 처음 보는 사실인 만큼 청중은 정각 전부터 700여 명의 다수에 달하여 성황을 이뤘다. 강사는 조선중앙일보 주필 이관구(李寬求), 신문학 박사 김현준(金賢準), 동아일보 조사부장 서춘(徐椿) 세 사람으로, 이들은 차례로 ‘조선 농촌에 미치는 세계공황의 영향’, ‘사회생활과 경제적 기초’, ‘교육 보급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그해 11월의 연사는 여운형(呂運亨)이었다. 다시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계유구락부에서는 중앙, 조선, 동아 3지국 후원으로 지난 15일에 추기(秋期) 대강연회를 광주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정각 전부터 몰려드는 청중은 1,000여 명의 다수에 달하였는데 최홍종 씨의 간단한 개회사가 있었던 후 연사 여운형 씨는 ‘생리학상으로 세계의 불건(不健)’이라는 제하에 한 시간 동안 열변하여 일반 청중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무사히 산회하였다고 한다.”

광주 100년을 집필한 박선홍의 책에는 여운형의 광주강연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발견된다. 강연 후 만찬 자리에까지 고등계 형사가 따라붙었다는 것인데, 계유구락부의 행사 또는 주요 인물에 대한 감시가 그만큼 철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광주보통학교 강당에서는 여운형의 초청 강연회가 있었다.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여운형의 장기인 격정적인 연설로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강연 후에 환영만찬이 신광원에서 열렸는데 주최측인 계유구락부에서는 최원순, 최홍종, 최영욱, 김용환, 김신석金信錫, 심덕선沈德善, 양태승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만찬에서 현 고창고의 전신인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실질적인 창설자이자 초대교장을 지낸 양태승이 환영사를 했고 이어 여운형이 답사를 했다. 만찬이 끝난 뒤에 여운형은 이날 동석자들이 서명한 정운면鄭雲勉의 매화그림을 선물로 받았다. 서명한 인사들 중에는 임석

경관으로 함께 했던 조선인 고등계 형사인 정광모의 이름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sup>164</sup>

그 뒤, 계유구락부의 강연 중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강연은 1935년 6월의 안창호 강연이었는데, 그의 강연 때에는 일본 경찰의 통제에 지나치게 심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윤봉길 의거 관련 혐의로 4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가 1935년 2월 감옥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난 안창호를 보려고 강연장에 밀려드는 인파를 막기 위해 일본 경찰은 행사에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안창호는 최흥종 목사의 중앙교회(옛 북문밖교회)에서 강연하고 밤에 계유구락부가 주최한 만찬에도 최흥종, 최영옥, 최원순, 양태승, 김용환, 최윤상, 현준호와 같은 극히 제한된 인사들만이 참석했다. 안창호는 이튿날에도 중앙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으며 수피아여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강연도 했다.<sup>165</sup>

흥미롭게도 1936년 『삼천리』라는 잡지에는 ‘최흥종이 안창호를 안내하여 1936년 2월에 여수 울촌면 신평리의 나환자치료소를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 안창호 선생이 왜 최흥종 목사와 함께 여수의 나환자촌을 방문했을까? 이러한 사실(fact)들을 어떻게 해석(interpret)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과제이다.<sup>166</sup> 여하튼 계유구락부의 1930년대 말까지의 활동이 어떠한 의도를 간직하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광주학생항일운동 이후 신간회가 해체된 다음 전국적인 항일운동을 기획하고 지도할 단체가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유독

---

164 박선홍. 『광주 100년』 (2). 2014. pp. 112~113.

165 박선홍. 위의 책. pp. 112~113.

166 「三千里機密室: 安昌浩氏의 南遊片片」, 『三千里』 1936년 6월호.: 1936년 2월에 방문했다 한다.

광주에서 신간회 정신을 이어받은 한 단체가 창립되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계유구락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일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광주 최초로 주민단체가 발의하여, 계유구락부가 거행한’ 서서평(徐舒平, Elis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를 위한 사회장(社會葬)에 관한 것이다. 혹자는 왜 외국 선교사의 사회장이 거행되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최흥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생전의 서서평은 항일의식이 투철한 선교사였다. 그래서 계유구락부의 관점에서는 그녀에 대한 사회장 자체가 일제에 대한 일종의 시위를 의미했다.

한국에서 22년간 선교 활동을 하다 광주에서 생을 마감한 서서평은 최흥종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우선 그녀가 조선을 선교지로 선택한 데는 최흥종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포사이드(Wiley H. Forsythe) 선교사가 미국 선교보고서에 쓴 ‘조선 사정’에 대한 글이 계기가 되었다. 그 글을 접한 서서평은,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 모집에 조선을 선택하여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왔다. 그녀는 1912년 조선에 온 첫 2년 동안 광주 제증원에서 최흥종과 함께 근무하였고, 1914년부터 19년까지는 군산과 서울에서 간호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1919년 광주로 다시 돌아와 1934년 임종할 때까지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였다. 광주에서 그녀는 최흥종 목사와 빈민구제, 나환자 치료, 그리고 여권신장(女權伸張)과 교육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함께 일했으며, 최 목사가 3·1운동으로 수감 중일 때는 친히 방문하여 응원하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흥종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광주로 귀향한 1920년 말에도 여성을 위한 성경학교의 강사로 함께 봉사한 기록이 발견된다. 또한, 1925년 1월 27일 자 『동아일보』에는 당시 최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던 금정교회에서 3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서서핑이 일부 조선(朝鮮) 남성의 무절제한 음주 문제를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지적하는 강연으로 주목받았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서로 협력했음을 알 수 있다. 최 목사와 서 선교사는 둘 다 1880년생으로 동갑이었는데, 최 목사의 생일이 빨라 그녀는 최 목사를 언제나 오라버니로 호칭했다고 한다.<sup>167</sup>

서서핑 선교사가 광주에서 특히 존경받았던 이유는 그녀가 한국인의 생활 한가운데로 들어와 함께 살며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첫 1년의 선교여행에서 만난 조선 여성 중에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열 명도 안 됐다. 서서핑은 조선 여성들이 ‘개똥 엄마’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 처한 이름 없는 여성들을 위해 고아원을 운영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간호사로 키우고, 중국에는 이일학교(Neel Bible college)<sup>168</sup>를 세웠다. 그녀는 실제로 한국인 고아 14명과 과부들 35여 명과 함께 한집에서 살았다.<sup>169</sup>

그리고 서서핑은 다른 선교사와는 달리 조선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한 드문 선교사였다. 그녀가 안식년 후에 미국의 친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놀랍다.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체계를 처음 이론화했다는 평을 받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책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

167 임희모. 「토착화 선교사 서서핑(Elisabeth J. Shepping)의 사역」, 『선교와 신학』 48. 2019. pp. 353-354. 최홍종의 생일은 5월 2일, 서서핑의 생일은 9월 26일이다.

168 서서핑의 미국인 친구인 니일(Lois Neel)의 원조를 받아 양림 뒷동산에 붉은 벽돌로 3층 교사를 짓고 ‘니일’ 양 이름자의 발음을 따서 한자로 ‘이일(李一)’학교라 했다. 이일학교는 1922년 시작하여 1925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3년제 사립학교인데, 보통과와 성경과를 두어 비기독교인들의 입학도 허락하였다.

169 임희모. 「토착화 선교사 서서핑(Elisabeth J. Shepping)의 사역」, 『선교와 신학』 48. 2019. p. 345.

이 출판된 해가 1978년이었으니, 서서평은 사이드보다 59년이나 앞서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적 언명을 남긴 셈이다.

“조선에서의 지난 17년 6개월을 돌이켜 볼 때 동양인의 삶의 고귀한 사고와 방식을 깎아내렸던 것은 저의 크나큰 오류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조선인들의 삶의 질이 제아무리 낮더라도 저 자신이 누려온 서구 문명의 가치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훌륭한 점들을 간과했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제 사고(思考)란 많은 조잡함과 결점투성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미국과 같은 현대 문명의 사회적 구조 아래 놓여 있는 진정한 영적 실체들을 규명하고 찾으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저는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조선인의 짐을 들어 올리는 데 힘을 보태게 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sup>170</sup>

한국어를 배우고,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었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즐겨,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했던 서서평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 고아 13명을 입양아로 남긴 채 그녀가 54세 되던 해에 ‘영양실조’로 하늘나라에 갔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그녀의 좌우명 “Not Success, but Service”(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글귀가 쓰여있었다. 섬기러 왔으면서도 호화주택을 짓고 살았던 일부 선교사들에 비하면 그녀는 가난한 천사였다. 그래서 1934년 6월 26일 서서평(徐舒平)이 타계했을 때 계유구락부 회원들은 광주 최초의 민간이 주도한 사회장(社會葬)을 계획했고, 장례식이 있던 날 광주의 장터와 술집은 문을 닫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 슬퍼했다고 전한다. 이날 최흥종은 조사(弔辭)에서 “서서평 선교사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

---

170 양창삼, 『조선을 섬김 행복』(Serving the People). 2012. p. 388. (서평이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후원자에게 쓴 편지의 일부.)

리에게 보여주었다.”<sup>171</sup>고 애도했다. 서서평은 1937년 미국 장로교의 ‘위대한 선교사 7인’에 선정됐다.



(왼쪽이 서서평 선교사)

### 광주 YMCA의 농업실습학교와 체육 교실

최홍중은 1932년 광주로 돌아온 뒤 광주 YMCA의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되었다. 최홍중은 회장(1932-1935)에 취임하자 농업실습학교를 설립하여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추진했다. 그가 1925년 Y 회장 시절 민족경제 자립 운동의 하나로 농촌 여덟 곳에 설립했던 농민강습소

---

171 [근대사 발굴] 『계유구락부' 광주·전남 저항정신의 뿌리』, 『월간중앙』, 2012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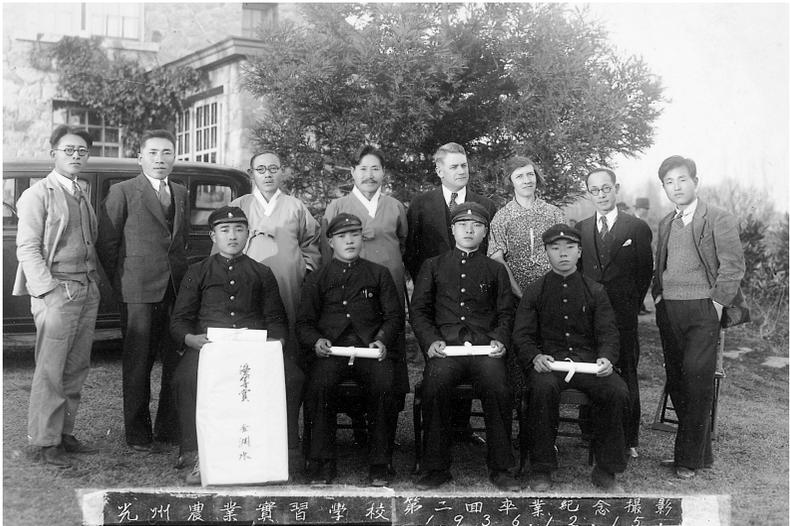
가 당시의 최영균 총무와 미국 YMCA가 파견한 농업 전문 간사인 고든 어비슨(高敦 魚丕信, Gordon W. Avison)<sup>172</sup>의 노력으로 여러 갈래의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1개소의 신용협동조합의 결성, 5개의 농촌 야학, 농우회를 통한 농법 및 생활개선 활동 등이 그런 사업들이었다. 최흥종은 1933년 광주 YMCA의 협동 총무이자 농업 전문가인 어비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어비슨의 사저가 있는 백운동 땅에 2년제 사회교육 기관인 농업실습학교를 설립했다. 첫 입학생은 20명으로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초대 교장은 어비슨, 교사 중 농업 과목 교사로는 송실전문학교에서 농학을 공부한 최흥종의 아들 최득은(崔得恩), 그리고 기숙사 사감에는 정인세 간사 등으로 진용을 꾸렸다. 교과목은 근채(根菜), 농업가공, 수도(水稻) 등의 농업 과목과 성경 공부, 부기 등의 일반과목도 병행했는데, 어비슨은 음식물 보관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통조림 제조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홍석은(洪錫殷)이라는 교사는 비밀리에 한국사를 등사하여 교재를 숨겨가면서 가르쳤다고 한다. 그 외 기록으로 확인되는 교사는 김흥태(金興泰, 연희전문 출신)와 박형렬(朴洞烈, 송실전문 출신)이 있다. 농업실습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광주 YMCA가 세운 야학에서 봉사하는 것이 권장되었고, 졸업생들도 모두 함께 광주 Y의 야학 반 학생들과 해마다 운동회를 개최해 청년조직의 강화를 도모했다. 그런데 청년들의 이러한 Y 조직 활동은 모두 일경의 감시 대상이었다.

---

172 고든 어비슨(Gordon W. Avison, 1891-1967)은 우리나라 근대의학과 의학교육의 기초를 놓은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 올리버 어비슨(또는 에비슨·O.R.Avison, 1860-1956)의 아들이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최흥종의 아들 최득은, 최영균 총무, 어비슨, 최흥종)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최흥종의 동생 최영욱 박사. 제6대 光州 YMCA 회장. 1935~38)



최흥종은 회장 재임 동안 농업실습학교와 더불어 ‘智德體의 균형을 갖춘 인간 형성’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체육활동을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931년에 만들어진 소년 척후대(현 보이스카우트)를 확대하고, 1932년 4월에는 충장로 5가에 최초로 독립된 회관을 마련하면서 종합체육관도 지었다. 광주 Y가 체육시설을 포함한 독립된 회관을 마련하는 데는 협동 총무 어비슨의 도움이 컸다. 그가 충장로의 대지(垞地) 400평의 구매자금 4천 원을 기부했던 것이다. 충장로 대지를 담보로 광주 Y는 호남은행으로부터 3천2백 원을 융자받고, 거기에 체육관의 운영을 책임질 유도사범 김후옥이 8백 원을 희사하여 회관이 마련되었다. 최흥종 회장은 현준호, 고광표, 최남주, 양종채 같은 후원자들을 확보하여 체육관 운영의 기반을 다져 체육부 활동을 강화했다.<sup>173</sup>

---

173 광주 YMCA역사편찬위원회. 『광주 YMCA 90년사. 1920-2010』. 2010. p. 109.



(1932년 최흥종 회장 시절 마련된 광주 YMCA 최초의 독립건물)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YMCA는 야구와 같은 서양의 경기를 이 땅에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는데, 광주 Y는 1930년대에 들어와 광주에서 유도, 권투, 레슬링, 체조의 보급에 나섰다. 특히 유도와 레슬링, 권투 같은 도전적인 운동은 식민지 청년들의 투쟁 정신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인기가 높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광주에는 조선사람들이 다녔던 YMCA 체육관 외에 일본 경찰 도쿠나가(德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도 도장이 있었는데, 이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한다. 광주 Y의 청년부 간사인 정인세는 1932년 경성에서 덴마크식 기계체조 강습을 받고 돌아와 체조 지도를 시작했고, 유도의 고단자인 체육부 간사 김후옥은 유도와 역도를, 그리고 레슬링은 박동만이 지도하였다. 권투는 주봉식이 지도하였는데, 광주 Y 권투부 출신 문춘성은 1937년 제4회 전 조선 아마추어 권투대회 라이트급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냈다. 축구의 경우는 최영균 총무가 직접 지도하

여 송일학교의 팀과 경기를 갖곤 했다. 광주 YMCA 체육부의 회원은 가장 많을 때는 270명이 넘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으로 6개월간의 수형생활을 했던 유도 사범 김후옥은 또한 소년 척후대의 위원장 자격으로 소년들을 조직하고 지도 했는데, 일본 경찰은 김후옥의 유도 사범 자격요건으로 트집을 잡아 괴롭혔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광주 Y의 소년 척후대를 반일사상(反日思想)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민족 독립운동단체’라는 누명을 씌워 1936년 김후옥(위원장)과 문안식(척후단 위원)을 3개월간 구속했다. 박선희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악명 높은 일본헌병 노구치(野口), 미즈구치(水口), 도쿠나가(徳永) 등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sup>174</sup> 일경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계속되자 1937년 광주 Y의 소년 척후대는 결국 해산되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다.



(위에서 둘째 줄. 안경을 쓴 사람이 김후옥, 그 옆으로 최흥종, 최영균, 최윤상)

174 박선희. 『광주 1백 년 (2)』. 광주문화재단. 2014. p. 207.



(광주 YMCA 소년 척후대)

이상과 같이 광주 YMCA는 1932~1935년의 기간 동안 최흥종의 지도하에 특히 농업교육과 체육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상징하듯, 일제의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어비슨 협동 총무는 1937년 강제 출국 되어 미국으로 돌아갔고, 농업실습학교는 광주 YMCA가, 1938년 조선기독교청년회가 일본기독교 산하의 조선연합회로 예측되자, 스스로 문을 닫을 때가 지만 교육을 이어 갈 수 있었다. 광주 YMCA의 공식적 법률상의 폐회는 문서상으로는 1944년이지만 1938년 이후 이사회나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아 실질적인 폐회에 들어갔다. 1930년대 후반기는 광주 YMCA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다. 이는 최흥종 목사에게도 역시 시련의 시기였음을 의미한다.



제 4 부

성 찰

## 과도기적 현상·혼돈 속에서 홀로 서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진출의 야망을 드러내었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침략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1941년에 드디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역사학계는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전쟁을 준비하고 촉발한 이 기간의 식민통치를 가리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식민지 수탈정책의 강화> 시기로 분류한다. 전시체제 아래에서 국민동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며 신사참배 강요와 창씨개명(創氏改名)이 추진된 것도 이즈음이다. 일제의 강화되는 압박에 사람들이 동요했고 많은 이들의 변절이 따랐다. 당연히 최흥종 목사가 몸담고 있던 교계(敎界)와 YMCA에도 그러한 영향이 미쳤다. 이와 같은 상황이 최흥종의 YMCA와 종교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드러난다. 먼저, 1935년 광주 Y 회장직에서 물러난 최흥종은 같은 해 1월 그와 사회복음주의 노선을 같이하던 중앙 YMCA의 신흥우 총무가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광주 Y와 그를 지원하던 인사들에게 사망통지서를 보내고 YMCA 활동의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 후 공적(公的) 행보를 자제하던 최흥종은 1937년에 이르러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조선의 기독교 교단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며 분열하자 교단을 신랄하게 질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칩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 과정의 전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YMCA에서는 1935년 1월 17일 중앙 YMCA에서 신흥우 총무가 적극신앙단(積極信仰團) 사건으로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다. 적극신앙단은 신흥우가 1932년 Y 연합체에서 교회진흥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서 사회참여와 민족 교회론을 내세워 복음의 사회화를 추구했다. 그런데 제도권 교회나 YMCA 내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어났다. 이유는 적극신

양단이 급진적이고 비밀결사체의 성격을 갖는 조직이기에 이단(異端)으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일부 인사는 신홍우의 적극신앙단이 히틀러가 독일기독교 운동(German Christian Movement)을 통해 게르만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 사례를 참고한 사실도 문제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는 파시즘의 수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홍우 총무의 사퇴는 1920년 이래 중앙 YMCA를 지탱해 온 ‘경건주의’와 ‘사회복음주의’라는 양대 축의 균형이 붕괴함을 의미했으며, 동시에 Y 지도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많은 수의 지도자들이 3·1운동, 노동운동, 신간회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YMCA는 신홍우의 사회복음주의 노선에 가까웠던 까닭으로 실망과 충격에 휩싸이면서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 더구나 신홍우 총무의 해임 당시 최홍중은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15인 중앙위원 중 1인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기에, 큰 책임을 통감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총무 사퇴 몇 년 후 신홍우가 보인 전향과 친일행각은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참으로 한치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시절에 들어선 것이다.

기독교계 또한 신사참배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었다. 일제에 의한 신사참배 요구는 이미 1932년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던 것이 평안남도 지사가 1935년 도내 교장 회의를 소집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도내의 모든 학교가 신사참배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면서 기독교계 학교들의 동요와 반발이 시작되었고, 1936년 8월 미나미(南次郎) 총독이 취임하면서부터는 교회와 교회 기관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게도 신사참배를 요구하였다. 이런 와중에 기독교계는 반대론, 타협론, 수용론으로 의견이 나뉘어 분열되었다. 그리하여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의 유향적이고 타협적인 언행들이 표면으로 부상하자 이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된다. 광주에서는 1935년에 광주 Y의 인맥(人脈)인 백영흠 전도사, 정인세 광주 Y 간사, 이택규 광주 Y 간사, 김윤식 장로 등 10여 명의 기독교인이 매주 금요일 양림교회에 모여 “한국교회가 초기에 보인 민족교회로서의 열기를 상실하고 책임회피로 흐르는 것을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이 다시 한번 민족 구원의 정신적 양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회를 갖기 시작하였다.<sup>175</sup> 그러나 교단의 방향은 결국 1938년 9월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개최될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홍중 목사가 사망통지서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연이어 기독교계를 향하여 신랄한 성명서를 발송하는 시기가 바로 1935년과 1937년 사이이다. 사망통지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1935년 3월에 작성해 광주 YMCA의 김천배 간사가 광주의 지인(知人)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37년 최홍중이 『성서조선』의 김교신에게 보내 김교신의 3월 18일 자 일기에 수록되어있는 것이다. 1935년의 사망통지서에 대하여는 당시 일본 유학에서 갓 돌아와 광주 Y의 간사로 일하게 된 김천배의 증언<sup>176</sup>이 있다. 그에 의하면 3월 어느 날 출근하자 최영균 총무로부터 중요한 편지이니 Y 인사들과 계유구락부 회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봉투에든 인쇄물 봉치를 받았는데 인쇄물 서두에 ‘사망통지서’라는 큰 글자가 쓰여있어 놀란 마음으로 읽어보았다 한다. 1935년의 사망통지서<sup>177</sup>의 내용은 매우 단순 간략하다.

---

175 광주 YMCA 역사편찬위원회, 『광주 YMCA 90년사: 1920~2010』, 2010. p. 113.

176 김천배의 증언. “광주 Y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첫 이사회 분위기는 Y 초년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에서 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것이었다. 뒤에 안일이지만 1935년 1월에 신흥우 박사의 사임이 수리되었던 직후였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 최 총무로부터 한 묶음의 각봉투와 함께, 중요한 서류이니 기명된 인사들(대부분이 Y 이사와 계유구락부 회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도중 내용을 꺼내 보니...사망통지서라는 큰 글자가 찍혀 있었다.”

“1935년 3월 17일 이후 나 오방 최홍중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홍중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차후로 거리에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오. 나 최홍중은 오늘부터 이 지상에서 영원히 떠나 하나님 속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1935년 3월의 사망통지서는 중앙 YMCA가 신흥우를 사퇴시킨 직후에 작성되어 오로지 광주에서 함께 활동해 온 Y 활동가와 후원자들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홍중이 1932년 Y를 책임 맡은 이후 광주 Y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어려웠다. 일제의 감시와 간섭이 강화되고 직원이 구속되는 가운데 농업실습학교를 중심으로 펼친 농촌지도자 양성과 농촌계몽 운동은 그 사업을 확대 확산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중앙 Y에서 사회복음주의 활동의 사망 선고까지 내렸으니 이제 막 광주 Y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최홍중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난망했을 터이다. 그런 점에서 1935년의 사망통지서는 광주 Y와 그 후원자들에게 광주 Y와 관련하여 자신의 한계를 고(告)하는 메시지였다. 사망통지서를 보낸 후 최홍중은 6월 25일 나환자구제활동 등을 통해 오랜 지기인 세브란스 병원의 오금선 의사를 찾아가 거세 수술을 강청(强請)하여 받았다. 이는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욕망의 중심을 거세함으로써 세속적 자기 사망을 확인한 것이었다. 통렬한 자기비판이었다.

그에 비해 1937년의 사망 통고서는 기독교계 전체를 향한 보다 공식적인 경고였다. 그 이유는 사망통지서를 보낸 시점이 조선교회의 신사참배 수용이 예견될 즈음이며, 그것을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보는 잡지의 편집인에게 통고 형식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계에

---

177 오방기념사업회. 『화광동진의 삶』. 2000. p. 113.

자신의 활동 정지를 알리는 통지서였다는 말이다. 사망 통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통고서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이는 김교신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통고문이기때문에 추가 설명으로 보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통고서

“본인을 사망자로 간주하시고 우인 명단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복망하나이다. 가정에 대하여 放漫자, 사회에 대하여 放逸자, 사업에 대하여 放從자, 국사에 대하여 放棄자, 종교에 대하여 放浪자 소위 五放을 제창하면서도 명실이 불합한 가면극이 왕왕 연출되어 양심상 사이비한 생활을 절실히 참회하고 무익한 죄인이 세사에 관여하는 것은 유익보다 폐해가 더 될 것을 각오하므로 십자가의 구주 예수만 신뢰하고 범사에 예수의 교훈으로 생활할 것을 맹약하고 이제는 생사간에 예수 이외의 아무것도 없으므로 세사에 대하여 사망자가 되어 스스로 매장한 것이외다. 가족적 행열에서나 윤리적 예의에서나 사회적 규범에서나 제외자요, 黜陟者요, 廢棄者로 인간사회에 무용의 일종 폐물이오니 자금 이후로는 사망자로 인정하시고 모든 관계와 통신을 단절하여 주심을 통고하나이다.”

1937년 1월 일 五放 崔興琮 謹告

“경고자 사망통고서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간단히 고하고자 하나이다. 이유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 말씀과 같이 육체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박고(갈라디아 2:) 여생을 그리스도인적 생활을 하여 보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전면(纏綿)이 너무나 견고히 얽혀있어 아무리 해방을 부르짖어도 되지 않으므로 소위 오방을 제창하여보았으나, 역시 시원치 않고 외식적인 붕대(繃帶)에 여전히 속박되는 한탄을 벗지 못하고 명호(嗚呼) 태식(太息)을 느끼다가 돌연 생각이 나서 신체에 일대혁명을 할 결심을 갖고 먼저 생리적 변화를 야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인간이 죄과에 빠지는 것은 식욕, 색욕, 명예욕, 이욕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비생의 과장에 전면(纏綿)되므로 食, 色, 名, 利 四非에서 해탈하여 보려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35년 9월 25일에 거세를 단행하였으나 혹종사업(或種事

業) 혹은 단체에 얽힌 줄이 늘 끊기지 못하고 왕왕이 명리적인 극단에 출연하므로 사이비한 생활을 끝내 끊지 못하고 자회자책(自悔自責)이 이만저만이 아니건만 연결된 줄을 끊기에는 역불급하여 심히 번민하던 중 <성서지식>지 지난 5월호에서塚本氏의 사망통고문을 읽고 다대한 충격을 받아 사망통지에 대한 관심이 불절(不絶)하던 차에 성서조선 지난 10월호 첫 페이지에 실린塚本氏의 假死亡을 독파 이후 신념이 배가하여 노력한 결과, 단체나 사업 등의 제반 사회의 연쇄관계를 전부 단절하였으므로 사망통지서를 발표한 것이으며 <성서조선>은 사랑하는 나의 영적 친구로 알므로 동기를 略陳하나이다.”

1937년 1월 15일 최홍중 배

최홍중의 사망통지서를 받아 본 김교신은 그 내용을 그의 1월 18일자 일기에 그대로 수록해 뒀으므로 오늘에 전해졌다. 아래는 김교신의 일기에 나오는 김교신 자기 생각을 담은 글이다.

“거세의 가부는 별문제이고 이렇게까지라도 하여 주 예수께 복종하려는 老성도의 정서에 감복함을 마지못하며, 최 목사와 같은 장로교회의 중진으로부터 여상의 후한 신임의 문자를 받음은 본지의 분에 넘치는 영예로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죽은 자끼리 서로 합할 점이 있을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다.”<sup>178</sup>

최홍중은 김교신에게 자신은 앞으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고 나아갈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종교인의 세속화를 빗대어 나무랐다. 자신의 자세와 심정을 김교신에게 밝힌 뒤, 그는 그다음 단계로 교단을 향한 메시지를 1937년 4월 1일 발행되는 『성서조선』 99호에 공표했다.<sup>179</sup>

---

178 이 글은 1975년 출간된 『김교신 전집』 제6권 16쪽에 실린 글로 김교신 선생의 1937년 1월 18일자 일기의 한 대목이다

179 이 글은 1937년 4월 1일 발행된 『성서조선』 99호에 실렸고, 이 글이 발표된 5개월 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日帝에 굴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교역자의 반성과 평신도의 각성을 꾀함]

경계자(敬啓者) 사망자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마는 세상을 향하여는 사망자이나 주 예수 안에는 산 자처럼 말하려고 하므로, 소회(所懷)를 피력(披瀝)하여 현하 조선 교회 정세와 교역자의 과오를 지적하여 지도층의 반성과 평신도의 각성을 촉진코저 하나이다.

조선교회가 특수한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입니다. 반세기 동안 장족 진보하여 조직적 전개와 민활하여 역사적 고구(考究)와 신학제도와 예배모범과 권징조례와 정치며 헌법이며 규칙이며 회규며 제반 법률적 제도가 옛날 유대교나 로마교 교권 만능주의 선배들보다도 더 예리하고 냉민하여 놀라운 재간과 지식과 수단을 가진 교역자들이 많이 현출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양의 대중은 과연 순진합니다. 목자의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며 순종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대가가 샅꾼이므로 고용적 행색을 종종 발휘합니다. 양군(羊群)을 위하여 희생하려는 대신 각자의 명리를 위하여 영리적 목자들이 대량생산 됨이 현금 조선 교계 상태인가 합니다.

그 이유는 교역자들의 회합하는 곳마다 시기, 분쟁, 충돌, 기감, 중상 등 성경진리에 배치되는 부도덕 무의의 한 행동을 성회라고 부르는 노회나 총회에서도 무지무지 볼 수 있고 조선교회 내막을 살핀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가 있는가? 성경교훈이 실현되는가?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도다. 사람의 명한 것으로 도를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라”하신 말씀이 현하 조선교회에 각성하라신 교훈이 아닐까요? 외관으로는 화려한 예배당과 부속사업이 많고 당회, 노회, 총회, 혹은 태회, 년회 등 법적조직이 정연하고 영웅신사간의 교역자들이 오백나한같이 제제창창하되 그 맺힌 열매는 공과허실이 많고 엽만 무성한 무화과수입니다.

순진한 양 떼에서 젖을 짜고 털을 깎고 수단방법을 다하여 빨아내고 짜내어서 각자의 충족과 단장이며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되 양군(羊群)은 수척(瘦瘠)하고 미약하며 영양(靈糧)결핍과 빈혈과 기갈이 태심(太甚)함을 불각(不覺)하고 위선가식적 시대유풍과 제도각인에 화석처럼 된 성극배우들이 무대, 교단에서 웅변극을 연출하며 교회를 심방이니 치리이니 사경이니 부흥회니 떠들고 활동하는 모양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애적 신계명주의를

실현함에는 진수를 볼 수 없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명쟁과 같아 허공을 치는 것뿐이요, 내용은 양의랑류(羊衣狼類)에 불과하고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대회 등 회소를 영웅신사벌(英雄紳士閥) 양성하는 무대로 삼고 제반 활동을 다하며 분쟁, 기만, 음모, 험담과 민중 이간을 일삼는 것이 현하 조선교회에 등장한 영웅목사들의 능사입니다.

북남열을 고조하여 이간하는 것도 그네들이요, 무슨 단이니 무슨 회이니 하고 평신도를 충동하는 것도 그네들이요, 백지 같은 신도들에게 흥혹반문을 염색하는 것도 그네들이요, 교회끼리 신도끼리 서로 질시와 원우(冤尤)를 품고 대립하는 것도 그네들의 소위이요, 교회사업에 명예적 야심을 품고 덤벼들어 통일을 방해하는 것도 그네들의 소위입니다. 조선교회가 좀 더 성화되고 순복음적 정로로 진전되려면 현하 교계를 착란하는 등장인물들이 퇴장하고 순복음주의적 신진교역자들이 봉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로총회를 분립이니 개조이니 하는 것이 교리적 이의 아닌 성경상 견해의 이론이 아니요, 총회를 영웅목사 기개인(幾個人)이 농락이용하여 작회하려는데 반항하고 숙정하려는 봉화인데, 그 사이에 미혹과 오해가 증중하여 추측과 오견이 첨부(添附)하여 구거(溝渠)와 장벽을 은영중 피차 축조하는 감이 불미합니다. 총회를 좌우하며 요리하는 유력인물들이 괴묘한 수단으로 사업열을 일으키며 혹은 지방열 고조하며 제반정략과 모책을 강구하여 남북이간책을 뚜렷이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 전부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지도자의 기만적 웅변에 속아서 수긍하게 되고 위선적 처사에 속아서 맹종하게 되어 종국은 하지 못하는 형제를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게 되며 하지 못하는 사실을 오인하고 바로 안 것 같이 되면 모순당착과 착각이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로교 총회 문제는 분립이 목적이 아니요, 내부숙청(肅淸)에 있는 줄 압니다. 종교교육부를 개조하고 영웅적 협작(挾雜) 교역자들을 소제하면 어시호별(於是乎別)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숙청은 불가능으로 간파하고 소위 신총회 조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 총회는 반대하면서도 신조직에 서명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교역자는 저를 신총회에 수괴라는 말을 합니다. 용혹무괴(容或無怪)입니다. 현총

회를 규탄하고 대대적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회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대하고 현철(賢哲)한 관찰을 가지신 평신도 제현은 심사고구(深思考究)하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선적 가목자(假牧者)들에게 전임하고 관광만 할 것이 아니라 노회나 총회를 혁신개조에 착안하심을 복기(伏祈)하나이다.

현상대로 두고 보시면 기필코 민중적 난문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불무(不無)합니다. 평신도들의 꺾기를 축(促) 하나이다. 빙공영사(憑公營私)하는 교역자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신도의 각성을 시급히 요구합니다. 평신도만 깨고 보면 현재 교계에 등장한 양의랑심적(羊衣狼心的) 가목자(假牧者)들이 절로 무대를 잃고 퇴장할 것이며 조선장로교 총회가 참으로 하늘의 장자(長者)의 총회와 같이 거룩한 통일적 총회가 될 것이요 교회가 성화(聖化)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요 이기주의적 지도자들을 기대할 수 없는 금일의 평신도의 각성과 분기가 절대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마땅히 깰 때입니다. 평신도 제현이여!

1937년 2월 崔興琮 白

1937년 4월 성서조선(聖書朝鮮)에 발표된 최흥종 목사의 평신도에 게 고하는 글은 아마도 한국 기독교사상(基督教史上) 교단의 지도부를 향한 가장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아닌가 한다. 글의 내용 중 자신을 '신총회(新總會)의 수괴(首魁)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그동안 장로교총회에서 진행된 분열을 암시하면서 자신은 총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만 교역자의 반성을 촉구하는 신랄한 문장이 뜻하는 바는, 교단 지도부가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는 동포를 위한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가를 묻고자 함이고, 특히 신사참배 강요에 굴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단의 당시 상황을 고려한 듯, 이제 부패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퇴장하고 순수한 평신도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불행하게도 최흥종 목사의 교계를 향한 고언(苦言)은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5개월 뒤,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일제(日帝)에 굴(屈)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했기 때문이다. 일제 말 교회는 조선 민족의 유일한 전국적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도 쉽게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어찌 보면 최흥종 목사는 교리와 조직, 그리고 규모를 갖춘 대형 교회의 교직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단에서 작은 목소리의 소수자였을 것이다. 또한,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출발 역시 기성의 대부분 교역자와는 달랐다. 그가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맨 앞부분에서 소개했듯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환자에게 베푼 행동이었기에, 최흥종에게 신앙은 포사이드의 설교나 교리가 아니라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 그 뿌리였다. 그러므로 최흥종의 종교는 출발부터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 자체였다. 최흥종의 목회 역정(歷程)을 살펴보면 그는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교리에 경직되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그가 걸어온 길은 어느 특정 교파나 모임에 속하지 않고 홀로 실천하며 한발 한발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를 기독교의 세계로 이끈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보아도 그러한 면이 드러난다. 한국교회 형성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은,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복음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당시 미국 기독교가 강조한 영혼 구원 일변도의 신앙을 한국인들에게 이식시켰다. 최흥종 목사의 경우, 그가 1907년 유진 벨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뒤 교회와 병원의 일에만 충실했던 시기에는 선교사의 보고서와 일기 등에 자주 언급되었던 그의 이름이, 1919년 최흥종이 3·1운동 참여 이후 노동운동이나 신간회 등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시작한 후부터는 선교사들의 보고서나 편지에서 그의 이름과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sup>180</sup> 그의 홀로서

기는 그렇게 그를 스스로 찾아왔다. 이제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분열되는 교단이 그를 다시 홀로 가도록 만든 것이다. 1937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신사참배 결정이 있던 그해 겨울, 최흥종은 그가 사망통지서에서 밝힌 대로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 기억되는 두 가지 행적: 결인 급식과 경양방죽 보전

최흥종이 사회활동을 접고 해방 때까지 칩거에 들어가기 전 그가 광주에 남기고 간 두 개의 자취가 있다. 하나는 결식아동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양방죽에 관한 것이다.

1932년 광주로 돌아와 YMCA 회장직을 수행하던 최흥종은 1934년 광주 중앙교회의 정순모 목사가 제주도 모슬포교회로 옮겨감에 따라 잠시 중앙교회(舊 북문밖교회) 당회장을 맡았다. 그런데 1930년대에는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빈민과 결인들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농촌 유입인구 중에서 발생하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문제가 있었는데, 중앙교회가 위치한 본정(本町, 지금의 충장로) 주변 거리에는 결식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한다. 그러나 부유한 일본인 상가의 주인들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를 보고 지나칠 최 목사가 아니었기에 그는 교회 마당에 명석을 깔고, 그가 당시 관여하던 계유구락부의 지원금에 목사의 봉급을 보태, 밥과 국을 마련한 뒤 거리에 나가 결식아동들을 불러 모아 데리고 와서 밥을 함께 먹는 일을 시작했다. 그가 잠시 중앙교회 목사직을 맡고 있던 기간 내내 계속된, 결인 급식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대에 최 목사가 앞장서고 그 뒤를 결인들이 따라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행렬이 광주의 장관이 되었다. 이

---

180 차중순. 「호남 교회사에서 복음적 사회운동에 대한 한 연구」, 『오방 최흥종 연구』, 오방기념사업회, 2022. p. 123.

장관을 직접 목격했던 최윤상은 이를 두고 ‘전무후무한 성대한 행렬’이라 불렀다.<sup>181</sup>

또 다른 이야기는 193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있었던 ‘경양방죽매립반대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광주에는 조선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경양방죽’이라는 인공호수가 있었다. 경양방죽은 그 크기가 65,418평에 달해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피해 예방, 그리고 유원지의 기능도 하는 다목적 방죽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였다. 그런데 일제는 1940년까지 경양방죽을 매립하여 일본인 주택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 시켰다. 즉 1935년, 당시 전라남도지사였던 야지마 스기조(矢島杉造)를 중심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땅을 팔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 문제를 연구한 조용준에 따르면 “1937년 6월, 광주읍 시절 부읍장을 지냈던 박계일은 이 정보를 접하고 비밀리에 최영옥 서석병원장(瑞石病院長)에게 사실을 알렸다. 당시로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일이었다.” 최영옥은 최흥종 목사의 동생으로 당시 광주 YMCA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 계획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최영옥은 이 문제를 1932년 궁민구제연구회를 조직하여 철거민 문제 해결에 같이 발 벗고 나섰던, 제2대 계유구락부 회장 김용환과 상의하여 ‘경양방죽매립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한다. 과거의 투쟁 경험이 있었기에 조직은 신속이 꾸러졌으며, 소집한 모임에서 별 이견이 없이 최흥종을 위원장으로, 김용환을 총무로 선출했다. 이때 최흥종 목사는 기독교 교단에 ‘교역자의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반응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고 최흥종 목사에게 경양방죽은 수년 전 그가 걸인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잠시 머물렀던 생존의 장소로서 의미가 남달랐다. ‘경양방죽 매립반

---

181 최윤상. 「거지와 고아들의 아버지」, 『화광동진의 삶』, 2000. pp. 241~243.

대투쟁위원회’는 곧바로 행동에 나서 전남도지사와 관계 기관에 매립 반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보존 투쟁을 전개했다. 탄탄한 논리를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투쟁위원회의 파급력을 감지한 당국은 경양방죽의 전체 매립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16,302평은 유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46,465평(준공면적, 45,531평)은 매워 일부는 광주부(光州府)의 부영주택(30호)을 짓고, 나머지는 택지로 매각하기로 타협안을 낸다. 다시 말해 경양방죽의 1/3은 호수로 남게 된 것이다.<sup>182</sup> 짧은 시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일구어 낸 값진 성과였다.

경양방죽에 관한 연구서 『경양방죽의 역사』(1968)를 저술한 김홍삼은 ‘경양방죽 매립반대투쟁위원회’가 작성한 매립 반대 이유서를 7개의 주요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내용이 도시방제, 도시경관, 문화도시의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본 혜안을 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연하면, 매립 반대 이유 중에서 “(1) 경양방죽은 폭우와 큰 화재 발생 시 저류지(貯留池)와 소화수(消火水)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이 크다. (2) 장차 광주가 대도시로 발전할 때를 대비해서 경관이 수려한 풍치지구로 보전되어야 한다. (3) 한 민족, 한 지방의 역사적인 유산의 말살은 문화인의 수치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현대 도시의 과제를 예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각자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sup>183</sup>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도시계획 전문가인 조용준 교수는 ‘경양방죽 매립 반대 투쟁’을 광주 최초의 ‘환경 시민운동’으로 규정한다. 즉 시대를 앞서가는 운동이었다는 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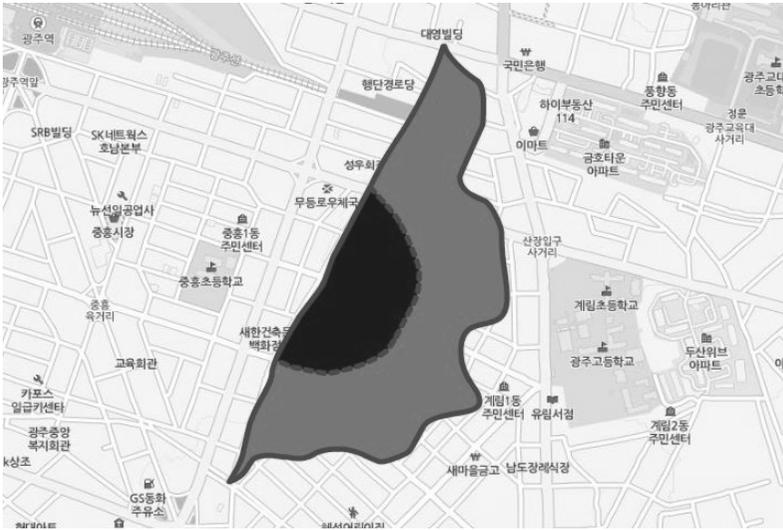
182 김홍삼. 『경양방죽의 역사』. 제일문화사. 1968. p. 82.

183 조용준. 「경양방죽으로 본 최홍중 목사의 도시 공공성과 비전」. 『오방 최홍중 연구』. 오방기념사업회. 2022. p. 292.

그런데, 이렇게 최흥종이 위원장으로 나서서 일부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경양방죽은 1966년 새로운 시청사(市廳舍)를 짓기 위한 재원 마련을 핑계로 일제가 아닌 우리 손에 의해 30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매립이 시작되어 생명을 잃게 된다. 앞서간 선각자들이 어렵게 지켜내고 오랜 기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휴식공간이자 서민들의 유원지가 투명한 절차나 광범위한 의견의 수렴 절차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선각자들의 지혜를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한 경양방죽. 광주광역시 제공 사진)



경양방죽의 1937년에 매립된 부분(엷은 색)과 남겨진 부분(짙은 색)

## 증심사 계곡 五放亭의 자유인

1938년에서 1945년 해방 때까지 최흥종은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시간 대부분을 증심사 부근 계곡에 마련한 초가(草家)에서 지냈다. 이 집은 동아일보 편집 부국장을 지낸 석아(石嘯) 최원순(1896~1936)이 결핵 요양을 위해 말년에 거처하던 곳이었는데 그의 사후(死後), 계유구락부를 만들어 함께 일했던 최흥종에게 물려주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들어온 증심사 계곡의 작은 초가집에서 최흥종은 드디어 자신만의 세계에서, 기도와 성찰, 휴식과 독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포사이드의 실천 때문에 운명처럼 다가온 섬김의 여정은 최흥종에게는 보람은 있되 힘든 시간이었을 터이다. 나이 20대 중반 젊은 날 시작된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이 어느덧 30년이 흘러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 잠시 안식을 취할 때가 된 것이다.

증심사 골짜기의 초가집에서 최흥종은 많은 책을 읽었다. 그중에서 특히 노자(老子)에 빠져들었다. 1938년 광주에 정착한 의재(義齋) 허백련(1891-1977)이 학동(鶴洞)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노자(老子)를 매개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의재는 대인(大人)으로 모시는 최흥종을 초대하여 근처 증심사의 스님들과 만나 차담(茶談)을 즐겼다. 그리고 이제 오방(五放)이라는 아호를 즐겨 쓰기 시작한 최흥종이 사는 증심사 계곡의 초가집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신사참배 반대로 폐쇄된 교회의 교인들, 신사참배 거부로 1938년 문을 닫은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의 교사들, 일경(日警)의 탄압으로 고생하는 광주 Y의 임원들, 화순의 성자(聖者) 이현필,<sup>184</sup> 그리고 최흥종의 가족들이 찾아오면 최흥종은 기도 모임을 가졌다. 주일이면 자연스럽게 근처 신림마을의 주민 중 몇 명이 오방의 처소로 와 예배를 드렸고, 얼마 후 작은 초가로 옮겨 예배를 드리니 '신림기도처'가 만들어졌다. 이 기도처는 나중 신림교회가 만들어지는 기초가 된다.

---

184 동광원의 설립자이자 和順에서 '맨발의 성자'로 불리는 이현필(1913~1964)은 최흥종 목사의 소개로 1932년 어비슨(G. W. Avison) 선교사의 농업실습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최흥종의 사위 강순명 전도사의 독신전도단 단원이 되었으며, 여선교사 서서평(E. J. Shepping)이 지도하는 확장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다.



(신림기도처. 현재 신림교회 오방 수련원)

앞서 언급한 대로 최흥종이 머물던 초가집은 석아(石岬) 최원순이 결핵치료의 요양처로 사용하던 집으로 석아정(石岬亭)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를 눈여겨본 의재가 어느 날 이제 그 현판을 오방정(五放亭)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현판 뒷면에 의재가 오방정이라는 글씨를 손수 써 각인하여 오방정 현판을 내걸게 되었다. 최흥종에게는 증심사 계곡의 신림마을에 머문다는 일이 의재를 만나 뜻밖에도 노자(老子)와 차향(茶香)에 빠지고 미술과 서예를 가까이하는 등 문화적으로 호강을 누리는 기회가 된 셈이다. 최흥종이 오방정에 머무는 동안에 쓴 것으로 보이는 몇 편의 한시(漢詩)에는 노자와 기독교의 만남이 엿보인다. 예컨대 오방의 도가(道歌)라는 제하의 시를 보면 예수님이 곧 도(道)라는 글귀로 끝을 맺음으로써 노자를 연상하되 결론은 기독교적이다. 도가는 4장(章)으로 구성되고, 매장(每章)이 12구로 이루어진 장시(長詩)인데, 여기서는 마지막 장만을 소개해 본다.

〈道歌〉

紛芸事物,  
 還皈寥寂.  
 無中生有,  
 太初有道.  
 道是真光,  
 真光是道.  
 道是眞理,  
 眞理是道.  
 時空無盡,  
 永生之道.  
 萬能萬權,  
 耶穌之道.

〈도의 노래〉

많고 많은 사물들,  
 적막으로 귀의하도다.  
 무에 유가 생겨나니,  
 태초에 도가 있었네.  
 도야말로 참 빛이니,  
 참 빛이 바로 도일세.  
 도야말로 진리이니,  
 진리가 바로 도일세.  
 시간과 공간 무진하니,  
 영원히 사는 도일세.  
 만능하고 전능하니,  
 예수님의 도이로세.

오방이 남긴 또 하나의 한시(漢詩)도 역시 사랑을 기독교적으로 푼 것이다.

〈愛的轉融性〉

愛他人的人格, 愛便是敬  
 愛對於老耄, 愛便是尊  
 愛對於同輩, 愛便是惠  
 愛對於幼童, 愛便是慈  
 愛父母而推及人, 愛便是孝  
 愛人不受報, 愛便是廉

〈사랑의 융통성〉

타인의 인격을 사랑하니, 사랑이 바로  
 공경이지.  
 노인을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이 바로  
 존경이지.  
 동년배를 사랑으로 대하니, 사랑이  
 바로 은혜라.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니, 사랑이 바로  
 자애라.  
 제 부모 사랑하여 남에게 확대하니,  
 사랑이 바로 효도.  
 남을 사랑하여 보답을 받지 않으니,  
 사랑이 바로 청렴.

愛人不爭執, 愛便是讓	남을 사랑하여 다투어 버티지 않으니, 사랑이 곧 겸양.
愛人而爲人謀利益, 愛便是忠	남을 사랑해서 그에게 이로우를 꾀하니, 사랑이 곧 충성.
愛人而自潔, 愛便是節	남을 사랑하여 자신을 정갈하게 하니, 사랑이 바로 절조.
愛人而不二, 愛便是義	남을 사랑하여 두 마음 갖지 않으니, 사랑이 바로 정의.
愛人而努力, 愛便是服務	남을 사랑하여 온 힘을 쓰니, 사랑이 바로 복무(봉사).
愛人而不顧自己損傷, 愛便是犧牲	남을 사랑하여 자신 다짐 아랑곳 않으니, 사랑이 곧 희생.
愛人而侵入不可知境界, 愛便是信仰	남을 사랑하여 불가지한 경계에 들어 가니, 사랑이 곧 신앙.
愛人而直前創新人生, 愛便是宗教	남을 사랑하여 직진해 삶을 새롭게 하니, 사랑이 곧 종교.
愛天父愛同胞愛自己, 愛愛愛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할지니, 사랑! 사랑! 사랑할지라.
愛仇讎饒怒人新又新, 愛愛愛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삶을 새롭고 새롭게 할지니, 사랑! 사랑! 사랑 할지라.

오방의 한시(漢詩)가 말해주는 바는 사랑이란 인간의 모든 덕성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편재(遍在)하면서 삼라만상에 기능하는 도(道)와 같다. 그렇다면 도가 ‘하나(一)’이지만 ‘전부’이듯이, 사랑도 하나이지만 전체가 된다.<sup>185</sup>

---

185 오방의 漢詩에 관한 해석은 다음을 참조할 것. 양희석, 「오방과 노자: 기독교와 도가의 대화」, 『중국 인문과학』 66, 2017. pp. 409~424.



(의재가 석아정 현판 뒷면에 글씨를 쓰고 각인하여 선물한 오방정 현판)

최홍중은 증심사 계곡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때때로 가졌다. 은둔의 시간은 최홍중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다. 1940년은 오방의 회갑이었다. 가족들이 그냥 있지 않았다. 최

흥중은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하며 드문 가족사진을 남겼다. 의재 허백련은 최흥중의 회갑 선물로 구여도(九如圖)를 그려드렸는데, 이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오방 선생이 이 귀한 그림 선물을 제대로 간직하지 않아 50년쯤 뒤 광주의 화랑에 매물로 나온 것이다. 최흥중이 머물던 오방정은 방 두 칸에 부엌이 달린 자그마한 초가로 그의 방에는 가구라고는 하나도 없이 옷 몇 벌을 벽에 걸어놓은 정도였다고 한다. 그 외에 작은 책상 겸 밥상에 책 몇 권과 필기도구가 전부이니 그림을 벽에 걸 형편이 아니었을 터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어디 그냥 놓아두었다가 분실을 했는지, 아니면 평소 그의 성품대로 누구에게 주어버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그림이 1990년 초에 매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그림을 미술사를 전공하는 이태호 교수가 화랑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최흥중, 허백련 두 분의 성함이 들어간 귀한 그림이라서 아무래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방 선생의 장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 장손은 그림을 구매하여 의재미술관에 기증했다. 그런 사연을 거쳐 지금 '구여도'는 의재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어있다. 참으로 모든 욕심을 버리고(放) 사신 오방 선생답다는 생각이 든다.

최흥중은 해방 이후에도 오방정에 6·25가 지나갈 때까지 머물렀는데, 1951년 증심사 계곡의 오방정을 떠나 시내로 내려오면서 오방정을 증심사 계곡에 남아 예술에 정진하는 의재에게 물려주었다. 의재는 오방정이던 초가를 헐고 집을 새로 지어 이를 춘설현(春雪軒)<sup>186</sup>이라고 명(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원순의 석아정, 최흥중의 오방정, 허백련의 춘설현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에 광주의 역사가 스며있다.

---

186 의재가 춘설현에 1945년부터 거주했다는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1952년부터가 맞다.



(오방 선생의 화갑(1940년)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둘째 며느리 권길남, 차녀 민희, 사녀 일희, 삼녀 소희, 큰 며느리 조희순, 장남 득은, 넷째 사위 김용근, 셋째 사위 김창성; 가운뎃줄 앉은 사람. 부인 강명환, 오방 최흥종, 손녀 최규경, 외손자 김재현, 장손녀 최규엽, 맨 앞줄: 외손자 김재영, 외손자 김재웅)



구여도(九如圖)

최흥종이 증심사 계곡의 오방정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내는 동안, 그가 사회활동에서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의 생(生)에는 여러 굴곡이 있었다. 1932년 최흥종과 나환자구제연구회 일을 함께했던 윤치호는 1938년 기독교계의 친일협력을 위해 조직된 조선 기독교연합회 평의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친일 강연 등에 나섰다, YMCA에서 사회복음 운동으로 최흥종과 노선을 같이했던 신흥우는 1938년 공개적으로 전향 의사를 밝히고 친일로 변절했다. 반면 최흥종과 가까웠던 몇 분은 안타깝게도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최흥종과 오랜 기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했던 김교신은 1942년 『성서조선』 3월호에 ‘조와’(弔蛙, 개구리를 문안함)라는 권두언이 일제(日帝)를 조롱했다 하여 1년의 옥고를 치른 후 함경남도 흥남 비료공장에서 사무원으로 고생하다 1944년 사망했다. 1919년 광주로 2.8 독립선언문을 숨겨 가지고 왔던 김마리아는 고문 후유증 때문에 건강이 악화하여 1944년 3월에 죽음을 맞았다. 어두운 시대의 잔인한 풍경이었다.

### 광주 의학전문학교(醫專) 설립을 도움

무등산 증심사 계곡의 오방정에 칩거하던 최흥종이 딱 한 차례 예외적으로 공식활동에 나선 일이 있으니, 그 일은 광주 의학전문학교(醫專) 설립을 도운 일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경성에 경성의전, 세브란스 의전, 경성여자의전 3개, 평양에 평양의전, 그리고 경북에 대구의전, 합하여 다섯 개의 의학전문학교가 있었다. 의사가 부족한 시대였기에 1936년 마쓰모토 전남지사는 전라도에 의전(醫專)이 없음을 들어 조선총독부에 광주에도 의학전문학교를 설치해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여 전 시상황이 확대되면서 군의관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에도 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

성되었다. 물론 전쟁 반대의 명분으로 의전설립 자체를 거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았지만 광주의전(光州醫專) 설립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였거니와 의사와 병원은 전쟁과 무관하게 항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주민의 염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 인물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이를 준비하는 몇몇 인사들이 중심사 계곡 오방정의 최홍종을 찾아 설득에 나섰다. 의학전문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절감한 도지사도 함께해 1944년 1월 10일 광주 의학전문학교 설립위원회(위원장 전남지사)가 결성되었고, 오방정에 은거하던 최홍종도 이름을 올렸다. 최홍종의 생각은, 전쟁과 상관없이, 일단 만들어진 의학전문학교는 광주에 남아 지역민을 위한 의사를 양성하리라는 것이었다.

광주의전 설립의 장애물은 이제 허가권을 준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재원(財源) 마련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전쟁경비 때문에 전혀 예산지원을 할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홍종이 나섰다. 최홍종은 광주 출신으로 중국 상해에서 정밀기계공업으로 성공한 손창식을 떠올렸다. 손창식은 그가 가난한 고학생이었을 때 최홍종이 광주의 은행가였던 현준호에게 부탁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도록 한 인연이 있었다. 그 덕분에 손창식은 학비 걱정 없이 도쿄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사업가가 된 사람이었기에, 최홍종은 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옛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홍종은 직접 중국 상해로 손창식을 찾아가 설득했고, 손창식은 흔쾌히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쾌척했다. 손창식은 이어서 30만 원을 더 보내주었으며, 이 밖에도 여수의 김영준 천일고무 사장과 광주의 최선진이 각각 10만 원을 내는 등 도내 유지들도 크고 작은 설립후원금을 협찬했다. 이렇게 100여만 원에 달하는 광주의전 설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었다. 초기의 광주의전 설립비용이 60만 원이었으니 설립후

원금 모금 활동은 대성공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전설립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원 문제가 해결된 광주 의전 설립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1944년 3월 31일 자로 총독부 고시 617호의 전문학교령에 의거 4년제 의학전문학교인 전남도립 <광주공립의학전문학교>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설립 인가를 받은 광주 의학전문학교는 1937년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된 이후 줄곧 비어 있던 수피아 여학교를 교사로 정하고, 학생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조선팔도는 물론 일본에서까지 몰려 치열한 경쟁 끝에 조선인 48명, 일본인 54명 등 102명의 학생을 선발, 1944년 5월 20일 개교식과 아울러 제1회 입학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출발이었다.

### 해방과 건국준비위원회와 미군정 전남도지사 고문회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 일본 천황이 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고했다. 여러 사람이 증심사 계곡의 오방정으로 달려가 최흥종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다음 날 저녁 대인동의 국기열<sup>187</sup>의 집에는 10여 명의 정치활동가가 모여 건국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을 17일 개최하기로 하고, 오방정에 머무는 최흥종을 매일신보 특파원 최인식 기사를 보내 모셔 오도록 했다. 17일 오전 10시 광주극장에는 수백 명이 참석하여 전남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최흥종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함께 선출된 임원은 부위원장 김시중, 강해석, 총무부장 국기열, 선전부장 최인식이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목격한 정상훈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

187 국기열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1923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입사하여 1934년 퇴사했다. 3·1운동 때 최흥종이 3월 2일 서울 청량리에서 만난 인물이다. 국기열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6·25 인공하에서는 전남도 인민위원장을 지냈다.

“광주극장, 위 아래층은 말할 것 없고 밖에 광장에까지 그야말로 초만원,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불기불 밖에는 스피커를 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윽고 시간이 되자 누군지 개회를 선언했다. 만세와 박수 소리가 진동하고 극장이 터지고 떠나갈 것만 같았다. 장내가 소란해 말이 잘 들리지를 않았다. 집행부가 33명을 선출한 모양이며 전남 건준위원장 선거에 들어선 모양이었다. 군중 속에서 “의장”을 찾으며, “전남 건준위원장에는 누구니 누구니 해도 최홍종 선생님 외에는 맡으실 분이 없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의장을 이 층에서도 찾는다. “저도 전자와 같은 의견인데 최홍종 목사님이 전남건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곳저곳에서 “의장! 의장!”하며 한목소리로 최홍종님을 찾으며 회장 자리를 맡아 줄 것을 원했다. 집행위원은 “알았습니다. 같은 의견이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최홍종 선생님이 건준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집행위원들은 “거수하신 분들의 손을 하나하나 세어주십시오. 아니 너무 많이 세일 수가 없겠군요. 그러니 반대하신 분만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신 분 손을 드십시오!” 반대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최홍종 선생님이 전남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장내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박수 소리와 만세 소리로 가득 찼다.”<sup>188</sup>

정상훈이 들려주는 목격담의 분위기를 살피면 최홍종의 전남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추대는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홍종은 그날 무대에 올라, “우리 모두 양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받들고 단결하며 아름다운 우리 조국 건설에 힘을 합치자”라는 요지의 짧은 인사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홍종은 보름 후인 9월 3일 위원장을 사퇴하고 새 위원장에는 박준규가 선출되었다. 최홍종의 이렇게 짧은 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준위원장 추대는 그 당시에도 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공이 가는 선택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188 정상훈, 「최 목사님의 행복한 하루」,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p. 213~214.

왜냐하면, 최흥종이 당시 전남지방에서 좌우를 망라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던 인물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최흥종은 해방 후 여러 단체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의 이름을 올린다. 1945년 9월에는 고려청년단 창립준비회 고문으로, 11월에는 미군정하의 전남도지사 고문회의 회장, 1946년에는 비상 국민회의 전남 대표 등에 추대의 형식으로 명단에 올랐다. 해방 후 혼란기에 최흥종의 명성과 권위를 빌리려 하는 집단이 많았던 모양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1945년 11월부터 1946년 3월경까지 전남도지사 고문회<sup>189</sup>의 일을 맡은 것인데, 이 경우는 그의 동생 최영욱 박사가 미군정하에서 1년 동안 전남도지사의 직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문직 제의를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흥종은, 전남도지사가 전라남도 경찰협회에서 운영하던 소록도와 애양원의 운영권을 인수하게 되어있었기에, 선교사들이 이미 오래전 떠나버려 어려움을 겪는 애양원과 소록도 갱생원의 문제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일본 패망 후 두 나환자수용시설이 겪을 진공상태를 도지사 고문직의 수락을 통해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최흥종이 1960년 호남신문에 남긴 짧은 회고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군정 때에는 고문회장으로 선거되었으나 역시 관심은 救癩問題에 있었으므로 조선나병환자근절위원회를 조직하고 진공상태에 있는 여수 애양원에 임시단장을 세워 추진 운영케 하고 갱생원에서 야기된 살상사건을 수습하는데 협력하였으며 미군정 때 소록

---

189 전남도지사 고문회의의 위원은 최흥종, 김양수, 김시중, 장용태, 강신태, 김종필, 최종섭, 여철현, 이은상, 박준규였다. 이중 최흥종, 김양수, 김시중, 김종필, 이은상, 박준규는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에도 참여하였던 인물들이다. 고문회의의 주된 기능은 도내 각급 기관에 충원될 인사를 추천하는 일이었다. [참조] 임선화, 「미군정의 실시와 전라남도지사 고문회의의 조직」, 『역사학 연구』 제38집, 2010. pp. 323~350.

도 갱생원이나 여수 애양원에 물자 및 경비를 주선하여 주었으며 우리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다시 全南癩豫防協會를 發起조직 하여 당국으로 하여금 救癩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호남신문』, 1960년 3월 19일) 이렇게 1945년 최흥종 목사는 선교사들의 정상적인 복귀가 이루어지기 전 여수 애양원의 임시단장의 역할로 나환자 보호소의 정상화에 이바지하였고, 해방 직후 소록도 갱생원에서 발생한 학살사건<sup>190</sup>을 수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 당국과 협조하여 두 곳에 물자와 경비를 조달하는 데 힘을 보탰다. 여기에 그가 1945년 9월 한국나예방협회를 조직하는 일에 참여한 사실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해방 후 무엇보다도 최흥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제에 의해 해체되었던 광주 YMCA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재건 광주 YMCA 임원들. 최흥종의 좌에 최영균, 우에는 백영흠)

190 광복과 함께 발생한 한센인 84인 학살사건. 이 사건은 1945년 8월 20일을 전후로 당시 소록도 갱생원의 일본인 직원들이 물러나자 갱생원의 주도권을 두고 원생과 한국인 직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환자 대표 등 84명이 살해당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참조: 국립 소록도 병원,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2018.)

## 광주 YMCA의 재건

1945년 9월 금동 금정교회(제일교회)에 신성철, 문천식, 김현승, 최상욱, 김윤식, 조철환 등이 모여 광주 YMCA 재건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건 광주 YMCA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에 최흥중, 부회장에 백영흠, 총무에 정인세를 선출했다. 그리고 김천배 교육부 간사, 김학준 소년부 간사를 임명했다. 10월 초에는 양림동 소재 전라남도 소유의 노무 지도자 훈련소에 임시 사무실도 개설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관련 기관의 재건에도 힘을 더했다. 1945년 12월 조아라가 중심이 된 수피아여중 동창회가 광주 금정교회 유치원에서 모교 재건을 위한 모임을 갖고 수피아여학교 개교 준비위원장에 최흥중, 교장에 김필례를 추대하고 12월 5일 선교사들이 돌아오기 전(前) 개교식을 가졌다. 광주 YMCA는 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된 1946년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해체되었던 예수교장로회 재건의 산파역을 맡았다. 각지의 목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재건 노회 모임을 주선했다.<sup>191</sup> 1946년 1월에는 광주 YMCA의 핵심 인사들이 새 시대를 이끌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흥중이 나환자 협회 사무처로 사용하던 건물의 한 방을 빌려 <동부교회>를 창설하였다. 담임목사에는 백영흠, 원로 목사에 최흥중을 추대하고, 반년 뒤 궁동(弓洞)의 일본인 교회였던 적산가옥을 임차하여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로 출발한 동부교회는 온건 진보노선을 취하면서 여러모로 혁신적인 예배의 모습을 선보였다. 연보 주머니 대신 헌금함을 입구에 설치하고 남녀석(男女席)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예배 시간을 정확히 엄수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에 김천배 간사의 일요강좌를 열고, 매주 토요일에는 각 교회 청년연합회의 성서연구반을

---

191 『광주 YMCA운동 100년사 1920~2020』, 광주 YMCA. 2020. pp. 174~175.

운영하면서, 수시로 유명모, 함석헌, 김재준 교수 등을 초청하여 특강을 가졌다.<sup>192</sup> 이러한 모임이 1970~80년대 광주 사회에서 시민참여 여론광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광주 YMCA 시민논단>의 모델이 되었다. 이처럼 해방 후 광주 YMCA의 재건작업은 Y에 국한되지 않고 광주 시민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진행되었다. 참고로 백영흠 목사는 1946년 말 최흥종 목사로부터 Y 회장직을 인계받아 사업을 이어갔으며, 1950년과 196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다시 회장으로 추대되어 광주 YMCA 재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50년대 광주 YMCA 지도부. 이영생 총무, 백영흠 회장, 김천배 총무, 최흥종 회장, 이성학 총무, 임종철 회장 등)

192 『광주 YMCA 90년사: 1920~2010』, 광주 YMCA. 2010. pp. 204~205.



제 5 부

비 율

## 오방정(五放亭)에서 바라보는 세상

광주 YMCA 재건과 기독교 관련 기관들의 회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최흥종은 증심사 계곡의 생활로 되돌아갔다. 해방 후 좌우 대립으로 혼탁해진 도심에서 벗어나 증심사 계곡의 푸른 숲에 다시 앉아 그가 오랜 세월 관심을 놓지 않았던 농업부국(農業富國)에 관한 생각을 다시 가다듬었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농업사회였던 당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촌의 근대화 역시 시급한 과제였다. 최흥종은 1920년대 YMCA 활동을 시작한 이래 농촌사업에 꾸준히 관계해 왔다. 그가 참여한 YMCA의 농촌사업은 농민교육과 농촌 계몽운동(1925-1928)에서 협동조합 및 농사 개량 운동(1928-1932)으로, 그리고 농촌지도자 양성 운동(1932-1938)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두루 거쳤다. 최흥종은 특히 1938년 일제에 의한 광주 Y 농업실습 학교의 폐쇄를 아쉬워했고, 1940년을 전후해서 그는 아일랜드를 모델로 한 유상매상·유상분배의 농지개혁과 덴마크를 모델로 한 협동조합의 조직을 통한 농촌재건론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오방정에서 의재 허백련과 사회적 담론을 주고받는 가운데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을 합쳐보자는 다짐을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농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삼애학원(三愛學院: 광주 농업고등기술 학교)이다. 삼애학원에 대해서는 박선홍의 『무등산』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오방과 의재는 광복 후 일본인 오사키가 경영하던 다원을 인수하여 삼애다원이라 부르고 그 차밭 아래에 있던 춘목암(春木庵)이라는 일제강점기의 요정 별장 건물을 인수하여 삼애학원을 설립, 1948년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를 만들었다. 삼애란 애천(愛天), 애토(愛土), 애족(愛族)으로 오방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 ‘민족사랑’, ‘땅사랑’으로 정의하여 삼애학원의 건학 이념으로 삼았다. 이들은

광복 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농촌의 부흥과 근대화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난 때문에 진학을 못하는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영농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건학이념에 동조한 노산 이은상과 홍석은, 김천배 등이 초기 설립업무를 적극 도왔으며 다석 유명모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가 가사를 지어 보냈는데 김천배가 이 가사에 노래를 붙여 교가를 만들었다. 이 교가의 첫 구절인 '하이시나'의 어간은 '하이시다'로 '신이 내려주신'이라는 뜻이다. 오방과 의재는 개교 당시 교장 자리를 두고 서로 사양했으나 결국 오방이 교장을, 의재가 부교장을 맡았다. 처음에는 증심사 승방을 교실로 사용하면서 수업료 없이 후진을 양성했다. 이 학교의 교육목표는 덴마크의 증흥자 N.F.S 그룬트비히와 E.M 달가스의 이상을 이 땅에 재현시키자는 것이었다. 이 학교의 교과내용은 농업기술과 서화 등 다양했는데 개교 당시 신입생은 비록 15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교사들과 침식을 함께 하면서 농촌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닦았다. 의재는 이 학원 경영을 위해 광주, 서울, 부산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어 자금을 마련해 왔으나 언제나 형편은 어려웠다. 이 학교는 의재가 타계하기 2년 전인 1975년 부득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모두 24기에 걸쳐 243명이 배출되었다.<sup>193</sup>

1948년 3월 삼애학원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했던 사람은 최흥종, 허백련, 김천배, 정인보, 이은상, 홍석은이었다. 이들 여섯 명 중 세 사람(최흥종, 김천배, 정인보)이 YMCA 관계자들인 것으로 보아 개교 초기 광주 Y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호남신문사 사장이었던 이은상은 최흥종 목사가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호남신문사 회장직을 수개월 역임한 관계로 친분이 있었다. 학생모집과 관련해서는 1948년 1기 입학생 15명 중의 한 사람인 문석희의 회고담<sup>194</sup>이 참고가 된다. 문석희는 광주 시청의 주사로 취직이 된 상태에서 YMCA 회원이 되어 Y를

193 박선홍, 『무등산』, 광주문화재단, 2013.;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역사문화자원 1000: 삼애학원 (三愛學院)

194 문석희, 「오방 할아버지와의 만남」, 『회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p. 177~179.

드나들며 삼애학원 개원 소식을 듣고 보람이 있는 일에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에 최홍중 목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학생으로 받아주실 것을 간청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그에게 공무원 일에 충실하라며 그의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문석희는 Y의 김천배 총무한테 가서 다시 말씀드려 그의 허락을 받아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입학했다 한다. 문석희의 회고담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최홍중 목사는 확실히 그 당시 많은 젊은이로부터 폭넓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삼애학원이 비인가 학교로 출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설립한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청년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석희의 증언에 따르면 삼애학원의 초기 학교명은 <광주국민고등학교><sup>195</sup>였다고 한다. 문석희는 그 당시 학원에 오신 분 중 유명모와 함석헌을 뚜렷이 기억했는데, 특히 유명모 선생은 1948년 7월 오방정에서 한 달 남짓 머물며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노자의 도덕경을 줄줄이 암송하면서 강론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삼애학원을 맨 처음 개원한 장소는, 비록 잠깐이었지만, 무등산 기슭 오방정 위쪽에 있는 증심사(證心寺) 사찰의 객사였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배경이 사찰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최홍중과 허백련이 증심사의 주지 스님과 차담(茶啖)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공유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얼마 뒤 삼애학원은 일본인이 경영하던 다원을 인수하여 그 아래에 있던 춘목암(春木庵)이라는 일제강점기의 요정 별장 건물을 학교건물로 삼았다가 나중에 다시 지어 학교의 면모를 갖추어나갔다. 학교의 운영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최홍중은 YMCA와 한센인 문제에 전념하기 위해 1949년 삼애학원의 교장직에서 물러나고, 허백련이 교장에 취임하

---

195 1996년 10월 28일, 당시 미국에서 살던 문석희가 편지로 증언한 내용임.

여 현장에 남아 학교의 살림을 도맡았다. 삼애학원은 1953년 공인된 광주농업고등기술학교로 승격하여 24기의 졸업생 243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975년 재정(財政)상의 문제로 문을 닫았다.



(삼애학원 관계자들과 학생. 가운데 부분에 이은상, 허백련, 최흥종. 뒤쪽으로 김천배, 최득은 등. 배경이 사찰 건물이다.)

### 白凡 金九와의 만남

1948년 10월 최흥종은 백범 김구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백범이 직접 오방정(五放亭)을 방문한 것이다. 백범과 오방은 2년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다. 1946년 9월 24일 백범이 삼남 지방을 순회할 때 광주의 대성초등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독립당 신순원과 함께 최흥종도 참석했다. 또 중앙교회에서도 강연을 했기에 중앙교회 초대 목사였던 최흥종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948년 9월 30일 광주로 온 백범이 10월 3일 손수 증심사 계곡의 오방정을 찾은 것이다. 정치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좀체 퍼뜨리지 않는 최흥종의

성격 때문에 그날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그가 말한 바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이야기를 마치고 떠나는 자리에서 백범은 먹을 갈아 <和光同塵>이라는 휘호를 써 남기고 갔다. 화광동진의 뜻은 ‘눈이 부신 빛은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함께한다.’ 즉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민중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백범은 오방의 삶과 자세가 화광동진으로 보였는지 모른다. 지금 광주 YMCA 오방실(五放室)에 걸려 있는 휘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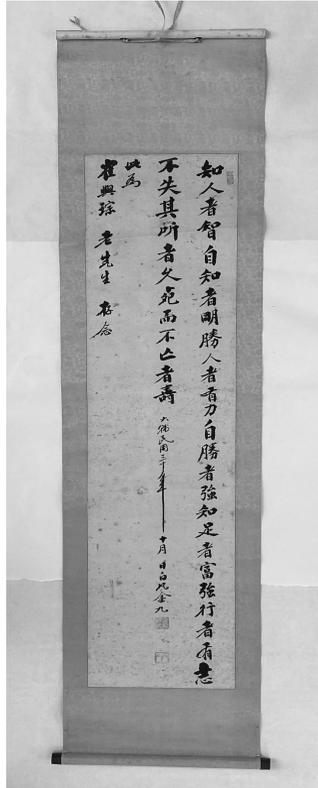


서울로 올라간 백범은 얼마 뒤 다시 장문의 편지와 함께 또 하나의 휘호를 써 최홍종 목사에게 보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광주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또다시 편지를 써 보냈는지, 오방의 아호처럼,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최홍종의 마음가짐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 편지도 전해지지 않아 편지의 내용을 알 길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 다만 그 휘호의 내용이 최홍종이 즐겨 읽던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知人者智, 自知者明. 勝人者有力, 自勝者強.  
 知足者富, 強行者有志. 不失其所者久, 死而不亡者壽.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知人者智)  
 자신을 아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自知者明)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지만 (勝人者有力)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自勝者強)  
 스스로 넉넉함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知足者富)  
 힘써 행하는 사람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強行者有志)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그 지위가 오래가고 (不失其所者久)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死而不亡者壽)



(백범이 써 주신 글. 崔興琮 老先生 存念이라고 쓰여 있다. 김구 선생께서 최고의 존경을 표했다.)

슬프게도 1949년 6월 26일, 12시 36분, 김구는 서울의 자택인 경교장에서 육군포병 소위 안두희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소식을 들은 최흥종은 한동안 묵언(默言)으로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 빨치산과의 조우

해방 후 6·25까지 정국은 좌우로 나뉘어 혼란을 거듭하며 반목과 핏물로 얼룩졌다. 이념 갈등이 그토록 현실을 피로 물들이고 있을 때 목사로서의 최홍종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1920년대 내내 기독교청년회와 노동공제회를 함께 아우른 활동, 그리고 좌우 연합성격의 전국 항일 조직인 신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로 보아 그는 중도 통합노선을 견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교인으로서 최홍종은 극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신봉하지 않았다. 그의 공산주의 이념에 관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오래전 중국으로 망명해 살던 최홍종의 종손(누님의 손자)이 한중(韓中)국교 정상화로 왕래가 가능해지자 1995년 한국을 방문해 그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는 남로당 지하당원으로 6·25 때 월북하여 북한에서 남로당파가 숙청될 때 함경도로 유배되었다가 1962년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정상훈(鄭祥勳)이라는 사람이다.<sup>196</sup>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군에 밀린 반란군과 무장한 인민이 합쳐져 2천여 명의 무장 세력이 11월 하순 지리산으로 피신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북상하여 1949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시까지 화순의 백운산 방면으로 진출하여 빨치산 활동을 전개했다. 최홍종이 머물던 오방정은 무등산 자락에 있어 그 당시에는 인적이 극히 드문 산속으로, 화순의 백아산 방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6·25 전까지 최홍종의 오방정에는 그의 종손인 정상훈이 자주 찾아 뵈고 며칠씩 머무르곤 했는데, 정상훈은 남로당의 비밀지하당원이었

---

196 정상훈은 최홍종의 누님 崔永瑄(1873~1964)의 장남 鄭孝龍의 2남이다. 정효룡(1894~1934)의 다섯째 동생이 중국의 인민음악가인 鄭律成(1914~1976)이다. 정상훈은 중국 망명 후 정율성의 도움을 받아 정착했다. 여기 소개한 일화는 1995년 정상훈이 광주에 왔을 때 그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이다.

다. 물론 그러한 사실을 오방 선생은 알 리가 없었다. 정상훈은 1916년 생으로 연희전문을 1940년에 졸업하고 이어서 일본 법정대학(法政大學)에서 2년 더 경제학을 공부한 뒤 광주로 돌아와 있었기에 주위에서 아는 정상훈은 그저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청년 지식인이었다. 그가 오방정에 머문 어느 날 저녁 백아산의 빨치산이 소위 보급 투쟁을 하러 증심사 계곡으로 진출하여 최흥종의 초가에 들이닥쳤다 한다. 존경하는 오방 선생을 찾아보러 갔다가, 그렇게 그날 늦은 밤에 빨치산과 우연히 조우(遭遇)하게 된 것이다. 초가에서 홀로 지내는 최흥종의 거처에 내어줄 만한 식량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런데 무리 중 누군가가 최흥종을 알아보고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최흥종 목사가 태연한 어조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본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묻더라는 것이다. 너무나 예기치 못한 질문이라서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자, 그는 “예수의 가르침과 마르크스의 평등사상은 공통점이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마르크스 사상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라며 뼈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다. 잠시 뒤 빨치산들이 떠나고 정상훈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을 깨달았다. 최 목사가 자본론을 읽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짧은 한마디에 깊은 뜻을 담아낸 오방 선생의 지혜에 감탄해 그날의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고백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런 잊지 못할 경험과는 아랑곳없이, 최흥종과 잠시라도 인연을 맺었던 송진우, 여운형, 김구 등 정치 지도자들의 비극적 주검이 가져온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민족상잔의 비극 6·25가 모든 사람의 삶을 덮쳤다.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많은 혁명가들이 천국을 약속하면서 지옥을 창조한다”라는 말처럼, 사랑의 바탕이 없는 혁명은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 최흥종은 증심사 계곡에 말없이 머물렀지만, 그의 동생 최영옥은 7월 23일 광주로 진입한

인민군에게 체포되었다가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 소식에 그들이 퇴각하면서 광주 교도소에 갇혔던 50여 명과 함께 재판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무참히 집단 학살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이념이 초래한 집단적 광기(狂氣) 앞에서 최후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침묵과 기도의 시간 속에 신앙이 깊어가는 영혼만이 거기 있었다.

### **변함없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삶**

1950년대에 오방(五放)은 이제 나이 70세에 접어들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광주 YMCA와 여러 단체의 원로로서의 역할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일생을 통해 동행해 온 한센인들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삶이었다. 그는 해방 후 1947년 대한나(癩)협회가 창립될 때에 고문역을 감당하였고 전남지부를 만드는 일을 주도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센인들을 기꺼이 만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께 찾아 나갔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제 한센인과 더불어 또 다른 사회 소외계층이 된 결핵 환자의 문제를 꺼안았다. 1950년대에 오방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개척해 나간 한센인의 정착촌 나주 ‘호혜원’과, 결핵 환자의 치료공동체인 ‘송등원’과 ‘무등원’의 설립과 운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오방 선생을 돕는 수많은 선의의 조력자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과거부터 있었다. 해방 전 모든 일에서 의사 동생 최영욱이 든든한 후원자였듯이, 해방 후 호혜원의 운영에는 신정식(1924-1994) 의사, 그리고 무등원과 송등원의 경우에는 의료선교사로 제중병원 원장이었던 허버트 카딩턴(Herbert Augustus Codington Jr., 1920-2003)이 함께했고, 그 외에 제헌국회의원으로 반민특위 재판관을 지내고 1950년대 내내 3, 4, 5대 국회의원이었던 정준(鄭濬, 1915-2000)도 든든한 지원군이였다.

오방의 평양신학교 후배인 정준 의원은 1951년 오방이 한국사회사업 협회장을 먼저 역임한 다음 한국사회사업연합회의 회장직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맡을 만큼 오방 선생과 함께 사회사업 분야의 활동에 관심을 공유했기에 오방 선생이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 성격의 호혜원이나 송 등원의 설립에 힘을 보탬 수 있었다.

### 음성 한센인 자활촌 <나주 호혜원>

해방 후 사회적 혼란기에 한센병 환자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6·25가 지난 1954년에야 전염병 예방법이 우리 정부에 의해 제정되면서 한센병 관리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한센병을 제3종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나환자 격리’가 법제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를 둘러싼 여러 상황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어 새로운 접근과 치방이 필요했다. 우선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에 여러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로부터의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여 소수의 한센인이 임시로 모여 사는 구역이 곳곳에 생겨났다. 동시에 1940년대 이래 프로민, 땀손제와 같은 치료 약이 개발되면서 한센병의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제 풀어야 할 숙제는 수용시설을 벗어난 완치 가능한 한센인들을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다. 최흥종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던 한센인 ‘구제’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한 것이다. 최흥종은 그렇게 주장했었다. ‘나병’이라는 ‘평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환자’라는 ‘사람’을 보자! 나병균은 박멸하고 근절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나환자는 우리가 구제해야 할, 다시 말해 보듬어야 할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그는 조직을 만들 때도 명칭을 ‘나병근절연구회’보다는 ‘나환자구제연구회’를 선호했다. 한센인들이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그들이 완치된다면, 이제는 그들이 사회 안으로 들어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록 도와야 함이 분명해졌다. 즉 음성환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정착 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그에 대한 하나의 구상이 음성환자들의 자활촌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50년대를 관통하며 최흥종이 많은 공을 들여 전라도 지역에 최초로 만들어진 음성환자 자활촌이 나주 산포면의 호혜원이다.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한센인 정착촌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에 들어와서이니, 호혜원의 설립은 그보다 10년을 앞섰다 하겠다.

2006년에 출판된 『羅州市誌』에는 호혜원의 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50년대 초반 광주 송정리에 최우식을 리더로 거주하던 소규모의 음성 한센병 환자들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이 최흥종의 협조를 얻어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했다.” 그러나 나주 산포면 신도리에 호혜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sup>197</sup>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울려져 완성된 결과물이다. 우선 해방 후 혼란기에 수용시설에서 나온 나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나주 산포면 신도리에는 과거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던 의령 남씨들이 떠난 뒤 빈터로 남아있던 옛 마을 터가 있었는데, 이곳에 부랑 나환자들이 하나둘 흘러들어와 천막촌을 형성하여 머물기 시작했다. 그때가 1946년이였다. 1946년이던 최흥종은 광주 YMCA 재건에 집중하던 시기였는데도 한센병 환자에 관한 관심은 유지하였다. 즉 그는 1945년 10월에 나병예방협회를 조직하는 한편 도지사 고문회 회장직을 맡아 미군정의 도움으로 소록도와 애양원을 관리하며 환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편 1949년 여수 애양

---

197 호혜원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종철, 「나주의 버려진 땅, 혐오와 차별의 공간: 호혜원 한센인의 삶과 인권」, 목포대학교 사학과 제30회 학생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질병, 역사를 습격하다.』, 2022년. pp. 47~80.

원에서는 선교사 원장과 불화를 일으킨 20인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지식과 활동력을 갖춘 그들은 광산구 송정리 근처 한적한 곳에 동지를 틀고 머물렀다. 이 애양원 출신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최흥종을 만났다. 왜냐하면, 최흥종은 오랜 세월 애양원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을 뿐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이 찾아가면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고 할 사람은 그 당시 최흥종 목사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광산구 송정리 음성한센인 공동체의 수장은 최우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본명은 최일담<sup>198</sup>으로 그는 최흥종 목사와 죽을 때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다. 최흥종은 해방 이전부터도 한센병에서 치료된 음성환자들이 거주할 정착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한센병에 대한 편견이 워낙 강해서 실현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는 해방 후에 들어서서는 음성환자들을 위한 정착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기에, 최일담과 함께 음성환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나주의 현장을 둘러보았다고 한다.<sup>199</sup> 다만 얼마 뒤 6·25전쟁이 일어나 모든 일은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광주가 회복된 1951년, 최흥종은 마침 그가 맡고 있던 '전국사회사업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이을식 전남도지사를 만나 나주에 음성환자를 위한 정착촌 건설을 요청함으로써 나주의 정착촌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sup>200</sup> 그 당시의 여러 정황을 최흥종은 1960년에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198 1966년 최흥종의 장례식을 취재한 문순태 기자는 최일담이 슬피 울며 弔詞를 했다고 기록했다.

199 김수진, 「사회구원을 외쳤던 최흥종 목사」,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 104.

200 이은선,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인들의 토착적인 사회복지 형성 연구」 『역사신학논총』 제 37권 p. 91.

“내가 지금 직접 관계하고 있는 호혜원도 그러한 예의 좋은 본보기인가 합니다. 광주에서 20여 리 격에 있는 산간무인지대에 … 경쾌한 환자들이 합숙하여 정착하더니 그들 지도자들이 나를 찾아와 육성의 길을 문의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열성에 감동되어 나도 답사하여 보았더니 이상촌으로서의 입지적 조건도 매우 좋은 바 있어 당국의 인가와 보조가 있기를 힘써 주는 바 있었으며”<sup>201</sup>

이은선의 연구에 따르면 나주 신도리의 임시 천막촌을 정착촌으로 조성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는데, 이때 최우식(최일담)이 리더로 활동하던 광주 송정리를 중심으로 유리결식하던 음성 한센병 환자들의 소규모 공동체도 이 마을에 합류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호혜원 자활 정착촌 사업은 최홍종의 지원에 힘입어 1952년 7월 14일 드디어 정식 인가를 얻어냈다. 나주 산포리 신도면지역에 호혜원 인가를 취득할 당시 대표로 등록한 사람은 애양원 출신의 이성민인데, 역시 여수 애양원 출신으로 애양원에서 퇴출당한 최우식(최일담), 정덕준 등과 함께 호혜원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6·25전쟁이 끝나자 정착촌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4개의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마을 이름을 평화촌, 망월촌, 새벽촌, 희망촌으로 하였다가, 1954년 4개의 마을이 서로 은혜를 베푸는 하나의 몸체가 되자는 뜻에서 이름을 ‘互惠園’으로 바꿨다. 그리고 드디어 1956년 호혜원 지역에 시설을 개설해도 좋다는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즉 국가의 인정을 받는 법인(法人)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이제 나환자 정착촌인 호혜원이 명실상부한 공식적인 출범을 한 것이다. 이때 시설 개설 인가를 받으면서 함태영, 김재준, 조향록, 진문원 등을 이사로, 그리고 정준 국회의원을 이사장으로 모셨으며, 이후 8만 9천 평의 땅에 진료소, 숙직실, 공동집합소, 창고, 구매소, 목욕장, 환자용 주택, 상·하수도 시

---

201 최홍종. 「구라 사업 50년사 개요」. 『호남신문』. 1960. 3. 20.

설, 화장장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정착촌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나주의 호혜원에는 150여 세대 600여 명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최홍종은 전국 각계의 유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지속적인 운영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그 자신은 환우들과 동행하는 평소의 원칙을 버리지 않고 호혜원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그가 1953년 천막 예배당으로 세운 호혜원 교회에서 설교했다. 호혜원 교회의 장로를 역임한 사람들은 호혜원 설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정덕준, 이성민, 최일담 등이었다. 최홍종 목사가 호혜원의 교회에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는지를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1957년 3월 13일 최홍종 목사의 장손녀 최규엽(崔圭葉)이 광주 동부교회에서 축망받는 기자 박권상(朴權相)<sup>202</sup>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는 호혜원 교회의 일 때문에 결혼식에만 잠깐 참석하고 자리를 뒀다. 교회에서 거행된 예식이 끝나고 모든 가족과 하객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가 이어서 마련되었는데 그 자리에 집안 큰 어른의 부재(不在)가 매우 아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방 선생이 장손녀의 결혼 축하 자리를 일찍 떠난 이유가 가족에 대한 무관심이나 애정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결혼식 6개월 전에 장남 최득은(崔得恩)의 집에서 가족이 모여 약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는 끝까지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장남 집안의 개혼(開婚)이었고 결혼식 주례를 광주 Y의 핵심인 백영흠 목사가 맡았는데도 그가 호혜원으로 일찍 떠났다는 사실은 최홍종 목사가 호혜원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음을 뜻한다.

---

202 박권상은 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주간, 시사저널 창립 편집인 겸 주필, KBS 사장을 역임했다.

세월이 한참 지난 1991년, 익산 황등교회의 김수진 목사가 호혜원을 방문했을 때 그 이름을 이제 산포제일교회로 바꾼 호혜원 교회의 김인철 장로의 집 응접실에는 최홍종 목사가 천막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라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글귀를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았다고 했다.<sup>203</sup> 최홍종 목사가 씨앗을 뿌린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한센인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손녀 약혼 예배. 최홍종, 동부교회의 백영흠 목사, 최규엽, 박권상)



(호혜원에서의 기도)

그렇다고 모든 일이 그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한센인 정착촌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주변 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정착촌을 습격하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하였고, 나중 한센인들의 자녀가 인근의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해야 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벽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높고 두터웠다. 그리고 정착촌 내부적으로는 애향원 출신과 소록도 출신 간의 반목, 그

203 김수진. 「사회구원을 외쳤던 최홍종 목사」.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p. 105~106.

리고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 간의 갈등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오방 선생은 한센인들과 생활을 함께하며 대내외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었다. 오방 선생은 한센인들이 위험한 병균을 옮기는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센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상의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주시시키고, 한센인 내부의 문제는 그들과 동행하며 신앙의 힘으로 함께 풀어나갔다. 1950년대 중반에 오방 선생의 권유로 호혜원 진료 봉사에 참여했던 신정식 박사의 회고록을 보면 오방 선생의 호혜원 지원 활동의 모습을 어렵듯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소록도병원에 근무하다 광주로 와 흥안과 병원에 근무하던 신정식 의사의 회고담 일부이다.

“1950년대 말 어느 날, 병거지 차림의 최홍종이 호혜원 환자 약을 얻으러 흥안과로 찾아왔다.

최목사는 영력(靈力)의 눈빛으로 신정식을 보며 말했다. ‘신의사, 소록도에 5년이나 있었다는데 그대로 말 것인가? 나하고 문둥이 일하세.’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1920년부터 복지사업에 헌신하시는 대선각자의 분부를 어느 명이라고 언감생심(焉敢生心) 거절하겠는가? 이후 곧바로 그 어른과 나협회지부를 만들고 시간 나는 대로 진료와 가정 심방 등을 하며 참여를 계속했다.”<sup>204</sup>

신정식 의사는 매주 주말이면 호혜원에 자원봉사 진료에 나섰고, 그 외에도 그는 시간을 내 광주 인근의 재가(在家) 한센병 환자를 방문하여 진료했다. 특히 오방 선생을 따라 호혜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화는 오방 선생이 얼마나 스스럼없이 한센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까이 대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

204 백진양 엮음. 『전 국립소록도병원장 신정식』, 도서출판 주목. 1919년. p. 55.

“오방 선생 되시고 다닐 때 가장 잊지 못할 감미로운 추억이라면 호혜원 가서 처음으로 나환자 동석하고 상(床)을 같이 받고 점심을 먹은 일이다. 소록도에 처음 갔을 때는 마치 오늘날 우주인이 갖춘 복장같이 완전히 중무장하고 눈만 제대로 내놓고 환자를 대하였으니 가히 환자실에 들어가서 자리를 같이하지도 않고 더욱이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인간생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인데, 주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수저 젓가락 가는 대로 따랐지만, 뒤에 탈이 없고 오히려 그들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보람조차도 갖게 해 준 사실로서 새삼 목사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sup>205</sup>

1947년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정식은 광주 의학전문학교(전남의대) 안과에서 홍승민 교수의 조무원으로 근무했다. 6·25가 발발하자 고향 고흥에 잠시 내려가 있던 그는 소록도 갱생원 김상태 원장으로부터 6개월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록도 병원으로 갔는데, 김원장의 헌신에 감화되어 떠나지 못하고 5년을 근무했다. 김상태 원장이 1955년 은퇴하자 그도 1년 뒤 전남의대에서 모시던 홍승민 교수가 미국 유학을 가면서 그가 운영하던 흥안과 의원(당시에는 대학교수가 개인병원을 개업할 수 있었다) 맡아주기 위하여 광주로 와 흥안과 원장으로 재직한 뒤 자신의 병원 신안과를 개원했다. 그러면서 오방 선생의 권유로 나협회전남지부를 책임졌으며, 호혜원에 대한 의료봉사와 전남 지역의 나환자 진료 활동을 꾸준히 했다. 신안과 병원장실에는 슈바이처와 오방 선생의 사진을 걸어두었다고 한다. 신정식 박사는 오방 선생의 영향으로 다시 소록도로 갈 결심을 한다. 그리하여 1974년 3월 결국 또다시 소록도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소록도 병원장으로 부임하여 1985년 12월까지 11년간 근무했다. 신정식 박사는 1950년대에 이미

---

205 신정식, 「몽그려진 몽당손으로 하모니카를 불자」, 『금호문화』 1986년 6월 (오방기념 사업회가 펴낸 『화광동진의 삶』 2000년 pp. 184-191에 재수록됨)

소록도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1953년 5월 17일 소록도병원 개원 기념식에서 최홍중 목사를 만난 기억을 글로 남긴 것으로 보아 두 분의 관계가 한센인들을 가운데 두고 매우 오랜 인연으로 엮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 신 박사가 경험했던 일화 역시 오방 선생의 한 면모를 드러내 준다는 의미가 있어 여기 소개한다.

“1953년 5월 17일 소록도병원 개원기념일에 내외귀빈이 모인 자리에서 그 당시 환자교회 담임 모 목사가 즉석에서 장관에게 진정하기를, ‘소록도병원은 국립인데 수용환자 가운데는 신자(장로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또 천주교도도 함께 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목사의 신분이 위태로우니 여기 소록도 장로교 신도환자만 남겨두고 다른 신도나 불신자는 딴 곳에 수용해 달라.’ 이 말은 들은 모든 사람이 어안이 병병하여 감히 입 열 생각을 못 했는데 유독 오방 선생이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서서, ‘목사, 그것은 잘못이며. 성경에도 살려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면 살 것이라 하였는디, 목사로서는 할 소리가 아니여.’ 라며 일반 회중에게도 나(癩)사업 본연의 길을 깨우쳐주던 그 결연한 모습, 지금도 생생하다.”<sup>206</sup>

---

206 박진양 엮음. 『전 국립소록도병원장 신정식』 도서출판 주목, 2019. p. 196.



(호혜원 창립 기념식. 한가운데 흰 두루마기 입은 분이 최흥종, 오른쪽으로 한 사람 건너 정준 의원)

호혜원과 최흥종 목사의 관계는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호혜원의 주민들은 최흥종 목사가 보여준 사랑의 정신을 후대에 심어주기 위해서 1975년 그의 호를 따서 <오방 장학회>를 조직하였다. 처음에는 매년 기금을 축적하여 그 기금 가운데 일부를 할애해서 광주와 나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가 장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1984년 광주 YMCA로 기금을 넘겨주었다. 광주 YMCA는 호혜원에서 마련해준 기금을 더욱 확장해 <오방 기념사업회>로 발전시켜 장학사업 이외에 다양한 추모 및 교육사업을 추가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 <호혜원>은 한센인들이 그들의 가슴 아픈 사회적 낙인과 혐오의 역사를 깨끗한 자세로 극복해 나간 상징적 증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귀중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호혜원 공동체는 2013년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초광역 혁신도시가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해

체의 길을 밟아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다. 에드워드 헬릿 카(E. H. Carr)는 역사란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다. 그러므로 오늘  
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거를 그저 망각의 세계로 흘려보내는 대신, 오방 선생과 한센인들이 호혜원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해와 사랑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한센인들이 겪은 차별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호혜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  
쳐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포용과 화해, 그리고 공  
존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일이다.

## 결핵 환자의 영양소 <송등원과 무등원>

최흥종 목사가 한센인의 자활촌인 호혜원 사업에 몰두하고 있을 즈음 폐결핵 환자의 치료가 광주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폐결핵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광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바, 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열악해진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가 그 원인이었다. 그 당시 통계의 정확도를 가늠할 수가 없긴 하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당시 전 국민의 80% 정도가 잠재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한다. 1953년에 한국에서 결핵으로 사망한 수는 8만 명(총인구의 0.4%)이었다.<sup>207</sup> 이는 2019년 12월 발생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의 경우 2022년 11월 까지 한국에서의 3년간 누적 사망자 수가 3만여 명이<sup>208</sup>었던 것에 비하면 1953년 한해 사망자 8만 명은 지나치게 많은 숫자이다. 특히 남한의 인구는 2023년 2월 기준 51,844,834명인데 비해 1955년 남한의 인구가 2,150만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폐결핵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핵은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에서는 일제 말 신사참배 반대로 폐쇄되었던 제중병원(現 기독교병원)이 6·25전쟁 후인 1951년, 10년 만에 다시 정상화되어 허버트 카딩턴(Herbert Augustus Codington Jr., 1920~2003)<sup>209</sup> 원장을 중심으로 결핵 환자 치료에 나섰다. 카딩턴은 미국의 명문 코넬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엘리트 의사 선교사로 그가

---

207 이윤교. 「광주에서 결핵환자의 영양과 자활 공동체 연구」, 『사회복지지역연구』, Vol. 4, 2021, p. 6-35.

208 『한겨레』, 「코로나 누적 사망자 3만 명 넘었다」, 2022. 11. 20.

209 카딩턴 선교사는 1951년부터 1974년까지 당시 결핵 전문병원인 제중병원(현 기독교병원)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결핵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다. 포사이드, 서서평과 함께 가장 헌신적인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다.

한국에 부임할 때 한국의 결핵 환자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필요한 의료 기기를 챙겨 올 정도로 결핵 환자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선교사였다. 그래서 그의 지도로 결핵 전문 치료센터를 운영하였고 1955년에는 결핵 병동을 신축할 정도로 치료에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신규 발생 폐결핵 환자는 급증하는데도 결핵 환자를 치료해 줄 병실, 의사, 약품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환자의 병이 완치되지 않아도 입원한 지 6개월 후면 무조건 퇴원해야 하는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완치되지 않은 환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상황이 지속하여 사태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갔으나 가난한 정부는 그저 속수무책이었다. 완치되지 않은 퇴원환자를 돌볼 시설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여건이 열악하여 해결책을 내놓는 기관이나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발생한다.

특이하게도 광주 제중병원에는 거제도 북한군 포로수용소에 있던 결핵 환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렇게 된 연유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군목(軍牧) 커밍(Bruce Cumming) 선교사의 부인이 광주 제중병원의 간호 부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55년 겨울, 퇴원을 앞둔 귀순 포로환자가 퇴원해도 갈 곳이 없음을 비판하며 흥기를 들고 자살소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충격파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해, 갈수록 악화하는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제 시민사회 부문이 나서야 한다는 경종(警鐘)의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최흥종은 주저 없이 바로 행동에 나선다. 즉 이 딱한 소식을 접한 최흥종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백십자여명회(白十字黎明會)<sup>210</sup>라는

210 白十字黎明會

人類愛의 지극한 激動에서 民族 保健의 懇切한 要求에서 우리는 폐결핵의 예방과 치료와 根治를 시급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하의 결핵 치료를 위한 호소문을 직접 만들어 전국에 발송하였다.<sup>211</sup> 이를 계기로 최흥종 목사는 동명교회 장로이며 대한적십자사 전라남도 지사(支社)의 책임자인 박두옥 등 광주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30만 원의 성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어서 최흥종은 제증원에서 결핵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하는 카딩턴 원장을 만났다. 카딩턴 원장 역시 이러한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퇴원 후 생활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하고 있었기에 카딩턴과 최흥종 두 사람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다짐하게 된다. 최흥종 목사의 결핵 환자와의 인연, 그리고 카딩턴과의 협력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다. 후일 최흥종 목사는 카딩턴을 자신이 젊은 시절 만난 포사이드를 닮은 천사 같은 사람이라 평했다.

한편 제증병원의 결핵 환자 중에 일종의 기독교 수도공동체(修道共同體)인 동광원(東光院) 출신 박창규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전도사는 동광원의 스승 이현필(李鉉弼)을 찾아가 오갈 데 없는 제증병원의 퇴원환자를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돌아갈 집이 없는 환자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동광원의 이현필은 요양과 자활을 위한 기관 설립을 최흥종 목사를 찾아가 상의한 끝에 서울 YMCA 현동완 총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동광원은

---

爲政當局과 有志諸賢은 물론, 同感의 憂慮와 退治의 方途를 念念構想이 非止一再입을 인식하오나, 세월은 電光石火로 흐르고 악마같은 결핵균은 男女靑壯年의 생명을 侵擄 유린하여 民族의 生長律을 방해위축하고 국가의 保健體를 蟲溢 食肉적하며, 폐병환자 증식 소치로 인하여 전문병원이 만원이 되어 收容기 處하여 攝生의 危懼가 莫比尤甚이요, 침식의 공포가 難堪 暫默이라 衛生錯亂이 不息이면 安甯질서를 難保로다.

捨是呼 同病常憐 동지 幾個人이 熟考再三에 提議干高名大學하여 呼유 干有志諸君子하오니 此를 關切한에는 內外各界에 있는 온갖 有志와 助力를 要하며 有志者篤志家 公私各層과 官民合作을 期하는 바입니다. 人道의 正義로는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라, 자에 黎明會 취지를 천명하나이다.

211 차준순, 「호남교회사에서 복음적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오방 최흥종 연구』, 오방기념사업회, 2022, p. 139~140.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동광원>을 검색하면 '1950년 설립된 사회복지 기관'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1950년 1월 최흥중 목사와 정인세, 김천배, 백영흠, 최영욱 등 광주 지역 기독교 지도자와 유지들이 고아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동광원이라 하였다. 그 무렵 화학산에서 묵은 수도하고 있던 이현필은 고아원 설립을 망설이던 (광주 YMCA의) 정인세에게 성경 말씀(야고보 1장 27절)을 적어 보내 동광원이 추구할 사회구제(고아와 과부를 돌봄)와 수도영성(세속에 물들지 않음)의 가치를 제시하였고, 그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을 고아원의 보모와 교사로 보냈다. 이때 이현필의 수도공동체는 동광원이란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동광원은 수도공동체와 사회복지기관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했다.

6·25전쟁 후 고아가 급증하여 동광원의 수용인원이 6백 명을 넘게 되자 세속적 학문과 문화를 배제하고 수도원처럼 운영하는 동광원에 대한 기독교계와 사회의 비판이 집중하였다. 이에 1954년 8월 전라남도 행정당국은 동광원을 폐쇄하고 수용되었던 고아들을 도내 각 고아원에 분산 수용하였다. 이로써 고아원으로서 동광원은 사라졌다. 하지만 수도공동체로서의 동광원 명칭은 계속 남아 이현필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전라남도 광주와 화순, 남원, 나주, 해남, 함평, 진도, 그리고 경기도 능곡과 벽제에 동광원 수도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964년 3월 이현필이 별세한 후 동광원은 정인세와 오복환, 김준호, 정귀주, 강남순, 김은연, 김금남, 복은순, 박공순 등 남녀 제자들에 의해 수도공동체로서 기능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최흥중, 정인세, 이현필은 어떤 관계인가? 우선 정인세(鄭寅世, 1909-1991)는 1920년대 학생 시절 서울 YMCA에서 당시 서울 Y 간사였던 현동완의 지도로 체육부 수련을 받고 1930년대에 최흥중 회장이 이끄는 광주 YMCA에서 체육부 간사로 활동하

였고, 해방 후 광주 재건 YMCA에서 다시 최흥종 Y의 총무로 발탁되어 함께 일한 사람이다. 그는 YMCA 총무를 그만둔 후 동광원(현 歸一園의 전신) 활동에 전념하였다. 이현필(李鉉弼, 1913-1964)은 최흥종 Y 회장이 그를 1932년 어비슨의 농업실습학교에 머물도록 주선했고, 이현필은 그곳에서 최흥종의 큰사위 강순명 목사의 독신전도단(獨身傳道團)에 합류했다. 이를 계기로 이현필은 오래도록 최흥종을 아버지로 여겼고 최흥종은 이현필을 아들처럼 대했다. 그 후 이현필은 YMCA와 연관을 맺고 23세에 서울 YMCA 야간부 영어 학교에서 현동완을 만나 지도를 받았다. 마지막 남은 현동완(玄東完, 1899-1963)의 경우, 그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 YMCA 활동을 하고, 해방 후에도 서울 YMCA의 총무로 있었기에, 1930년대에 이미 전국 YMCA 연합회의 중앙위원을 지낸바 있는 최흥종 목사와는 1920년대부터 협력 활동을 함께 해온 사이였다. 따라서 최흥종과 이현필이 현동완 서울 YMCA 총무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의 청원은 마침 그 당시 서울 YMCA 회장의 직함을 가졌던 이기봉 국회의장에게 현동완이 전달하여 300만 원의 큰 후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56년 동광원(현 귀일원) 예배실에서 결핵 환자의 영양과 치료를 위한 송등원(松燈園) 발기(發起)회의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오방 최흥종 목사를 이사장으로, 동광원의 김준호 선생, 대한적십자사의 박두옥 장로, 제중병원의 카딩턴 원장을 이사로, 박창규 전도사를 총무로 선출하였다. 송등원은 이렇게 최흥종 목사의 주도하에 설립되어 동광원 사람들이 운영을 맡았다. 카딩턴은 약품과 식량 및 의료 지원을 담당하고, 박두옥은 세계 봉사회로부터의 구호품 조달과 행정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광원의 많은 자원봉사가 결핵 환자들의 살림을 위해 큰 노력을 해주었다. 실천적인 시민사회운동의 결실이었다.



(송등원 모습)



(YWCA에서 열린 송등원 관련 모임. 최흥종과 카딩턴)

송등원은 처음 1년간 동광원이 중심이 되어 제중병원에서 퇴원한 결핵 환우를 돌보는 사업을 시작으로 1957년 산수동의 천막 수용시설 기간을 거쳐 1958년 무등산 자락의 지산동에 6천여 평의 땅을 마련하여 초가집을 짓고 우선 60여 명의 결핵 환자를 돌보았다. 공기 맑은 산골에서의 휴양과 치료가 목적이었는데, 실제로 산속에서의 요양은 환자

들의 회복에 큰 효과가 있었다. 결핵 환자 요양 시설인 송등원은 한때 600여 명까지 수용하여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환자와 민원 발생이 이유가 되어 이주(移住)와 분산(分散)이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1961-62년에 송등원은 환우들을 원효사 계곡, 조봉골, 골매 등지로 분산(分散) 이주(移住)시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름을 무등원(無等園)으로 바꾸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미비했던 시절, 정부의 관심 밖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진행된 무등원 조성사업은 매우 힘들고 더딘 작업이었다. 우선 깊은 산 속에서 식수원(食水原)과 농작물 생산을 위한 텃밭 공간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으므로 대체로 옛 절터, 옛 삼밭, 또는 버려진 주거지 등이 후보지가 되었다. 이러한 지역을 찾아 순차적으로 초막을 지어가는 어려운 작업을 동광원 수도공동체(修道共同體)의 사람들이 도맡아 진행했는데, 이때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이현필의 제자 김준호<sup>212</sup>였다.

무등원의 이주(移住)가 시작될 때부터 최홍종 목사는 원효사 계곡에 있는 무등원의 한 초막으로 들어와 1966년 5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결핵 환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가 환자들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등산 산골에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에는 큰 힘이 되었다.<sup>213</sup> 비록 이곳저곳 흩어져있는 초라한 초막에서 밥을 일구며 자급자족하는 어려운 삶이었지만, 무등원은 하나의 수도원처럼 결핵 환우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최 목사가 거주하던

---

212 김준호(金俊鎬)는 이현필의 동광원을 이어받아 사회복지법인 귀일원(歸一院)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213 이 말은 최홍종 목사가 정신적 지도자로서 큰 힘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가 함께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임락경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1963년 오방 선생이 시내를 한 차례 내려갔다 오셨는데 광주 여객 사장 박인천 씨가 석유 두 드럼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호롱불 밝히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석유 두 드럼이 와서 한겨울을 잘 보냈다 한다.

집은 원효사 건너편 골짜기에 흙으로 지어진 작은 초가집 두 채 중 하나였는데, 한 채에는 지산동 송등원에 있던 남자 결핵 환우 10여 명이 이곳으로 옮겨와 살면서 집 이름을 소망실(所望室)이라 했고, 바로 그 소망실 옆집에서 일반 환우들 7~8명과 오방 최홍종 목사가 함께 생활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홍종 목사는 원효사 부근 무등원에 조그마한 초막 교회를 세워 복음당(福音堂)이라 이름 짓고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그곳에서 유영모, 함석헌 등 그를 찾아오는 방문객도 많았다.

무등원 교회에서 최홍종 목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자신을 스스로 촌놈 목사라 칭하는 임락경 목사는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스승을 찾아 나섰다는데, 동광원의 이현필(1913~1964) 선생의 소문을 듣고 그를 뵙고자 하여 1961년 여름, 광주로 가서 무등산으로 이현필 선생을 찾아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나 결핵에 걸려 매일 같이 피를 토하는 이현필을 직접 만날 수 없어 당시 82세 된 노인 목사님과 한방에 기거하게 되는데, 그분이 최홍종(1880~1966) 목사였다. 그는 비록 이현필과 최홍종 목사를 몇 년 모시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들의 신앙하는 태도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철저함을 본받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그의 회고담 중의 하나를 여기 소개한다.

“다석(多夕) 류영모 선생님이나 이현필 선생님보다도 더 앞서신 최홍종 목사님께서 1961년에 하신 첫 설교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는 석가도, 공자도 모두 구원받았다고 하였다. 그때 나는 보수 중에 보수적인 신앙을 지니고 교회 생활을 했었고, 어설픈 전도사들의 가르침만 받아왔었다. 석가는 마귀 대장이고, 유교는 빨리 없어져야 하고, 부처는 때려 부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그런 내가 최홍종 목사님 설교 한 마디로 불교, 유교와 친하게 되었다. 최홍종 목사님이 “석가, 공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받은 것이다. 거기에는 나 혼자만 설교를 듣고 있지 않았다. 장로님은 물론이고 원근 각처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모여든 이들도 있었다. 결핵이 무식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다. 통계로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폐결핵에 더 걸린다. 그 환자들 중에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 높은 이들이 많았고, 신학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 최 목사님 설교 말씀에 반감을 지니거나 질문 하나 던진 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대보다 앞선 말을 하면 그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나 후에는 되기 마련이다. 최 목사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생각하고 역시 노래를 지었고, 이 같은 노래를 호남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천년대부터 한국 신학교에서 부처님 오시는 날을 축하드린다는 현수막을 조계사에 걸어주고, 성탄 때는 조계사에서 한국 신학교에 걸어주기 시작했고, 이 풍습이 번져 나가게 되었다.<sup>214</sup>

참고로 송등원과 무등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요양 생활을 했던 분 중에는 임락경 목사 이외에도 이기영 목사(목포 중앙교회 시무, 1999년 은퇴), 송기득 교수(전 목원대 교수, 1965년에 여성숙 의사와 한산촌을 세움) 등이 있는데, 임락경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무등원에 머물 때 다석(多夕) 류영모(柳永模, 1890~1981) 선생도 여러 번 방문하여 특강을 하였다고 한다.

무등원(無等園)에서의 회고담 중에는 함석헌 선생의 방문 이야기도 있다. 다음은 전남대 최영관 교수가 무등원에 계시던 최홍중 목사를 처음 뵈던 날의 회고담이다.

“내가 전남대학교 재학 중이던 1962년 봄 우리 씨클은 당시 서중학교 운동장에서 함석헌 선생님을 모시고 옥외 집회를 가질 계획을 수립하였다. 물론 집회는 불허되고 우리 대표 몇몇 학생은 당분간 학교를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그해 여름 우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옥내집회가 허가되었다. 우리는 집회 장소를 물색하던 중 구 YWCA 강당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고 함석헌 선생님을 모시기로 일정을 잡았다.

---

214 임락경. 『촌놈 임락경의 그 시절 그 노래 그 사연』. 도서출판 삼인. 2005. pp. 241~242.

.....우리는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하였고 몇몇 간부학생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였다...그날 밤은 당시 YWCA 조아라 총무님의 특별한 배려로 YWCA 관사에서 주무시게 되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집회가 있기 전 아침 일찍 나서서 오전 중에 무등산에 계시는 최홍종 목사님을 뵙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나의 경우에는 최 목사님에 대하여 별달리 아는 바가 없었다. 다만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목사님들로부터 무등산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성기능을 거세하시고 나환자들과 토굴에서 생활하시는 훌륭한 분이 계신다는 정도였다.

그날 함석헌 선생님을 모신 우리 일행은 아침 일찍 무등산을 등반하기 시작하였는데 선생님은 아침도 들지 않으신 체 그 흰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을 신고 우리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기 시작하였다. 그 백발노인이 어디에서 그러한 힘이 나오는지 놀랄 뿐이었다.....지금도 원효사에서 무등산 쪽으로 약 2km가량 더 올라가면 최 목사님이 거처하시든 담집과 당시 예배를 보시든 집의 흔적이 있을 것으로 안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최 목사님이 거처하시는 곳까지 올라갔을 때는 거의 점심때쯤이었다. 최 목사님이 거처하시던 곳은 조그마한 흙담 초가집이었다. 그때 말만 듣든 최 목사님을 처음 가까이에서 뵙게 된 것이다. 조그마한 체구에 허리가 약간 굽어 보이시는 머리는 까까머리인 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거기에는 목사님을 시중드시든 할머니 한 분도 계셨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씨클 멤버는 물론이고 아마 그 시대 많은 대학생에게 함석헌 선생님은 곧 우상이셨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에게는 너무 큰 분이셨고 군부정권에 담대히 비판과 정의를 외치셨든 그 시대의 선지자로 믿고 따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함석헌 선생님이 최 목사님을 뵈 때는 아주 작아 보였던 것이다. 함석헌 선생님은 최홍종 목사님을 뵙자마자 '형님 저 왔습니다. 절 받으세요' 하고 최 목사님 앞에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저 조그마한 노인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늘처럼 높이 받드는 함석헌 선생님이 저렇듯 큰 절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란 것이다.”<sup>215</sup>



(당시 무등산 원효사 계곡에서 결핵 환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오방 선생을 함석헌 선생이 전남대학생들과 찾아뵙고 촬영한 사진이다. 뒷줄 중앙의 수염을 기른 분이 함석헌 선생이고, 오른쪽 옆이 최영관 교수이다. 아래 줄 낮은 의자에 앉아계신 분이 오방 선생이다. 이영생, 정구선 씨 등도 보인다. 사진 제공: 최영관)



(원효사 계곡까지 산길을 걸어가야 했으므로 방문객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

215 최영관, 「내가 만나 본 五放 선생님」, 『화광동진의 삶』, 오방기념사업회, 2000, pp. 234-236.

최홍중 목사가 무등원에 머무를 때 그는 80을 넘긴 나이였다. 돌이켜 보면 그가 걸어온 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온 힘든 길이었다. 그 길이 끝나가고 있었다. 무등산 능선에 조용히 앉아 지나온 길들을 저 멀리 응시할 시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그가 성경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이제 그가 낮은 자들을 찾아 나서기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 되었다. 대신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먼 길을 왔다. 그리고, 원효사 계곡의 초막에서 방문객을 맞는 그의 모습은 그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낮은 자들의 옆에 언제나처럼 조용히 함께 있었다.

1961년부터 63년까지 최홍중 목사를 곁에서 지켜본 임락경 목사에 따르면 1963년경 최 목사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다. 자주 배탈을 핑계로 단식을 하셨는데, 주위 분들이 효험이 있다는 처방을 소개하면 그저 웃음으로 받아넘기기 일쑤였다. 임 목사가 너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니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한다.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내게는 맞지 않는 처방이다. 그들은 일을 많이 하고 거친 음식을 상식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나는 저들에 비하면 놀랐고 부드러운 밥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 약은 따로 있다. 그렇다고 내가 만일 ‘당신들과 나는 서로 먹고산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답하고 최 목사는 이 삼일을 물만 마시며 단식을 하고는 했는데, 신통하게도 다시 회복하더라는 것이다. 임 목사는 가끔 물만 마시고 단식하는 최 목사를 혈식군자(血食君子)로 판단했다.<sup>216</sup> 혈식군자는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임종 때 음식 대신 자기 피를 영양분으로 소비하여 임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하튼 평소 워낙 소식(小食)하는 데다 산속에서의 빈약한 식단은 최 목사의

---

216 임락경, <오방 최홍중 3>, 『임락경의 한국 신학 이야기』, 『복음과 상황』, 2013년 7월호 (272호)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

1964년에 들어서며 최홍중 목사는 마음속에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해를 마감하는 12월 30일 가족에게 보내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가 작성한 유언장은 다음과 같다.

유언 (눅 14:25-27, 마 12:46-50, 막 3:25)

인생은 공수래공수거 하는 것이 天理요 운명이다. 그러므로 우주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에서 生老, 病死, 行往, 坐臥, 幻夢中에 草露같이 春夢같이 시들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어찌하여 罪惡 중에서 멸망의 길로만 가는가?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道를 信仰함으로 현재를 영원한 미래로 接續하는 진리를 확실히 철저히 깨닫고, 나는 최후 시각을 대기 중이므로 如此히 유언을 쓰노라. 나의 믿는 바는 死日이 곧 生日이다. 현재를 영원한 미래로 귀결되는 참 생일이란 말이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다. 순식간에 忽然히 변화하는 오묘 신비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라야 참 신자가 될 수 있다.

(고전 15:50-55 고후 4:16-18, 5:6-10, 벧후 3:10-13, 목 21:1-4)

이상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면 어찌 기쁘지 말로 다 할 수 없으므로 최후 시간을 기다리면서 1964년 12월 30일부터 유언을 쓸 생각이 나서 畝書로 기록하는 뜻은 유자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주 예수를 진실로 믿으라는 것이다.

(마16:14-25, 막8:34-37)

교회를 다닌다고 혹 직분이 있다고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라 하는 명칭으로 신자라고 자칭할 수 없고, 예수와 연합한 자라야만(마7:22-23) 구원을 얻는 진리이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자녀들이 경제적 질곡에 노예가 되고 妻子女 등의 愛着에 중점을 두므로 이중삼중으로 傀儡的 포로가 되어 해방될 소망이 희소하니 어찌 可憐哀惜치 않으랴. 용감히 회개할지어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이기고 예수를 따를지어다.

1964년 12월 30일

유언장에서 그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을 밝히고, 자녀들이 세속적인 삶에 집착하지 말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부탁을 담았다. 특히 마지막 구절은 “십자가에 기대는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극복함으로 이기고, 예수를 그저 믿지만 말고 따라 행(行)하라”는 깊은 의미를 함축하여, 자녀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일생을 통해 여느 가장(家長)처럼 가족과 함께 살며 자상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그가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의 구원을 염원한다’는 말로 대신 표현한 것이다. 다만 영혼의 구원을 얻는 길은, 최홍중 자신이 걸어왔던 길,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길임을 일깨운다.

그가 유언장을 이렇게 미리 작성한 까닭은 가족을 향한 화해와 치유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물론 최홍중 목사와 자녀들 사이에 만남과 대화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무등원에서 최홍중의 생신(生辰) 때면 자녀들이 방문하곤 했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한 결핵 환자 요양소인 만큼 만남은 짧고 제약이 많았다. 1963년 임락경 목사가 목격한 만남이 그랬다. “최 목사님 생일 때 딸 둘과 외손주들이 왔다. 숫자가 많다 보니 목사님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먹고 자고 예배도 드리는 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 사는 노인더러 잠시만 나가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노인은 밖으로 나가며 ‘나더러 나가라고 했다’라며 슬퍼했다. 왜 안 그렇겠는가! 생일에 찾아오는 자녀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때문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상황은 더욱 큰 슬픔이었으리라. 그 모습을 목격한 나(임락경)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가족을 멀리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sup>217</sup>

---

217 임락경, <오방 최홍중 2> 『임락경의 한국 신학 이야기』, 『복음과 상황』, 2013년 6월호 (271호)

최흥종 목사는 반평생을 전염이 염려되는 한센인, 그리고 결핵 환자와 함께했으니 가족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가정에 드나들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목사의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참으로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흥종 목사의 때 이른 유언장은 불가피하게 접촉이 뜸했던 가족과의 마지막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남을 탓할 일이 아님이 명백했다. 삶의 방식이 남달랐던 만큼 사랑의 표현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모두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들의 존경이 만나 존중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운명의 시간이 왔다. 최흥종 목사가 예수님을 본받아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하신 것이다. 최흥종 목사의 40일 금식기도는 그의 삶과 운명, 그리고 사랑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마지막 몸짓이었다. 소식을 듣고 여러 분들이 나섰다. 무등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나누고 설득하고 간청을 했다. 최흥종 목사는 흔들림이 없었다. 가족과 광주 YMCA의 이영생 총무 등 많은 분이 무등원으로 올라가 금식 중단을 말씀드렸다.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가족은 최흥종 목사를 하는 수 없이 강제로 광주 시내 장남 최득은의 집으로 모시고 내려왔다. 곡기를 끊고 드문드문 영양제를 섞은 생수로만 지탱하던 최흥종 목사는 금식기도 100일 만에 아들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선생이 마지막 남긴 말은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였다. 숨을 거둔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곳에 거하는 일,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운명이었다. 그의 사랑, 행복, 그리고 보람이 온 누리를 채웠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날이 1966년 5월 14일이었다.

최흥종 목사의 장례식이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광주시가 주관하는 최초의 사회장(社會葬)으로 거행되었다.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공원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다. 오방(五放) 선생과 함께 하며 동고동락(同苦同樂)했던 나주의 음성나환자, 무등산의 결핵 환자들은 물론 선생과 인연을 맺었던 걸인이나 소외된 자들이 찾아와 슬픔을 나눴다. 광주공원에서 사회장(社會葬) 현장을 취재한 전남매일 신문사의 문순태 기자는 그때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내게는 아직도 오방 선생님의 장례식 장면이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5월 18일, 무등산에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고 햇살이 눈에 부신 늦봄의 광주공원. 햇병아리 기자인 나는 오방 선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광주시 사회장으로 엄수된 장례식장에는 광주 인근에서 몰려온 걸인들, 무등산에서 내려온 결핵 환자들, 나주 호혜원과 여수 애양원에서 온 음성나환자 등 수백 명이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비로소 광주시민들도 성자를 잃은 큰 슬픔에 잠겼다.”

오방 선생의 장례식은 그가 어느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는 ‘광주의 아버지’였다. 비록 오방 최흥종 선생이 지니셨던 것은 성경과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지만, 그는 모두에게 귀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노자(老子)의 말씀 ‘死而不亡者壽’처럼, 오방 선생을 오늘에도 기억한다.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50여 년 뒤, 2019년 그를 기억하기 위한 <오방 최흥종 기념관>이 그가 1904년 첫 예배를 드렸던 양림동에 세워졌다.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오방 선생께 두 번째로 보내주신 휘호의 마지막 글이 ‘死而不亡者壽’이다. 미래를 내다보신 것이다.



(두건을 쓴 호혜원 사람들이 저 멀리 보인다)



(인파 속에 나주의 호혜원에서 오신 분들이 자신들도 자녀라며 두건을 쓰고 있다.)



(사회장에서 의재 허백련의 조사)



(장지로 가는 행렬)

## 오방 선생의 삶이 주는 교훈

오방 최흥중 선생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으로 빈손이었으나 그의 실천적 활동이 심어놓은 씨앗들이 자라 오늘의 우리 삶에 여러 형태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한다. 오방 최흥중 선생이 관여한 수많은 기관과 활동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가 설립을 주도했거나 크게 이바지한 기관인 광주 YMCA, 중앙교회와 제일교회, 그리고 전남대병원 등은 지역사회의 각기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뿌리내렸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소유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의 세 기관이 각각 사회, 영혼, 육신에 대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눈에 띈다.

오방 최흥중 선생의 삶을 돌아보면 일생을 통해 그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이유로 그의 삶을 어느 한 범주에 국한 시킬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종교인이요, 사회사업가이자 교육자이며 시민운동의 선구자,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한센인들의 대부(代父)로 낮은 자들의 친구였으며 이역만리 시베리아의 동포를 찾아간 선교사였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궤적이 보여주는 다면성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헌신’이 아닐까 한다.

오방 최흥종 선생은 무엇보다도 목사의 직분을 갖는 종교인이다. 다만 그가 기독교인의 길,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된 계기가 남달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환자를 영접하는 모습에서 예수의 사랑을 보았다. 인종과 국경의 벽을 무너뜨리고 애통해하는 자의 고통을 녹여내는 역사를 목격한 것이다. 포사이드의 행동에서 목도(目睹)한 사랑의 힘은 인종과 국경과 고통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녹여내 최흥종의 몸과 마음과 정신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 최흥종에게 신앙은 포사이드의 실천을 통해 다가온 운명 같은 것이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포사이드의 설교나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종교인 최흥종의 삶에서 길잡이가 되었다. 그런 만큼 그는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수행의 종교나, 수도원의 청빈과 성결을 통한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대신 서민의 땀내가 나는 생활 속으로 들어와 고난을 함께하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택했다. 그것을 우리는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이라 부른다.

목회자 최흥종은 자신이 광주 최초의 조선인 목사로 북문안교회를 세웠음에도 자신의 교회에 안주하여 교회당을 크게 짓고 신도를 늘리며 율법의 권위에 기대어 믿음을 설교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민중과 함께하는 생활의 종교를 원했고 사색적인 기독교가 아닌 실천적

인 기독교를 추구했다. 그래서 그에게 교회는 언제나 그가 함께해야 할 낮은 자가 있는 곳이 되었다. 최홍종 목사는 그가 세운 복문밖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주장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어느 한 교회에 머무는 대신 그가 가야만 할 곳이나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목말라하는 자와 함께 생활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사회봉사보다는 순수복음주의의 전통이 강한 기성 교단은 복음과 사회를 한 몸처럼 여기는 최홍종이 추구한 사회복음주의 활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방 후 기성 교단은 그를 애써 외면하였지만, 최홍종 목사는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어찌 보면 고독한 목회자였다. 비록 기독교의 기성 교단이 그를 배척하였으나, 복음을 사회와 분리하지 않은 신행일치의 길은 최홍종 목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사업과 어린이와 여성 교육, 그리고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의 헌신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인도했다. 이러한 그의 헌신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시민사회운동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눔과 동행의 공동체 정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되돌아보면 그가 선택한 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힘든 길이었으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보람된 여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가 그 힘든 여정을 무려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간단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견디어 냈다는 점이다.

최홍종 목사는 그의 호를 다섯 가지의 속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뜻을 함축한 오방(五放)으로 정했다. 다섯 가지의 욕망이란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생명욕을 말한다. 만년에 선생은 오방의 뜻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가사에 방만(家族에 放慢), 사회에 방일(社會에 放逸), 경제에 방종(經濟에 放從), 정치에 방기(政治에 放棄), 종교에 방랑(宗教에 放浪)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오방의 관심(生)의 흐름에 따라 초기에는 자기 자신이 취해야 할 자세로서 오방의

뜻을 세웠다가 나중에는 그 뜻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생활의 원칙으로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五放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을 시도해 왔다.<sup>218</sup> 당연히 오방 선생이 남긴 말과 글에 대한 의미(意味)의 해석(解釋)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전제하에 오방이 함축하는 바를 여기서 간략히 천착하며 선생의 삶을 연관 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오방(五放)은 원래 다섯(五) 가지의 속된 욕망을 버린다(放)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오방 선생이 오방의 뜻을 다섯 개의 생활영역, 즉 가족, 사회, 경제, 정치, 종교의 영역에서 버려야 할 다섯 가지의 태도를 적시하셨다.

첫째, 가사(家事)에 방만(放漫)을 보면 게으름을 漫 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가족에 대하여는 게으름을 버린다고 풀이된다. 그런데 오방은 가정사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쉽게 수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비록 오방 선생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지는 않았으나, 더 근본적이고 더욱 중요한 '가정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실천을 통해 가족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정에서의 큰 가르침에는 게으른 적이 없었다. 그가 그의 유언장에서 밝혔듯이 그는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이기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실천을 통해 쉬지 않고 모범을 보였다.

둘째, 사회(社會)에 방일(放逸)은 도망갈 逸 자를 사용하였는데, 선생께서는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함께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나환자들이 그를 찾을 때 항상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으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위해 헌신했다. 사회가

---

218 대표적인 예가 김경재 교수의 논문이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성찰과 사명」, 광주 YMCA 제2기 <오방 학교> 발표 논문. 2012. 11. 9.

올바른 정신의 청년을 요구할 때 그는 YMCA를 설립해 방향을 제시했으며 교육에서 소외된 아동과 여성에게는 유치원과 야학을 통해 지원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를 떠돌던 동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는 선교사로 찾아가 함께 기도하며 희망을 전했다. 오방 선생은 목회자로는 드물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나섰고, 피해를 지는 농촌의 부흥을 위해 농업실습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셋째, 경제(經濟)에 방종(放從)은 경제를 상징하는 재물을 좇는 것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좇을 從의 뜻은 쉽게 해석이 된다. 오방 선생은 청빈한 삶을 살았다. 그는 나(癩)병원을 위해 그의 땅을 내놓았을 만큼 물욕이 없었다. 목사로 재직하는 동안의 봉급은 대부분 생활비가 아닌 걸인이나 환우들의 구호에 쓰였고, 많은 조직의 대표로 추대되어 무보수로 일했다. 옷이 없는 그에게 외투를 선물했더니 얼마 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린 이야기도 전한다. 그가 1950년대 말(末)경 잠시 머물렀던 볼로동의 집은 골목길 ㄱ트머리의 방 두 개짜리 작은 집이었다.<sup>219</sup> 오방정이나 볼로동 그의 처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발견한 오방 선생의 살림은 그저 책 몇 권, 벽에 박힌 못에 걸려 있는 옷 몇 벌 뿐이었다. 무욕(無慾), 무소유(無所有)의 삶을 살았던 그가 임종 때 남긴 유품도 그 전 그대로 성경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다.

---

219 오방 선생은 호혜원, 송등원, 무등원에서 광주로 오시면 머물 작은 집을 볼로동에 두었다. 그 집에 전담대에 다니던 외손자 김경명이 1961부터 2년 동안 살았는데, 방에는 장롱도 가구도 없어 옷은 벽에 못을 박아 걸었다 한다. 쌀독에는 항상 쌀이 떨어지지 않아 알고 보니 가까운 충장로 1가에 사는 큰머느리가 항상 채워놓고 갔다고 한다. 부엌에는 큰머느리와 방림동에 사는 막내 윤희가 가져오는 김치와 밀반찬이 좀 있어 오방 할아버님이 오시면 김경명이 밥상을 차렸는데 반찬은 세 가지 이내가 원칙이었다. 오방 선생은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간의 기도가 끝나면 물을 대야에 받아 방에서 冷(겨울엔 溫)水浴을 40분쯤 하시고 하루를 시작했다. 김경명에 따르면 어느 해 오방 선생이 광주에 오셔 잠시 머무실 때면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 몇 분이 찾아와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부지런하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넷째, 정치(政治)에 방기(放棄)는 포기나 버림의 뜻을 가진 棄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조(信條)나 원칙(原則)이므로, 지켜야 하는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원칙이 무엇이나를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비록 오방 선생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지만, 그는 ‘통합’의 원칙을 중시했다. 오방 선생의 다양한 활동 중 정치영역에 제일 가까운 활동은 독립운동이었다. 그 과정에서 선생은 민족의 분열을 막으려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 바로 만든 단체가 광주 YMCA와 조선 노동공제회 광주지부였다. 이는 좌(左)와 우(右)를 아우르는 두 개의 단체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7년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한 신간회의 지부장을 맡았고,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의 통합노선과 뜻을 같이했으며, 현실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의 광주 대표로 추대됨과 동시에 미군정의 고문으로도 추대되었다. 이렇게 오방 선생이 정치영역에서 일관되게 드러낸 행적은 민족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원칙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그는 추호도 개인의 영달이나 욕망을 개입시킨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종교(宗教)에 방랑(放浪)에 쓰인 물결 浪 자는 떠돌거나 물결치는 의미이므로 종교에서는 신조 없이 옮겨 다니거나 흔들리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오방 선생의 믿음에는 단연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며 선한 행동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예수님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생의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따랐다. 오방 선생은 또한 기독교 교단이 분파로 갈라져 옮겨 다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신사참배로 흔들리는 교단을

질책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길만 있었다.

오방 최흥종 선생이 살았던 1880년부터 1966년의 세월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시련의 기간이었다. 조선왕조의 몰락과 외세의 침탈, 식민통치, 그리고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민생은 가난과 문맹, 차별과 반목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오방 선생의 삶은 세상의 세속적 지위에 한 번도 발을 얹어본 적이 없이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한 인간이 그 힘들었던 시대의 늪을 헤치며 나아간 발자취이다. 선생은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감당해 나간 평범한 사람 중 한 분이었다. 오방 선생이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일구어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낮은 곳에서 위대함을 발견한다. 세상의 모든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위대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사회의 낮은 자들과 동행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로 일관했던 오방 선생은 임종에 즈음하여 그의 힘들었던 인생 여정이 ‘충만한 삶’이었으며, 그에 ‘감사’한다는 말을 남겼다. 오방 선생이 살았던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낮은 곳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이라는 자각을 얻는다. 평범한 사람의 삶에는 독선과 오만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위선적이지 않다. 오방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여정(旅程)을 마치며 그 굴곡진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디어 낸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한다.



(무등원에서 결핵 환우와. 오방 선생의 마지막 사진)

## 연보

- 1880 5월 2일 전라남도 광주 출생
- 1904 김윤수, 유진 벨, 오웬 등과 만나 기독교를 믿게 됨
- 1905 대한제국 광주 경무청 순검이 됨
- 1907 전남국채보상운동 참여 후 순검 사임  
벨 목사로부터 북문안교회 최초 세례를 받음
- 1908 광주 제증원(현 기독교병원)에서 원장의 조수로 환자 치료에 임함
- 1909 포사이드가 한센병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음
- 1912 북문안교회에서 최초로 김윤수와 함께 장로가 됨  
상속받은 봉선리 땅 1천 평을 나환자촌 건립을 위해 기증  
광주 봉선리 나병원과 나병원 교회 설립에 기여
- 1915 평양신학교 입학
- 1916 광주나병원봉사에 전념("병원(주: 광주나병원)을 주관하는 의사는 알 엠 윌슨씨요  
조선 형제로 이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식히이는 이는 최장로 흥종씨라." 『기독신보』  
1916.1.26)
- 1919 3·1 만세운동 참여로 투옥됨
- 1920 광주 YMCA 창설에 중심적 역할 담당  
노동공제회 광주지회 창립 및 지회장에 선출됨
- 1921 평양신학교 졸업  
광주 북문밖교회(현 중앙교회) 초대 담임목사로 취임
- 1922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견
- 1924 광주 YMCA 제3대 회장에 취임하고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 인준을 받음  
광주 금정교회(구 북문안교회, 현 광주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
- 1926 여수 애양원 설립을 위한 모금 활동 및 건설 현장 참여
- 1927 두 번째 시베리아 선교사 파견(1월-4월)  
신간회 광주지회장을 맡음(10월 29일 회장 취임)
- 1928 광주보통학교유지회 위원(『중외일보』 1928.6.6.)
- 1929 제주도 모슬포교회 목사로 파송됨
- 1930 전남노회에서 분리하여 제주노회 설립. 제주노회의 첫 노회장으로 선출

- 1931 여수 애양원 조선나환자공제회의 일을 돕기 위해 모슬포교회 사임
- 1932 한국 나환자구제연구회 창설
- 1933 나환자연합대회 후 나환자를 위한 6개 항을 총독부에 건의
  - 민중계몽 운동과 빈민 구제사업을 위한 계유구락부 결성
  - 광주 경양방죽 길인 수용시설 만들
  - 광주 YMCA에 협동총무 어비슨과 농업실습학교 병설
- 1935 호를 오방으로 정하고 사망통지서 발송
- 1937 한국교회 향해 '교역자의 반성과 평신도의 각성을 촉구함' 발표
- 1937-1945 증심사 계곡의 오방정에서 칩거 생활
- 1944 광주 의학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을 위해 상해 방문
- 1945 해방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회장으로 추대됨
  - 전남도지사 고문회의 의장으로 추대됨
- 1948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삼애학원' 설립
- 1950 무등산 신림마을 기도처 설립(현 신림교회 수련원)
- 1956 음성나환자 갱생을 위한 '호혜원' 설립(법인 등록 연도)
- 1958 폐결핵 환자 요양을 위한 '송등원' 설립
- 1962 무등원 설립
- 1965 12월 30일 유서작성
- 1966 5월 14일, 금식기도 100여 일 후 소천
  - 5월 18일, 광주시 사회장으로 장례식 거행



## 부 록

부록 1.

『청년』 1923년 8월호

過渡期의 現狀

최홍중

시대는 지내간다. 지내가고 또 온다. 그러나 오는 시대도 또 지내갈 것이다. 그리고 시대는 其現狀이 인류의 思想 如何에 따라 늘 변한다. 변하고 또 변한다. 변하고 또 변하여도 또 변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가 증명하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방면으로 연구할 지라도 꼭 그런 것이다. 神學上 성경 제도로 7세대로 분류한 것을 과학상 사회제도로 比準하여 보아도 始와 終이 일치 귀결할 것이다.

◀ 신학상 시대별 ◀ 과학상 시대별

시대별	그 당시 정치별
無罪時代	神政治
良心時代	族長政治
權威時代	尊長政治
許諾時代	長老政治
法律時代	士師政治
恩惠時代	揮合政治
永遠時代	基督政治

◀ 신학상 시대별 ◀ 과학상 시대별

시대별	그 당시 정치별
元時代	神政治
遊牧時代	族長政治
掠奪時代	尊長政治
賣買時代	君長政治
春秋時代	王國政治
文明時代	憲法政治
享樂時代	社會政治

과도기 그것이 시대변화 종막과 시막이 되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현상이다. 각종의 극을 전개하여 별별한 희극, 비극을 연출하는 상태인데 比컨대 蟲류(虫類)가 蝶化(蝶化)할 제에 蛹(蛹: 번데기)의 環境(環境)을 지내는 것 같이 糾糾密密(糾糾密密)한 幽暝(幽暝)의 幕(幕)도 있고 환절서

(換節序)에 한온(寒溫)의 계량이 不一하며 풍세(風勢)의 취향(吹向)이 불균(不均)함과 같이 윤리와 도덕을 탈선한 이상의 막도 있으며 변면모(麵母) 주정화(酒精化)할 때에 발배(醞醅)揮擲해야 독취(毒臭)를 발양(發揚)하는 것 같이 인도주의와 종교진리를 곡해하며 불평과 과격과 욕욕과 감정이 혼성(渾成) 혼잡(渾雜)의 맛도 있으며 금풍상설(金風霜雪)이 식물계를 엄습(掩襲)해야 초목을 단풍황조(丹楓黃凋)케 함과 같이 모든 제도를 깨트리는 파괴의 막도 있으며 적막하고 암흑한 음예(陰翳)의 밤이 차차 여명이 되고 떠 밝아가서 대원대륜(大圓大輪)의 큰 빗치 퍼져서 바로 천공에 선명하게 출현함과 갖치 광명의 막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각종의 극이 전세계에 현출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도기에 현상이라한다. 또 난 이것을 과학상 술어로 과도기라하고 신학상 표어로 징조라한다. 그런데 과거 시대 未마다 (징조) 과도기가 있었다. 위에 기록한 7세대를 간략히 말하리라.

무죄세대에서 양심세대로 건너가는 과도기(징조)에는 인생의 막대한 공포가 생(生)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축출(逐出)를 당하는 동시에 에덴동편에 거름들과 자전하는 화재 검의 시위 하에 죄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구심(恐懼心)은 其세계에 있어서는 과연 지독한 참상이라 할 것이다.

양심세대에서 권위세대로 건너가는 과도기(징조)에는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솔(家率)이외에는 다 沈淪하였다하니 其비참은 다 말할 수 없으나 어떻던지 과도기의 현상으로는 매우 참극이다. 권위세대로 건너가는 과도기에는 언어가 혼잡케된 것이다. 이것이 인류사상계에 분열을 생케하고 각 종족의 구별이며 따라서 黨類의 단결과 거주의 구역을 확장할 야심이 진보해야 침략의 주의가 개막된 것이다.

허락시대에서 법률시대로 건너가는 과도기(징조)에는 애굽(埃及)에 十災殃이 있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적 강국이라 군벌 재벌 제반 권력 주의자(Despoict)에 대표이라 其 받은바 재앙은 광재하다. 위생으로부터 경제에 이를 경제로부터 살상에 이르러 애굽의 장자를 멸망하고 필경은 군벌을 홍해에 매장하고 소약민족이 자유를 득하여 민족자경이 발생한 것이니 기시니조는 늘 계속하여 올 것이다. 따라서 노동문제의 발생한 것이다.

부르조아의 압박의 횡포가 극심하여 60만 명 노동자는 극단으로 부르지졌다. 그러나 금일 같이 사상발전이 되지 못한 시대로 더구나 쇠국 시대이였으므로 어떠한 여론이나 국제회(International convention)나 타방면에 대한 희망이 전무하였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불가사의에 신비에 말이 열리었다. 강박 하에 있는 약소민족의 섭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통솔자는 모세이었다.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주목할지이다. 빈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운동화주의 대서광이 퍼질였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 이것은 다만 아세아와 아블리가주에 관계이나 세계적으로 장래 과도기에도 가위 권력 의를 불근 바다에 매장할 것을 예표한 것이다.

법률시대에서 은혜시대로 건너가는 과도기에는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세계만민을 대속하여 희생되어 보혈을 흘린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 처럼이라”한 것은 사랑의 극단을 가르침이다. 其 세대에 심판은 홍수 이상의 재앙이 있을만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가 대속함으로 인하여 세계인류의 멸망은 기독교의 십자가에 귀착한 것이다. 과연 사상세대의 표어가 진리적이며 따라서 과학상으로 문명세대의 명사가 또한 합리적이다.

보통으로 누구나 20세기의 문명이라 말한다. 형이상학이나 형이하학이나 다시 말하면 유물이나 유심이나 제반 과학이 20세기동안 ?만성숙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막대한 은혜인 동시에 인류에 대한 최고 희망이다. 기독의 죽음을 과학상으로만 보아도 철저한 것이다.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철학의 진수를 그 십자가에서 찾을 것이다. 소쿠라테스의 죽음을 세인은 찬탄불기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선미한 것은 기독의 죽음이다. 소씨는 다만 자아가 영원한 진아를 성하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사형시에 안연자악하였지만은 기독은 자아이외의 세계인류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최후의 췌에는 다 성취하였다하고 절명하였다. 이것이 참 철학의 극치로 볼 수 있다.

예술적으로 보와도 진선진미의 최후최대막일 것이다. 십자가상에 7구어는 정적 최고조이다. 인생예술을 생명의 분기점까지 볼 것인데 과연 예수기독의 죽음은 선미의 절대적이다. 법률적으로도 철저한 것이다. 현금제도에 있어 서는 로마법률을 법률어천지로 인정하는 바라 당시에 로마총독 빌라도는 수차 심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는 일언반사도 변명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하였다. 그러나 기독은 어떠한 항변이나 공소등 구어가 박무하고 사형을 선고할지라도 묵묵무언하였다.

이것은 무지라 예수의 재난 피고가 없는 연고이다. 세인은 부지중 기독을 적으로 할지라도 기독은 무적인 고이다. 기독은 모든 반항자를 위하여 멸망시킬 원수를 위하여 대속하러온 뜻을 표명한 것이다. 당시 법률에 피사형자에게 고통을 감하기 위하여 산에 담액을 합하여 마시게 하는 것인데 예수만이 이것을 받지 않고 물리치셨다.

그런고로 법률적 관리 등도 탄복하고 그사 체에 대하여 뼈를 꺾지 않았고 빌라도는 그후로 불소한 번민(煩悶)을 느꼈다. 불공평하고 억울한 법률을 철저히 순복함에 대하여 그의 생각은 매우 異常의 境을 지내었을 것이다.

어느 방면으로 보든지 철저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세대에서 은혜세대로 건너가는 과도기에 난 예수기독이 십자가에 정사(釘死)함이 그 현상이다. 이상은 과도기를 대표할만한 것이다. 우리의 참으로 주목할 점은 우리의 목전에 당도한마 현대인류들이 과도기 과도기 하는 이 과도기에 현상을 신학상 말세징조와 대조해 목 필요가 있다.

은혜세대말기(문명세대 말)에 모든 제도가 파괴되며 인류계에 공전 절후한 충돌 전쟁, 살상, 재난이 있을 것을 성경에 명기한 것이다. “나라 이 일어나 나라를 치며 백성이 일어나 백성을 치며 흉년과 지동이 있겠다 하였으며 주의상 충돌이 심하여 국흥국 민여민의 충돌은 물론이요 기 지어 부자 형제 고부가 호상충돌하여 윤리파괴지경까지 갈 것을 말하였고 위선자가 다 기하여 전인류를 미혹하는 동시에 신자라도 유혹에 들어갈 것이요” 말세에 배도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였다. 그 뿐 아니라 부자의 멸망과 인류의 삼분지 일이 살륙(殺戮)이 있겠다 하였으며 무신론자가 다 기하여 유일의 眞神을 부인하고 거침없이 참람한 행동을 할 것을 만하였다. 인류의 애정이 냉각하여서 서로 구타하여 서로 배반하며 호상적시하리라 하였다. 시관하라 금일 현상이 어떠한가 벌써 어떠한 막이 열리었다. 그리차차 열릴 막이 또 있다.

## 부록 2

### 1922년 活文社書店 발행 『宗教界 名士 講演集』 강연문

#### 心の 종교

崔興琮

오늘의 문제는 마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직 종교라 하지 않고 마음의 종교라고 ‘마음’이라는 글자를 붙인 곳에 의미가 있는 고로 설교를 들은 후에 생각하면 과연 그것에 마음이라는 글자를 붙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도록 주의를 한 까닭입니다.

종교라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은 또한 마음(意)으로써 결단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보다도 의(意)보다도 더 나은 것은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지나(支那)에 옛날 순(舜)임금이라는 이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동생(象)에게 괴로움을 받게 되어 깊은 우물에 빠뜨린 후에 위에서 돌을 내려치며 어떤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게 하고 아래서 불을 질러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한 고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달아나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를 질러 울며 “하늘이여! 만일 마음이 있거든 나의 소원을 들으소서” 하였다 합니다. 순임금은 지혜로써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여도 견딜 수 없는 곳에서 도와달라고 울면서 구한 것입니다.

만일 종교학자가 순임금이 하늘에 애원한 것을 조사할 것 같으면 이것이 즉 마음의 종교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학자 중에 라바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종교철학개론』이란 책 안에 ‘종교는 마음의 망원(望願)’이라는 항목에 나는 무엇이 쓰여 있나 하고 그 속을 펼쳐 읽어보았습니다.

첫째로 나의 눈에 뜨인 한 구절은 ‘기도는 사실상 종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의 마음에 질문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순임금이 울며 애소(哀訴)하였다는 것은 즉 사실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곤란을 견디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실지라도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간구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또 사바체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하는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그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며 실로 죄를 범하여 더럽게 된 사람이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역사를 찾아볼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며 또한 신뢰한다는 것으로 완전케 된 예수의 기도입니다.

지혜도 없고 학문도 없는 야만인 혹은 까닭을 알지 못하는 농부의 집에 병인이 있습니다. 혹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발두령이나 논두령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즉 종교입니다. 지금 낭독하는 것과 같이 나사렛의 예수가 겐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만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 같으면 나의 소원을 들으소서. 아무쪼록 이 잔을 나에게 떠나게 하옵소서.’(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하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하였습니다. 까닭을 모르는 농부가 논이나 발두령에서 떠드는 그 떠드는 것과 종교의 깊은 뜻을 가르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겐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뜻에 합의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비신 그 기도는 층으로 말하면 천층만층이나 다를는지 모르겠지마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없지 못할 것은 진실로 정성이란 것입니다. 그 진실이 제일이라 하는 그곳에 깊은 취미가 있을 줄

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제일 제군(諸君)이 생각하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는 이미 일천구백 년의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모세의 시대로부터 계산하면 삼천 년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달과 해가 지나갈지라도 1922년 된 오늘의 세계의 지자(智者)나 학자나 정치가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구주(歐洲) 전쟁에 대하여는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지혜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오 개년 사이에 진보하였습니다. 학문도 비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삼천 년 전 사람의 마음이나 삼천 년 후 오늘 사람의 마음이나 그 마음에 아름다운 것, 그 마음의 귀한 것, 그 마음의 유화(柔和)함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자기 일개인에 대하여 제군이 어린아이 때나 청년 시대나 혹은 중년 시대나 노년에 들어간 후라도 그 마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여보면 노년에 들어간 때의 마음과 중년 시대의 마음과는 마음에 부착한 것이 다를 것입니다.

중년 시대의 마음은 유년 시대의 마음과는 그 마음에 부착된 곳이 다르겠지만 마음이란 그것에 각각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는 나는 변할 것이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에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려고 열이 나게 다하는 그 마음, 오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역시 열이 나게 다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하여는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1695년에 리차드 박스틸이라는 성자가 저술한 책 중에 ‘그리스도 신자가 조용히 기도하며 조용히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 제일 큰 유쾌와 기

쁨이 있는 것이라. 왜 그러냐하면 하나님께 직접으로 받을 수가 있는 까닭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신자가 조용히 기도하며 조용히 생각하는 곳에 훌륭한 것이 있나니 즉 제일 큰 유쾌와 기쁨은 그곳에서 나타남이라. 왜 그러냐하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요 직접으로 하나님께로 받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즉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여 제일 속히 깨닫게 될 것 입니까? 혹은 군신의 관계, 아무래도 군신의 관계라 하는 것으로는 종교를 알 수가 없으며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 볼지라도 종교의 깊은 뜻을 알려 하면 '부자의 관계'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변변이 여기저기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종교는 단(短)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종교> 결코 철학자와 같이 하나님이 절대라든지 본체라든지 대활력이라...그런 것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 하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마태복음 6장 9절) 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을 볼지라도 예수의 기도와 사람의 기도에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와 함께 한 번도 기도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돌을 던져 떨어질 만큼 나가서 제자를 떠나 호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의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our father라 하지 않으시고 my father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그러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열두 제자

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곧 눈에 띄었습니다. 또 그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이 알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는 곧 주의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 기도를 한다 하면 형식으로 될 것입니다. 참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알지 못하는 동지들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는 언제든지 ‘나의 아버지(my father)’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천 년간 종교가(宗敎家)가 나왔으며 많은 그리스도 신자가 생겼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루터와 같은, 낙스와 같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낫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예수만큼 안 사람은 아직까지 나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본 즉 서로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만 수동(秀東)의 하나님 아버지와 인애의 하나님 아버지와 종교의 깊은 뜻을 연구한 ○○라 하는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높이, 넓이가 다를 줄 압니다.

우리가 오륙 형제가 있으면 형이 아버지라 하는 것과 겨우 일어서 다니는 어린 동생이 아버지라 하는 것과는 아버지는 얼마든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라 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라 하며 그 아버지에게 신뢰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다르며 아버지라는 소리는 두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요 뱃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인 고로 그곳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마음 대로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마태복음 26장 39

절)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부리는 것같이 하지 말고 주께 부리는 것과 같이 기쁨으로 행하라(에베소서 6장 7절) 하였습니다. 주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라. 지혜는 부족하며 학문도 부족하고 방법은 아직 선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열이 나게 마음으로 행하려 하는 그곳에 맛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하는 비유이지마는 아메리카에서 한 사람이 짐을 말에 실으려 하는데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말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섯 살쯤 된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아저씨! 잘 실으십시오. 내가 같이 들어 드릴 터이니’ 하는 말에 그 사람은 큰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못 싣던 그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말에게 실었다 합니다. 말에 싣고 난 후에는 그 아이를 향하여 허리를 굽혀 고마운 인사를 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 섰던 사람이 웃으며 ‘저 작은 아이가 들어준다 하였다고 무슨 도움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고맙다. 잘 도와주었다. 그런 어리석은 인사가 어디 있느냐?’ 하였다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 말하면 참말 어리석은 천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마음으로 말하면 ‘아저씨 도와드리리다. 자! 내가 들어 드리겠으니 아저씨 드십시오.’ 하고 한 말에 큰 힘이 그 사람에게 더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려 할 때에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준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점점 설교할 시간은 바둑 다가옵니다. 걱정났다 하고 이마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까닭도 모르는 한 노파가 와서 ‘목사님 설교를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오. 오늘은 아직껏 준비를 못하여 곤란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준비 되도록 기도를 하여 올리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한다 하면 그것은 마

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어리석은 얼굴로 듣기는 하고 있지만 그곳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며 듣고 있다 하는 때에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설교자 위에 더할 것입니다.

그러하고 보면 종교라 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며, 친척의 어려움도 있으며, 처음에는 자기의 힘은 믿지 못한다 하는 경우에 가슴속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써 얻을 것입니다. 또 단체로서는 국가의 일이 있습니다. 벌써 원수가 어느 곳에 상륙하였다.

이번은 이 나라는 조금만 하면 원수의 손에 빠지겠다. 그러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자! 모여서 천지의 상재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벌써 그곳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힘이 있으며 그 부르짖는 기원에 힘이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주사하여 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니든지 관계할 것이 없이 어떤 나라에든지 국가가 위급한 경우에 기도를 하여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국민이 힘을 얻어 드디어 원수를 물러가게 하였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전세기 반쯤 되어서 런던에 조지 윌리엄이란 한 상인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이 런던 성(城)의 청년들을 보매 너무 자기의 마음대로만 하여 조금도 좋은 곳으로 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 청년을 교정하여야 하겠다. 이 청년을 개조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세계를 풍미하는 청년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같은 때에 부쓰라는 사람이 있어서 『암흑한 영국』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아무리 런던을 볼지라도, 영국을 볼지라도 사람이 부정한 행위, 부도덕 혹은 종교를 멀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입

니까? 특별히 하등사회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편 혹독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쓰 부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로부터 구세군이 생긴 것입니다. 청년회나 구세군을 지식적으로 보면 모트나 부쓰로부터 시작하여 그 사람들이 가진 신경(信經)들은 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시대에는 적합지 않다고 크게 비평할 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지마는 청년회가 발달하여 구세군이 발달하여 나아가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는 부쓰의 마음, 모트의 마음, 그 기도하는 참 마음인 까닭입니다.

제군! 그리스도교도 지난 대전쟁까지는 의식(儀式)이 많았으며 신경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대전쟁이 지나고 본즉 전쟁에는 신경도 쓸데가 없으며 의식도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신교의 청년이 탄환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천주교의 승려가 가까이 간즉 ‘승려여! 기도하여 주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신자가 넘어졌을 때 신교는 구교를 원수같이 봅니다. 그 원수된 신교의 목사가 가면 ‘기도하여 주시오. 나의 가족에게 이같이 유언을 전하여 주시오.’ 하였다 합니다. 벌써 의식도 없어지고 신경도 없어지고 종파도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마음이 상합하는 그곳에 산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어떻다. 감리교가 어떻다. 무슨 교회가 어떻다 하는 그것은 한가한 사람이 말할 바울시다. 지금이란 위급존망한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관계를 하지 말고 예수의 기도하신 것과 같이 나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이다. 그러한 마음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진리, 그것이 세계 인류를 고쳐 만들 종교입니다.

이같이 생각을 한즉 아무리 세상이 문명한 세상이 되며 과학만능의

시대가 될지라도 마음의 종교란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에 더욱이 많은 지혜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때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마음의 오비(奧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깊은 뜻은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본뜻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필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고로 그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기도로써 간절히 부탁하는 바올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에베소서 6:6)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 39)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 42)

[1922년 잡지에 실린 원문은 아래의 보기와 같다. 참고하고 비교하도록 一部를 함께 신는다.]

몸은 하늘을 쳐다보며 소래(소리-연구자 주)를 질너 울며 「하늘이여! 만일 믿음의 엇더든 나의 所願을 드르소서」 하였다 합니다. 舜님군은 智慧로써 祈禱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믿음으로써 이곳 天地의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하여도 견딜 수 없는 곳에서 도아달나고 울면서 求한 것입니다. 萬一 宗教學者가 舜님군이 하늘에 哀願한 것을 調査할 것 같으면 이것이 卽 믿음의 宗教라고 할 것입니다.

祈禱의 歷史를 차자볼 袞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求하는 소래로 始作하여 하나님의 뜻을 服從하며 또한 信賴한다는 것으로 完全하게 된 예수의 祈禱입니다. (중략) 只今 朗讀한 것과 又치 『나사렛』의 예수가 『갯세마네』 東山 汲흔 곳에 드러가서 『萬一 하나님의 뜻에 合意할 것 又하면 나의 所願을 드르소서 아뭏도록 이 蠶을 나의게서 紗나게 蠶옵소서』 하고 세 番이나 祈禱를 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時代로부터 오늘날까지는 임의 一千九百年의 긴 歲月이 지나갔습니다. 「모세」의 時代로부터 計算하면 三千年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一千九百二十二年 된 오늘날에 世界の 智者나 學者나 政治家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恒常 祈禱를 行했습니다. 特別히 지는 歐洲戰爭(1914-1918, 제1차 세계대전-연구자 주)에 對하여는 熱心으로 祈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맛음이란 그것에 各各 드러가서 차져보면 그 아름다움에 對하여는 나는 變할 것이 업슬 줄노 生覺을 합니다

一千六百四十九년에 「리찰드 박스틸」이란 聖者が 著述한 冊 中에 『그리스도 信者가 조용히 祈禱하며 조용히 生覺할 袞에 그곳에서 第一 淸快와 갯쁨이 있는 것이라. 왜 그러나 行면 하나님의 直接으로 빛을 수가 있는 袞들이라. (중략) 사람의게 빛는 것이 아니오 直接으로 하나님의 袞로 빛는 袞들이라』고 行했습니다.

(중략) 或은 君臣의 關係 아모리도 君臣의 關係라 行는 것으로는 宗教를 알 수가 업스며 主人과 종의 關係 이것도 알 수가 업습니다. 아모리 生覺을 行야 볼지라도 宗教의 汲흔 뜻을 알나 行면 父子의 關係라 行는 것이 아니면 알기 어려울 것(어려울 것-연구자 주)입니다

예수는 사람들과 又치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고 祈禱를 行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弟子들에게도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의 汲흔 뜻이 알 수는 업는 것을 예수 袞서는 注意를 行하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연구자 주) 사름들과 生覺을 긋치 ㅎ든지 ㅁ음을 긋치 ㅎ야 祈禱를 ㅎ  
수가 잇겠슴닛가? 或 祈禱를 ㅎ다 ㅎ면 形式으로 될 것임니다

英語로 말ㅎ면 아와 파더라 ㅎ지 안으시고 마이 파더(나의 아버지) 나는 그것을  
生覺을 ㅎ에 果然 그러ㅎ 것으로 알엇슴니다. (중략) 참 祈禱라 ㅎ 것 긋호면 알지  
못ㅎ는(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연구자 주) 同志들과는 祈禱를 ㅎ지 안을  
즐노 암니다

前世紀 半쯤 되야서 『倫敦』(런던-연구자 주)에 「쫘지 웰니암」이란 ㅎ 商人이 잇  
섯는디 이 「윌니암」이 『倫敦』城의 青年들을 보미 너머 自己의 ㅁ음디로만 ㅎ야  
조곰도 도흔 곳으로 나가는 것은 업섯슴니다. 더는 엇더케든지 (중략) 青年을  
改造ㅎ여야 되겟다는 生覺을 ㅎ ㅎ에 무엇을 ㅎ엿슴닛가? 祈禱를 ㅎ엿슴니다.  
이 祈禱가 얼마 안되야서 이 世界를 風靡ㅎ는 青年會를 組織ㅎ게 되엿슴니다.  
(중략) 쫘는 긋흔 ㅎ에 「부쓰」라는 사름이 잇섯서 『暗黑ㅎ英國』이라는 冊을 著  
述ㅎ엿슴니다. (중략) 「부쓰」夫婦는 祈禱를 ㅎ엿슴니다. 참 ㅁ음으로 祈禱를  
ㅎ엿슴니다. 그 祈禱로브터 救世軍이 生긴 것임니다

新敎의 青年이 彈丸속에서 죽게 되엿을 ㅎ에 天主教의 僧侶가 갖가히 간則 『僧  
侶여! 祈禱ㅎ야주시오 나를 爲ㅎ야 祈禱ㅎ야 주시오』 (중략) 그 怨讐된 新敎의  
牧師가 가면 『祈禱ㅎ야주시오. 나(가톨릭 병사-연구자 주)의 家族의게 이긋흔  
遺言을 傳ㅎ야주시오.』 하엿다 ㅎ니다. 별서 儀式도 업서지고 信經도 업서지고  
宗派도 업서젧슴니다. 『하느님의 뜻디로 일우워지이다. 그러ㅎ ㅁ음을 주소  
서』 ㅎ고 祈禱ㅎ는 것이 ㅁ음의 眞理 그것이 산 眞理 그것이 世界 人類를 긋치  
만들 宗教임니다. 이긋치 生覺을 ㅎ則 아모리 世上이 文明ㅎ 世上이 되며 科學  
萬能의 時代가 될지라도 ㅁ음의 宗教란 것은 바릴 수가 업슴니다.

(중략) ㅁ음의 宗教는 祈禱임니다. 祈禱를 ㅎ지 안코는 ㅁ음의 奧秘에 滿足지  
못ㅎ니다

### 부록 3.

#### 朝鮮癲病根絶策研究會趣旨

1932년 1월 26일 자의 『동아일보』에는 [나병근절회 장정(章程)의 취지/수만 매를 인쇄분포]라는 표제로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의 취지를 게재하고 있다.

人類愛의 至極한 衝動에서와 및 민족보건의 간절한 요구에서 우리들은 朝鮮癲病患者의 구제와 그 예방사업을 확립하기를 熱烈히 주장한다. 의료와 방역이 민중보건의 중요한 一半部가 되는 것은 더 말할바가 아니요 나병과 갖흔 것은 실로 만인을 놀납게하는 절망적인 病魔이라 전세계의 문명국이 이를 근절한 때문에 모다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또 하고 잇는 바어니와 조선에 잇어서도 지극히 관심되지 안을수업는 중요문제이다.

나병은 불치의 병이요 유전의 병이라고한다. 이 병에 한번 걸니는 자는 인생의 광명을 마지막 보고 가족전체까지도 손도마진자로 인류에 싸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그 비참함은 天刑病의 이름에 걸맞는다. 그러나 此에 광명이 잇스니 卽근대과학이 증명하는바에 나병은 유전병이 아니요 전염으로되는 것이다. 유전이 아니므로 나병자의 혈통적 禍厄(禍厄)은 免하는 것이요 전염인고로 그의 사회적 격리로 병균의 만연을 방지하고 민중보건의 안전을 圖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나병의 절대근절이 필요한 이만큼 나병의 절대격리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게된 것이다. 나병의 절대근절이 필요한 이만큼 나병의 절대 격리하는 것은 1日이라도 遲緩할수업는 시급한 문제이다. 그런대 격리하는데는 그 안전과 위안과 및 의료가 업슬수업스니 此는 예방과 구제가 들어서로 떠러질수업는 이유이다.

조선에 나병환자는 지금 1만 6천명을 꺾한다. 30년전 지소수(至小數)에 비하여 30년후 금일(今日)에 여사(如斯)히 증가된 것이 이에 놀라운 사(事)이든 삼남(三南) 각지로부터 북선(北鮮)에까지 퍼져가는 병마의 발호(跋扈)는 실로 전 민족의 생명을 녹여 내려하고 구제되지 아니한 나병자들의 그지없는 방랑은 사회풍토와 민중보건상 더 할 수 없는 위협(威嚇)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구미의 선진국에 보건대 구주에서는 13세기때에 임의 2만이 넘는 나병원이 있어 畢竟此를 근절하였고 미국에서는 東方에서 전염된 나병이 그 완전한 격리島の 시설로 其外에는 1인의 남긴환자도 업서 불연간 근절을 보게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외국선교회와 및 위정당국의 시설까지의 수용과 구제가 2천5백인에 불만(不滿)하니 그 의료와 예방의 부족함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격리의 취지는 타(他)에 재(在)치 아니하니 교통과 접촉과 매개로써 병균의 번식을 근절하자 함이 유일의 목적이오 이 때에는 기후와 물산(物産)이 적당한 격리도(隔離島)의 선택과 농예와 공작으로 그 생활을 자급(自給)하고 그 위안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나병자 구제의 사업은 차등(此等)을 실현함으로써 그 취지를 관철하는 것이니 이 때에는 내외 각계의 온갖 지지와 조력(助力)을 요(要)할 바이오. 또는 유식자와 독지가의 공사(公私) 각계의 합작(合作)을 기하는 바이다. 인도(人道)의 대의로는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천하의 혈성(血誠)있는 사녀(士女)들은 어찌 성(誠)과 역(力)을 모으지 아니하라! 민중보건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자!

##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위원氏名 (無順)

윤치호, 안재홍, 송진우, 김성수, 김병노, 신흥우, 이인, 최규동, 오금(兢)선, 현동완, 명제세, 이종린, 한용운, 백관수, 김필수, 홍병선(璇), 원익상, 조만식, 김택원, 양봉근, 박승직, 현준호, 윤현태, 최홍중, 이기태, 김응규, 이순기, 유각(珏)경, 정인과(果), 신공숙, 서정희, 국기열, 유광열, 이선근, 김을한, 박연서, 박용의, 양재창(昶).

위원장: 윤치호.

서무부: 최홍중. 현동완. 이기태.

조사연구부: 국기열. 유광열. 이선근. 김을한.

구제부: 원익상. 명제세. 서정희.

## 부록 4.

### 오방 선생의 漢詩 道歌

〈道歌〉

〈도의 노래〉

蒼蒼之天,  
濔濔之極.  
日月星辰,  
无非行道.  
諸般庶物,  
出自是道.  
道是人格,  
人格是道.  
道是救主,  
救主是道.  
再臨審判,  
歡迎之道.

푸르고 푸른 하늘이여,  
넓고도 넓은 극치로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  
도를 행하지 않음 없네.  
가지가지 온갖 것들,  
이 도에서 나온다네.  
도야말로 인격이니,  
인격이 바로 도일세.  
도야말로 구주시니,  
구주가 바로 도일세.  
재림하여 심판할 적에,  
기뻐 맞이할 도이로세.

何東何西,  
無南無北.  
春夏秋冬,  
代謝自道.  
道是上帝,  
上帝是道.  
道是耶穌,  
耶穌是道.  
仰瞻信賴,  
十字架道.  
宇宙改造,  
安然之道.

무슨 동과 서인가,  
남도 북도 없구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갈마들이 절로 도일세.  
도야말로 하느님이니,  
하느님이 바로 도일세.  
도야말로 예수이니,  
예수가 바로 도일세.  
우러러 믿을 것은,  
십자가의 도일세.  
우주가 바뀔 적에,  
평안할 도이라네.

垓圯無際,	넓고 넓어 가없나니,
都是空色.	모두 공과 색이로다.
是誰主宰,	이는 누구 주재이런가,
其名曰道.	그 이름 도라 한다네.
道是生命,	도야말로 생명이니,
生命是道.	생명이 바로 도일세.
道是聖神,	도야말로 성신이니,
聖神是道.	성신이 바로 도일세.
赦免罪過,	죄를 사면해 주니,
得救之道.	구원받는 도일세.
新天新地,	새로운 천지 속에,
逍遙之道.	유유자적할 도일세.

紛芸事物,	많고 많은 사물들,
還皈寥寂.	적막으로 귀의하도다.
無中生有,	무에 유가 생겨나니,
太初有道.	태초에 도가 있었네.
道是真光,	도야말로 참 빛이니,
真光是道.	참 빛이 바로 도일세.
道是眞理,	도야말로 진리이니,
眞理是道.	진리가 바로 도일세.
時空無盡,	시간과 공간 무진하니,
永生之道.	영원히 사는 도일세.
萬能萬權,	만능하고 전능하니,
耶蘇之道.	예수님의 도이로세.

\* 4장으로 이루어지고, 매 장은 12구로, 제2구 입성 압운, 나머지는 ‘道’ 자를 반복하여 중운.  
 \* 매 장은 다시 두 단락, 앞 6구는 도가적 도를, 뒤 6구는 기독교의 도를 읊음.

道歌

蒼天之天

淵之極

日月星辰

无非行道

諸般庶物

出自是道

道是人格

人格是道

道是救主

救主是道

再臨審判

歡迎之道

何東何西

無南無北

春夏秋冬

代謝自道

道是上帝

上帝是道

人是耶穌

耶穌是道

仰瞻信賴

十字架道

宇宙改造

安然之道

坤圮無際

都是空色

是誰主宰

其名曰道

道是生命

生命是道

道是聖神

聖神是道

赦免罪過

得救之道

新天新地

逍遙之道

紛芸事物

還故靈靈

無中生有

太初有道

道是真光

真光是道

道是真理

真理是道

時空無盡

永生之道

萬能萬權

耶穌之道

부록 5.

오방 선생이 新韻雅頌聖經歌 ‘新’ 자 운으로 성경을 찬송한 노래.

1. 混沌晦冥肇判新 遂分光暗第一新  
혼돈 어둠 처음 나눔 새롭다. 빛과 어둠 나눈 것이 제1신.
2. 水隔上下空中新 穹蒼始視第二新  
물을 상하로 이격시켜 공중이 새롭다. 하늘이 비로소 보인 것이 제2신.
3. 海陸顯露植物新 胞核結實第三新  
바다와 육지 드러나 식물이 새롭다. 포와 핵 결실이 제3신.
4. 節序年期分定新 三光照輝第四新  
절서와 시간 나눠 배정함이 새롭다. 해 달 별 비춤이 제4신.
5. 鱗虫羽族具畢新 飛空潛海第五新  
비늘있는 곤충 날개 달린 짐승 다 갖춰놓음이 새롭다. 하늘 날고 바다에 잠김이 제5신.
6. 獸畜動物類類新 帝像造人第六新  
짐승 가축 동물 종류대로 새롭다. 상제의 형상으로 사람 만듦이 제6신.
7. 生育繁盛昌熾新 治理統轄人格新  
생육과 번성이 창성함이 새롭다. 다스리고 총괄하는 인격이 새롭다.
8. 創業竣工朝夕新 錫嘏安息感恩新  
창업을 완성하여 조석이 새롭다. 복을 내리고 안식하여 은혜에 감사함이 새롭다.
9. 亞當所定戶籍新 萬物自此名稱新  
아담(adam)이 정한 호적이 새롭다. 만물이 이로부터 명칭이 새롭다.
10. 埃田東山果園新 江河四流灌溉新  
애전(에덴)동산 과수원이 새롭다. 강하가 사방으로 흘러 관개가 새롭다.

11. 始祖被誘犯過新 違命誠律善惡新  
시조가 유혹을 당해 과오를 범함이 새롭다. 위명과 계율 선악이 새롭다.
12. 逐出國外劬勞新 汗流浹面艱苦新  
국외로 축출하여 수고로움이 새롭다. 땀을 흘려 얼굴을 적시며 간난  
신고함이 새롭다.
13. 墮落人間遠離新 罪惡世界轉展新  
타락한 인간이 멀리 떨어짐이 새롭다. 죄악 세계가 반복됨이 새롭다.
14. 暴虐貫盈洪水新 挪亞方舟救援新  
포학이 충만하여 홍수가 새롭다. 노아의 방주를 구원함이 새롭다.
15. 亞伯拉罕蒙招新 受割子孫立約新  
아백납한(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음이 새롭다. 割을 받은 자손에 약속을  
함이 새롭다.
16. 忠義麻西維命新 領導選民律法新  
충의마서 명이 새롭다. 선민을 영도하는 율법이 새롭다.
17. 抹膏大關王政新 猶大支派根基新  
말고 대벽 왕정이 새롭다. 유대 지파의 근기가 새롭다.
18. 先知聖人豫言新 將來基督約束新  
선지자 성인의 예언이 새롭다. 장래 기독교의 약속이 새롭다.
19. 施洗約翰聲呼新 曠野宣道悔改新  
세례 베푼 요한 소리가 새롭다. 광야에서 도를 선포해 회개함이 새롭다.
20. 聖母聖孕聖誕新 裹衣襁褓馬槽新  
성모가 성스럽게 잉태하여 성탄이 새롭다. 옷으로 싸고 강보에 있는  
말구유가 새롭다.
21. 東方博士見星新 黃金香藥敬拜新  
동방박사가 별을 봄이 새롭다. 황금과 향약으로 경배함이 새롭다.

22. 天君天使讚賀新 守羊牧者見奇新  
천군 천사가 찬송 축하함이 새롭다. 양을 지키는 목자가 기이함을  
봄이 새롭다.
23. 埽榮上帝平和新 天地喜歡福音新  
소의 영광 상제의 평화가 새롭다. 천지가 기뻐하며 복음이 새롭다.
24. 發展儀式舊約新 贖罪赦靈新約新  
의식을 발전한 구약이 새롭다. 속죄와 영령을 사한 신약이 새롭다.
25. 依賴赦主信仰新 被助聖靈行爲新  
사면한 주인에 의뢰하여 신앙이 새롭다. 성령의 도움을 입은 행위가  
새롭다.
26. 脫皮舊習觀念新 滌除塵累思想新  
구습을 탈피한 관념이 새롭다. 세속 허물을 씻어 제거한 사상이  
새롭다.
27. 重生生命所?新 神國往來理性新  
거듭 사는 생명이 ~함이 새롭다. 신국이 왕래하여 이성이 새롭다.
28. 雷風電火開闢新 新天新地宇宙新  
뇌풍 전화로 개벽함이 새롭다. 새 하늘 새 땅 우주가 새롭다.

新韻雅頌聖經歌

一 混沌晦冥肇判新  
 遂分光暗芽一新  
 水隔上下空中新  
 霄蒼始現芽二新  
 海陸頭露植物新  
 胞核結實芽三新  
 籥序年期分定新  
 三光照輝芽四新  
 五 鱗虫羽族具畢新  
 飛空潛海芽五新  
 六 獸畜動物類二新  
 帝像造人芽六新  
 七 生者繁盛昌熾新  
 治理統輅人格新  
 八 創業竣工朝夕新  
 錫坡安息感恩新

九 亞當所定戶籍新  
 萬物自此名稱新  
 埃田東山果園新  
 江河四流灌溉新  
 始祖被誘犯過新  
 違命誠律善惡新  
 逐出園外劬勞新  
 汗流浹背艱苦新  
 墮落人間遠離新  
 罪惡世界轉展新  
 暴虐貫盈洪水新  
 挪亞方舟救援新  
 亞伯拉罕蒙招新  
 愛割子孫立約新  
 忠義麻西維命新  
 領遜遜民律法新  
 抹膏大關王政新  
 猶大支派根基新  
 先知聖人預言新  
 將來基督的束新

九 施洗的翰聲呼新  
 曠野宣道悔改新  
 聖母聖孀聖誕新  
 聖衣襪襪馬槽新  
 東方博士見星新  
 黃金香藥敬拜新  
 天軍天使讚賀新  
 降卑收者見奇新  
 降榮上帝平和新  
 天地喜歡福音新  
 祭典儀仗舊約新  
 贖罪赦靈新的新  
 依賴救主信仰新  
 被助聖靈行當新  
 脫皮舊習觀念新  
 滌除塵累思想新  
 重生生命盼望新  
 神國徃來理性和新  
 雷風雷火開闢新  
 新天新地宇宙新

부록 6.

유영모가 보내 준 삼애학원의 교가 가사

〈三愛歌〉

1. 남이 하이시니 하늘에서 해

해에서 땅 땅에서 흙

흙에서 풀 풀에서 밥이 이바지되다

후렴: 사랑과 땀을 먼저 흙으로 돌리오니

밭에서 밭으로 이웃에 다

고루 고루 고루리라

얼이 얼얼이 하늘로

하늘로만 돌아들이

2. 하늘에 받친 땅 땅에 받친 밭

밭에 받친 집에 사는 사람이란

그대로 다시 받칠 길이다

(유영모 선생의 노랫말에는 한문 어휘가 없다. ‘하이시다’라는 말은 유영모가 만들어낸 어휘인데 영어의 divine imperative의 의미가 있다.)

부록 7.

오방이 신생유치원장에게 보낸 자작 동시

(一) 반각 ~ 감작이는 두 눈 동자는  
 별도 갖고 보석처럼 빛나는 고나  
 행도 갖은 그 남 천 리 파고 사리 주며  
 천진난만 낙원인 듯 시름없도다  
 (二) 엄마 앞바도리 ~ 땀 굶은 양  
 어머니의 근심 보드 노여바리고  
 띠기 ~ 각 장 재용 부디 노대  
 아버지 주림 살도 폐여지 노나  
 (三) 어머니의 품에 안긴 보우를 자리는  
 천병만마 뒤끝 어도 두렵잖하며  
 아바지의 사랑의 보자 잡고 가면  
 천하만사 태평하고 안전하도다  
 (四) 까치빛 듯 외이 붓도 날 노라 서  
 자우로 온 세상에서 활 동 하 여라  
 평화 온 원에 단 동산 회복 하 여라  
 어 화 우 리 동 무 들 과 태고 춤 취 라  
 (五) 귀를 흐르던 년진에 내가 桂花城이든 다리고  
 中央幼稚園에 노대 몇 편을 지었만 내  
 다 잊어 버리고 싶을 포듯 한 기억이나 서 이 노래를  
 리여 보았는대 어머니와 이 슬픔의 날의  
 슬픔 당한 듯 하여 보대니 수 정 팔 대로 수 정 가 여서  
 使用하기로 念 敬 放 夫 眞 毫

新  
 生  
 幼  
 稚  
 園  
 長  
 貴  
 下  
  
 魚  
 羊  
 犬  
 王  
  
 鮮  
 狂  
 放  
 夫  
 眞  
 毫

## 부록 8.

### 포사이드 선교사에 대한 회고

#### 성 「포-싸잇」과 조선나병자

최흥종

#### 나병자의 현황

새 나라를 건설해 가는 데에 긴급한 대책이 요망되는 일이 하나들이 아니지만 우리 나라 나환자의 현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한에는 약 사만이천 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그중 약 일만 명만이 겨우 아래의 요양소에 수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와 촌락에 버려져 있습니다.

여수 소록도 갱생원(경영)	5,500명
순천 애양원(기독교경영)	1,100명
부산 상애원(동)	1,000명
대구 애락원(동)	1,000명

현재 전남에만 떠도는 나환자가 650명, 재가환자 약 1,000명이나 되어 그중 약 200명을 송정리 다리밑에 밀집하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이들의 수용구제에 노력하여 민간의 협력을 얻어 올 봄내로 전북, 경기, 경북의 簡易, 대량수용소를 개원코져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기뻐하는 바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문화정도를 알려면 후생시설의 완비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손쉬운 타진법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관과

민이 이만한 성의를 보여주게 된 것은 문명대환을 위하여 경하하여 마지 않는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이러한 관심의 배후에는 오랜 시일을 통한 많은 성자들의 그리스도적 봉사와 희생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 나환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성 『포-싸잇』의 행적이야말로 감격의 눈물없이 이야기 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의 성자적 사랑의 실천은 미국선교사간에 사랑의 선풍을 일으키어 각처에 나요양원의 설립을 보게 되었으며 흉악한 일인까지도 거저 있을 수 없어 소록도 갱생원의 발족을 보게도 되었든 것입니다.

### 성 『포-싸잇』

성 『포-싸잇』은 지금으로부터 47, 8년전에 미국남장로파선교회에서 파유되어 목포 스테슌에 주재하였든 선교의사였습니다. 그의 극진한 인류애의 실천은 상례를 초월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광인이라고 우셨습니다. 노자의 말씀에 『상사는 도를 듯고 동행지하되 하사는 도를 들은 즉 대소지한다』고 한것처럼 도에 대한 양모지심이 있는 인사는 그를 보고 거룩한 이라 적은 예수라 쟁 하였으나 도를 몰각하고 배로 하나님을 삼고 세육만 아는 속사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비우셨든 것입니다.

### 전도의 사람 성 『포-싸잇』

성 『포-싸잇』은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그야말로 것사람과 속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성 『포-싸잇』은 중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문자 그대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기자신을 산 제물로 삼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도 많이 굶고 잠도 잘자지 못하고 옷

도 잘 입지 못하였습니다. 독신인 그는 어떤 동료 선교사의 집에 기숙하고 있었는데 그 집은 규모가 엄격해서 식사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다니다가 식사시간이 지내면 길거리에서 파는 빵을 사서 요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굶어버리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는 낡은 옷에 고무신발을 신고 도라다니면서 전도하다가는 잘대 없어 방황하는 걸인을 만나면 다리고 와서 자기침실에서 재워보내곤 하였습니다. 그의 전도열이 얼마나 대단하였든가를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은 그가 서울에 올라갔었을 때 어느 선교사의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어대로인지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놀라고 있는데 한참 후에 돌아왔기에 어데를 갔다왔느냐고 물은즉 전도하고 왔노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선교사가 말하기를 새날에 전도하여도 좋지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저녁때 돌아가 본즉 담장 문간에 사람들이 많이 서있는 것을 보고도 미처 전도를 하지 못하고 왔는데 혹 그 사람들 중에 오늘밤에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기에 나갔었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인선교사는 聖「포-싸잇」 성스러운 정령에 크게 감탄하였든 것입니다.

### 자비의 사람 聖「포-싸잇」

나는 그의 성격을 성 푸랜시스에 접근한다고 봅니다. 그의 자비심은 동물에까지 미쳤든 것입니다. 아이들이 참새를 잡아서 발을 매가지고 있을 때 그는 돈을 주고 새를 바꾸어서 날려보내주었으며 닭도 발을 매여 들고 오는 것을 보면 사서 끌러 놓았주었던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생선도 산채로 팔러다니는 것을 보면 곧 사서 물에다 넣어주었습니다. 한번은 백정이 개를 목을 메서 끌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는 안 갈려고 발을 버티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포-싸잇은 쫓

아가서 끌고 가는 사람에게 놓아주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굳지 말을 듣지 않고 끌고만 갔습니다. 포-싸잇은 백정의 손을 정답게 가만히 잡으면서 형용을 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님, 형님의 목을 이렇게 매고 누가 끌고가면 좋겠소? 어서 놔주시요!” 백정은 그의 성스러운 모습에 감동하여 고만 개를 끌러주었습니다. 그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이런 류의 에피소드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 나병자의 아버지

그 중에서도 나병자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감격의 눈물 없이는 회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40년전 광주선교사주택구역에서 썰 「포-싸잇」 한 나환자 사이에 사랑과 눈물이 서로 얼켜서 전개되는 거룩하고 엄숙한 장면을 필자는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포-싸잇은 동료의사 윌슨씨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도중 한 나병환자가 지팡이를 들고 같은 길을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다가 언덕에 너머져 쓰러진 것을 보고 그는 저저 달려들어서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우연히 그 길을 걷다가 이 광경을 보게되었습니다. 한편 마음을 쓸렸으나 마음에 상처가 컸었습니다. 바로 이 때 그는 나를 향하여 “환자의 지팡이를 잡아 주십시오”하고 요청하였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벼락이나 맞인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병환자는 가장 추하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 환자는 특히 중환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필자를 고압으로 억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포-싸잇의 사랑의 빛은 너무도 강렬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더워지고 손은 진땀에 젖었습니다. 나는 감격 그대로 지팡이를 잡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의 성 포-싸잇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어떠한 집회에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볼 수 없는 거룩한 광경이었습니다. 필

자는 이때부터 부흥을 받아 일생을 결정지도록 된 것입니다.

성 포-싸잇은 이 환자를 데리고 그곳을 지나 그 근처에 있는 토막을 임시응급수용소로 준비하고 즉시 치료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타선교사들이나 신자들은 진정한 부흥사나 혹은 예수님의 사자가 온 것처럼 영접을 하였습니다. 이 때로부터 각처에서 이 중환자에 대한 관심이 두터워져 색색각각의로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침구를 가져다 주는 사람, 의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혹은 음식물 등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날로날로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가장 천히 여기고 학대하던 이 중환자는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이 환자를 대접함으로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였다는 감명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 포-싸잇은 이 일을 타인에게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손수 치료하여 누구나 불치의 병이라는 이름으로 저버리던 이 끔찍한 일을 계속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견지하고 분투 노력하였을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안락의자에 편히 쉬어 단꿈을 꿀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자기를 일단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불타는 뜨거운 심정으로 이 환자를 대하여 왔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사랑으로써 모든 것을 녹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성 포-싸잇의 열렬한 사랑의 빛은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포-싸잇은 그 당시 광주 목포 사이를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물론 이때서 그는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배를 타고 와서 영산포에서 광주까지도 보로나 혹은 말을 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영산포에서 광주로 말을 타고 오는 길에 길가에 심히 중한 나병환자가 쓰러져 누어있

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와서 이 환자를 자기 대신 말 우에 태우고 그는 뚜벅뚜벅 도보로 2십리나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로써 듣지 않으면 곧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에 감격된 이 나병환자의 눈물겨운 고백을 들을 때 한층 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사를 초월하여 영생을 사는 그의 산 신앙의 聖模를 엿보게 합니다.

이 환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성 포-싸잇 선생님은 나의 부모님보다 더 친절하시고 고마우신 사람입니다. 누구 한사람도 돌아다보지도 않는 나를 선생님은 끼어 안고 몇 번이나 손과 몸을 만지면서 여행도중에 도와주셨습니다. 이때 나는 꿈에서 꿈꾸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나 내려와서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정말 이 선생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포-싸잇은 이 환자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사회에서 배척받는 최하급의 인간을 가장 높은 신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최상의 행복으로 아는 이 환자는 2개월 후에 나사로가 있는 천국을 향하여 괴로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환자는 임종시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 제일 행복된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최후로 한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오! 위대한 포-싸잇! 신앙에 불타는 포-싸잇! 땅에 떨어진 한 알맹이의 밀은 수백 배나 결실 하였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사선을 걸어온 성 포-싸잇의 열매는 온 토막에 요양소에, 거리에 열렸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짓밟힘을 받는 나병환자들이 거리를 방황할 때 그리고 토막에서 밤을 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붉어진 얼굴로 다시 한 번 선구자 성 포-싸잇을 쳐다 보게됩니다.

성 포-싸잇은 영원히 우리 나라에 빛나는 새벽 별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필자는 여기에 성 포-싸잇의 거룩한 행적을 소개하면서 나날이 부러가는 불운에 처한 나병환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채 붓을 놓습니다.

[광주 YMCA 회보. 『빛의 아들』. 1950년 1월호에 실린 글]

## 부록 9.

### 구라(救癩)사업 50년사 개요

(1960년 3월 17일~20일까지 호남신문에 연재)

최 흥 중

한국 나(癩)협회회장이며 나(癩)학계의 권위자인 유준 박사가 한국 구라(救癩)사업 유래와 집단수용구호 및 치라(治癩) 등의 유서(由緒)를 수집하여 근래 나역사적 소본(癩歷史的小本)을 작성코자 함인지? 지금까지 50년간의 나 환자구호수용개요를 기술하여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데로, 경력(經歷)한데로 기록해 보는 것이 여하(如何)합니다.

필자는 지금 나형제들의 마을, 호혜원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여친근(家旅親近)들의 만류함을 거부하고 이곳에 와서 기유(寄留)하고 있음은 마지막 여생을 그들 나환형제와 더불어 동거하고 또한 그들의 거주하는 땅에 묻히고 싶어서입니다.

예감이 有하여 언제 불러 가실지도 몰라 이 유언까지도 써놓았던 것과 인륜(人倫)이며 기독교적 사회윤리 동포주의로써 본다면 癩형제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소가정(小家庭)을 제한(界限)하여 놓고 감방생활 같은 환경 속에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이해를 못 하나 나로서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헌신적 감사한 신앙생활로 느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내가 구라(救癩)문제에 뜻을 두고 관여한 시간이 어언 50년 來나 역사를 편찬하려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술(記述)하여 보려한즉 내가 어떤 동기로 해 구라(救癩)에 관여하였으며 내가 왜 나환형제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가로 이야기 가운데서 자명하여지리라고 봅니다.

단기 4241년~서기 1908년 초하(初夏)경의 일입니다. 광주 양림동

에 있는 미국선교회에 월슨 의사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으로 말하면 나와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말과 한글을 가르쳤고 그는 나에게 의료기술을 가르쳐 주던 터라 그날도 월슨 의사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정오쯤 귀가하려 나오는 도중에 차마 볼 수 없는 극흉한 나환자를 말 위에 태우고 와서 내려놓고 그 환자의 겨드랑을 부(扶)액하고 오는 서양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보니 역시 잘 아는 선교사 포사이트 의사여서 한편 놀라면서 “포의사 오십니까?” 하고 인사한즉 “에 편안하시오” 다정스런 답례를 하며 중환자는 그 때 마침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참대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참대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포의사는 다시 날 보고 형님 저 지팡이 좀 집어 주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지만 나는 집어주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지팡이에는 고름인가 핏물인가 더러운 물이 묻어 있었고 환자를 살피본즉 흡사 썩은 송장이요 다 없어지고 두 가락 밖에 남지 않은 손가락은 그나마도 헐어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고 또 한가지 까닭은 그때만 하여도 나환자의 수효는 희소하였으나 보이는 환자마다 이렇듯 극으로 흉스러운 나환자에 대한 증오감이 대단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뜨거운 감동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땅에 떨어진 그 지팡이를 주어서 환자에게 쥐여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집사직으로 있으면서 제법 믿는다고 하던 나였었는데 사랑이라는 진미를 못 깨달고 포의사의 그와 같은 애적(愛的)행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내 동포 중에서 생겨난 환자를 같은 동포인 내가 꺼려하고 멀리 천만리 이역에서 온 외국인이 오히려 따뜻한 손길을 펴주고 있으니 예수님의 박애정신은 고상하고 동포애조차 결여한 인간으로서 무슨 신앙이나 자책이 나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포의사는 목포에 체재하고 있으면서 간혹 광주를 내왕하고 있는데

그때로 광주까지 올 업무가 있어 영산포까지 ‘빠리대’로 와서 광주에서 마주 보낸 말을 타고 남평을 경유 금당산까지 오는 도중 길가에 기진하여 있는 나환자를 발견하고 아무래도 버려두고 지나올 수 없어 구조할 양심으로 말에 내려서 그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마부가 되어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사이트 의사는 다리고 온 그 나환자를 선교사님댁 건축용 벽돌을 굽기 위하여 만든 기와막이 근처에 있었는데 임시로 그 안에다 두고 의류와 침구 등과 식료품을 제공하여 보호 치료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워낙 중태인지라 1, 2삭후에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 등을 보고 윌슨 의사도 크게 감동되어 근무하던 병원 뒤에 다 집 3칸을 지어 나환자 7명을 수용 치료하여 주게 되었으며 익년 1909년에는 광주근교 봉선리에 나병원을 설립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구라사업으로 진전 확장되어 간 것 같습니다. 이 무렵에 있던 부산에서나 대구에서의 외국선교사의 구호사업도 유하였으나 점차 포사이트 의사의 행동에서 자극 감동되어 열을 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윌슨 박사의 광주나병원설립 이후 6.7만인 1915년(단기 4249년)에 비로소 조선총독부에서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구라사업의 시조격인 포사이트 의사는 기후 병을 얻어 본국에 돌아간 얼마 후 별세하셨는데 비록 나하고는 동년배이긴 하였지만 그 거룩된 생활에 많은 감화를 입었고 오늘날까지 그를 추모하는 염상(念想)이 두텁습니다.

그 성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이야기하여 보렵니다. 그 빈민들의 진정한 친구로서 밤중에도 빈민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급여하였으며 집 없이 거리에 헤메이고 있는 거지를 만나면 근무하는 병원에 데리고 의식까지 걱정

하여 주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보니 동료선교사들이 못마땅히 여기고 미션회 때 가면 병원의 경비를 낭비한다고 질책하면 구석지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빠뜨리고 말없이 듣고만 있다는 것이다. 길에서 목매어 끌려가는 개만 보면 값을 치르고 놓아주며 닭이나 산물고기 등도 값을 주고 놓아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포사람들은 그를 작은 예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병으로 귀국한 그는 임종시에 윌슨 박사에게 마지막 보내는 편지에다가도 구라사업에 대한 염려와 권면만을 쓰고 자기 자신에 관한 말은 한 구절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니 그 숭고한 정신에 윌슨 박사도 다시 한번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구라사업에 나선 윌슨 박사는 국내에 있는 다른 선교사 선교회들에게도 협조를 호소하는 한편 멀리 본국에다가도 사진을 찍어 보내고 언론기관을 통하여 한국 구라문제를 호소하며 의견금을 얻어 나병원을 확충시키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는데 내가 1914년경 신학을 공부하러 광주를 떠날 때까지 그의 사업을 도왔으니 봉선리에다 광주 나병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그곳에 내 소유 토지임야산면 약 1,000평이 있어 그것을 기부함으로써 인근토지를 더 매입하여 기지로 확장한 것인데 기시(其時)는 산간벽지와 같았는데 기후 수용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 부민들이 맹렬한 철거운동을 개시하여 설립 후 15년 만에 지금의 여수 애양원 자리로 이동하여 갔으니 오늘날 국내유수의 대요양소로 성장하여 나온 과정에 대하여 애양원 연혁사에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알며 여수 애양원과 부산 상애원과 대구 애락원과 소록도 갱생원의 연혁사를 종합해 보면 나병원 설립시초부터 해방된 때까지의 우리 나라 진료서 발전사가 체계 지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1914년부터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마치고 나는 장로교총회 파송을 받아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선

교사로 전도 파견되었으나 기시에 소련혁명 증반기에 제(際)하여 일본 군대가 철퇴 중이요 빨치산이 내려오는 도중에 있어 소란한 때라 위험한 고비를 몇 차례나 겪고 해삼위까지 빨치산이 점령함을 목격하였으며 그후 공산당이 들어와서 빨치산을 집어치웠다.

종교탄압을 시작 중 종교박해에 걸려 소황령(蘇皇嶺) 케페우에 수감되어 40여 일 후에 추방되어 귀국하였으며 광주에 돌아와서는 노동공제회전남지부를 조직하고 신간회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탓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 1925년으로부터 1931년에 이르는 사이의 일로 기억됩니다.

구라문제(救癩問題)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오던 중 아무래도 민족의 저명한 지도인사를 총망라한 강력한 구라(救癩)조직체를 갖아야겠다는 것을 통념하고 1925년경인가 서울로 올라가서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라는 것을 발기하고 장정을 정하여 조직화에 이르렀으니 그 장정 제1장에 본회는 조선 내의 나환자구제와 근절책의 수립 및 기실현을 목적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발기문은 그 당시 조선일보사장 안재홍씨가 저작하였고 발기 찬동인사로는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김병로(金炳魯), 이인(李仁), 김성수(金性洙), 송진우(宋鎭宇), 안재홍(安在洪), 유억겸(兪億兼), 조만식(曹晩植), 윤치호(尹致昊), 신흥우(申興雨), 현동완(玄東完), 김을한(金乙漢), 서정희(徐廷喜), 명제세(明濟世), 원익상(元익상), 신공숙(申公淑), 유광열(柳光烈), 유각경, 국기열, 홍병선, 이선근(李宣根), 오궁선(吳兢善) 제씨였으며(자세한 명단은 유박사께 유함) YMCA 총무였던 현동완씨와 신문사기자 이선근, 국기열, 김을한 3씨가 각 방면에서의 선전적 연락 등 많이 수고를 하여 주셨던 것이 지금까지도 선합니다. 소록도 자혜의원에서는 기시 약 100명 정도의 환자수용을 모다 더 확장

하여 더 많은 환자를 입원 치료케 하도록 당국에 건의하였고 나는 또 회가 조직된 그 동안에 서울을 중심으로 유랑 배회하는 나환자 30여 명을 모아 여수 애양원에 입원시키려고 월슨 단장에게 연결하여 승낙까지 얻었는데 서울에서 여수까지 데리고 갈 경비 약 삼천환이 없어 매우 난처하다가 할 수 없이 기부금 허가를 받아 당시 총독부 출입 기자이던 서범석씨를 앞세우고 먼저 경무국장 지전(池田)이란 사람과 보안과장 서귀규삼(西龜奎三)이란 사람을 면회하고 설명하여 금일봉썩을 얻었습니다. 서귀(西龜)는 나중 일제말기에 갱생원장에 취임하였던 자입니다. 금융단을 찾아다녀 가까스로 소요경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차 한 칸을 특허 전용하여 광주까지 데리고 왔더니 경찰부장이란 자가 노발대발하여 타지방환자를 다려왔다고 나를 호출하고 사전허가도 없이 나병자들 대량으로 끌고 와서 어찌니 저찌니 호통을 치며 처벌운운하기에 본부 경찰국장의 승인을 얻어 한 일이라고 대꾸(對句)하였더니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협조로 서울에서 데리고 온 30여 명이 나환 형제들을 다시 여수 애양원까지 무사히 이송입(移送入)하였습니다.

1945년 즉 단기 4278년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자 나는 전라남도건국준비위원장을 추재(推載)되고 군정시에는 고문회장으로 선거되어 있었으나 역시 관심은 구라문제(救癩問題) 있었으므로 조선나환자근절위원회를 조직하고 진공상태에 있는 여수 애양원에 임시단장을 세워 유지 운영케 하고 갱생원에서 야기된 살상사건을 수습하는 데에 협력하였으며 군정시 소록도 갱생원이나 여수 애양원에 물자 및 경비를 주선하여 주었으며 우리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다시 전남 나예방협회를 발기, 조직하여 당국으로 하여 그 구라문제(救癩問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방 후에 생겨난 기꺼운 현상은 미영국에서의 새로운 특효약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나병치료에 일대낭보를 던져주었다. 종래에 선교사단의 구라사업과 당국에만 의뢰하고 피동적인 치료생활을 하던 나환자들이 당국의 구라시책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전국적인 자율기관으로 성좌회, 공제회, 상조회 등을 조직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집단소를 세워 정부에 보조를 바란 것 같았으며 오늘날 전국에 3,000여 개소의 집단요양소가 이루어졌음도 그들 자신의 노력에 힘입음 바 컸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직접 관계하고 있는 호혜원도 그러한 예의 하나의 좋은 본보기인가 합니다. 광주에서 약 20여 십 리 격에 있는 산간무인지대에다 처음 경쾌(輕快)환자들이 합열(合熱)하여 정착하더니 그들 지도자들이 자주 나를 찾아와 육성의 길을 문의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열성에 나도 감동되어 현지를 답사하여 보았더니 이상촌으로서의 입지적 조건도 매우 좋은바 있어 당국의 인가와 보조 있기를 힘써주는 바 있었으며 지도층 환자가 서울 가서 정준 의원, 함태영 목사, 김재준 목사, 조향록, 진문원(陣文原) 제씨를 이사로 추대(推戴)하고 정준 의원을 초대단장으로 추대하여 재단법인 호혜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해방직후 내가 각 방면에 보내드렸던 조선나병환자근절회 취지문을 여기 다시 재록하고 회상을 끝맺을까 합니다.

#### 조선나환자근절회 취지문 생략

이상 나환근절회 취지문은 15년 전 해방직후의 일인데 벌써 묵은 문서이요 그 동안 눈부신 과학발전은 나병문제에 대하여 거진 해결될 것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민중의 상식여하에 귀결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40년 전에 비하면 일본의 나환자

가 우리 나라보다 더 많다고 발표되었는데 일본은 지금에 일만 명 이내로 축소되었고 한국은 10만 명이란 숫자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것은 상필(想必) 해방 이후로 일반민중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혼돈하여 탈선행동에 기인된 착오된 결과인가 합니다.

개인 개인의 의무와 책임과 자유를 점유한 자격적 소유자임은 물론이온데 삼대행사(三大行事)를 균형치 못하고 의무와 책임을 불허하고 자유를 남용하여 악용(惡用)에 편리할 대로 난폭하고 일반사회인들도 멸시 증오할 대로 증오하여 소위 신사로 자처하는 악신사(惡紳士) 중에서 나환자를 해도중(海島中)에다 설방(設放)시켜야 한다는 짐승 이상의 폭악무도한 의관금수(衣冠禽獸)적 신사인지 말쟁이인지가 수두룩 벽적하니 일반민중의 상식문제가 그 하나라고, 그 다음은 도덕적 문제 즉 인류애의 발로입니다. 인간들이 윤리적 직선을 짓밟아버리고 과학무력적 횡선(科學武力的橫線)으로 접선(接線)하고 있음으로 우주족행(宇宙族行)이니 로케트이니 등등으로 광분고조(狂奔高調)하며 놀라운 발전으로 자만자귀(自慢自貴)하고 경쟁열에 도취되어 인사불성모임으로 세계열국이 모두 과학효모(科學酵母)에 전염되고 도취하여 마비상태에 빠져감으로 인류애의 정의감과 도덕적 윤리감을 전연 매몰한 것같이 보이나, 잠시 과도기적 필름 연극이요 필경은 인도주의적 인류애가 극복할 것은 망원경적 안목으로 보면 뻔합니다. 나문제는 도덕적 인류애의 행동으로 낙착된 것입니다. 하로 바빠 우리는 동포애적 사회윤리의 발동이며 위정자는 현미경적 근시보다 망원경적 원시안으로 대한민국 나병 근절책을 좀 더 성의 있게 강력 추진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이면 해결이 가능할 듯도 한데 만만(晩晩)의 만만격(晩漫格)으로 현미경을 드러다 보고 추진한다면 10년 병에 3년 썩을 못 구하여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보건당국은 사계(斯界) 권위자들과 민간유지와 합작하여 나병근절에 매진(邁進)하기를 나(癩) 50년 말미에 첨부하는 바입니다.

## 부록 10.

### 의재의 장례식 조사

#### 오방선생을 애도함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五放葬儀委員長)

- 전남일보 1966년 5월 18일 기사

허이! 인생이 무상하되다 그려. 어느새 오방 선생과 유명을 달리하다니 실로 꿈만 같소이다. 민족과 국가의 장래가 암담할 때나 사회정의와 인류 도덕이 땅에 떨어졌을 때나 항상 선생이 계시기에 마음 든든하옵더니 이젠 마음을 의지할 사람도 없게 되었소이다 그려.

선생의 그 애국애족하던 일편단심은 어디에 두고 가셨습니까. 하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구제를 하시던 그 박애 정신은 어디에 심어두고 가셨습니까. 구구절절 뼈에 사무치시던 선생의 음성을 이젠 들을 길이 없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선생은 일평생 「부운부귀비유외와각공명기염정(浮雲富貴非留意蝸角功名豈染情)」으로 부귀(富貴)를 뜯구름같이 여겼고 공명에 행여 더럽힐세라 일절불간(一切不顧)하시던 그 고매한 인격도 이젠 영영 대할 길 없게 되었으니 항해하는 사공이 등대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로 민족의 등불이 꺼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뿐입니다.

선생의 영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으니 파란 많은 민족애난과 함께 선생의 과거가 눈앞에 선해집니다.

3·1독립운동 당시에는 전남 총책임자로 활동하시다가 짧지 않은 영어(囹圄) 생활을 겪었고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뒤에는 독립운동의 큰 뜻을 품으시고 서백리아선교를 자원하여 노령(露嶺)으로 건너가 항일투

쟁과 선교사업을 하시다가 로서아 관헌에게 피체(被逮)되어 거기에서 옥고를 치르셨으니 그 당시 어느 독립운동자보다도 기(基)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929년 귀국 후는 노동공제회장, 신간회장, 나환자구제회장, 기청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초지일관 독립투쟁에 헌신하시다가 1945년의 민족해방을 맞이하셨으며 해방 후에도 자주독립을 위하여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위원장, 미군정교문회장, 기청명예회장, 호남신문사고문, 사회사업협회위원장, 호혜원장, 무등원장, 한국나협회고문 등의 공적에 취임하셨고 1962년 8월 15일 광복기념일에는 명예의 국민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어찌 이것으로써 선생이 우리 민족과 국가에 끼친 공을 갚는다 하오리 까만 선생께서 흔연(欣然)히 받으신 것은 영화나 지위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아직도 캄캄한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선생을 잃은 우리는 마치 목자를 잃은 양 떼와 같이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유명을 달리하였사오나 항상 우리를 잊지 마시고 인도하여 이 나라 이 겨레에게 광명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후배동지들이 선생의 과거를 추모하면서 생전의 은혜에 보답코자 마지막 가신 길에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오방 선생님! 「십년역사(十年亦死), 백년역사(百年亦死), 인성역사(仁聖亦死), 흥우역사(凶愚亦死)」라 합니다. 인생 누구나 한번은 가고 만나봅니다. 먼저 가신 선생을 슬퍼하며 인생을 생각하니 허무한 것뿐입니다. 명부(冥府)길에는 여사(旅舍)도 없다는데 부디 평안히 가시옵기를 울며불며 비읍니다.

## 찾아보기

### [ ㄱ ]

- 강석봉(姜錫奉) 46, 86, 87  
 강순명(姜順明) 55, 159, 200  
 건국준비위원회 168, 169, 219, 223  
 ‘경건주의’와 ‘사회복음주의’ 145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46, 47  
 경양방죽매립반대운동 155  
 계유구락부(癸酉俱樂部) 127  
 고든 어비슨(高敦 魚丕信. Gordon W. Avison) 136  
 광주 YMCA 59, 71, 88, 135, 136, 138, 140, 141  
 광주 YMCA 재건축회 172  
 광주 YWCA 30, 60  
 광주나(癩)병원 222, 263, 264  
 광주소작인회연합회 70  
 광주시 사회장(社會葬) 211  
 광주여자야학 56  
 광주의전(光州醫專)설립 167  
 광주청년회 52, 60, 63  
 광주학생운동 87  
 구여도(九如圖) 164, 165  
 국기열(鞠琦烈) 118, 168, 244, 265  
 국채보상운동 15, 16  
 궁민(窮民)구제연구회 122  
 금정교회 55, 71, 73, 79, 172, 222  
 기독교 시민사회운동 30  
 김교신 146, 148, 149, 166  
 김구(金九) 179, 181, 183, 211, 219  
 김규식(金奎植) 40  
 김마리아(金瑪利亞) 40, 42, 48  
 김범수(金範洙) 43, 46  
 김성수 101, 118, 244, 265  
 김용환 118, 123  
 김윤수(金允洙) 12, 13, 14, 25  
 김천매 86, 146  
 김철(金哲) 42, 43, 44, 46, 85, 118  
 김필례(金弼禮) 28  
 김필수(金弼秀) 목사 42, 43  
 김필순(金弼淳) 41  
 김함라(金涵羅) 40, 41  
 김후옥 138, 139, 140

### [ ㄴ ]

- 나환자공제회에서 99  
 나환자연합대회 223  
 남궁혁(南宮赫) 26, 27, 29, 41  
 남문밖교회 55, 72  
 농업실습학교 135, 136, 141, 147, 159, 176, 200, 218, 223

**[ ㄷ ]**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 33  
 대한나협회 122  
 대한신민회(大韓新民會) 51  
 도가(道歌) 160  
 독신전도단(獨身傳道團) 200  
 동광원(東光院) 198, 199, 200,  
 202, 203  
 동부교회 172, 189

**[ ㄹ ]**

로버트 윌슨  
 (Robert M. Wilson, 우월선) 17, 37

**[ ㄴ ]**

마르크스의 자본론 183  
 만민공동회 29  
 모슬포교회 87, 89, 90  
 무등원(無等園) 196, 202, 204  
 문석희 177, 178  
 문안식 140

**[ ㄷ ]**

박권상(朴權相) 189  
 박화성(朴花城) 56, 58  
 백십자여명회(白十字黎明會) 197  
 백영흠 146, 171, 173, 189, 199  
 베일리 부부(Mr. & Mrs. Bailey) 22  
 복음당(福音堂) 203  
 북간도와 연해주 지역 31, 33

북문밖교회 38, 53, 54, 55  
 북문안교회 13, 21, 24, 25, 27, 29  
 블라디보스토크 학생음악단 63

**[ ㄸ ]**

사랑의 응통성 161  
 사망통지서 144, 146, 147, 149, 154  
 사회복음운동 27  
 삼시 협정(三矢協定 미쓰야 협정)  
 81, 86  
 삼애학원(三愛學院) 176, 177, 178  
 서병익(徐丙翼) 16  
 서병호(徐丙浩) 40  
 서서평(Elisabeth Johanna Shepping)  
 49, 52, 61, 72  
 서정희(徐廷禧) 244, 265  
 선교보고회 70  
 설교 방해 폭행 사건 91  
 『성서조선』 144, 166  
 성진회(醒進會) 86, 87  
 소년 척후대 28, 138, 140  
 소록도 갱생원 264, 266  
 소록도 자혜의원 105, 111, 265  
 소록도병원 191, 192, 193  
 손창식 59, 167  
 송등원(松燈園) 54, 184, 196, 200  
 송진우 101, 118, 183, 244, 265  
 송일학교 학생 YMCA 29, 30, 49  
 시민사회운동 61, 200, 216  
 시베리아 선교사역 65, 81

시베리아의 한인(韓人)동포사회 33  
 신간회(新幹會) 85, 87, 89, 99, 101  
 신림기도처 159  
 신사참배 144, 147, 152, 154, 159,  
 168, 172, 196  
 신사참배로 219  
 신정식(申汀植) 184, 191, 192  
 신행일치(信行一致) 153, 158, 215  
 신흥우 144, 145, 147, 166  
 신흥우(申興雨) 28, 265

[ 오 ]

안재홍 85, 101, 103, 118, 244, 265  
 안창호(安昌浩) 41, 131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133  
 에드워드 헬릿 카(E. H. Carr) 195  
 여수 애양원 75, 79, 80, 98, 119,  
 122, 170, 186, 188,  
 211, 222  
 여수군 울촌면 신흥리 조선 나환자 공제회  
 99  
 여운형(呂運亨) 40, 130, 183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133  
 오방 최홍종 기념관 211  
 오방(五放)의 뜻 216  
 오방기념사업회 194  
 오방정(五放亭) 160, 176, 179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25  
 윌리 포사이드 (Wiley H. Forsythe, 보위럼)  
 12  
 유언장 208, 209, 210, 217

유영모(柳永模) 173, 177, 203, 252  
 유진 벨(Eugene Bell, 배유지) 12, 72  
 유치원 개설 56  
 윤치호 108, 114, 118, 244, 265  
 의재(義齋) 허백련 159  
 이기풍(李基豊) 목사 93  
 이상재(李商在) 28  
 이승만(李承晩) 27  
 이운방(李運芳) 91, 92  
 이은상(李殷相) 118, 177, 179  
 이현필(李鉉弼) 198, 199, 202, 203  
 임락경 204, 207, 209

[ ㅈ ]

적극신앙단(積極信仰團) 사건 144  
 전국 학생 춘령회 30  
 전남 나예방협회 122, 266  
 전남 여성 성경학교 52, 53  
 전남광주대동의상회  
 (全南光州大同義價會) 16  
 전남도지사 고문회 168, 170  
 정상훈(鄭祥勳) 182  
 정인세 139, 146, 172, 199  
 정인세(鄭寅世) 123, 136, 199  
 정준(鄭濬) 184, 267  
 제일교회 36, 42, 55, 74, 75, 172,  
 190, 214, 222  
 제주노회의 창립 92  
 제중병원 34, 35, 54, 184, 196,  
 198, 200, 201, 218

조만식 101, 118, 244, 265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 기록 33  
 조선나병근절책연구회 102, 104,  
 109, 110, 117, 244, 265  
 조선나병예방협회 103  
 조선나환자구제연구회 101, 108,  
 109, 112, 115, 117  
 조선노동공제회 광주 지회 50  
 중앙교회 60, 73, 131, 154,  
 179, 204, 214, 222

[ ㄸ ]

최규엽(崔圭葉) 189  
 최득은(崔得恩) 136, 179, 189, 210  
 최병준 30, 46, 50  
 최영관 204  
 최영균 46, 61, 71  
 최영욱(崔泳旭) 48, 55, 123, 126,  
 130, 137, 155  
 최원순 125, 127, 128, 130, 131,  
 158, 160, 164  
 최일담 187, 188, 189  
 최한영(崔漢泳) 43, 44, 46, 85

[ ㅋ ]

클레멘트 오웬  
 (Clement C. Owen, 오기원) 12

[ ㅍ ]

평신도의 각성을促함 150  
 평양신학교 184, 222, 264, 269

[ ㅎ ]

한국사회사업협회 184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83  
 한용운 101, 244  
 한인수 24, 74, 100  
 함석헌(咸錫憲) 173, 178, 203,  
 204, 205  
 허버트 카딩턴  
 (Herbert A. Codington Jr.) 184, 196  
 현준호(玄俊鎬) 59, 63, 101, 126,  
 131, 138, 167, 244  
 호혜원 교회 189, 190  
 호혜원(互惠園) 211, 261, 267, 270  
 화광동진(和光同塵) 20, 66, 86, 92,  
 122, 147, 180  
 확장주일학교 34, 36, 37, 38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28  
 흥학관(興學館) 60, 71

[ 3 ]

3·1운동 28, 30, 34, 40, 42, 47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24

## 五放 최흥종 평전

인쇄 2024년 11월 2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홍영기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최 협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9-11-90608-87-9 (94910)

979-11-90608-28-2 (세트)

개화기 호남지역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五放 최흥종 선생에 대한 연구서이다. 최흥종 선생은 광주 3·1운동의 중심인물이었고 광주 YMCA와 노동공제회지부를 설립하여 청년운동을 이끌었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20세기 초 나환자구제사업과 窮民 구제사업을 전개해 시대를 앞서갔을 뿐 아니라 아동과 여성 교육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종교적으로는 사회복지주의적 활동을 통해 기독교의 현실참여를 이끌었다.



값 20,000원

ISBN 979-11-90608-87-9  
ISBN 979-11-90608-28-2 (세트)